대한치과의사학회지

大韓歯科医史学会誌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1986

제7권 제1호 · 통권 7호 · 1960년 10월 7일 창립

대 한 치 과 의 사 학 회

대한치과의사학회지

大韓歯科医史学会誌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1986

제7권 제1호 · 통권7호 · 1960년 10월 7일 창립

대 한 치 과 의 사 학 회

大韓齒科医史學會誌

第7卷 第1號 通卷7號

1986年 12月 發行

目 次

原 著

東洋齒科医學의 特徵考 …… 李德一 (13)
병자 한일수호 조약 후의 일본인의 의료 활동 …… 金正均·李漢水 (16)
우리나라 最近世期의 医書 …… 金官興 (24)
콜럼버스 이전의 아메리카 치과의술 …… 金圭炆 (26)
大韓帝國時代의 잇방(齒房·牙房)의 硏究 …… 金知浩·許正圭·李漢水 (29)
朝鮮 齒医學의 西洋式 變化過程에 對한 일착 …… 任慶彬 (32)
우리나라 치과출판에 관한 연구 …… 李丙台 (45)
近代朝鮮에서 齒科治療에 使用한 本草 …… 朴勝五 (85)
齒科界 團體活動 (4) …… 辛在義 (87)
속담 중 치과영역에 관련된 표현의 고찰 …… 裵珖植 (90)
朝鮮時代 後期 齒科医學史 …… 李漢水 (98)

其 他

卷頭言 …… 李東燮·李德一·金正均·李丙台 (12)
表紙의 說明 …… 李漢水 (144)
編輯 後記 …… 朴勝五 (144)
任員 名單 …… (144)
表紙의 記事 訂正 …… (144)

大韓齒科医史學會 發行

□ 卷頭言

齒科學界全体의 聲援을

終身名譽會長 李 東 燮

의사학 분야의 연구자가 다수 배출고 있음을 볼 때에, 격세지감 (隔世之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한국 치과계도 이러한 사실로써 미루어 그 앞날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을 믿어도 되겠다. 바라건데 지금까지는 다소 미흡된 감이 없지 않던 이 부문의 연구를 위해서 치협으로서도 충분한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 치과의사학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것이며, 우리 모두가 그 연구와 발달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치과 교육에 의사학 부문의 그것이 경시되는 일이란 어느 시대에나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人事와 所感의 一端

終身名譽會長 李 德 一

본 학회의 활동을 밀어주시는 선후배 여러분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본 학회지도 내용에 있어서 충실한 점을 마음 든든히 여깁니다. 본인은 八一五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치협의 연차(年次) 학술대회에서 의사학 분야의 특강이 단 한번도 없었던 점을 상기할 때엔, 우선 본 학회로서도 그 책임의 일단을 통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그 실현을 서둘러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더욱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學會誌를 發刊하며

會 長 金 正 均

학회지 제 7권을 간행하게 된것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지 않은 회원 여러분의 꾸준한 연구의 결실이 해마다 많아짐은 치과의사학회의 앞날을 밝게 하여 주는 징후입니다.

치과의사학 연구에 힘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겠으나 전통 치과의학의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의 부족과 또 자료를 발굴하는데 꼭 필요한 한문지식의 부족을 들 수 있겠읍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고전 번역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원하는 자료를 쉽게 구하는 일이겠읍니다.

그리고 서양의약이 이나라에 상륙된지 1세기가 됩니다. 현재 벌써 기록들이 희미해져가는 이때 본 학회에서 나마 꾸준히 발굴 정리가 되는 것은 경하해 마지 않읍니다.

앞으로의 치과의학 발전을 위하여 치과의사학 연구가 더욱 활발하여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읍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연구 성과를 기대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이런일은 칭찬해야

副 會 長 李 丙 台

누구나가 자기가 속해있는 사회나 국가의 역사를 전혀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더우기 씨족사회의 사상이 굳건한 우리나라에서는 족보제작이 그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을 터이다.

그런데 오늘에 있어서, 직전회장 이한수 박사의 연속적인 韓國齒科史 탈구는 가히 손뼉을 쳐서 환성을 올리며 기뻐해하고 한편으로는 그 어려운 작업에는 버릇없는 말소리가 될는지 조심스러우나 위로는 물론 격려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다는 일이 직접 임상적이지 못하고 진료와는 거리가 먼 것이 이 분야이지만, 같은 정도의 치과시술을 할 때, 치과학의 역사성과 시대성을 남보다 더 터득하였다거나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은 금상첨화가 될 수 있다.

물론 학문에는 끝도 한도 없다.

이제 또 1년간 회원들의 원고가 책자로 나왔다. 또 내년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東洋齒科醫學의 特徵考

李 德 一*

동양치과의학이라 하면 물론 여기에는 고대 인도의 치과의학과 기타 아세아 각 지역의 그것도 포함시켜야 될 것이 당연하나, 관례상으로는 주로 중국 대륙의 그것을 중심으로 삼는 것이다. 해서 저자 역시 본고(本稿)에서는 관례적인 그것에 따라 논술코자 한다. 그리고 동양치과의학이라 하는 그 연대적(年代的) 대상도 대략 18세기까지의 중국의 정통적 그것을 뜻하기로 한다.

주지된 바와 같이, 동양치과의학은 서양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그 내용이나 성격에 있어서 매우 복잡 다기(多岐)한 것이기에, 이것을 간단히 다루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뿐아니라 논자의 입장이나 고찰하는 각도에 따라서도 서로가 다소는 다른 견해 내지는 주장을 피력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저자는 설사 본 논제(論題)가 심히 다루기 힘든 방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치과의사학 연구자로서는 회피할 수 없는 큰 과제의 하나이기도 하기에 감히 이에 대한 우견을 극히 총괄적으로나마 약술코자 한다.

1. 동양치과의학은 그 의설(醫說)이나 그 진료의 기본 태도가 매우 자연 철학적(自然哲學的)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천인합일설(天人合一說)을 기저(基底)로 삼은 음양설(陰陽說)과 오행설(五行說)을 기간(基幹)으로 하여, 비록 외적으로는 각 시대에 따라 사회적 정치적 혹은 종교적인 영향에 의한 다소의 변천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의 기격(基格)에는 큰 변천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곧 동양치과의학의 특징이라 지적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곧 동양의 문화 그 전체가 숭고적(崇古的) 성격을 농후하게 내포한 점과도 동일한 맥락을 이루는 것이라 보아야 할 점이다. 하여 전설적 또는 상고(上古)의 성현의 의설(醫說)과 진료 내용은 성전적(聖典的)인 존재로서 꾸준히 계승되어 온 것이다.

하지만 또 그 의설이란 극히 관념적(觀念的) 성격이 농후한 것이기에, 이것이 실제 임상에 있어서는 거의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 점도 역시 지적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중국인의 실용 주의적(實用主義的)인 면이 깊이 작용도 한 것이라 고찰될 때에는 흥미로운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치과의학의 발달 내지는 그 진흥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한 사실은 그 특징의 하나로서 또한 지적될 수 있다.

역대의 위정자는 의학의 진흥과 의서의 간행 및 보급을 중요한 국정(國政)의 하나로 삼았다. 해서 많은 의서들은 칙찬(勅撰)이라는 제왕의 이름으로써 간행하여 그 권위는 물론 정통적 의술의 전승을 적극 도모한 사실은 묵과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곧 치과의학이 수구적(守舊的)인 면으로 일관되어, 마침내는 그 독창적 발달을 어렵게 하며 그 발달의 정체를 초래시킨 일면을 갖게도 하였다. 아마도 이러한 면은 중국인의 종교적 사회적 배경과도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역시 많은 연구가 계속 있어야 될 점이라 생각된다.

3. 치과의술의 진료 내용이 극히 다채로운 점도 그 특징으로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동양치과의학은 그 진료에 내과적인 방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떠한 경우는 외과적인 것도 있으며, 침술에 주로 의존하는 수가 있는가 하면 구(灸)에만 의존하는 수도 있거니와, 신선가적(神仙家的)내용이 있는가 하면 극히 마법적(魔法的)인 것도 있으면서 그 모두가 함께 공존(共存)하며 그 성격이나 주장이 각기 다른 내용을 하나로 포용하고 있는 사실은 크나 큰 특징의 하나다.

이러한 점은 물론 간단히 설명되긴 어려운 점이 많으나, 아마도 대륙적인 중국인 그들의 기질 내지는 사고 태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어쩌면 중국인 그들은 생명의 진리 추구 방법론에 있어서, 현대의 서양치과의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지대한 하나의 교훈 내지는 하나의 경각을 살그미 계시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면도 추후 계속 많은 연구를 요구하는 점이라 본다.

* 本學會 終身名譽會長・서울 李德一齒科醫院

4. 치과의술이 병명(病名)에 의거한 요법이 아니라, 병증(病證)에 의거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은 그 뚜렷한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이것은 서양치과의학의 그것과 반대(反對)되는 것 같은 근원적 진료 태도의 차이점이라 고찰되어, 이러한 방법론의 차이는 곧 보다 근원적일 생명의 진리를 추구하는 종국적 목적이, 동양의 그것이나 서양의 그것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결코 그 어느 한편만이 옳다고 속단해서는 안되리라 보여진다.

동양의 치과의학도 유구한 전통을 지니면서 꾸준히 발달되어 그동안 허다한 공헌을 남기면서 오늘에 이른 사실을 상기할 때에, 서양의 그것만이 진리라 속단하는 경솔함은 참된 겸허한 자세는 아닐 것이다.

병증(病證)을 따라 진료하는 동양치과의학의 방법은, 일찌기 환자의 심신(心身)전체를 하나의 치료 대상으로 삼는 치료법 내지는 진료 방침을 갖게 하였으니, 이것은 확실히 중국 선인(先人)들의 하나의 탁견이 아닐 수 없다고 보겠다.

5. 치과의학 연구 과정에 있어서, 동양의 그것은 인체를 직접 그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서 발달되었고, 동시에 그것은 또 실질적인 치유 효과 위주로 발달되었다.

동양치과의학에는 이른바 기초의학이라 불리우는 기초적 이론을 탐구하는 학과가 별도로 없다. 다시 말해서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등등이 별도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확실히 하나의 취약성을 지니는 것이라고도 하겠으나, 동시에 그 뚜렷한 특징이라고도 하지 않을 수 없다.

6. 환자의 성별이나 체질, 또는 거주지의 풍토적 환경 등에 따라 치료 내용이 각기 상이되는 점과, 또한 의사에 따라서도 치료 방법이 서로 다른 점 역시 동양치과의학의 특징의 하나이다.

혹자는 이러한 보편성의 결여를, 동양치과의학을 비판하는 큰 논거(論據)로 세우기도 하나, 필자는 도리어 이것이야말로 현대 의학이 당면한 중요 과제의 하나라 사료한다. 어떤 병인(病因)을 단지 유물론적(唯物論的)으로 파악하여 그것을 오직 유물론적으로 다루어 나아가려는 태도의 반성은 소위 현대 과학의 허점이라는 자각도 있어 마땅할 터이다.

어떤 논자는 동양치과의학은 과학 이전(科學以前)의 과학이라 극언하는 예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도 특유한 동양적인 사유(思惟)를 이해만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음을 자인케도 될 터이리라. 생명의 진리를 탐구하여 그것을 밝히려는 의학의 앞길은, 그렇게도 단순하며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상으로 저자는 평소의 자신의 소견을 극히 총괄적으로 논술하였다. 본 논제는 너무나 방대한 성질의 것이기도 하기에 많은 피판을 받아 비로소 후일에 이르러 그 어떤 윤곽이나 정견(定見)을 얻을 수 있을까 싶다. 제현의 많은 비판을 바란다.

A characteristic of the oriental dentistry

Rhee, Duk-Il., D.D.S., Ph.D.

Generally the oriental dental science originated from China but this article has contained in traditional dental science together.

The author think that the oriental dentistry is entirely different from western dentistry and very complicated. Therefore the oriental dentistry cannot be viewed objectively and added author's private view.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oriental dentistry is very practical and naturalism.
2. The development of the oriental dentistry was promoted by supreme command actively at that time.
3. The contents of the oriental dentistry was very complex and contained very difficult theg ories.
4. The therapy of the disease didnot decided due to the name of disease but decided to the condition of a patient.
5. The western dentistry was studied through experimental animal bu the research object of the oriental dentistry is human and the oriental dentistry has not basic science.
6. The therapy is different from sex physical constitution, residence and individual dentist.

Someone say that the oriental medicine is not scientific but this point is a problem awatin solution.

병자 한일수호 조약(丙子韓日修好條約) 후의 일본인의 의료 활동

金 正 均* 李 漢 水**

서 문

저자는 1876년 병자 한일수호 조약(丙子韓日修好條約) 체결 이후로부터 1910년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일본인 의료 활동을 조사하고, 이것을 통하여 금후 이 시기의 우리나라 치과의학 발달을 연구하는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이 부문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그 충분한 자료의 수집조차 미흡한 상태이다.

본 문

1876년(高宗 13年 丙子年)에 병자 한일수호 조약(丙子韓日修好條約)이 체결된 후,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인에 의한 의료 활동이 전개되었다. 곧, 일본인들에 의해 서양의학이 직접 전래되는 새 계기가 된 것이다.

먼저 일본판(日本板) 의방류취(醫方類聚)의 수증(受贈)과, 그 밖의 일본판 한의서(漢醫書)들의 수증을 논하고, 그 다음에 일본인의 서양의술에 의한 병원 개설 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

Ⅰ. 일본판 의방류취와 일본판 한의서의 수증(受贈)

의방류취(醫方類聚)는 그 확실한 문헌적 근거는 없으나,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으로 간 것으로 구전되는데, 그 의방류취가 1876년 병자 한일수호 조약의 체결 당시, 동서(同書)의 복간자(覆刊者)인 일본의 기다무라 나오히로(喜多村直寬)의 희망으로 우리나라 정부에 그 일본판 복간 2부가 증정되었다.

의방류취는 본시 266권 264책으로, 세종(世宗) 27년인 1445년 그 편집이 일단 끝나고, 그 후 더 교정과 정리 작업이 계속된 다음, 성종(成宗) 8년인 1477년에 간행된 것이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에 그것이 일본으로 간 것은 254권 252책이었다. 즉, 12권 12책이 빠진 것이었다. 해서 그 후 일본에서는 그 누락된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그 원래의 체제 그대로 만들어 냈던 것인데, 그것을 우리나라에 1876년에 기증한 것이다.

본서가 우리나라로 기증된 후, 그 2부중의 1부는 태의원(太醫院)에 소장되었다가 다시 구왕궁 장서각(舊王宮藏書閣)으로 이관되었으나 망실되었고, 다른 1부는 고종(高宗)이 태의원의 전의감(典醫監) 홍철보(洪哲普 1853~?)에게 하사하였던 것인데, 그것이 다시 홍택규(洪宅圭)로 이장되었다가, 현재는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완전하지는 못하나마 소장되어 있다.

저자로서는 의방류취가 당시에 다시 우리나라로 전래는 되었지만, 이미 그 당시에는 국내의 모든 사정이 평온치 못하였기에 그것이 의학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리라곤 추찰하지 않는다. 뿐아니라, 본서는 이미 동의보감 간행 때에 충분히 참고된 의서이었기에, 우리나라로서는 그의 큰 가치를 느낄 수도 없었으리라 고찰하며, 또 그것은 다만 하나의 참고 문헌적인 의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지 않았을까 추찰한다.

이러한 전자의 견해는, 이 의방류취의 수증이 있을 당시, 그것과 함께 혹은 그 이후에 수증한 점이 확실한 다른 일본판 한의서도 8종이나 있었지만, 그러한 의서들에 관한 수증 기록(受贈記錄)이 전혀 우리나라 기록에 없는 점으로도 능히 입증된다고 본다.

즉, 고종 13년인 1876년 8월 2일에 내한한 일본 외무대승(外務大丞) 미야모도 쇼오이찌(宮本小一)가, 우리나라의 당시의 예조 판서(禮曹判書) 김상현(金尙鉉)에게 준 편지에 첨부된 기록에는, 의방류취가 아닌 다른 8종의 한의서가 기재되었다. 하지만 우리 측의 당시의 승정원 일기(承政院日記)나 일성록(日省錄)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다만 왜사 일기(倭使日記)에 진사 제품(珍賜諸品)이라고만 기록된 점으로도 그것은 충분히 추정될 수가 있다.

일본 측이 당시 우리나라에 준 한의서는 의방류취 외에 다음과 같은 8종이 있다. 상한론소의(傷寒論疏義 10冊), 상한론육경절의(傷寒論六經折義 1冊), 상한록담기

* 本學會 會長・서울 金正均齒科醫院
** 本學會 前會長・서울 李漢水齒科醫院

(傷寒論劄記 1册), 금궤요략소의(金匱要略疏義 6册), 경방권형략기(經方權衡略記 1册), 회지(蛔志 3册), 다질휘전(多疾彙箋 3册), 월조약지(越俎藥誌 1册)가 곧 그것이다.

이러한 8종의 한의서는 그 모두가 시릭(士栗)의 저서이다. 곧, 그 저자는 에도바꾸후(江戶幕府)의 의관(醫官) 기다무라 나오히로(喜多村直寬)이다. 그는 일본 한방의학의 대가로 알려졌던 사람이다.

Ⅱ. 일본인에 의한 서양의학의 전래

병자 한일수호 조약(丙子韓日修好條約)이 체결된 다음, 일본측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게 된 지역에 일본인 의사들이 운영하는 의원을 개설시키기 시작하였다. 그 의원들은 일본인만이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개방되었다. 하여 그들의 서양의술은 한국인에게도 직접 소개되었다. 일본인들이 고종 14년인 1877년부터 순종 1년인 1907년까지 개설한 종합병원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문헌상으로 18개이다.

1. 부산의 일본제생의원(日本濟生醫院)

본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일본 측이 개설한 서양의학에 의한 의원이다. 곧, 고종 14년인 1877년에 일본 해군이 해군 군의(海軍軍醫) 야노 노리오사무(矢野義徹)를 그 초대 원장으로 하여 부산에 개설했다. 당시 이 의원에서는 한국인도 치료하였다.

2. 원산의 생생병원(生生病院)

본 병원은 고종 17년인 1880년 원산에 개설되었다. 그 초대 원장은 전기한 해군 군의(軍醫) 야노 노리오사무(矢野義徹)이다. 역시 본 병원에서도 한국인을 취급하였다.

3. 인천의 일본병원(日本病院)

본 병원은 고종 20년인 1883년에 개설되었다. 본시는 일본 영사관의 부속 병원으로서 발족한 것이었다. 초대 병원장은 후루시로 간도오(古城管堂)이다. 그 후 본 병원은 인천공립병원(仁川共立病院)이라 개칭되었는데, 후술하게 될 일본인으로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치과의원을 개설하게 된 노다 오오지(野田應治)가 처음에는 이 병원의 직원(職員)으로 근무하였다.

4. 경성의 일본관의원(京城日本舘醫院)

본 의원은 고종 20년인 1883년에 개설되었다. 초대 원장은 군의(軍醫) 우나세 도시유끼(海瀨敏行)이다. 역시 한국인도 진료하였다.

5. 경성의 찬화의원(京城贊化醫院)

본 의원은 개인이 개설한 의원으로서 고종 28년인 1891년부터 시작했다. 그 원장은 후루시로 바이께이(古城梅溪)이다. 후루시로는 고종 23년인 1886년에 일본 공사관의 의관으로 부임하였는데, 그 6년 후에는 자기 개인 의원을 개설했고, 고종의 건양(建陽) 원년인 1896년에는 관립 의학교(官立醫學校)의 교사를 겸했으며, 광무(光武) 2년인 1898년에는 종두신서(種痘新書)도 저술했다.

6. 경성의 한성병원(漢城病院)

본 병원은 처음은 개인 의원으로서 개설되었다. 초대 원장은 청일전쟁(淸日戰爭 1894—1895) 직후에 우리 정부의 위생 고문(衛生顧問)으로 취임한 세와끼 히사오(瀨脇壽雄)이다. 그는 본시 해군 군의(軍醫)이었다. 본 병원은 광무(光武) 8년인 1904년에 공립 한성병원이라 개칭되었다. 역시 본 병원에서도 한국인을 취급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종합병원에 치과의사가 있게 된 것은, 본 한성병원의 경우이다. 때는 1904년이다. 그 최초의 치과 담당자는 시게시로 야스지(重城養二)이다. 당시의 치과는 아직 외과 소속으로 있었다. 치과가 외과의 일부로서 있던 것이 최초로 하나의 과(科)로서 완전히 독립된 때는 1909년 11월 30일이다. 즉, 그것은 1907년 3월 10일에 칙령 9호로써 대한의원(大韓醫院)이 설치되었는데, 본 의원에 치과가 처음으로 독립 설치된 때는 1909년 11월 30일에 발포된 대한의원의 분과(分科)규정에 의해서 이다. 당시 본 의원에는 9개의 과(科)를 두었다. 곧, 치과, 내과, 외과, 안과, 산과, 부인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피부과 등 9개의 과(科)이다.

대한의원은 1910년 8월 29일에 한일합병이 결정되면서 그 해 9월 2일에는 중앙의원(中央醫院)이라 개칭되었고, 다시 그 해 그 달의 29일에는 조선총독부의원(朝鮮總督府醫院)이라 개칭되었다. 그리고 이어 그 해 10월 1일의 칙령 368호로써 그 때까지 독립 설치되어 있던 치과는 불행히도 외과 소속으로 되었다. 이 당시의 임상과는 내과, 외과, 안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 7과(科)이다.

그리고 조선총독부의원에 재차 치과가 독립된 과(科)로서 설치된 때는 1911년 4월이다. 즉, 치과가 대한의원에 처음으로 설치된 것은 1909년 11월 30일이고, 이것이 폐과(廢科)된 때는 1910년 10월 1일이며, 또 다시 치과가 독립된 때는 1911년 4월이다.

한성병원은 상술한대로 대한의원(大韓醫院)이라 개칭되고, 다시 조선총독부의원이라 개칭되며, 1914년 3월

에는 자혜의원이라 개칭되었다. 곧 현재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의 전신이다.

7. 목포의 공립병원(共立病院)

본 병원은 광무(光武) 3년인 1899년에 발족되었다. 역시 한국인까지 치료했다.

8. 진남포의 공립병원(共立病院)

본 병원도 목포의 공립병원과 동일한 해에 개설되어 한국인까지 치료했다. 곧, 1899년이다.

9. 대구의 동인의원(同仁醫院)

본 의원은 광무(光武) 10년인 1906년에 개설되었다. 처음부터 내과, 외과, 안과, 산부인과를 두고 입원 환자까지 취급했다. 그리고 동시에 의학생, 간호부(看護婦·看護員), 산파를 양성하였다.

10. 평양의 동인의원(同仁醫院)

본 의원도 대구의 동인의원과 같은 해인 광무(光武) 10년인 1906년에 개설했다. 그리고 의학생과 간호부를 양성하는 강습소도 부설했다. 그 초대 원장은 히라마쓰 고마다로오(平松駒太郎)이다.

11. 서울 용산의 용산동인의원(龍山同仁醫院)

본 의원은 광무(光武) 11년인 1907년에 설치되었다. 철도국(鐵道局)의 직원과 그 가족 그리고 일반 시민을 진료했다. 물론 한국인들도 취급했다.

동인회(同仁會)란 민간 단체이긴 하나, 조선 총독부의 후원을 받아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이었다. 곧, 각처의 동인의원이란 동인회에서 그 운영을 후원하는 의료 기관이었다.

용산동인의원(龍山同仁醫院)에 외과 소속으로서 치과 담당자를 두게 된 때는, 문헌상 명백하지 않으나, 1907년이다. 그 초대 담당자는 나라사끼 도오요(楢崎東陽)이다. 그 다음에는 비상근(非常勤) 촉탁 치과의사 시메우찌 겐새끼(注連內堅石) 감독 하에 사노 후미오(佐野史郎)가 담당했다.

12. 전주의 자혜의원(慈惠醫院)

13. 청주의 자혜의원

14. 함흥의 자혜의원

15. 마산의 민단립병원(民團立病院)

위의 4개 의원이 언제 개설되었는가는 상금 미상이다.

1910년 이전에 마산의 민단립병원을 제외한 이러한 3개 의원이 설치되었던 사실은, 한일합병 직후의 통감(統監) 자작(子爵) 데라우찌 세이끼(寺內正毅)의 유고(諭告)를 보면 확실하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전략). 경성에 중앙의원을 개(開)하며 또 전주, 청주 급 함흥에 자혜의원을 설한 이래로 중서(衆庶)가 몽기 은파(蒙其恩波)한 자 극다(極多)하나, 상금 보급 전도(普及全土)는 유감인 고로, 기위(旣爲) 발령(發令)하여 경(夏)히 각 도(各道)에 증설케 하여, 병의를 치(置)하고 양약을 비(備)하여 기사 회생의 인술을 범시(汎施)케 함이라. (이하 생략).

이 유고(諭告) 원문은, 순종 실록(純宗實錄) 부록에 기록되어 있다.

16. 대구의 야소교 전도교회 병원

17. 부산의 야소교 전도회 병원

18. 개성의 제一아이 삐 남산병원

또 마산(馬山)의 민단립(民團立) 병원 등이 있었던 사실은, 1909년 1월(隆熙 3年 1月) 순종의 남순(南巡·南鮮巡視 때에 각도의 공익 사업비의 보충 하사금을 전달한 기록에서 발견된다. 이것은 순종 실록(純宗實錄) 부록에 수록되었는데, 그 때의 하사금은 5백원 혹은 2백원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각처에서 일본인이 개설했던 여러 병원에, 처음부터 치과가 독립되어 설치되었던 문헌 자료는 아직 없다. 위에 열거한 여러 병원에서는 치과 환자를 외과에서 취급하였다. 당시의 한국인 치과 환자는 그 대부분이 악골의 골막염과 골수염, 수암(水癌·壞疽性口內炎·Noma), 구강저 봉와직염(口腔底蜂窩織炎), 치조농양, 치조골염, 악골의 골절, 만성 치수염 등이었다. 해서 그것은 외과에서도 그런대로 처리할 수가 있었다. 치과 보철이나 치아우식증의 치료를 희망하는 환자는 비교적 적었다. 발치도 외과에서 하는 것이 관례이었다. 외과의사는 그 임상 실습에서 간단한 발치 수술법을 교육 받고 있었다. 대다수의 한국인 환자는 외과적 치료를 기피했기에, 그 초기에는 치과 환자의 수도 적었다고 구전된다.

한성순보(漢城旬報) 제36호(1884年 10月 9日)에는, 그 해 6월 12일의 일본 관보(日本官報)에 의한 다음과 같은 전재 기사가 있다.

일본병원(日本病院)

일본이 병원을 원산 및 부산 양항에 각 한곳씩 설치하고, 일본 관민의 질병이 있는 자를 치료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질병이 있는 자들을 시료(施療)하되, 해당 병원 의원(醫員)에 의한다고 한다. 1880년 1년 동안 치료하고 시약(施藥)한 자들의 합계는 다음과 같다.

부산병원

일본인	2,998명
조선인	729명

원산병원

일본인	296명

조선인 1,126명

또 1881년 1년간의 합계는 다음과 같다.

부산병원

일본인 2,838명

조선인 675명

원산병원

일본인 1,513명

조선인 695명

Ⅲ. 일본인에 의한 서양치과의학의 전래

1876년 병자 한일수호 조약이 체결된 후, 최초로 일본인 치과의사가 내한한 때는, 고종 24년인 1887년이다. 그는 노다 오오지(野田應治 1871—1930)로서 인천(仁川)에서 노다 치과의원(野田齒科醫院)을 개설했다. 이것이 곧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치과의학에 의한 의료 기관이다.

그리고 그 후인 1904년부터 계속 일본인 치과의사들의 내한이 있게 되고, 그들이 개설한 종합병원 외과에는 치과의사가 근무하게 되었다.

이어 그들 의료 기관에서 서양치과의술을 습득한 한국인들도 점차 있게 되었다.

이제 당시의 일본인 치과의사들의 활동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1. 최초로 내한한 일본인 치과의사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온 일본인 치과의사는 노다 오오지(野田應治)이다. 그가 우리나라 최초로 인천(仁川)에서 서양치과의술에 의한 개인의 치과 전문 의원인 노다 치과의원(野田齒科醫院)을 개설한 때는 고종 30년인 1893년 6월 30일이다. 노다 오오지에 관해 보다 자세한 점을 조사해 보면 이러하다.

1). 노다 오오지(野田應治)의 신분과 경력

노다 오오지는 1871년(日本 明治 4년) 11월 24일, 일본 규우슈우(九州) 오오이다껜 (大分縣) 히가시구니 히가시 고오리(東國東郡) 이미무라(伊美村)에서, 아라마끼 도오로오(荒卷十郎)의 2남으로서 출생하였다. 유년시절에 같은 마을에 살든 노다 슌센(野田春泉)의 양자로 입적했다. 아라마끼의 가계는 사족(士族)이었고, 대대로 의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노다 오오지 역시 의업에 뜻을 품고, 그의 나이 16세 때에 그 수업을 받기 위해, 내한하여 인천 공립병원(仁川共立病院) 직원으로 취직해서 그 병원장 후루시로 간도오(古城管堂) 밑에서 수업을 받았다.

그러던 중, 당시 한국에는 정규의 서양치과의학 교육을 받은 의사가 없음을 알고, 치과의사가 되길 결심하였다.

해서 1891년 당시의 일본 유일의 치과의학교이던 다까야마 치과의학원(高山齒科醫學院·現 東京齒大)에 입학하여, 1893년 5월 일본 내무성 치과의술 개업 시험에 합격, 동년 6월 30일 일본 내무대신으로부터 정규 치과의사 면허장을 받고 곧 인천으로 다시 왔다.

2). 노다 치과의원(野田齒科醫院)의 개설

1893년 재차 내한한 노다 오오지는 그 해의 6월 30일 인천에서 노다 치과의원을 개설했다.

당시 인천에 거주하는 일본인 수는 약 1천명, 물론 그는 한국인까지도 취급했지만 그의 개업은 용이치 않았다. 그는 그 다음해 1894년에 서울(京城), 현 KAL빌딩 위치로 이전하였다. 곧 1894년 4월(高宗 31年)이다.

그 때 서울 거주 일본인의 수는 약 5백명이었는데, 그 치과의원 주위는 모두가 한국인 주택 뿐이고, 더우기 노다 치과의원만이 유독 2층 건물이었기에, 한국인들의 투석(投石)으로 개업을 계속하지 못하여, 개업 수개월만에 그는 다시 진고개(泥峴·現 忠武路 1街)로 이전할 수 밖에 없었다.

3). 노다 치과의원의 진료와 활동

노다 치과의원 개설 초기 5,6년간은 수시로 남선(南鮮) 지방의 순회 진료(地方巡廻診療)를 하였다. 그것은 조수를 수행한 도보(徒步)순회이었다. 인천에는 1899년 여름까지는 선편(船便)이나 말을 타고 갔다.

치과 환자의 대다수는 발치를 요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한국인은 금으로써 보철하는 일을 기피하였다. 금을 원치 않을 경우는 의치의 크라스프까지도 백금을 사용했다. 뿐아니라, 의치를 장착한 사람도 그것이 남에게 알려지는 일을 심히 싫어 했다.

1893년경의 한국인 환자 구강 상태는 대략 이러했다. 한국인은 예로부터 치아를 습관적으로 잘 닦은 까닭에 우치는 극히 적었다. 해서 대부분이 좋은 구강 상태이었다. 중류 이하의 사람이라도 식후에는 함수(含嗽)하는 습관이 있었다. 한국인은 치아 청소에 소금을 이용하고 있었다.

1896년 조선친위대(朝鮮親衛隊) 병졸 모집(兵卒募集) 때에, 노다 오오지는 그 신체 검사 요원의 일원으로 구강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한국인 응모자 1백명 중에서 우치를 가진 자는 단지 17명 뿐이었다. 그리고 치아의 1—2개가 결여된 사람은 11명이며, 매독 관계로 치아의 이상이 있는 자는 3명이었다. 그들 조사 대상자의 연령은 18—30세의 청장년자이었다.

노다 오오지가 개업한 초기 수년간은 일본으로부터 치과 개업을 목적으로 내한한 치과의사도 2—3명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수개월 후에는 귀국했다. 환자가 너

무 적었기 때문이다.

1904년 노일전쟁(露日戰爭)이 발발하자, 노다 오오지는 자원해서 일본 육군의 허락을 받아 자비(自費)로 종군하였다. 그는 육로로 서울에서 안동(安東)까지 종군했다가 의약품이 품절되어 일단 되돌아와, 다시 1904년 5월 선편으로 인천으로부터 대련(大連)에 상륙, 봉천(奉天·瀋陽)까지 진출하고 영구(營口), 여순(旅順)을 거쳐 돌아왔다. 그 기간은 1년여이었다. 그가 치료한 환자 수는 5천여에 이르렀다.

노다 오오지는 1909년 경부터 일본인 소학교(小學校·國民學校) 아동 구강 검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부모에게 연락하여, 초기에는 무료로 치료해 주었고, 교사와 학부형 및 아동에게는 구강 위생 강화(講話)를 매년 1회 이상했다. 곧 이것이 일본인 치과의사에 의해 서울에서 일본인 아동들에게 학교 치과 보건(學校齒科保健)사업을 전개한 효시이다.

1910년 7월 20일, 노다 오오지가 실시한 서울의 히노데 소학교(日出小學校)의 일본인 아동 총 515명의 구강 검사 보고는, 남녀 1백명당 우치를 가진 아동이 84명이고, 아동 1인당 평균 우치 수는 남아 3.5개, 여아 6.0개이며, 또 이미 우치의 치료를 받았던가 혹은 이미 발치를 하고 있던 경우는 한 아동 평균 7개이다. 또 우치가 없는 남녀 아동은 79명이다.

1911년 4월, 그가 검사한 서울 남대문 소학교 일본인 남녀 아동 총 527명에 대한 구강 검사 결과는, 그 중 남아 314명에서 우치의 소유자가 275명, 그 환치의 총수는 790개, 여아의 경우는 213명 중에서 우치를 가진 자가 182명, 그 환치의 총수는 906개이다. 그리고 우치가 전혀 없던 아동은, 남아 39명, 여아는 31명이다.

그는 1915년, 일본인만이 조직하고 있던 경성치과의사회 회장이 되고, 그 후 1929년 4월 귀국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30년 7월 10일, 60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여기 부기(附記)하면, 전기한 서울의 히노데 소학교(日出小學校)는 일본인 아동만을 교육 대상으로 하였는데, 덕혜옹주(德惠翁主)가 이 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유학을 떠났다. 그 때가 1925년 3월 24일이다.

2. 한일합병까지의 일본인 종합병원의 치과

1876년 이후부터 한국에 진출한 일본인들은, 전술한 대로 1877년부터 각처에 속속 그들의 거류민들을 위한 종합병원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들 의료 기관은 그들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그 개설 초부터 한국인에 대해서도 그 문호를 개방했다.

그들이 서울에 공립 종합병원으로서 한성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때는, 전기한대로 광무(光武) 8년인 1904년부터 이다.

그런데 이 때, 이 병원의 외과 소속으로서 치과부(齒科部)도 설치되었다. 이것이 곧 문헌상 최초의 우리나라 종합병원 치과의 효시이다.

그 초대 치과 담당자는 시게시로 야스지(重城養二 1872—?)이다. 그는 외과 과장의 지도와 감독하에서 진료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1910년, 그 때까지 개설되고 있던 한성병원의 후신인 대한의원이 다시 조선총독부의원이라 개칭되면서 외과의 일부로 있던 치과부(齒科部)에 부임한 사람은 와다나베 사다스께(渡邊定亮)이다.

문헌상 그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1907년경에 개원된 서울 용산(龍山)의 용산동인의원에도 그 초기부터 외과에는 그 소속으로서 치과부가 있던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 초대 치과 담당자는 나라사끼 도오요오(楢崎東陽)이고, 그 다음 1910년 전후의 치과 담당자는 비상근(非常勤)이던 시매우찌 겐세끼(注連內堅石)이다. 이 때에는 그의 감독하에 무자격자이던 사노 후미오(佐野史郎)가 진료했다.

문헌의 여러 기록으로써는 확실치 않으나, 조오센노시까이(朝鮮之齒界) 창간호부터 4호까지 연재된 오오사와 노리노부(大澤義誠)의 조센시까가이 헨센 모노가다리(朝鮮齒科界 變遷物語)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귀절이 있다.

총독 정치(總督政治)로 되어 각 도(道)에 자혜의원(慈惠醫院·道立病院 前身)이 설립되고, 그 과반수에는 치과부가 있게 되었는데, 그 주임자(主任者·擔當責任者)는 거의가 무자격자(無資格者)로서 외과의 일부로서 진료하고 있었고, 1911년 대구(大邱) 자혜의원 치과부에 동경치과(東京齒科) 출신인 가네꼬 히데시(金子英志)씨가 내임(來任)했는데, 당시의 관립(官立) 의원인 여러 자혜의원 치과부로서는 이 분이 유일한 유자격자(有資格者)이었다.

이러한 기록이 곧 1910년 직후의 사정을 기록한 점으로 미루어, 저자는 1877년부터 1910년에 이르는 시기의 우리나라 여러 종합병원의 치과 사정은 능히 그 모든 점을 추찰할 수 있으리라 사료한다.

이미 기술한대로, 1910년까지 일본인이 설립한 총 15개에 달한 종합병원의 치과는, 그것이 독립된 하나의 과(科)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과에 소속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전기한 오오사와 노리노부(大澤義誠)의 기록으로도 입증이 된다. 그의 기록은 이러하다.

(전략). 공적(公的) 의료 기관에는 비교적 빨리 치과부의 설치를 본 것이다. 일본에서는 제대 부속병원(帝大附屬病院)과 기타 관공립(官公立)병원에 치과가 설치된 것이 명치(明治)말기부터 대정(大正)에 걸쳐서다.

방계(傍系)일 입치 영업자의 허가가 무제한이고, 그 취체 규칙이라는 것도 관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치과 진료를 시킨 것이다.

이러한 기록으로써 보면, 일본 본토의 경우도 관공립(官公立) 종합병원에 치과가 있게 된 것이, 1900년초로부터 1915년경까지 이었으니, 하물며 그들의 식민지이던 한국의 경우, 치과가 외과의 일부로서 설치된 그 사실만도, 그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한 것이었으리라 사료된다.

단편적으로는 이미 언급되었지만, 1910년까지의 여러 종합병원 치과부의 조직과 진료 내용을 정리 종합하면 그것은 대요 이러하다.

① 종합병원의 치과부는 외과에 소속되어, 외과 과장의 감독을 받으면서 진료하였다.

② 치과 담당자는 그 대부분이 무자격자(無資格者)이었던가, 치과의사일 경우도 흔히 그는 비상근자(非常勤者)로서 그의 밑에 무자격자가 있어 상근자(常勤者)로서 진료하고 있었다.

③ 치과 담당자가 정규의 치과 교육을 받은 자일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최초의 유자격자가 있던 예는 1904년부터이다. 그것은 서울의 한성병원의 경우이다.

④ 치과 내원자는 그 대부분이 발치를 요하는 환자이었다.

⑤ 치과에서 발치 이외로 많이 취급하게 된 질환은 구강외과 영역의 것이었다. 즉, 악골 골염(顎骨骨炎). 수암(水癌·壞疽性口內炎), 구강저봉와직염(口腔底蜂窩織炎), 치조 농양, 치조 골염, 악골 골절 등이었다.

⑥ 치과 보철이나 치아우식증의 치료를 희망하는 환자는 비교적 그 수가 적었다.

⑦ 치과에서는 개면금관, 가공의치, 극부가철의치, 증화 고무상 총의치(蒸和護謨床總義齒), 인레이 등을 조제하였다. 환자용 치료 의자는 목제(木製)이었다.

⑧ 모든 종합병원 치과는 그것이 창설된 시초부터 한국인 환자에게도 완전히 개방되었었기에, 당시의 서양치과의학을 한국인에게 인식시키며, 그 의술을 전파시킨 점에선, 일본인은 많이 공헌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겠다.

3. 일본인들 개인 치과의원의 개설

한국에서 일본인 치과의사가 최초로 개설한 개인 치과의원은 물론 전술한 노다 오오지(野田應治)의 노다 치과의원이다. 그런데 1906년부터는 서울에는 일본인 치과의사의 개인 치과의원이 속속 개설을 보게 되었다. 이것은 1905년 8월에 부관 연락선(釜關連絡船)의 운영이 개설된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제 그것을 연대적으로 살피면 이러하다.

1906년 6월 나라사끼 치과의원(楢崎東陽)

1907년 2월 이이쓰까 치과의원(飯塚徹)

1909년경 나까무라 치과의원(中村安子)

1909년경 시메우찌 치과의원(注連內堅石)

1910년 (목포) 오오세끼 치과의원(大關兼記)

1910년을 하나의 기점으로 경향 각지에는 일본인들 개인 치과의원이 속속 더욱 많은 개설을 보게 된다.

문헌 기록에 따르면, 1900년초부터 1910년까지의 경향 각지에는 일본인 입치사(入齒師·入齒營業者)의 수도 상당한 수에 이르렀다. 전술한 오오사와(大澤)의 기록에 의하면, 1907년을 전후한 경향 각처의 입치 영업자(入齒營業者)의 수는 치과의사의 수배(數倍)이었다고 한다. 물론 그들은 그 전부가 일본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역시 그들 대부분이 일본인이었을 점은 능히 추정되는 점이다.

문헌 기록상 최초로 일본인 입치사(入齒師·入齒營業者)가 개업한 때는 1902년이다. 그는 고모리(小森)로서, 서울 충무로에서 백금 혹은 금으로 보철을 했다. 허나 그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이 미나미찌(水道)이다. 그는 목포(木浦)가 개항(開港)된 1897년 이후인, 1904년 목포에서 개업한 것으로 추찰된다. 그에 관한 명확한 기록 역시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다.

4. 한국 주답군 사령부(韓國駐劄軍司令部)의 치과 촉탁의(齒科囑託醫) 배치

일본 육군의 한국 주답군 사령부에, 일본인 치과 촉탁의사가 배치된 때는 1905년 9월이다. 이것은 곧 일본 제국 육군에 치과 촉탁의사 제도가 생긴 효시이기도 하다.

최초로 서울 용산(龍山)에 그들 군용지(軍用地)를 수용할 1년전인 1905년 9월에, 나라사끼 도오요오(楢崎東陽)가 최초의 치과 촉탁으로서 부임했다. 당시의 사령부 위치는 현재의 필동 2가인 남산 기슭이다.

나라사끼(楢崎) 본인의 기록을 조오센노 시까이(朝鮮之齒界) 창간호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부임한 후 3일만에 진료를 시작했다. 오전에는 병사 20명 내외를, 오후엔 사령관, 참모장, 각 부대장, 장교를 취급하고, 어느 날은 통감인 이또오 히로부미(伊藤

博文)의 가공치(架工齒)도 조제했다.

국제적으로 각국 주재 공사들 또는 한국 대관들을 치료하는 등 매우 분주했다. (중략), 동업자는 노다 오오지군 단 한명, (중략), 입구에 고무상 의치와, 금니와 도치를 배열시킨 표본상자를 걸어두고 있었음은, 명치(明治) 초년의 도오교오, 요꼬하마에서 입치사가 그렇게 하던 일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중략). 이민들은 앞을 다투며 도래해서, 일본인의 가옥 건축은 하루 3백이라는 형편이었다. (중략). 나까무라 야스꼬(中村安子) 여사가 개업한 이 때부터는 경성에서 입치사의 개업이 번창했다. (중략), 평양으로는 그 다음 해인 1906년 2월에 갔다. 당시의 평양은 참으로 황량한 모습이었다. 치과의사의 개업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 해 4월 중순 경성으로 귀임해, 육군도 곧 사직하고 군사령관의 개선 일행을 따라 동경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내 가족을 이끌고, 그 해 6월 개업을 목적으로 가서, 경성 남산정(南山町·現 會賢洞) 3정목(三丁目·三街)에서 개원했다. 육군의 내 후임으로는 시메우찌 겐세기(注連內堅石) 군이 내임했다. 당시 경성에서 개업한 사람은, 노다 오오지 군과 나, 단지 두 사람뿐이었다. (이하 생략).

5. 순종(純宗)의 치과 치료

일본인 치과의사 이이쓰까 오사무(飯塚徹)는 순종(純宗 1907—1910)의 치과 질환을 치료하였다.

순종 실록(純宗實錄)의 부록에 따르면, 순종은 1910년 12월 7일(음력 경술(庚戌) 11월 6일)에 서양치과 의술에 의한 치료를 받았다. 이것은 곧 우리나라 역대 왕으로서는 최초의 일이기도 하다. 그 원문은 이러하다.

齒科醫飯塚徹入診以齒部靡寧治療也.

이이쓰까 도오루는 조선총독부의원의 외과 소속으로서 치과를 담당하다가, 전기한대로 1907년부터 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이러한 순종의 치과 치료를 보더라도, 당시의 우리나라 조야의 서양치과의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충분히 입증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으로써 1876년 이후부터 1910년 한일합방까지의 한국에서의 일본인들의 서양치과의학에 의한 활동을 살폈는데, 당시의 그들의 치과 의료 사업은 물론 그 중심이 일본 거류민들과 군인들에게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초창기부터 모든 의료 기관을 한국인들에게도 완전히 개방함으로써, 그들에 의해 우리 한국인들이 새로운 서양의술을 인식하게도 되고, 또 한국인 중에서는 그들을 통해서 직접 서양치과의술을 습득하는 사람도 점차로 증가하게 되었던 사실은 확실하다.

일본인 치과의사들은 그들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자기들의 조수로서는 한국인을 채용하였다. 하여 그것을 통해 서양치과의술의 내용은 자세히 한국인들에게 소개되는 실질적 큰 계기가 되었다.

이제 꼭 여기 부기되어야 할 점이 하나있다. 그것은 은중기(殷仲基)의 기록이다. 그는 조오센노 시까이(朝鮮之齒界 2卷 2號)에서, 신정휴(申正休)로부터 청취한 내용이라 하여, 한말(韓末)의 치과 업계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 점이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전략). 이 때부터(1908년·필자 주) 치과 의업자가 우후 죽순처럼 나타남과 동시에 일본인도 다수 건너왔기에, 대한 정부는 그 대책으로서 최초로 치과 의업자에게 영업계(營業屆)를 내게 했다. 이 때에는 아직 외국인에게 영업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인은 한국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써 비밀로 영업했다. (이하 생략).

이상의 기록을 유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추찰할 수가 있는 사실이다.

그 하나는 곧, 당시의 대한제국(大韓帝國 純宗 2年 1908年) 정부는 그 정책으로서 일본인 치과의사 또는 입치영업자(入齒營業者·入齒師)의 한국에의 진출을 여러 측면에서 억제시키려는 생각과, 한편으로는 또 한국인에게 그들의 치과의술을 적극적으로 습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는 배려를 하고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저자는 이러한 점에 대해, 아직까지는 언급된 문헌을 전혀 찾을 수 없으나, 그러나 이것은 주목할 하나의 기록이 아닌가 한다.

물론 당시인 1908년경의 대한제국의 국력은 크게 쇠퇴하여, 외국인에 대해서 그 영업계를 제출케 하였다는 사실이 별다른 큰 의미를 지난 것은 아니었을 것이 확실은 하겠으나, 그러나 이 점은 그대로 묵과할 점이 아니라 고찰한다.

다시 부기하면, 1910년 이전의 치과 관계 기록은 그 대부분이 일본인에 의한 것인데, 그러나 그 어느 기록에서도 외국인 치과의원 개설자에 대해서는 대한제국 정부가 영업계를 제출케 했다는 내용은 찾을 수가 없는 사실이다. 금후 이것은 보다 계속 연구되어야 할 부문이라 생각한다.

참고로서 대한제국 내부(內部) 위생국에서 1909년에 조사한 의료 요원의 수(數) 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이것을 봐도, 치과 관계의 그것이 없는 사실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1. 한국인 의사 2,659명, 약제사 143명, 산파 33명, 간호부(간호원) 33명, 약종업자 3,265명
2. 일본인 의사 283명, 약제사 75명, 산파 150명, 간호부 155명, 약종업자 55명
3. 기타의 외국인 의사 19명

6. 조선총독부의 치과 해정

1910년 8월에 한일합병이 성립되자, 그들은 곧 그 해 9월에 경무총감부(警務總監部) 경찰국에 위생과를 설치하고, 그 주관 업무의 하나로서 의사, 산파, 약제사, 제약사, 약종상의 지도 및 감독을 장악케 하였다.

칙령 354호를 보면, 치과 행정 업무가 따로 명기되지는 않고 있다.

문 헌

1. 純宗實錄：朝鮮總督府，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
2. 金斗鍾：韓國醫學史(全)，探求堂，1975
3. 殷仲基：韓末의 齒科業界에 對하여，대한칫과의학사연구회지，No. 1，1960
4. 楢崎東陽：朝鮮齒科醫界의 追憶，대한칫과의학사연구회지，No. 1，1960
5. 大澤義誠：朝鮮齒科變遷物語，대한칫과의학사연구회지，No. 1，1960
6. 崔正奉：韓國齒科界 概觀，대한칫과의학사연구회지，No. 1，1960
7. 서울大學校 醫科大學史：서울大學校 醫科大學，1978

우리나라 最近世期의 醫書

金 官 興*

서 문

저자는 우리나라 최근세기(最近世期)에 간행된 의서들을 조사함으로써 이 시기의 치과의학 발달을 연구하는 금후의 참고로서 도움이 되었으면 했다. 1986년 현재 한국의 치과의학 관계 문헌에는 이 방면의 연구 보고가 없다.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 최근세기라 함은, 고종(高宗) 원년인 1864년부터 순종(純宗) 4년인 1910년까지의 47년간을 뜻한다.

본 문

우리나라 최근세기에 알려졌던 의서들로서는, 당시까지의 의학적 전통을 계승한 내용의 의서와, 수입된 서양의학의 번역 의서, 그리고 일본판(日本版) 한의서(漢醫書)가 있다.

이제 그것을 조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Ⅰ. 국내에서 간행된 의서

1868년

의종손익(醫宗損益 12卷 7册) 황도연(黃度淵 1807~1884)

부방편람(附方便覽 14卷) 황도연(黃度淵)

산림보양의학찬요단 초본(山林保養醫學纂要單 抄本) 윤선경(尹善卿)

1869년

의방활토(醫方活套 1卷 1册) 황도연(黃度淵)

1871년

둔몽집(鈍蒙集 2册) 둔몽자(鈍蒙子)

1884년

방약합편(方藥合編 1卷 1册) 황도연·황필수(黃度淵·黃泌秀). 본서는 전기한 의종손익과 의방활토를 합한 것이다.

1885년

우두신설(牛痘新說 1册) 지석영(池錫永 1855~1935)

1889년

제영신편(濟嬰新編 2卷 1册) 이재하(李在夏)

1894년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 上下 2卷) 이제마(李濟馬 1867—1900)

1898년

종두신서(種痘新書 1册) 후루시로 바이께이(古城梅溪 日本人)

1902년

제영신론(濟嬰新論 1册) 내부위생국(內部衛生局) 간(刊)

호렬자병 예방주의서(虎列刺病 豫防注意書 1册) 관립의학교(官立醫學校) 편(編)

1905년

보유신편(保幼新編 1册) 무기 선생(無忌先生) 찬(撰), 노광리(盧光履) 편(編)

1906년

해부학(解剖學 1册) 유병필(劉秉珌)

의감중마(醫鑑重磨 6卷 3册) 이규준(李圭晙 1855—1923)

황제소문절요(黃帝素問節要 2册) 이규준(李圭晙)

본초(本草 上下 2册) 이규준(李圭晙)

의방촬요(醫方撮要 1册) 이준규(李峻奎)

1908년

중등생리위생학(中等生理衛生學 1册) 임경재(任璟宰) 역(譯)

1909년

정선가정구급방(精選家庭救急方 1册) 박용남(朴容南).

소아의방(小兒醫方 1册) 최규헌(崔奎憲 1846— ?).

본서는 몽암유고 소아의방(夢菴遺稿小兒醫方), 또는 경험비방 소아보감(經驗秘方小兒保鑑)이라는 이본(異本)으로서 전해진다. 연대는 1936년이다.

* 서울·金官興齒科醫院·本學會 理事

춘감록(春鑑錄 上下 2册) 이영춘(李永春). 본서는 그의 방손(傍孫)인 이주영(李周榮)에 의해, 경북 의성군에서 1927년에 간행되었다.

Ⅱ. 수입된 한역(漢譯) 서양 의서

고종(高宗 1864—1906)의 서각(書閣)으로서, 경복궁 안에 있던 집옥재(集玉齋)에 소장되었던 서목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서양의학의 한역서가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규장각 서목에도 들어있는 것이다. 총 11종이다.

이것들이 과연 어느 연대에 수입된 의서들인가 하는 점은 아직 미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서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가 하는 점도 역시 미상이다.

전체도설(全體圖說 1册)
전체통고(全體通考 12册)
서의략석(西醫略釋 4卷 4册)
유문의학(儒門醫學 上中下 3卷)
내과천미(內科闡微 1册)
인두신서(引痘新書 1册)
이찰신법(裏紮新法 1册)
화류지미(花柳指迷 1册)
서의안과촬요(西醫眼科撮要 1册)
화학위생론(化學衛生論 2册)
위생요지(衛生要旨 1册)

그리고 지석영(池錫永 1855—1935)의 소장이던 한역의서 목록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전기한 집옥재 소장이던 의서 이외의 다른 의서들이다. 그것은 총 8종이다.

서의전과전서(西醫全科全書 6册)
의방휘편(醫方彙編 3册 淸國刊, 日本人 譯)
피부신편(皮膚新編 1册)
아과촬요(兒科撮要)
화학초계(化學初階)
부과정은도설(婦科精蘊圖說)
증산중인서약대성(增刪重印西藥大成 16册)
약품중서명목표(藥品中西名目表)

Ⅲ. 일본판(日本板)인 한의서(漢醫書)

1876년 2월(高宗 13年 丙子) 한일수호조약(韓日修好條約)이 체결된 직후인 그해 8월 2일에 내한했던 일본 외무대승(外務大丞) 미야모도 쇼오이찌(宮本小一)가 당시의 예조 판서(禮曹判書) 김상현(金尙鉉)에게 준 편지(書札)에 첨부했던 서목(書目)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일본판 한의서가 있다. 그것은 총 8종이다.

상한론소의(傷寒論疏義 10册)
상한론륙경절의(傷寒論 六經折義 1册)
상한론답기(傷寒論劄記 1册)
금궤요략소의(金匱要略疎義 6册)
경방권형략기(經方權衡略記 1册)
회지(蛔志 3册)
다질휘전(多疾彙箋 3册)
월조약지(越俎藥誌 1册)

이상의 한의서는 모두가 일본의 에도바꾸후(江戶幕府)의 의관(醫官) 기다무라 나오히로(喜多村直寬)의 저서이다. 이 저자는 고증학파(考證學派) 대가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서들이 우리나라 의학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점은 아직 미상이다.

또 하나, 상기한 의서에 관한 당시의 국내 기록이 전혀 없는 사실은, 곧 이러한 일본측의 선물 형식의 증정을, 당시의 조야에서는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연유가 아닐까 사료된다.

결 문

저자는 1986년 현재까지 밝혀진 우리나라 최근세기의 의서들을 조사하여 그 서목을 보고하였다. 이 시기의 우리나라 치과의학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보다 완벽한 조사가 금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점은 물론이다.

참고 문헌

1. 金斗鍾 : 韓國醫學史(全) p.468~471, p.521~532, 探求堂, 1975
2. 奎章閣圖書 韓國本綜合目錄,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 1984

콜럼버스 이전의 아메리카 치과의술

(Pre-Columbian Dentistry)

金 圭 炆*

약 15,000년전에 인디언들은 Asia 대륙과 연결된 Bering 해를 건너 서반구인 북미에 도달하였고 북미의 산림을 건너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이주하여 비슷한 문화를 가진 나라들을 만들었다. 그중에 지금은 중앙멕시코로 알려진 맹렬하고 호전적인 사람들이 살았던 Aztecs(멕시코 원주민 1519년 Cortes 에게 정복당함)과 현제는 Guatemala 와 Honduras 로 알려진 Yucatàn 반도에 살면서 고도의 문화를 발전시킨 평화를 사랑하는 Mayas 그리고 오늘날 Peru 의 Andes 산맥에 살고 있던 고도로 진보된 문명을 가진 Inca 를 들수가 있다.

정복자 에르난 꼬르떼스와 그의 부하들은 1518년에 처음으로 멕시코만을 횡단 했을때, 신대륙에서도 동방의 카리브 제도에서 보아온 것 같은 미개의 원주민을 만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난 아스테카족은 신세계 최대 제국의 지배자이며 진보된 형태의 정부, 계획된 도시, 토목건축의 기술, 회화 문자에 의해 역사를 쓰고, 기록하는 방법, 진보된 농업. 아주 고도로 발달한 수학이나 의학을 포함한 여러가지 과학을 알고 있었다.

Spain 의 정복자들이 대마야를 정복하였을때 그들은 마야의 문명과 그 기본 그 뿌리 까지도 완전히 파괴 하였다. 그 마야는 언어를 기록하는 문자를 가지고 있어 그들의 역사와 전통을 연대기로 상형문자로 양피지에 기록 하였다.

Yucatàn 의 스페인의 정신적인 지도자이며 광적인 Diego de Landar 는 이교도의 기록들을 파괴 하라고 명령하고 모두 파괴하였다.

Muni 의 광장에서 그 무수하고 한없이 값진 보물들이 불에타 재로 변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큰 비통의 울음소리 속에서 사라 졌다고 한다.

많은 기록들의 파괴는 더할나위 없이 바꿀수 없는 보물을 잃었지만 정교한 탐색과 지칠줄 모르는 발굴에 의해서 에질트나 메소포타미야 보다는 작지만 그런대로 Maya 의 문명을 알게 되었다.

마야는 약 2500B.C 전에 시작되어 AD 300~900년 사이에 최고의 문명을 완성 시켰다.

그후 불가해한 이유(집약 농업에 의한 흙의 고갈같은) 로인해 점차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었으며 멕시코만에 Aztec 문화를 만든 Tottes는 1000년경 마야를 정복 하였음으로 그들의 영광은 그림자처럼 사라지게 되었다.

마야는 잘 발달된 수학적 체계를 갖추었으며 건축학과 성공적인 달력을 가지고 있어 시간 개념이 정확 하였다. 본래 석기 시대 사람들은 부싯돌과 흑요석으로 깎아 만든 나무 꼬챙이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과은, 구리의 용광로와 괴철로를 완성했다. 그들의 보석세공은 정교하여 경옥, 적철광, 마노, 터키석 등으로 세공하여 보석으로 만들었다.

중미의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원시적인 의술과 고도로 발달한 사상과 치료법이 공존하고 있었다. 발달 단계가 좀더 낮은 사회의 원시 예술에서 볼 수 있는 마법과 경험에서 효과가 뚜렷해 있어서 외상이나 심한 고통등 긴급에 따라 쓰여지는 치료법이 뒤섞여 있었다.

많은 미개 사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사, 마법의, 신관의 역할을 한사람이 겸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아스테카족에서는 의료 전문직은 세습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의사는 직무상의 지식을 자식에게 전하는 것은 부친의 의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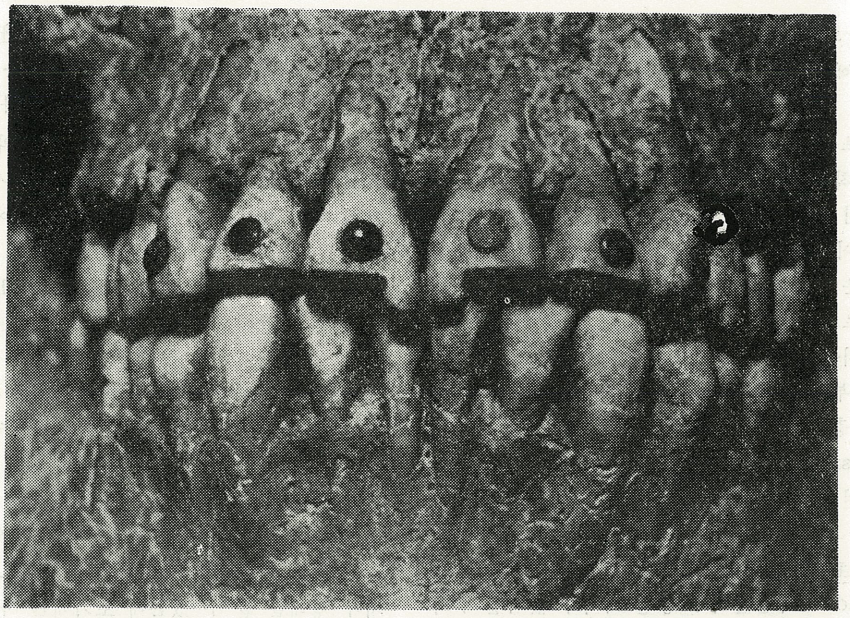
그러나 자식은 부친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의료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치료자는 일련의 전문분야로 나뉘었다.

인체 및 식물이나 광물의 성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기도와 마술적인 몸짓을 곁들여서 이용했다. 이런 전문가 외에도 발치, 출산의 보조, 접골등을 전문으로 하는 자가 있었다.

외과 치료는 외상을 깨끗이 씻겨주고 수렴성의 식물성 제제나 여러가지 세알을 써서 덮어주고 그위를 새털이나 가죽으로 만든 붕대를 감았다. 보통 출혈은 잘게 썬 약초를 상처 위에 놓고 지혈했다.

그들은 인간의 두개골 천두술에 놀랄만한 기술을 보였다. 천두술을 한 두개골이 다수 발견되어 있고 어떤 것에는 여러가지 치료단계를 나타내는 흔적이 있어 굉

* 金星齒科醫院長



(그림 1) 9세기 경의 Maya인의 치아에 옥과 터키석으로 Inlay된 두개골 Mexico市 인류 박물관소장

이들 상감 재료는 여러가지 금속 경옥, 황철광, 철광석, 터키석, 수정, 사문석, 진사, 수은을 추출한 광석 등 보석이 될수 있는 모든것이 었다.

물론 와동을 형성하는 치아는 생활 치아였으며 초기에는 보석 후기에는 구리로 만든 마치 빨대 같은 둥굴고 단단한 원통으로 두손 사이에 끼거나 Rope drill과 연마제로 수정이나 현탁액을 사용하며 법랑질과 상아질에 구멍을 뚫었다.

장한 기술을 증명하고 있다.

이경우도 수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아직 모른다.

돌과 금속을 훌륭히 다루웠던 솜씨로 그때까지는 진정한 보존이나 교정 치과는 아니지만 구강 위생의 목적으로 많이 행해 졌다.

치아에 행한 그들의 작업은 의식이나 종교적인 목적이 주였다.

어떤 학자들은 개인적인 숭배가 중요한 자극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어떠튼 우리가 알고 있기는 마야는 치아에 검은칠을 하고 머리나 몸통을 정교한 종교적 재물로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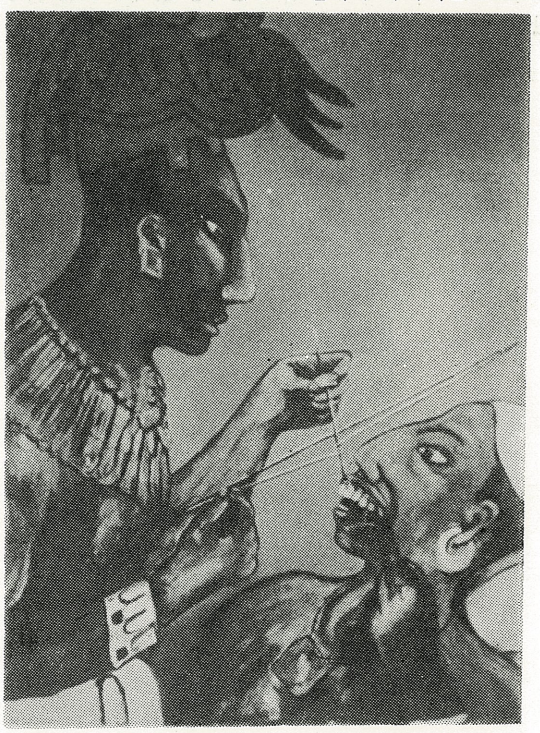
치아의 절단이나 장식은 제사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외는 의의가 없다.

Maya 사람들은 상하악 중절치나 때로는 소구치에 정교하게 구멍을 파고 보석으로 상감해 넣는 기술이 특출하였다.

현존하는 두개골 연구에서 보면 치수에 손상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근단에 농양의 흔적을 볼수 있다.

Ston Inlay는 너무나 정확하게 박혀 있어 수천년이 지난 지금에도 변함이 없다.

마찰 유지를 위해서 와동과 인레이 사이에는 Cement



(그림 2) Bow Drill을 사용해서 Inlay을 넣기전 와동형성 장면
Dr. Pedro Beltranena의 설명

질로 Sealing 되어 있어 현대 분광현미경 검사에 의하면 여러 종류에 금속과 Calciun phosphate로 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세멘트 속에서는 시리곤 입자를 발견하는데 이는 강력한 접착을 위한 것인지 와동 형성시에 사용한 것인지 알길이 없다.

Maya 인들이 치아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넣은 인레이의 형태들은 알려진 것만도 50가지가 넘어 인종과 종교적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어떤 치아에서는 전치 절단면에 단순한 절단 그 중절단 또는 원심 부분만 절단 하여 근심 부분을 남겨 놓거나 정상으로 충전된 것등 다양하다.

Ecuador Esmeraldas 에 남마야 지역에서 두개골의 한조각이 발견 됨으로써 齒科界에는 흥미로운 논쟁이 일어 났다.

1913년 최초로 Marshall Sarille 에 의해서 뉴욕 Ameircan Indian 박물관에 소장된 지치가 없지만 구치를 전부가진 上顎骨의 한조각을 보고 됐다.

이상 악골에는 그 전치 순측에 각기 둥근 금인레이가 되어 있고 치조골 돌기가 파괴된 채로 두개의 전치가 발치와에 억지로 박혀 있었다.

또한 전치의 근심면에 있는 간격을 없애기 위해 적당한 관이 만들어져 있었다.

많은 전문가 그중에도 미국의 저명한 치과 역사가인 Bernhard Weinberger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이식된 치아의 최초의 한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Pre-columbian dentistry의 세계적 학자인 Sumuel Fastlicht는 골절부위에 골재생 선을 찾을수 없는 것을 보아서 사망후 고대 에질트에서 행하였던 것과 같은 종교적 믿음에 따라 매장 하기 전에 행한 매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Maya 사람들은 살아 있는 사람에게 이행물질을 임프란트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1931년 Hondaras 의 Ulùa 계곡 발굴시 Wilson Popenoe 부부는 약 600년으로 추정된 마야인의 턱뼈를 발굴하였다.

이 턱뼈는 Harvard 대학에 소장되어 있으며 세계에 잘 알려진 임프란트의 증거물이 되고 있다.

이 뼈에는 전치부 발치와에 조가비로된 3개의 매식된 치아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초기에는 사후에 넣은 것으로 생각 했으나 1970년에 X-Ray 검사 결과 오늘날 Blade Implant 할 때 둘러 쌓인 것과 유사한 치밀골 상을 볼 수 있어 죽기전의 매식이라고 한다. 결국 결론적으로 초기 골내에 이형 물질의 매식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당시의 의술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다.

大韓帝國 時代의 잇방(齒房·牙房)의 硏究

金 知 浩* 許 正 圭** 李 漢 水***

서 문

저자들은 대한제국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설된 잇방(齒房·牙房)에 대하여 연구하여, 이 시대의 우리나라 치과의학의 발달을 연구하는 일조(一助)로 삼고자 했다. 이 방면의 연구 보고는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에 그래도 다소 있는 실정이다.

1930년의 조오센노 시까이(朝鮮之齒界)에 발표된 나라사끼(楢崎)[1], 오오사와(大澤)[2]를 비롯하여, 1931년의 은중기(殷仲基)[3], 그리고 1960년의 박명진(朴明鎭)[4] 신인철(申仁澈)[5], 최정봉(崔正奉)[6] 등의 그것이 곧 그 대표적인 것이라 본다.

본 논문에서 대한제국 시대라 함은, 1897년부터 1910년까지의 14년간을 뜻한다.

본 론

1876년 병자 한일수호 조약(丙子韓日修好條約)이 체결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인의 서양치과의학에 의한 의료 활동이 전개되었다.

일본인이 우리나라에서 서양의술에 의한 종합병원을 개설한 시초는 고종(高宗) 14년인 1877년이다. 그 후 그들은 계속 한국 각처에 종합병원을 개설하여, 1910년 개지는 문헌 기록상 그것은 총 15개에 이르렀다.

그리고 일본인들 개인이 개설한 치과의원 수만도 문헌 기록상으로 총 5개처에 달했다.

뿐아니라, 역시 일본인들 개인이 일정한 장소에 개설, 내지는 각지를 순회하면서 영업한 입치사(入齒師·入齒營業者)들의 수도 1910년경까지는 문헌 기록으로써는 확실하지 않지만, 상당한 수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들 일본인들은 그들이 서양치과의술에 의한 모든 의료 활동을 개시하는 그 시초부터, 한국인 환자에 대해서도 그 문호를 개방했다. 뿐아니라 그들은 또 그들의 조수(助手)로서 한국인을 처음부터 고용하였다. 일설(一說)에 따르면, 대한제국 정부는 1908년경까지도 외국인 의사들의 자유로운 의료 활동을 허가하지 않고, 그들이 의료 기관을 개설할 때에는 한국인의 명의로써만 그 개설이 가능케 하였다. 해서 한국인 중에는 일본인으로부터 그들의 새로운 서양치과의술을 습득하는 사람이 서서히 있게 되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은중기(殷仲基)의 기록이 있다. 그는 조오센노 시까이(朝鮮之齒界) 제2권 제2호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 이 때에는(1908년·필자 주) 아직 외국인에게 영업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인은 한국인을 고용하여 그의 명의로써 비밀로 영업했다. ……(이하 생략).

하여 한국인 중에는 일본인 치과의사 또는 입치사로부터 직접 서양치과의술을 습득한 사람도 있게 되어, 그들 중엔 잇방(齒房·牙房)이라 불리운 영업소를 개설하는 사람도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 그 시설을 갖추고 있던 잇방 개설의 효시는, 문헌상 순종(純宗 1907—1910) 원년인 1907년이다.

최초로 잇방을 개설한 사람은 최승용(崔承龍)이다. 최승용은 서울 종로에서 치과 전문이라 하는 간판으로써 서양치과의술에 의한 시술소를 개설했다.

그가 누구로부터 그 기술을 습득했는가 하는 점은 아직도 확실치 않다. 그리고 그 개인에 관한 기록도 아직은 발견되지를 않았다.

저자는 그러나 아마도 그는 일본인 치과의사 노다 오오지(野田應治)로부터 그 기술을 전수받지 않았을까 추찰한다. 노다 오오지는 일본인 치과의사로서는 최초로 1894년에 서울에서 개업했다. 물론 최승용이 잇방을 개

* 本會監事·서울 예일齒科醫院
** 本會理事·서울 中央齒科醫院
*** 本會會員·서울 李漢水齒科醫院

설한 때에는 이미 서울에도 일본인 치과의사인 나라사끼(楢崎), 이이쓰까(飯塚) 등이 개업하고는 있었으나, 그러나 전자는 1905년에 내한하여 그 다음해 4월까지 일본 육군의 치과촉탁의사로 있었고, 또 후자는 역시 1905년 내한해서 한성병원(漢城病院) 치과부에 근무하다가 1907년에 개업했기에, 그 연대로 보아, 최승용이 그들의 조수로서 기술을 습득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은 없었으리라 추정한다.

그러나 물론 한성병원에 치과부가 있게 된 때는 1904년이라, 그가 거기서 당시의 그 치과부의 담당자 시게시로 야스지(重城養二)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추정도, 일단은 다음과 같은 문헌의 기록으로써 배제하는 것이다.

곧, 조오센노 시까이(朝鮮之齒界) 제2권 제2호에서 은중기(殷仲基)[3] 는 한말(韓末)의 치과 업계에 대하여, 그가 보고한 그 당시이던 1931년 현재까지도 서울 종로에서 계속 개업을 해오고 있던 신정휴(申正休)로부터 청취한 내용을 기록하였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귀절이 있는 까닭이다.

……(전략). 최승용은 그 기술을 어느 일본인으로부터 배웠다고만 했는데, 이 점은 유감스럽게도 명료하지 않다. (이하 생략).

저자는 전기한 입치사 신정휴(申正休)는 역시 최승용과는 불과 2~3년의 차를 두고 동일한 지역인 서울 종로에서 개업하였었기에, 그가 최승용에 관해 자세한 점을 모른다고 말한 점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당시의 한성병원은 최신 시설을 갖춘 유명 병원인데, 그 치과의 조수로서 한국인의 누가 있었는가를 몰랐을 수는 없었으리라 짐작되기 때문이다. 뿐아니라, 은중기 또한 그가 보고한 1931년 당시로써는 불과 20여년전인 한성병원 치과부에 근무하였던 한국인 조수의 이름을 풍문으로라도 듣지 못했을 것이란 일단 긍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성병원 치과부가 외과에서 완전히 독립한 때는 1916년이고, 그 초대 치과 과장이던 나기라 닷껜(柳樂達見)은 곧 경성치과의학교의 설립자이며 초대 교장이었으니, 그의 교육을 받은 그가 최승용에 대해 몰랐으리라고는 고찰하기 힘드는 것이다. 해서 저자는 입치사 최승용은 그의 기술을 노다 오오지로부터 전수받았으리라 우선 추정한다.

잇방이라 함은, 치아 보철 시술을 하는 곳이다. 물론 당시는 개인적으로 그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었다.

잇방의 시설은 후트 엔진(Foot engine)과 배타기(排唾器)가 부착된 간단한 목제(木製) 의자와 간단한 몇 개의 기공 기구, 2~3개의 발치 겸자와 에레베이터(Elevator), 그리고 약품으로 붕산(硼酸), 옥도정기(沃度丁幾), 호르마린, 흐름크레솔, 캄호회닉 등을 구비했다.

그 시술 내용은,

1). 개면 금관(開面金冠)

2). 모리손 금관(Morrison 金冠)

3). 인레이

4). 고무상 총의치(護謨床總義齒)

5). 국부 가철의치(局部可撤義齒)

6). 가공 계속의치(架工繼續義齒) 등등이다.

(1). 발치는 거의 하지 않았다. 간혹 발치를 하더라도 마취는 전혀 하지를 않았다.

(2). 인상 채득에는 고데링 컴파운드(Modelling compound), 혹은 석고를 사용했다.

(3). 부리지(Bridge) 조제를 할 경우는, 그 지대치는 금관으로 하고, 그 좌우의 지대치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금판(金板) 내지는 금선(金線)을 사용해서 서로 납착시켰다. 그리고 이어 그 위에 도치를 배열하여 증화(蒸和) 고무로써 증화시켜 완성했다. 이러한 보철 기술은 당시로서는 매우 신기한 새 기술로서 크게 환영받았다.

(4). 인레이는 매몰제(埋沒劑)에 왁스의 모형을 매몰시키고 숯불에 장시간 소환시킨 다음, 수용 압박기(手用壓迫器)로써 금 또는 동합금을 압박해서 조제하였다.

전술한대로 1907년 최승용이 잇방을 창설한 후부터, 일정한 장소를 갖고 1910년까지 잇방을 개설한 사람은 문헌상 다음과 같다. 이들은 치과 전문 또는 이해 박는 집이라고 간판을 내세웠다.

1907년 최승용(崔承龍·서울 종로)
1907년경 안중수(安重修·서울 종로)
1908년경 김한표(金漢杓·서울 종로)
1908년경 김경집(金敬執·서울 종로)
1908년경 신정휴(申正休·서울 종로)

그리하여 1909년경부터는 잇방을 개설하는 입치사의 수도 격증하였다.

고 찰

대한제국 시대의 우리나라 치과의학에 관한 연구는, 그 연구 자료가 비교적 있을 것으로 우선은 사료되는데, 1986년 현재까지의 연구 보고를 조사한 결과로써는 의외로 적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치과 관련 인사들의 활동이나 그들의 사회적 지위 내지는 의료 활동 내용이 현대 치

과의학의 그것과 비교할 때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었기에, 후학들의 입장에서는 그 연구를 피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결과가 아닌가도 싶다.

그러나 치과 의학사 연구에 있어서는 당시의 연구야말로 귀중한 연구 대상임을 묵과할 수는 없다.

하여 저자들은, 이 부문에 관한 금후의 연구는 그 자료 수집에 있어서 우선 광범한 각종 행정 분야의 그것을 적극 수집할 필요가 있으리라 사료한다.

결 문

저자들은 대한제국 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한 소위 잇방에 관해서 연구하였다. 잇방은 서양치과의술이 한국에 소개된 최초의 치아 보철 시술 기관이다. 1986년 현재까지 이 부문에 관한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실정이다. 당시의 행정(行政) 관계의 문서 조사 연구는 금후 더욱 많이 되어야 하리라 본다.

문 헌

1. 楢崎東陽 : 朝鮮齒科醫界의 追憶, 대한칫과의학사연구회지, No. 1, 1960

2. 大澤義誠 : 朝鮮齒科變遷物語, 대한칫과의학사연구회지, No. 1, 1960

3. 殷仲基 : 韓末의 齒科業界에 對하여, 대한칫과의학사연구회지, No. 1, 1960

4. 朴明鎭 : 韓國의 齒科醫學, 대한칫과의학사연구회지, No. 1, 1960

5. 申仁澈 : 韓國 近代齒科醫學의 沿革, 대한칫과의학사연구회지, No. 1, 1960

6. 崔正奉 : 韓國 齒科界 槪觀, 대한칫과의학사연구회지 No. 1, 1960

7. 李漢水 : 週末의 齒科醫, 昔岩社, 1973

8. 李漢水 : 韓國 齒醫事 年代表, 대한칫과의학사연구회지 No. 1, 1960

朝鮮 齒醫學의 西洋式變化 過程에 對한 一齣

—朝鮮의 門戶開放以後 社會變遷과 關聯하여—

任 慶 彬*

≫目 次≪

1. 序 論
2. 朝鮮의 齒科醫學
① 朝鮮의 醫學
② 朝鮮의 齒醫學
3. 西洋 齒醫學의 傳來背景
4. 西洋 齒醫學의 受容과 土着化
① 西洋 齒醫學 産物의 紹介
② 口腔外科的 處治術의 傳來
③ 西洋式 齒科醫師의 來鮮
④ 西洋 齒醫學의 土着化
5. 結 論

1. 序 論

齒醫學의 重要性에 關하여 說明을 덧붙이려는 수고는 必要하지 않다. 아울러 學問的 發展이 눈부시게 이룩되어 社會的 要求에 副應하고 그 特性을 살려 나가고 있음도 새삼스럽게 强調되지 않아도 좋은 것이다.

그러나 開港以後朝鮮社會를 風靡하게 된 齒醫學이 傳統性을 外面하고 西洋에서 傳來된 學問임을 알고나면 그 育成發展을 爲하여 마땅히 傳來 過程에 對한 理解도 竝行되어야 하는 것으로 믿는다. 特히 齒科界 從事者들에게는 더더욱 要望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先學들의 玉稿에[1] 힘 입어 처음에는 從來의 方式과 同一하게 西洋式 齒科醫師의 朝鮮出現에 注目하므로 西洋 齒醫學의 傳來過程에 對한 理解를 깊이 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한 分野의 傳來가 반드시 該當分野의 專門家에 依存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西洋 齒醫學産物의 紹介, 非專門家에 依한 境遇라도 西洋 齒醫學의 斷片的인 傳來, 西洋式 齒科醫師의 朝鮮에 出現, 그리고 西洋齒醫學의 朝鮮社會에 受容及土着化되는 各 段階를 區分하여 硏究하여 보았다. 때문에 願하는바 아니었지만 硏究對象期間이 多少 늘어나는 것을 避하지 못하였다.

또한 齒醫學은 社會變遷을 主導하는 分野에 該當하기보다 社會變遷過程에 副應하는 分野에 該當된다. 그런데 比하면 齒醫學은 그 自體에 워낙 專門性이 要求되는 分野이다. 그러므로 斷片的인 資料에 依해서 結論을 導出하는 것이 危殆로운것 같아 硏究對象期間의 社會變遷過程에 疎忽해서도 아니되었다.

特히 西洋 齒醫學의 傳來는 朝鮮의 門戶開放과 密接하다. 그리고 門戶開放은 다시 大院君의 政策과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 그러므로 大院君의 浮沈過程은 本硏究를 爲하여 槪說的으로나마 다루어야 하였다. 때문에 本硏究가 散漫하여질 危險을 막으려 努力하였다.

그리고 外國文物의 傳來는 必要性에 立脚하여 배우고 익혀서 受容하며 다시 獨自的으로 開發하고 發展을 圖謀함이 普遍的이다. 때문에 그 土着에 많은 時間이 所要된다. 여기에 비추어 볼때 西洋 齒醫學의 朝鮮에 傳來는 特殊性을 바탕으로 하였으면서 傳來過程에 對한 充分한 資料는 蒐集하기 어려웠다. 이와같은 與件에서 普遍性에 바탕을 두고 硏究를 進行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時間이 所要되었다. 이것이 모두 좁은 識見의 所致였다.

그럼에도 畏濫되이 本稿를 내어 놓는 것은 硏究途中 朝鮮 齒醫學의 優秀性을 認識하게 되었고 西洋 齒醫學의 土着過程을 段階別로 區分하여 考察하는 가운데 意外의 收穫을 올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西洋 齒醫學의 傳來背景과 이에 附隨된 特殊性에 對하여 理解를 도움고자 하였다. 아울러 大方의 忌憚없는 叱責 또한 바라마지 않는다.

* 新羅齒科醫院 院長(江南區)

1) 大韓齒科醫學史硏究會編. 「大韓齒科醫學史硏究會誌」 1960年. p.6~p.20, p.37~p.38, p.70~p.87, p.116~p.117 · 參照.

2. 朝鮮의 齒科醫學

朝鮮의 齒科醫學(以下 固有 齒醫學이라 함)에 關하여 理解를 깊이 하려면 朝鮮 醫學(以下 固有 醫學이라 함)에 關하여 먼저 알아보는것이 順序일것 같다.

① 朝鮮의 醫學

固有 醫學이 漢方醫學圈內에 屬하여 왔음에 敷衍說明은 따르지 않아도 좋을줄로 믿는다. 따라서 固有 醫學도 儒學을 根本으로 發展되어온 朱子學을 論理的 根據로 삼으며 思想的으로는 陰陽五行說에 바탕을 두었다[2] 그 結果 固有 醫學 體系內에서도 人體는 小宇宙에 比較되었으며 各 臟器와 構成成分의 有機的인 調和 속에서 人間의 健康이 維持 된다고 믿었다. 그리고 各 臟器와 構成成分의 有機的인 調和를 圖謀하기 爲하여 主로 鍼·灸·按摩·찜·藥草 等을 使用 하였으며 나아가 不老長生을 追求하였다.

그런데 鍼·灸에 關한 仔細한 學術的 根據에 對하여 聞外漢인 까닭에 擧論함이 不當한 것이다. 때문에 鍼·灸을 通하여 固有 醫學 窮極의 目的인 不老長生의 圖謀可能性 與否조차 論함은 不當하다. 그러나 周知하는바 固有 醫學이 鍼·灸·按摩·찜·藥草使用을 爲主로 하는 限 外科的 處治術이나 새 臟器로 代置를 通하여 喪失된 人體의 機能回復을 圖謀함에 注力하지 않으면서 窮極의 目的을 達成하고자 試圖한 것은 否認하지 못한다. 古有 醫學의 學術上의 根據는 以上과 같았으며 古有 醫學 獨存當時 社會慣習은 다음과 같았다. 이를테면 男女間이나 班常間에 자리를 嚴格히 區分 하였다. 「身體髮膚受之父母」라 하여 머리카락 한올도 貴하게 여겨오며 "푸다거리"라는 慣習이 있었던 事實이다.

以上과 같은 社會慣習이 醫療施術時라도 術者에게 어김없이 適用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古有 醫學의 學問的 硏究方向, 이를 바탕으로한 術式開發, 나아가 古有 醫學의 限界에 미치는바 影響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것이다.

例로써 按摩施術의 境遇를 想像하여 보면 理解에 到達하게 된다.

勿論 受惠者인 患者의 身分을 術者가 全혀 識別할 수 없으며 오로지 施術만 할 수 있는 與件이 磨鍊되지 않고서 按摩는 容納되지 않는다. 때문에 古有 醫學은 一見 制限된 範圍나 限界가 드러나는 醫學으로 보이게 된다. 그러나 疾病과 이른바 "靈驗"과의 關係에 着眼하였던 風習을 보면 반드시 古有 醫學의 範圍나 限界가 簡單히 擧論될 性質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이른바 "푸다거리"를 通하여 疾病에서 벗어 나려는데서 잘 理解될 줄 믿는다.

왜냐하면 "푸다거리"는 人間이 靈과 肉의 結合體임에 着眼하여 靈的인 面을 다루고자 하였던 趣旨가 內包된 때문이다. 「巫」字와 「醫」字의 差異가 다만 時代的인 差異밖에 없다는 文字풀이가[3] 뒷받침 하고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르면 古有 醫學의 範圍나 限界의 狹少함은 擧論의 必要性을 喪失하게 된다. 따라서 擧論의 必要性은 古有醫學의 術式에서 찾아져야 마땅하다.

그런데 古有 醫學의 術式이 一定한 過程을 거친 一定人들에 依해서 傳受되고 그들에 限하여 人體를 다룰 수 있는 義務가 賦與되어져 있었는지 明確하지 않다. 朝鮮에 醫療制度(或云 醫事制度)가 없었던것은 아니지만 巫俗, 僧侶, 讖者, 醫人等 여러部類의 사람들이 제各己 秘訣을 간직하고 救命에 臨하고 있었음을 否認하지 못하는 때문이다.

그렇지만 固有 醫學 獨存時代에 醫人 또는 醫生이라는 別途의 呼稱이 存在하고 있었다[4]. 境遇에 따라 古來로[5] 醫博士라는 呼稱도 있어왔다. 勿論 上記와 같은 呼稱이 따른는 사람들은 疾病의 治療에 關하여 아무래도 專門性을 띄우고 있었다. 그런데 이와같은 사람들은 大部分 朝鮮社會의 中人들이며, 雜科에 合格하면 上記한 呼稱이 따랐다. 이들에게 前記한 呼稱이 따를때까지 社會的 뒷받침이 分明하였던 根據는 發見되지 않고 비록 上記한呼稱이 따른後에도 社會的地位에 分明한 變化는 發見되지 않는다. 오히려 醫療受惠者가 効驗을 얻지못하면 이들 施術者에게 一種의 責任이 隨伴되는 것을 避할 수 없는 形便이었다. 그밖에 周知하는바 朝鮮時代에도 身分制度는 確立되어 있었다. 兩科級第를 通하여 官吏가 되면 社會的地位가 確保됨이 普遍的이었다. 곧 出世의 象徵이며 結果的으로 生計를 걱정하지 않는 捷徑이었다.

固有 醫學의 從事者들이 以上과 같은 與件下에 處하여 있었던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近世朝鮮에 이르도록 固有 醫學의 術式이 社會的要求를 充足시키기에 未洽하였다[6].

---

2) 朴鍾甲「東洋醫學槪說」東洋綜合通信大學編 1965.5. p.152~153 參照.
3) 朴鍾甲 上揭書. p.32. 參照.
4) 金官興 "朝鮮朝時代 醫人의 地位와 階級"「大韓齒科醫學史會誌」1985. 제6권 제1호 p.24 參照.
5) 金斗鍾「韓國醫學史」p.81 參照.
6) 勿論 施惠範圍의 問題와 함께 考慮되어야 겠으며, 實際로 壬午軍變時 負傷當한 閔泳翊도 西洋 醫學의 도움으로 生命을 건졌다.

그러나 朝鮮은 그 後期에 이르러 緩慢하지만 새로운 文物에 接하게 되면서 身分과 別途로 能力과 眼目을 가춘 人物에 社會의 關心이 集中되고 귀를 기우려 주었다. 生計도 農業一邊倒로부터 商業에 依하여 維持가 可能하면서 商業의 重要性이 認識[7]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덧 붙여 人口의 增加, 傳染病의 蔓延, 時間의 흐름과 더불어 開發된 新武器의 使用은 戰時마다 大量患者를 發生시켜 이를 解決함이 社會的要求로 登場하게 되었다.

② 朝鮮의 齒科醫學

朝鮮에 開化期가 到來하기까지 固有의 齒科分野는 어떠하였을까.

醫女에 依하여 固有의 齒醫學이 傳受되어 왔던 事實을 밝혀낸 硏究業績은[8] 貴重한 資料이다. 上記 硏究를 通하여 國王이 醫女의 도움으로 齒痛에서 벗어났음이 밝혀지는데, 固有 齒醫學의 一斷面을 보여 주는 까닭이다. 다만 朝鮮社會를 風靡한 「男尊女卑」思想에 비추어 보면 醫女에게 依存된 固有 齒醫學이 아무래도 尊待 받을 수 없는 分野에 머물지 않았는지 궁금하게 된다. 그러나 이 궁금症은 杞憂임을 깨닫게 하여 주는 여러面이 있다.

醫女가 自身의 才能을 王命에도 不拘하고 他에게 傳授하지 못하였던데서 오히려 그 까닭은 찾아진다.

醫女는 10餘年에 거쳐 그 才能을 傳受하고 있다[9]. 그러나 結局 後輩 醫女를 養成하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그 才能이 幻術이라 表現되고 있음에 注目하면 그 才能은 傳受도 傳授도 容易하지 않았음이 드러나며 醫女에게서 巫女性조차 엿보이고 있다.[10] 때문에 醫女를 單純히 女子의 立場에 놓고 「男尊女卑」思想에 立脚하여 바라보는것은 지나치게 社會慣習的 眼目에 치우치는것 같다.

特히 在位期間이 朝鮮文化 開花期에 該當하는 成宗代 固有 齒醫學傳授의 必要性이 强調되었던데서 當時 社會에서 醫女들에 依한 齒科醫學이 尊待받지 못하는 分野였다고 보는것은 不當하다. 그러므로 醫女의 施術能力이나 施惠範圍에 關하여 理解를 도움고자 한다. 그렇게 하기 爲하여 급작스러운듯 하지만 于先 口腔의 機能에 關한 理解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口腔의 機能을 簡單히 要約하는것은 不可能 하지만 咀嚼, 發音及發聲, 美觀, 消化, 非正常時呼吸, 味覺, 愛情의 表現等 多樣性을 띄우고 있다 하여도 지나치는 것은 아니다. 口腔의 一部分인 齒牙의 機能도 最少限 咀嚼, 發音及發聲, 美觀等이다. 齒牙는 그 外部가 人體中 가장 단단한 硬組織이다. 乳齒는 崩出後 一定期間이 지나면 成長과 더불어 그 自體의 疾患有無에 無關하게 自然 脫落되고 永久齒가 崩出되며 代置되는 特徵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身體의 一部로 接合된 狀態下에 있어 脫臼가 可能하며 生命力을 갖고있다. 齒牙自體가 再生能力을 所有하되 齒髓腔內로 再生할뿐 外向的이지 않다. 齒牙는 生命力을 잃었더라도 身體와 接合이 반드시 斷絕되지도 않아 그 機能이 全的으로 喪失되지 않는다.

오히려 齒牙가 生命力을 잃어버리면 齒痛으로부터 解放되는 境遇가 있으며 顎骨에 癒着되기도 한다.

그러나 齒牙가 一段 破切되거나 脫落되면 그 機能回復을 爲하여 많은 器具와 高度의 精密을 要하는 技能이 要請된다. 따라서 脫落된 齒牙自體를 再活用하지 않으려는限 어떤 形態로든 代置가 要望된다. 特히 下顎骨은 人體中 唯一한 複合關節로 多樣한 運動을 하고 있다.

上記한 口腔의 特性上 鍼·灸·按摩·찜·藥草의 使用, 나아가 "푸다거리"를 通하여 口腔內 疼痛制御와 特히 喪失된 機能回復을 圖謀하려면 可能한 境遇와 不可能한 境遇에 逢着하게 될것은 쉬웁게 豫想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固有 齒醫學이 漢方醫學圈內 包含되어 있더라도 또다른 施術能力을 必要로 하게 된다.

그런데 固有 齒醫學의 또다른 施術能力은 醫女들의 施術方式에서 斷片이나마 發見 된다. 即 鍼과 다른 器具를 使用하고 있음이 傳하여지고 있는[11] 때문이다.

또한 醫術과 無關하게 齒牙治療가 可能하였다고[12] 傳하는데서 그 表現上의 誇張을 勘案한다면 固有 齒醫學의 또다른 施術方式을 나타내는 것이라 보아도 좋은 것이다.

그러나 醫女가 故障난 齒牙를 外科的 處治를 加하여 除去하고 또다시 새로운 齒牙가 崩出되도록 圖謀하였거나 새로운 齒牙를 人體에 組立附着하므로 機能回復을

---

7) 李基白「韓國史新論」改正版. 一潮閣. 1981, p.280. 參照.
8) 李漢水 "朝鮮前期 齒科醫學史"「大韓齒科醫學史會誌」1985, 제6권 제1호 p.136~137. 參照.
9) 上揭算에 揭載된 同一한 論文中 成宣實錄 266卷의 一部가 下記와 如히 引用되어 있다. "……貴今曰我自七歲始學此術至十六歲乃成今我非不盡心敎彼不能習耳"
10) 李漢水 "朝鮮前期 齒科醫學史"「大韓齒科醫學史會誌」1985, 제6권 제1호 p.136. 參照.
11) 上揭論文 p.136. 參照.
12) 上揭論文 p.136~137. 參照.
13) 上揭論文 p.136. 參照.

圖謀하였다는 內容은 全然 發見되지 않는다.

따라서 固有 齒醫學이 漢方醫學과 同一한 바탕위에 있으면서 다만 器具의 使用을 달리하여 修繕함을 目的으로 하였고 醫女들이 齒牙治療에 앞서 훌륭한 施術能力을 具備하고 있었음을 意味 하는것으로 보아도 無妨하다.

그러면 醫女들의 施惠範圍는 어떠하였을까.

「朝鮮朝 醫事制度의 考察」[14]이 示唆하는바에 依하면 內醫院의 職名, 官職의 品位에 多樣性[15]이 發見된다. 그런데 人員數에 依據하면 醫科는 勿論 齒科의 施惠範圍가 미루어 짐작된다.

勿論 醫女의 數 또한 制限되어 있었으며 그 術式의 傳授조차 容易하지 않았음에서 當時社會에서 齒科分野의 施惠範圍가 豫測된다.

通俗的인 面에서 보더라도 施惠範圍의 一斷面은 豫測할 수 있겠다.

即 齒牙와 「五福」이 關聯되어 있음은 生疏하지 않은 때문이다. 齒牙가 「五福」과 關聯된 緣由는 分明하지 않지만 아뭏든 通俗社會에서는 躊躇없이 齒牙를 「五福」中의 하나로 包含 시키고 있다. 그런데 「五福」은 運命論과 連結되어 있다. 때문에 通俗社會에서는 齒牙를 運命과 關聯짓고 있음이 發見 된다.

敷衍하여 說明하면 通俗社會에서의 齒牙觀이 人爲的인 能力밖에 成立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一見 固有 齒醫學의 施術能力을 評價하는 意味로 받아드릴 수 있겠다. 그러나 通俗的인 面에서 아예 齒醫學 不在임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齒牙의 健康을 圖謀하려는 意志보다 束手無策으로 運命에 맡기려는 意味가 짙기 때문이다.

反面 士大夫들이 醫女를 불러다 效驗을 보고 있음에[16] 이르면 最少限 一部社會階層에서는 齒醫學 不在의 意味는 發見되지 않는다. 따라서 固有 齒醫學은 그 施術能力보다 施惠範圍의 局限性이 根本的으로 解決되어야 하였던 問題임을 나타내고 있다.

以上에서 考察한바 固有 齒醫學은 思想的背景이나 論理的 根據上 漢方醫學과 그 軌를 같이하고 있었다. 다만 口腔의 多樣한 機能으로 因하여 그 疾患을 治療함에 있어 別途의 器具와 術式을 必要로 했다. 그 까닭에 一見 漢方醫學과 軌가 다른듯 認識될 可能性은 內在되어 있었다.

上記와 같은 固有 齒醫學은 主로 醫女들에 依하여 施術되었으며 그 術式이 幻術로 表現될 程度였다. 그러나 醫女들의 社會的地位도 莫然하였고 醫女들에게서 使命感은 엿보이지 않는다.

또한 口腔疾患에서 解放되기를 願하는 境遇라도 施術效驗이 없으면 施術者는 責任을 免할 수 없었다. 그 위에 術式의 傳授가 容易하지않아 命脈의 維持가 어려웠다. 齒科 醫女의 數는 自然히 制限되고 施惠範圍도 局限性을 띄웠다. 그 結果 社會的要求에 副應하지 못하고 있었다.

以上과 같은 가운데 朝鮮後期에 이르러 身分階級을 떠나 個人의 能力이 評價받기 始作하며 技能保有者에 對한 社會認識에 變化가 일어났다. 醫人이나 醫女들을 單純技能者로 보기는 어려웁겠지만 아뭏든 이들에 對한 認識에도 變化가 일고 있었음을 理解하게 되었을 것이다.

3. 西洋 齒醫學의 傳來背景

齒科分野가 朝鮮의 社會變遷을 主導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朝鮮의 社會變遷過程에 齒科分野가 副應하였다고 보아야 適當하다. 때문에 一見 距離感이 있는듯 하지만 朝鮮社會의 近代化過程에 關한 理解없이 齒醫學의 西洋化 過程에 關한 理解 또한 어려운 것이다. 特히 朝鮮의 門戶開放期에 關해서는 槪說的이더라도 理解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本稿와 無關하듯 하지만 朝鮮의 門戶開放期에 于先 注目한다.

朝鮮의 外交는 傳統的으로 善隣에 바탕을두고 있었다. 그러나 高宗代 이르러 朝鮮의 外交는 豫測不許의 境地에 이렀다. 即 國內에서 王室은 大院君과 閔妃間에 意見이엇갈렸고[17], 官僚層에는 賣官賣職이 公公然히 恣行되었다. 富國一念에 치우친 地方官吏들은 凶年임에도 곡식을 거두는데 差異를 두지 않는 形便이었다. 그 위에 傳染病까지 蔓延되었다.

國外로는 西歐列强의 勢力이 植民地開拓을 目的으로 이미 淸까지 뻐쳐와 있었다. 日本은 새로운 亞細亞의

14) 金正均 "朝鮮朝 醫事制度의 考察" 「大韓齒科醫學史會誌」 1985, 제6권 제1호 p.18. 參照.
15) 金官興 前揭論文 p.22. 參照.
16) 李漢水 前揭論文 p.136 參照.
17) 大院君과 閔妃의 政治的 關係를 흔히 政權爭奪의 關係로 보아온듯 하다. 그러나 兩者는 서로 浮沈하면서도 身邊에 아무런 害를 加하지 않고 있다. 또한 兩者의 浮沈에 따라 外交政策이 바뀌는 變化가 따를 뿐이다. 高宗을 頂點으로 하는것도 同一하다. 따라서 憂國의 方式이 다를뿐이다. 좀더 깊고 明確한 硏究가 따라야 할것으로 생각되지만 本稿에서는 省略하고자 하며 따라서 于先 "意見이 엇갈려있는" 關係로 表現함에 그친다.

强者로 떠올라 大陸進出을 模索하고 있었다.

上記와 같은 與件下에서 朝鮮朝廷이 國內外 情勢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기 힘겨웠다. 大院君이 鎖國政策을 固執하더라도 高宗이 一時 容許하고 있었다.

이로써 朝鮮은 周邊國에 "조용한 隱遁의 나라"로 認識되고 있었으며 이미 開化된 淸조차 朝鮮內에서 活動이 如前하지 않았다[18].

이렇게 大院君의 政策이 朝鮮에서 採擇되고 있었으나 朝鮮의 國力이 鎖國政策을 長期固守되도록 뒷받침 하기에 洽足하지 못했다.

1873年 大院君은 高宗의 親政可能時期 到來에 즈음하여 政治一線에서 물러났다. 그後 高宗의 政治的 同伴者로 王后 閔妃가 政治一線에 나섰다. 그런데 大院君의 對外政策이 지나치게 分明하였던 關係로 그의 後退는 곧 朝鮮 對外政策의 變化와 直結되었다.

朝鮮이 흩어진 國論을 收斂하기 前임에도 不可避 朝鮮나름대로 一方外交에서 國際列强 意思에 따른 一方外交로 轉換하지 않을 수 없음을 意味하고 있었다. 그 結果는 1876年 武力을 앞세운 日本과 江華島條約의 締結로 나타났다. 當時 朝鮮은 「條約」이나 「自主」라는 用語에 生疎한데도[19] 自主國의 位置에서 不平等한 條約을 締結한 것이다. 이어서 英·美·露·獨·佛·홀랜드等과 修交하게 되면서 周知하는 바 朝鮮은 急激한 外交的 轉換期에 접어 들었다.

이러한 가운데 朝·淸·日의 關係는 漸次 微妙하여지기 始作하고 守舊性이 强한 一團의 무리는[20] 門戶開放에 懷疑를 품고 朝鮮內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런데 閔妃가 政治一線에 登場한 以後 어떤 理由때문인지 日本敎官에게 訓鍊받는 別技軍을 創設하였다. 軍의 近代化 一環으로 보이는데 舊式軍隊 自體의 漸進的 近代化와 달리 別個部隊의 創設을 圖謀한 것이다. 同一國의 軍隊이면서 槪念上 新·舊式으로 區分되었으며 待遇조차 差異가 있던것은 軍自體에 複雜性을 介在시키는 原因을 提供한 것이다. 마침내 1882年 舊式軍隊에 俸給으로 支給된 쌀에 돌이 섞인것이 表面的인 原因이 되어 舊式軍隊에 依한 軍變이 勃發 하였다.

이때 舊式軍隊가 單純히 別技軍과 差別에 不滿을 터뜨린 것인지, 閔妃를 相對로 不滿을 터뜨린 것인지, 或云 高宗을 向하여 不滿을 터뜨린 것인지 보다 깊이 硏究되어야 하겠으나 여기서는 省略 하기로 한다. 勿論 軍變이 朝鮮內外에 미친 影響도 마찬가지이지만, 아뭏든 軍變이 大院君에게 再起의 機會를 賦與하였던 것은 움직일 수 없다. 實際로 高宗이 大院君을 還宮시키므로 軍變이 鎭定되었다. 앞에서 잠간 言及한바와 같이 大院君의 外交政策은 지나치게 分明한 까닭에 大院君의 再起로 江華島條約以後 西歐諸國과 締結된 條約이 有效할 수 있으며 朝鮮의 門戶開放이 持續될 것인지 짐작하기 어려웠다. 바야흐로 朝鮮이 鎖國과 開國間에서 漂流途中 또다시 鎖國의 海流에 便乘하는듯 보였다.

그러나 怒濤처럼 밀려오는 外勢의 影響은 朝鮮으로 하여금 또다시 鎖國政策을 따라 흐르도록 放置하지 않은것 같다. 軍變을 收拾하고자 來鮮한 淸이 大院君을 그들의 나라로 拉致하였기 때문이다. 그 表面的 理由는 大院君이 軍變의 背後 操縱者로 指目된 때문이다. 이로써 高宗과 閔妃의 政治的 同伴關係가 淸軍의 支援을 받아 뿌리내리는 契機가 되었으며 朝鮮에서 淸의 地位가 再確保되고 그러는 中에 朝鮮朝廷이 마치 袁世凱의 朝廷인양[21] 變化되고 있었다. 그리고 亞細亞의 새로운 强者로 떠오른 日本도 朝·淸間의 紐帶를 헐지못하면 朝鮮에서 行動이 任意롭지 않음을 立證하고 있었다.

上記와 같이 軍變은 朝鮮內로 政治勢力의 變化와 外交政策의 方向에 影響을 미쳤고 朝鮮外로 日本의 大陸進出에 制動을 걸며 朝鮮에서 淸의 地位를 再認識시키는 契機가 되었다고 보아도 좋은 것이다. 아울러 朝鮮의 門戶開放이 不變의 外交政策으로 굳어지는 原因이 되었다. 또한 西歐列强의 朝鮮을 向한 植民地 政策에 露骨的인 軍事力을 앞세우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은 것이다.

以後로 日本도 朝鮮에는 勿論이려니와 淸에도 居留民을 派遣하고 있을뿐 表面的 軍事行動을 함부로 行事하지 않는等 對朝鮮 無關心을 假裝[22]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釜山과 仁川等地에 租界와 租借地를 차례로 確保 하였으며 따라서 居留民의 數는 增加하는 趨勢였다[23]. 그리고 그들에 依한 活動이 活氣를 띄우고 있었으니 그 一例로 居留民들에 依한 貿易量中 特히 穀物의 對日輸出量은 마침내 朝鮮朝廷의 關心事[24]가 되기에 이르렀다.

---

18) 壬午軍變 以後 淸은 宗主國임을 强調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그리고 鎖國政策主義者 大院君을 拉致하므로 目的을 達成한다. 따라서 鎖國政策은 朝鮮의 對淸外交에도 적지않은 影響이 미친듯 하다. 特히 「아편전쟁」 以後 世界속에 淸의 地位는 흔들리고 있었고 天主敎의 傳來로 朝鮮과 不便하여 지는 原因이 提供되었음은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19) 金容旭 「韓國開港史」 瑞文文庫(201) p.327~328. 參照.

20) 朝鮮의 門戶開放을 斥洋斥邪를 내세웠 反對한 儒生들.

21) 金容旭 「韓國開港史」 瑞文文庫(201) p.47. 參照.

때문인지 1877年 日本海軍에 依해 設置되었던 釜山의 日本 濟生醫院[25]이 軍變以後 1885年 居留民團에 移管되는 變化가 따르게 되었다. 이로부터 日本의 對朝鮮外交는 表面上 民團外交라 하여도 좋을만큼 變化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日本 居留民들은 勿論 民間人의 資格으로 朝鮮의 開港地를 向하여 몰려들었으며 日本國籍을 그대로 所有하였고 主로 租界나 租借地라는 朝鮮朝廷으로 부터 治外法權地域에 群居하고 있었다. 그 結果 居留民들은 地域的制限은 받고 있었지만 比較的 自由롭게 朝鮮의 事情을 把握할 수 있었고, 生活慣習조차 익힐 수 있었다. 때문에 居留民들은 日本이 武力에 依한 大陸進出政策을 破棄하지 않는限 有事時 不得已 日本이 派遣한 兵站要員들이어야 하였고 이들이 居住하던 租界나 租借地는 日本이 朝鮮內에 構築한 橋頭堡로써 性格을 띄우게 되었다.

이와같은 日本居留民中에 1887年 16歲少年 野田應治가 醫師修業을 爲하여 來鮮하여 있음을 發見하면[26] 朝鮮의 門戶開放과 齒醫學의 西洋化過程間의 關係가 얼마나 密接한지 理解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朝鮮 齒醫學의 西洋化過程에서 日本人들의 活動에 對하여 關心이 集中되었을뿐 西洋人들의 活動에는 無關心 하여온것 같다. 勿論 美國人 齒科醫師의 來鮮時期가 日本人 齒科醫師의 來鮮에 比하여 늦은 까닭에 그 빛이 바랜때문이다. 그리고 美國人들의 活動에 對한 資料蒐集이 容易하지 않은 때문이다. 其他 西洋人들에 關해서도 그러하다. 그렇지만 片鱗이나마 긁어모아 西洋人들의——朝鮮 齒醫學의 西洋化 過程中——役割은 어떠하였는지 살펴보려 한다.

周知하는바 美國은 朝鮮의 門戶를 開放하기 爲하여 1866年 一方的으로 朝鮮內陸 깊숙히 大同江을 거슬러 올라왔었다. 그랬음에도 朝鮮朝廷과 合意點을 찾지 못하던 美國은 方式을 바꾸어 淸이나 日本을 通하여 修交를 要請 하였다. 그러더니 1883年 軍變以後 修交에 成功하고 餘他國과 달리 宣敎師를 보내고 있었다.

淸은 朝鮮에서 宗主權을 行使하려 하였고, 日本은 居留民을 앞세워 땅덩이를 차지하려 하였다. 英國은 朝鮮에 海軍基地를 磨鍊하려 巨文島를 占領하였고, 露西亞는 太平洋을 向한 不凍港을 얻고자 努力 하였다.

그러나 美國은 1884年 公使館을 設置하고 나서 政治·軍事的 行動보다 意外로 宣敎師를 보내어 改新敎를 傳播하려 試圖하고 있었다. 過然 改新敎를 傳播하기 爲하여 「제네랄·슈만」號를 보내고 淸과 日本을 通하여 修交를 慫慂하여야 했을까.

아뭏든 好奇心을 갖게하는 美國은 宣敎師를 派遣하고 있었는데 그 一環으로 Allen이 來鮮 하였다. 1884年 甲申政變이 일어나기 2,3個月前이었다.

그런데 그의 身分이나 資格 또한 好奇心을 갖을만큼 多樣 하였다.

Allen이 來鮮할 當時는 美公使館 所屬의 一員 이었다[27]. 그는 宣敎를 目的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來鮮한後 公使館所屬 醫師로서 朝鮮人에게 紹介되었다. 그 當時 朝鮮은 宣敎師를 받아주지 않았던[28] 때문이며, 그의 同僚들이 그로하여금 朝鮮에서 醫師로서 立身揚名을 勸誘할 程度로 有能한 醫師였던 때문이다.

敷衍하여 說明하면 1884年 朝鮮에서 누군가 美國 公使官에게 Allen이 宣敎師인지 물었을때 公使는 Allen을 公使館에 配屬된 醫師라고 多少間 잘못된 對答을 하였다. 그러나 그 結果 西洋醫學이 效果가 좋다는 때를 맞도록 하였다. 나아가 宣敎師로서 宣敎師를 받아드리게 되는 바탕이 되었다[29].

그러더니 Allen은 來鮮後 2,3年이 지나자 醫業을 떠나 이번엔 外交業務에 從事하게 되었다[30].

이렇게 多樣性을 지닌 Allen이 周知하는바 西洋式 醫療機關인 廣惠院을 세우므로 美國人에 依한 西洋醫學이 本格的으로 朝鮮에 傳來되는 土臺가 되었다. 뿐만아니라 一後述하겠지만—部分的이나마 1884~1886,7年 사이에 西洋 齒醫學이 傳來되는 터전이 되었다.

그런데 看過하지 못하는 事項이 있다. 西洋 齒醫學이 傳來될 當時 朝鮮에 醫事制度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事實이다. 때문에 日本人이나 美國人들이 어떻게 朝鮮에서 醫療行爲를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게 된다.

過然 上記한 外國人들이 當時 朝鮮의 制度圈內에서 所定의 節次를 거친後 治療에 臨하고 있었을까. 이것은 궁금할뿐 現在까지 擧論조차 아니되는 實情임에 비추어

22) 崔文衡 "國際關係를 通해 본 淸·日開戰의 動因과 經緯" 「歷史學報」 99·100 合輯. p.233, 參照.
23) 李鉉淙 「韓國開港場硏究」. 一朝閣. 1979. p.313~314. 參照
24) 防穀令 宣布.
25) 金斗鍾 「韓國醫學發展에 對한 歐美 및 西南方醫學의 影響」. 1960 財團法人 韓國硏究 圖書館. p.84~85 參照.
26) 後述됨(本稿 4章 3項).
27) H.N. 알렌 「項朝鮮見聞記」. 申福龍 옮김. 평민사. 1896, p.135 參照
28) 上揭書. p.135 參照.
29) 上揭書. p.136 參照.
30) 上揭書. p.151 參照.

考慮外 事項에 該當되었던것 같다.

그러면 國權이 喪失되지도 않았으며 形式과 節次를 重視하고 禮儀를 尊重하던 朝鮮社會속의 生命과 直結된 醫療分野에서 이처럼 破格的인 境遇가 默認되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이 原因을 生命의 高貴함 이라던가 醫學이 社會에 寄與하는바等 普遍性에 바탕을 두고 찾아내려 한다면 그것은 愚를 犯할 뿐이다. 그 眞正한 原因은 앞에서 考察한바 門戶開放當時 朝鮮과 朝鮮이 國際社會속에 處해있던 微妙한 立場에서부터 찾아져야 올바른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日本人을 通한 西洋 齒醫學의 傳來는 武力에 依한 大陸進出의 橋頭堡 構築에 隨伴되어 있었고, 美國人들을 通한 西洋 齒醫學의 傳來는 앞서考察한바 宣敎活動에 隨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從來의 朝鮮은 他國의 한 分野學問을 傳受함에 있어 必要에 依하여 該當分野의 實體를 把握하고 배우고 익혀서 受容하였으며 나아가 獨自的으로 發展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西洋 齒醫學은 傳播國의 意圖에 따라 Demonstration과 practice가 朝鮮形便에 關係없이 先行되며 뒤따라 首肯하고 受容되었다. 即 受容되는 過程부터 特異하였던데 有意해야 되는 理由가 있다.

이렇게 西洋 齒醫學의 傳來背景에는 特殊性이 간직되어 있었던 까닭에 普遍性에 依據 그 西洋化過程에 接近하면 올바른 理解에 到達하기보다 于先, 궁금症에 가로막히게 된다.

4. 西洋 齒醫學의 受容과 土着化

前述한바 方式上에도 特殊性을 띄운 西洋 齒醫學이 朝鮮에 傳來되었다. 그러나 傳來된 西洋 齒醫學의 社會的 寄與度는 높이 評價되어도 지나치지 않았으므로 隱然中 朝鮮에 受容되고 있었다. 이로써 朝鮮에는 서로다른 思想的背景을 바탕으로 하지만 同一한 目的을 止揚하는 두개의 學問 即 固有 齒醫學과 西洋 齒醫學이 어느새 共存하는 時代를 맞게 되었다. 이렇게 傳來된 西洋 齒醫學이 어떠한 過程을 거치며 土着化되는지 觀察하는것은 마땅하다.

① 西洋 齒醫學의 紹介.

Allen의 「朝鮮 見聞記」[31]속에 브랭크(Blank : 空虛하다는 뜻)라는 美國人 流浪 開拓者에 關한 짤막한 記錄이 있다.

"브랭크 라는 양키的 出生과 成長을 實感하게 하여주는 人物이 約 20歲의 나이에 그가 타던 捕鯨船(New-Bedford 라 傳함)과 「울라디 보스토크」에서 헤어졌다. 그後 生疎한 「시베리아」에서 貿易商이 되고 中國女人과 結婚하여 混血家長이 되었다. 그가 日本에 物件을 購入하러 갔는데 이사이 中國 盜賊떼들에게 婦人과 事業上 代行者이기도 하던 아들을 잃었다. 브랭크는 러시아 市長으로부터 3~4名의 志願者를 이끌고 復讐를 할 수 있게 許諾을 받았다.

그後 「Amur」地方에서 數百名의 殺害事件이 일어났다.

이 事件이 바로 브랭크 一黨의 復讐結果로 推測되어 市長은 不得已 브랭크를 逮捕하려 하였다. 이때 브랭크는 마침 日本으로 出發하는 汽船을 타고 러시아를 떠났다.

이무렵 朝鮮이 開國되자 冒險心 많은 늙어진 開拓者는 朝鮮으로 幸運을 잡으러 왔다. 이때는 서울에 美國公使가 와서 있었다.

그리고 브랭크가 마땅한 일거리를 찾기爲해 公使를 만나러 조랑말을 타고 서울을 向해서 25'마일'을 가야하였다. 그는 途中 어떤 酒幕에 들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 酒幕의 대청에서 한 異邦人이 異狀하게 생긴 飮食먹는 모습을 求景하려 많은 朝鮮人이 몽여 들었다. 食事를 마친 붉은 수염의 異邦人이 손을들어 義齒를 빼어내더니 닦기 始作하였다.

朝鮮人들은 이제까지 自己몸의 一部를 이같이 組立할 수 있다는것을 全혀 들어보지 못하고 또 想像도 못 할 일이었다.

怯에 질린 悲鳴과 "아이구머니"소리를 지르며 觀客들은 그 異邦人이 自身들에게 끔찍스러운 運命과 詛呪를 내리지 않도록 하기爲해 하나밖에 없는 大門을 빠져나가기 위하여 힘쓰며 그토록 自己몸의 一部를 아무렇게나 떼어낼 수 있는 異邦人곁을 떠나갔다[32]."……

以上에 記述된 內容 全體의 眞僞에 有意하는 것은 아니다. 브랭크의 行跡에도 疑問스러운 部分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上記한 內容이 示唆하는바는 看過해서 아니된다.

即 브랭크에게서 美國的 人物임을 느낄 수 있고 때문에 그가 幸運을 잡으러 來鮮하는데서 궁금症을 갖게하는 門戶開放當時 來鮮 美國人들의 目的一部가 發見된다. 또한 門戶開放當時 美國公使라면 1883年 4月~1886年 5月 사이에 赴任하였던 「후드」公使를 意味하며 이때 義齒를 처음 對하는 朝鮮人들의 모습이 生動感 있게 나

31) 1884年 朝鮮에 入國하여 1885年 廣惠院을 세운 H.N. 알렌의 著書.
32) 上揭書. p.15~18 參照.

타나 있다.

여기서 義齒가 朝鮮에 偶然히 紹介되는 過程과 時期가 떠오른다. 그런데 義齒가 西洋 齒醫學의 産物임을 勘案하면 西洋 齒醫學이 偶然하게 어떤 美國人에 依하여 1883年 4月~1885年 5月 사이에 紹介되었음이 밝혀진다.

故來로 外國의 文物이 반드시 該當分野의 專門家나 該當分野의 從事者에 依해서 傳來되지 않는다. 特히 傳來段階에서는 더더욱 그러한 傾向이 두드러진다[33].

그러므로 西洋 齒醫學의 産物이 門戶開放期에 한 美國人에 依하여 偶然하게 紹介되었던 것은 否認할 수 없다.

② 口腔外科的 處治術의 傳來

西洋 齒醫學은 紹介되면서 朝鮮人들을 놀라게 하였을뿐 效驗을 주지 않았다. 때문에 朝鮮人들은 아직도 固有齒醫學에 依存하고 있었다. 그런데 固有 醫學의 體系, 保守的 身體觀, 社會慣習이나 風習, 醫人의 社會的 地位와 施術後에 따를지도 모르는 責任問題等으로 因함인지 固有 醫學은 勿論 齒醫學分野에서 外科的 處治術에 關한 뚜렷한 成果는 現在까지 發見되지 않는다.

그러나 周知하는바 一般外科에서 起源된 西洋 齒醫學의 境遇는 固有 齒醫學과 다른 것이다. 西洋에서는 이미 藝術의 한 分野인 彫刻部門에서도 人體의 解剖學에 關하여 該博한 知識을 갖고 있었던 때문이다.

따라서 齒科分野의 外科的 處治術이 多樣하고 冒險心强한 美國人 醫師에 依하여 朝鮮에서 1884~1886,7年 사이 이미 施術되었음이 밝혀지면 興味를 갖게 될 것이다.

더구나 카나다 女醫師에 依하여 보다 專門性을 띄운 口腔外科的 處治가 朝鮮에서 1890~1891年 사이 施術되고 있었다면 오히려 疑問조차 갖게될 것이다.

그러면 朝鮮의 門戶開放當時 來鮮하였던 西洋人들이 남겨놓은 記錄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은 醫師들이었던 關係로 남겨놓은 記錄 또한 朝鮮 齒醫學의 西洋化 過程을 爲主로 하고있지 않다. 때문에 記錄의 量에 比하여 齒科分野와 有關한 部分은 疏略하다. 그리고 브랭크에 關한 記錄과 비슷하여 注意를 集中하지 않으면 흘려버리게될 程度이어서 알알이 주어 모아야 한다.

"나는 醫科大學을 다닐때 이(齒牙). 빼는 方式을 배우려고 했다. 그러나 내가 얻은 唯一한 方式은 適合한 집게를 골라 이(齒牙)를 깊게 꼭 집어 비틀면서 「보다 貴重한 生命을 爲해」 잡아 뽑는 것이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가 몹시 아프다고 不平을 하면서 찾아왔다. 그 사람을 빨리 돌려 보내기 爲하여 아픈이를 뽑아 버리자고 勸하였다. 그렇게 勸誘하면 患者들은 곧 가버린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 이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놀랍게도 當場에 同意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의 處方을 爲해 나의 能力을 다하여 한번에 이(齒牙) 두個를 뽑았다.

그날 늦게 내가 病院門을 닫기前에 그 사람이 온 것을 보고 氣가 꺽이고 말았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이(齒牙) 하나를 썩은 이(齒牙)와 함께 뽑아 버리고나서 호되게 辱을 먹을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中略……그 以後로 나는 많은 이(齒牙)를 뽑게되어 오히려 이(齒牙) 뽑는일을 漸漸 좋아하게 되었다[34]."

以上의 內容은 바로 Allen 의 朝鮮에서 醫療宣敎師로 活動當時 回顧中의 一部分이다.

周知하는바 Allen이 朝鮮에서 閔泳翊의 負傷을 훌륭하게 治療한 結果 朝鮮人들로 부터 故障난 時計까지 고쳐달라는 要請을 받았다니[35] 아픈 齒牙인들 고쳐달라지 않았다면 오히려 異常하다.

더구나 앓던 齒牙를 뽑고나서 Allen 의 能力이 誇大評價 되는것은 當然한 歸結이다. 그 後 Allen 의 拔齒術이 보다 익숙하여지며 비록 制限된 範圍內에서나마 齒科患者들을 돌보아 주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Allen이 來鮮하여 醫療宣敎師로 從事하던 期間은 不過 2~3年間이었다[36].

따라서 1884年~1886,7年 사이에 Allen에 依한 西洋式 拔齒術의 施術이 밝혀진다.

이보다 좀 늦게 齒科分野의 보다 專門的인 外科的 處治를 施術하고 있던 카나다人 醫療宣敎師가 있었음이 發見 된다.

"김점동은 特別히 뽑힌 學生으로 施療所에서 藥을짓고 患者들을 看護하고 있었다. 原來는 手術補助를 싫어했으나 「홀」婦人의 언청이 手術을 目擊한 다음부터 마

33) 一般的인 事項이며 高麗에 木花가 傳來되는것에서 理解될것임.
34) H.N. 알렌「朝鮮 見聞記」申福龍 옮김. 평민사. p.161~162 參照.
35) 上揭書. p.60. 參照.
36) 上揭書. p.11 參照.

음이 달라져 김점동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반드시 醫師가 되고야 말겠다는 決心을 굳혔다[37]"

"김점동은 靈的인 面에서도 成長이 빨라 그 年齡 열 다섯이 되었을때 이미 洗禮를 勸告받을 程度였다[38]."……中略……김점동의 洗禮名은 「에스터」였고 16歲에 박유산과—1893年 5月 24日—基督敎式으로 結婚式을 擧行 하였다[39]."

以上의 두가지 內容은 有名한 「朴·에스터」가 醫師가 되기로 決心하고 洗禮를 받은後 박유산과 結婚하기 까지를 記述한 카나다 女子 醫療宣敎師이며 梨花學堂에서 藥理學과 生理學을 가르친바 있던 「로제타·홀」[40]의 朝鮮에서 日記中 一部分이다. 그런데 이 記錄이 日記體인 때문에 時期의 正確性은 勿論이려니와 周知의 人物 「朴·에스터」에 關한 內容이므로 그 史料的 價値는 높이 評價된다.

여기에 添加하여 1890年 10月 13日의 日記를 中一部 紹介하기로 한다.

"나의 診察 「카—드」를 보면 50種 以上의 多樣한 疾病이 觀察된 것을 볼 수 있다. 連珠瘡(甲狀腺腫). 梅毒, 蛔蟲, 眼疾, 耳疾, 皮膚病이 가장 많다. 째야 할 腫氣와 뽑아야할 이(齒牙)가 大部分이다. 8名의 患者를 治療하는데 무려 21種의 專門的인 病을 보아주어야 하였다[41]."……

上記한 세가지 內容에서 「로제타·홀」이 基礎的인 齒科分野의 外科的 處治의 必要性을 認識하고 있었음이 밝혀진다. 그리고 그 時期는 1890年 10月 以後가 된다. 그런데 김점동은 15歲가 되고난後 洗禮받도록 勸告받게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醫師가 되기로 決心할 當時라면 미처 15歲가 되기前 이다. 그때에 「로제타·홀」이 언청이 手術로 하였으므로 그 時期는 1890年~1891年頃으로 推測 된다.

이로써 1884年~1886,7年 사이에 Allen 에 依하여 西洋齒醫學中 外科에 該當하는 分野가 傳來되고 1890年~1891年頃 「로제타·홀」에 依하여 보다 專門的인 口腔外科的 處治가 施術되었음은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朝鮮 齒醫學界가 1884年~1886,7年 사이에 그 外科的인 面으로부터 西洋化되고 있었다고 보아서 首肯하지 못하는 아무런 理由는 없다.

③ 西洋式 齒科醫師의 來鮮.

義手, 義足, 義眼의 組立裝着이 外科的 處治後에 따르는것과 같이 義齒도 類似한 過程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義齒의 製作過程 即 齒科補綴分野는 專門性이 要求되는 때문에 齒醫學의 專門的知識을 가추지 않으면 그組立裝着이 不可能 하다.

때문인지 앞에서 擧論된 兩人의 西洋式 醫師들이 齒科補綴分野에도 關與한듯한 內容은 全혀 發見되지 않는다.

그러던 中 1893年 6月 日本人 野田應治의 두번째 來鮮으로 비로서 朝鮮에 西洋式 齒科醫師가 誕生하며 當時로써는 齒科分野의 眞髓라할 齒科補綴分野가 傳來 되었다.

野田應治는 舊 日本出蕃의 士族出身이며 代代로 醫業을 이어온 野田春泉氏의 養子가 되어 亦是 醫師가 되기를 希望 하였다[42]. 그는 1887年 16歲時 一次로 朝鮮에 와서 仁川公立病院長[43] 高城管堂밑에서 修學하고 있었다. 當時 朝鮮에는 齒科醫師가 없었고 齒病患者의 疼痛이 甚한 것을 目睹하게 됨에 1891年 東京에 있는 日本唯一의 齒科醫學校 高山齒科醫學院에 入學 1893年 5月 日本內務省 齒科醫術開業 試驗에 應試하였다. 그리고 同年 6月 30日 內務大臣으로부터 免許狀을 받은 日本人 齒科醫師이다[44].

그는 1893年 6月 30日 朝鮮의 仁川으로 와서 開業 하였다[45].

當時 朝鮮第一의 日本人 多數 居住地였던 仁川에서도[46] 日本居留民은 不過 約 千名[47]이었다. 따라서 唯一

37) 서우드·홀 「닥터·홀의 朝鮮回想」 東亞報日社刊 金東悅 譯. 1984, p.97 參照.
38) 上揭書. p.97 參照.
39) 上揭書. p. 100 參照
40) 上揭書. p.96 參照
41) 上揭書. p.76 參照.
42) 上揭書. p.81 參照.
43) 金斗鍾 「韓國 醫學發展에 對한 歐美 및 西南方醫學의 影響」 1960. 財團法人 韓國研究 圖書館. p.81 參照.
44) 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編 「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誌」 1960, p.80 參照.
45) 大澤義誠 "朝鮮齒科界 變遷物語" 上揭書. p.77 參照.
46) 上揭回顧文. p.77 參照.
47) 上揭回顧文. p.81 參照.

한 齒科醫師인 野田應治의 生計는 괴로웠다.

그는 서울이 首都이므로 希望을 갖고 翌年 1894年 4月 서울에 移轉開業 하였다[48]. 서울에 日本居留民이 仁川보다 적은 500名 程度였지만[49] 首都이니만큼 朝鮮人은 勿論 外國人 受惠者는 仁川보다 많았다[50]. 當時 野田應治가 돌보던 患者들은 日本人, 朝鮮人, 外國人들이었던 것은 再論의 餘地조차 없었으며 特히 拔齒患者가 많았다[51].

實際로 野田應治가 서울에서 開業하고 있을즈음 日本에서 田添, 瓜生 兩人이 서울, 仁川에 왔었으나 모두 開業可望이 없어 다시 歸國 하였다[52]. 그 結果 野田應治의 獨走時代가 約 10年間 持續 되었다[53]. 그러면 野田應治가 朝鮮에서 開業하던 모습에 關한 記錄을 살펴보고자 한다.

"野田應治가 開業하고 있을때 그를 찾은 朝鮮人 患者들은 口腔內 金 使用을 싫어하고 義齒의 鉤까지도 金은 希望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을때에는 白金을 鉤으로 使用 했다.

또 義齒를 裝着한 사람들도 될 수 있는대로 他人에게 感知하지 않게 되기를 希望 하였기에 自身의 齒牙가 決코 義齒인것을 말하는 일이 없었다. 따라서 齒科醫術의 普及宣傳이 매우 不利 했었다[54]."

또한 野田應治治보다 約 10年後 來鮮한 日本人 齒科醫師 樽崎東陽의 回顧錄에서도 다음과 같은 內容이 發見 된다.

"내가 1905年 日本陸軍의 一員으로 來鮮하였을 當時 京城에서 開業한 齒科醫師는 野田應治뿐 이었으며 그는 齒科入口에 고무床義齒, 金齒, 陶齒를 排列한 標本箱을 걸어두고 있었는데 明治初年 東京, 橫濱에서 入齒師가[55] 하던것과 비슷하여 多少 卑俗한 感을 느꼈다.

그러나 朝鮮人들에게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爲한 方法이라면 效果的일 수 있다[56]."라고 敷衍說明 하고 있다.

以上의 內容에서 1893年 6月 30日 野田應治가 來鮮하므로 朝鮮內에 西洋式 齒科醫師가 誕生되었음은 分明하여 진다. 또한 野田應治自身이 當時로써는 西洋 齒醫學의 眞髓라할 齒科補綴分野를 啓蒙하며 비로서 施術하였음도 밝혀진다. 따라서 當時로써는 穩全하다 할 西洋齒醫學의 傳來에 關하여서도 充分한 理解에 到達했으리라 믿는다.

④ 西洋 齒醫學의 土着化

野田應治의 來鮮으로 朝鮮 齒科界가 轉換期를 맞았음은 理解 되었지만 野田應治 한사람의 存在로 朝鮮에 西洋 齒醫學이 土着化 되었다고 斷定하는것은 아무래도 지나침이 있다. 따라서 野田應治의 來鮮과 그 以後 朝鮮齒科界가 어떻게 變化되는지 觀察함도 빼어 놓아서는 아니된다.

前述한바 1893年 6月 野田應治가 來鮮하였고 그 즈음[57] 日本人 齒科醫師 田添, 瓜生 兩人이 서울과 仁川에 왔었다. 그러나 兩人은 朝鮮에서 開業可望이 없다해서 歸國 하였다. 여기서 納得이 아니되는 部分이 있지만[58] 1893年 6月부터 1894年 4月사이에 野田應治를 비롯한 田添, 瓜生兩人을 合하여 3人의 日本人 齒科醫師가 來鮮하였음은 分明하다. 그리고 이 3人을 便宜上 第一陣으로 보고자 한다.

그 後 1904年에 이르러 京城 日本人 居留民團 國立 漢城病院에 最初로 齒科部가 設置되며 齒科醫로 重城養二가 來鮮 하였다. 1905年 9月에는 日本人 齒科醫師인 樽崎東陽이 東京으로부터 朝鮮 駐劄司令部附로 來鮮하였

48) 前揭回顧文. p.81 參照.
49) 美國은 宮中護衛를 하여준다는 名目下에 海兵隊 500名을 駐屯시킨 境遇가 있다. 따라서 日本居留民團이 500名 程度라면 納得하기 어렵게 된다.
50) 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編.「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誌」1960, p.81 參照.
51) 大澤義誠 "朝鮮齒科界變遷物語" 上揭書 p.82 參照.
52) 上揭回顧文. p.77 參照.
53) 上揭回顧文. p.77 參照.
54) 上揭回顧文. p.82 參照.
55) 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編.「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誌」1960. p.73 參照.
56) 樽崎東陽. "朝鮮齒科醫界의 追憶" 上揭書p.73 參照.
57) 野田應治는 1893年 6月 仁川에서 開業하였다가 1894年 4月 希望을 갖고 移轉開業하였다. 바로 이 當時를 意味한다.
58) 後述함. (本稿 p.714)

으며 비로서 日本陸軍에 齒科醫를 둔 結果라[59] 한다.

1906年 6月에는 重城養二가 서울로 되돌아와 開業하였고, 同年 重城養二 後任으로 飯塚徹이 왔다. 그런데 이 當時 飯塚徹은 齒科醫가 아니었던듯 하니 그가 日本으로 歸國하여 齒科를 硏究하고 1907年 4月 다시 來鮮하여 齒科를 開業하기 때문이다.

이렇게1904年부터 1906年 사이에 또다시 2人의 日本人 齒科醫師들이 來鮮하고 있으니 野田應治가 來鮮以來 約 10年後가 되며 이들을 第二陣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1,2陣을 合하여 5名의 齒科醫師가 日本으로부터 來鮮하지만 野田應治 獨舞臺가 約 10年間 持續되다가 1907年 4月에 이르러 野田應治, 樽崎東陽, 飯塚徹 3人의 鼎立時代로 轉換된 것이다.

그러는 한便 이때에 이르면 朝鮮의 主要都市에 入齒營業者의 簇生을 보았고 그 數도 齒科醫師의 數를 凌駕하고 있었다[60]. 이때에 朝鮮人 入齒師가 登場하게 되었으니 1907年 鍾路에서 齒科醫院을 開設한 崔承龍 이었다.

上記와 같은 朝鮮 齒科界의 變遷過程은 再論의 餘地없이 西洋 齒醫學에 對한 朝鮮社會의 認識水準을 反映하는 것이다. 그리고 朝鮮社會의 西洋 齒醫學에 對한 認識變化에 日本人 齒科界 從事者들의 役割이 至大하였음은 分明하다.

그런데 傳統性이 缺如된 學問의 發展이란 그 發展 基盤에 脆弱性이 內包되어 있으며 全혀 새로운 한 分野學問의 傳來境遇라면 이로부터 獨自的 開發 發展을 圖謀하기 爲하여 새로운 體系가 確立되어야 한다. 때문에 開港以後 朝鮮의 齒科界도 이제 새로운 學問 體系의 確立이 따라야 하였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먼저 西洋 齒醫學에 對한 朝鮮社會의 認識變化가 朝·日間의 學術交流에 起因하는지, 學術外的인 交流에 依存되었는지 糾明되어야 한다. 上記한 糾明을 爲하여 于先 日本人 齒科醫師 第一陣과 第二陣의 來鮮時期에 注目하여 본다.

第一陣이 來鮮하는 時期가 淸·日戰鬪를 前後하고 있다. 第二陣이 來鮮하는 時期는 露·日戰爭과 一致하고 있다. 勿論 工巧로운 一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아무래도 看過할 수 없는 몇가지 理由는 남는다.

第一陣에 屬하여 있었고 처음 來鮮한 西洋式 齒科醫師 野田應治는 露·日戰爭이 始作되자 即刻 日本軍 要員化한다[61]. 朝鮮의 門戶開放以後 釜山이 日本과 緣故가 많으며 日本人 醫療施設이 釜山에서 비롯되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仁川이 서울의 關門이며 25「마일」의 近距離이므로 日本과 修交後에도 開港은 延期되고 朝鮮朝廷의 制約이 加해졌던것도 周知의 事實이다. 그런데 第一陣인 野田應治는 勿論 田添, 瓜生兩人 모두 구태어 仁川과 서울을 開業의 目的地로 擇하는 理由는 쉽게 納得되지 않는다. 田添, 瓜生 兩人이 開業可望이 없어 歸國하는데서 궁금症이 얼만큼은 解消되지만 이들이 當時의 朝鮮事情에 그렇게 어둡기만 하였을까. 淸·日戰鬪가 開始되기前 果然 朝鮮이 平和스럽고 齒科醫院 開設에 適合하였기에 續續 3人의 日本人 齒科醫師가 來鮮하였을까.

여기서 또한번 讓步하여 齒醫學이 워낙 專門的인 分野이고 그러면서 社會的要求에 副應力이 强한 分野이므로 朝鮮後期 社會로부터 漸增되는 醫學分野 全體의 重要性 提高와 首肯할 수 있는 西洋 齒醫學의 效驗에 힘입어 自然스레 찾아온 社會的變化의 結果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잦은 修信使나 領選使의 往來에도 不拘하고 齒醫學이 傳來되는 痕跡은 좀처럼 發見되지 않는다. 아울러 當時 朝·日間이나 朝·西洋諸國間에 齒醫學의 學術的 交流의 痕跡을 찾아내려는 수고가 헛된 努力임을 發見하게될 뿐이다. 그위에 第1陣이 來鮮함에 朝鮮의 醫事制度에 介意한 痕跡은 美國人이나 카나다人 醫師들과 마찬가지 였다. 또한 日本에서 이미 入齒師들은 社會問題化 되었었다. 때문에 日本이 齒醫學 傳播에 專念하였다면 적어도 朝鮮에서 入齒師의 簇生이 日本人에 依해서 惹起되는것은 防止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上記와 같은 理由들은 西洋 齒醫學의 朝鮮社會內 土着化가 學術的 交流의 結果라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게 한다.

이러한 過程中 1910年 韓·日合邦으로 朝鮮의 政治體制는 總督政治로 바뀌었다[62]. 그러면서 各道에 慈惠醫院이—今 道立病院前身—設立을 보게되어 그 過半數에 齒科部를 두었다[63]. 그 一環으로 1911年 大邱 慈惠醫院 齒科部에 東京齒科出身 金子英志가 來任하였다[64]. 그런데 金子英志가 當時 官立醫院인 慈惠醫院 齒科部 勤務

59) 大澤義誠 "朝鮮齒科界 變遷物語" 大韓 齒科醫學史硏究會編「大韓齒科醫學史 會誌」1960 p.78 參照.
60) 上揭回顧文. 上同. p.79 參照.
61) 上揭回顧文. p.84~87 參照.
62) 上揭回顧文. p.79 參照.
63) 上揭回顧文. p.79 參照.
64) 上揭回顧文. p.79 參照.

者들 中에서 唯一한 有資格者였다[65].

이처럼 初期 日本統治下에서는 官立 醫院에 조차 無資格者가 公公然하게 齒科診療를 하고 있었던 形便이므로 入齒營業者가 一片의 願書로써 齒院開設을 認可받곤 있었다. 따라서 그 繁殖도 放任되는 狀態였다[66]. 이때에 美國人 齒科醫師도 開業한 것으로 보이는데 1910年 서울에은 David Edward Hahn(韓大偉)이었다[67].

이보다 조금늦은 1912年 비록 日帝治下였고 日本齒專을 卒業 하였지만 마침내 西洋式 齒科醫師 免許를 取得한 朝鮮人 齒科醫師가 誕生 하였으니 咸錫泰였다[68].

그리고 1912年 京城府 齒科醫師會가 創立 되었다. 그 이듬해인 1913年에 이르러 朝鮮 齒科醫師 規則이 公布되면서[69] 朝鮮 齒科界는 制度的인 面으로도 西洋式 爲主로 變貌 되었다.

이로써 西洋 齒醫學은 朝鮮에 土着化 할 수 있는 確固한 基盤을 다지게 되었고 固有 齒醫學은 朝鮮社會로부터 서서히 그 빛을 바래게 되었다.

5. 結　論

以上에서 考察한바 朝鮮이 開化期를 거치는 동안 醫事制度가 全無하지 않았음에도 그 思想的背景과 論理的根據가 서로 다른 固有 齒醫學과 西洋 齒醫學이 隱然中에 共存하게 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西洋式 齒科醫師인 日本人들의 來鮮이 增加하며 朝鮮에 西洋 齒醫學이 土着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韓·日合邦으로 國權이 喪失되며 社會制度 또한 變化되고 이에따라 朝鮮의 齒科醫師制度도 西洋式 齒科醫師 爲主로 制定 宣布 되었다.

固有 齒醫學은 이로부터 朝鮮社會에서 漸次 外面當하고 그 자리를 西洋 齒醫學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그 結果 朝鮮 齒科界는 固有 齒醫學을 바탕으로 西洋化할 機緣을 喪失하고 全然 새로운 바탕위에서 學問의 發展이 圖謀되었다.

勿論 朝鮮 齒科界가 上記와 같은 急激한 變化속에서 西洋化 되었다고 學問的 受容과 土着化에 커다란 混亂을 일으키지 않았다. 이로 因하여 朝鮮의 齒科界가 社會的 要求에 副應하는 데에도 大端한 어려움은 겪지 않았다.

오히려 當時로써 朝鮮 齒科界의 未開拓分野이던 口腔外科的 處治術이 傳來 되었고 齒醫學의 眞髓라 할 수 있던 齒科補綴分野에 開眼하는 奇緣을 잡게 되어 社會에 寄與度는 增加하게 되었다.

그러나 西洋 齒醫學을 發展시킨 美國이나 日本의 社會的 背景은 朝鮮의 그것과 差異가 있었다.

또한 朝鮮에 西洋 齒醫學이 傳來됨에 特殊性을 바탕으로 하였던 까닭에 豫想하지 않은 結果가 招來될 危險性도 간직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先進學問의 境遇라 하더라도 檢討되거나 批判할 겨를이 없이 서둘러 受容되거나, 純粹한 學問的次元에서 傳來되지 않는 境遇라면 이미 傳統의 바탕위에 이룩되는 學問的 發展은 期待하기 어려운 重要性이 內在되어 있는 때문이다.

또한 朝鮮의 齒醫學界 自體 또한 急激히 西洋化되는 소용돌이 속에서 隱然中에 特殊性을 희우게 되고 自然히 西洋的으로 變貌되므로 朝鮮社會와 融和하는데 多少나마 異質性을 드러내지 않았는지 檢討되어야 하였던 때문이다.

勿論 西洋 齒醫學의 傳來로 새로이 認識하게된 口腔外科的 處治術이나 齒科補綴學的 術式이 口腔의 喪失된 機能回復 圖謀에 最善의 處方이라고 速斷하기 어려운 理由도 있다.

조금은 荒唐한것 같아 보일런지 모르지만 固有 齒醫學에 立脚하여 神秘속에 간직된 人體의 調和現狀을 學術的으로 糾明 한다면 永久齒의 崩出現狀을 人體에 反復시키는것이 全혀 不可能한 것이라 斷定 짓기 어려운 때문이다.

또한 齒牙周圍 組織의 疾患을 鍼·灸·藥草의 使用 또는 其他方式을 通하여 克服하는것도 全혀 不可能한 것이라 斷定짓기 어려운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西洋 齒醫學이 受容되고 土着化된 以上 朝鮮의 齒科界는 消化, 吸收하는데 精進 하였던것 같다.

또한 朝鮮人으로써 西洋式 齒科醫師 免許를 獲得하였다고 日本의 大陸進出 政策에, 美國의 宣敎活動에 앞장서거나 同助하지도 않았던것 같다.

그들은 나라잃은 百性의 口腔保健에 이바지 하므로 社會에 貢獻하였고, 齒科界發展에 밑거름이 된것 같다.

國權이 回復되는 感激的인 變化속에서도 짧은 期間內 새로운 바탕위에 이룩한 西洋 齒醫學의 發展을 持續시키고 있던데서 뒷바침 되기 때문이다.

이제 더 많은 資料를 蒐集하여 보다 깊은 硏究끝에

65) 前揭回顧文. p.79 參照.
66) 上揭回顧文p.79 參照.
67) 大韓齒科醫學史硏究會編「大韓齒科醫學史硏究會誌」1960, p.116 參照.
68) 上揭書. p.116 參照.
69) 大澤義誠 "朝鮮齒科界 變遷物語" 上揭書 p.79 參照

朝鮮 齒醫學의 西洋化 過程을 밝혀내지 못하고 끝을 맺음에 아쉬움이 남는다.

돌이켜보면 朝鮮의 國運이 衰退되던 時期에 特殊性을 바탕으로 傳來된 西洋 齒醫學이지만 이미 社會로부터 그 重要性은 充分히 認識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順序는 뒤 바뀌었더라도, 또한 隣接分野와 協助를 通해서도 固有 齒醫學의 貴重한 長點을 發揮 接木시키므로 하나의 獨特한 제것으로 昇化시켜 나아감이 社會에 貢獻하며 齒醫學界 自體의 發展을 圖謀하는데 竝行되어야하는 그리고 疎忽해서 아니되는 課題라 믿는다.

아울러 朝鮮 齒醫學의 西洋化 過程을 理解하는데 多少라도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는 바이다.

= Abstract =

STUDY ON THE TRANSITION FROM THE CHOSUN TO THE WESTERN ODONTOLOGY

(in connection with the social evolution incident to the open-door policy)

Shilla Dental Clinic

Dentist

IM KYUNG BIN

No one will dissent from the fact if a field of study is to be developed, it must be first of all awakened to its significance and then followed by its profession. Especially in sublating the same object, it is true that should there exist a conflict between the existing and the newly gained systems of studies, the tradition of the existing study extend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must be respected because it is derived from the different ideology.

The reason why two or more different systems of studies can be coexisted is that each study, even though incomplete, has its own superiority over the other. When a new field of study is incorporated into the advanced study without considering the tradition, the existing field of study will lose its excellence and eventually be inevitable subject to the study. Additionally if attempts are not made to further develop any completely new and different study recently gained into a new system and put it on a firm tradition, it will face the limit of study in the course of time.

This argument also applies to the odontology. During the era of the Chosun, their own odontology based on the principles of Yin and Yang was not only unending but also maintained their own medical system. During the period of the 19th century open-door policy of the country, the western dentistry was introduced into the country concomitant with the comings and goings of American missionary and the Japanese continent invasion policy. In consequence, professionalism in studies had in general improved, however, the superiority of traditional odontology became to lose on the threshold of doubling the scientific development. Therefore, the Traditional odontology had to make a new start to advance it on the same level of the western dentistry. Consequently the order was reversed and its advancement was also delayed. Accordingly this study was based on the idea that a completly different but sublimated odontology could be developed and made the most of its characteristics by grafting the superiority of the western dentistry into the traditional one which would incidentally and geartly contribute to the society.

우리나라 치과출판에 관한 연구

제4편 1960년대 전반기의 복간 大韓齒醫報에 관한 검토

李 丙 台*

차 례

서 론
검토자료 및 방법
大韓齒醫報 第1號
第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號
국가사회적 환경
평 가
참고문헌

서 론

大韓齒醫報는, 朝鮮齒界(1946.5.1~1949.1.25 총12號)와 口腔科會報(단기 4282년 7월 1일 [발행호수는 조선치계의 것을 이어 13호부터 시작하여 14·15호만 냄]~단기 4282년 12월 15일)에 이어서 세번째의 신문이 되는 셈이다.[1]

그런데 이 大韓齒醫報는 단기 4291년 9월 1일(서기 1958년)에 1호를 내고 매월 결간없이 단기 4293년 6월 1일(서기 1960년)에 제22호로 폐간되었다가 다음해인 단기 4293년 2월 18일(서기 1961년)에 다시 제1호로 발간되었는데 다음호부터는 제25호로 일연번호가 매겨졌다. 그리고 날자 1965년 10월 15일로 제 69호를 내고, 발행실적 미달이란 이유로 등록이 취소됨으로서 또 폐간당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는, 1960년대 전반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복간된 大韓齒醫報를 소개하여 자료보관 내지는 그 시절의 치과계를 회고하는 계기라도 삼으려 하였다.

지금으로 부터 불과 25년전의 간행물이지만 소장되고 있는 것이 드물고 몇사람이 보관하고 있다하여도 종이의 질로 보아 그 존재의 영속성이 염려되어 그 제목만이라도 밝혀서 우리나라 치과역사학을 확고히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검토자료 및 방법

검토자료는 복간 大韓齒醫報로 하였다. 검토방법은 호별로, 각면마다 기사제목만 소개하였다. 기사의 순서는 1면· 2면· 3면· 4면으로 하였다. 그리고 광고에 관한 것은 모두 제외하였다.

□ 大韓齒醫報 第1號 (西紀 1961년 2월 18일)[2]

이것은 복간 大韓齒醫報 第1號인 것이다. 제호밑에는 발행인·편집겸 인쇄인에 韓東燦, 월구독료 100圓,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35, 전화 ③ 3683번 이라 되어 있다

단기 4291년 12월 5일 제3종 우편물 인가, THE KOREAN DENTAL PRESS, 등록번호 D—467호라고 제일 위에 가로로 되어 있다. 제2면·제3면·제4면 위에는 서기대신 檀紀 4294年 2月 18日이라 표기하고 있다.

〖1면〗

기사 1. 齒大移轉計劃案具體化(追更豫算案에 包含)／總建坪三七〇〇坪에 六億豫算／서울 醫大近方「의약센타」이루고.

기사 2. 本會醫療報酬規定／改正案審議中／서울 醫師會에서도.

기사 3. 齒軍醫全員召集／91.92. 年度齒大卒業生을

기사 4. 齒科校醫講習會／於國立保健院서

기사 5. 齒務課長 곧 任命할터. ／「限齒」가 齒科醫師로 資格表示함은 違法／本會會長團 金判述保社長官과 要談

기사 6. 道保健課長被任／忠北에 李世根氏／江原에 金性度氏

기사 7. 校醫手當增額／釜山齒科醫師會

기사 8. 大韓 齒科醫學會誌／第三卷을 發刊準備中

기사 9. 齒醫國家試驗／三月三十日施行

* 대한치과의사학회 부회장, 대한치과보철학회원, 월간 치과연구발행인, 이병태치과의원장, 경희치대 외래부교수.

기사 10. 朴鍾文氏別世

기사 11. 崔인九씨 嚴親別世

기사 12. 金喆庸氏 자당 별세

〖2면〗

기사 1. 不正醫療業者 團束策閣議서도 議決／全國實務者會議서 根絕策論議／擔當檢事엔 趙台衡部長檢事

기사 2. 口腔病理學의 泰斗／裵珍極博士逝去를 哀悼

기사 3. 人生은 草露 一김 규택一

기사 4. 本會 理事會消息

기사 5. 大韓齒科醫師協會 역원명단 (1)

〖3면〗

기사 1. 齒務課는 어떻게 되었느냐?／保留만으로 滿足할 수 없다. ／仁川市齒科醫師會의 態度闡明

기사 2. 人和造成에 努力／仁川市齒科醫長 李昌雨氏

· 社交에 能熟／副會長 吳在德氏

· 謙虛한 理論家／總務 朴桓氏

기사 3. 大學院課程增設.

기사 4. 堂堂한 偉丈夫／京기道 齒科醫師會長 林榮均氏.

· 斯界의 至寶／道總務 최범용씨

· 圓滿한 老醫／道副會長 金舘衡氏.

· 情熱의 好人／朴容穆氏.

· 快活한 握手／道市調査 金仁壽氏.

기사 5. 水原을 말하는 李昌鎔氏.

기사 6. 春川의 實情／齒務課廢止는 絕對反對

· 野性的 好男子／市貿材 李周喆

〖4면〗

기사 1. 서울 齒科醫師會欄／第一回學術講習會／서울市齒主催로 盛況

기사 2. 보다 活潑한 運營을 꿈꾸며／一春季講習會를 끝내고一／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학술부장 김만수

기사 3. 事業展開活潑／서울學校齒科醫會

기사 4. 揭示板

본란은 회원제위가 마음대로 이용하실 난입니다. 엽서에다 간단히 게재를 원하시는 사항을 적어보내 주시면 게재키로 되었읍니다.

① 기공사 간호원의 구인청탁

② 회원의 억울한 사정의 公知

③ 특수 의료기재의 求得을 원할때

④ 의원의 不正職員에 의하여 피해를 입어서 전회원에게 공지시킬 필요가 있을때

⑤ 의원양도나 求得을 원할때

⑥ 기타

⑦ 매월 10일내에 도착하면 그달에 게재.

보내실곳 : 서울특별시 공덕동 139의 4 大韓齒醫報 편집부.


大韓齒醫報

齒大移轉計劃案具體化

總建坪三七〇〇坪에六億豫算

서울醫大近方에 敷地마련코

本會醫療報酬規定 改正案審議中

國立醫全員召集

齒務課長 發令

校醫手當增額

사진 : 복간 大韓齒醫報 第1號. 실제로는 第23號로 되었어야 했다. 다음호 부터는 다시 第25號로 되는 수난을 겪었다.

□ 大韓齒醫報 第25號(西紀 1961년 3월 15일)[3]

이것은 복간 大韓齒醫報 第2號에 해당된다. 그런데 제24호가 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연번호에 이상이 있으며, 제일 위의 머리에 제3종 우편물 인가 날자도 복간 大韓齒醫報와는 달리 단기 4294년 3월 1일로 되어 있다.

한편, 1면의 끝기사는 영문으로 게재되어 있는데, "The Korean Dental Press is published monthly by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at No. 35 Nakwon-dong Chongro-Ku Seoul Korea Kim Hwang Joong Editor-in-Chief, Chae Jin Hwan Editor"라 되어 있어 신문발행의 배경을 읽을 수 있다.

〖1면〗

기사 1. 大齒理事會／齒科醫療報酬 規定引上案決議／現規定으로는 齒科 醫業赤字不免／現物價指數에 따른 基準된 規定作成／拔齒料가 貳千圓乃至三千圓으로 美國例의 五乃至七分之一

기사 2. 今年度卒業生諸君에 寄함／大韓齒科醫師 協會長／韓東燦

기사 3. 今年度齒大卒生들에게／이글을 부치노라／金用琯

기사 4. 延世大 李東燮 敎授／醫學博士學位獲得

기사 5. 日本에 特派／張榮圭出版委員

기사 6. 中央技工硏究所 好評／技工料低廉正確이 特色
기사 7. 日本齒科醫學會／來 10월 19·20·21 3일간
기사 8. 人事往來
기사 9. (앞의 영문기사 참조).

〖2면〗

기사 1. 大韓齒協理事會事業報告 ／大韓齒科醫師協會의 定期 및 臨時理事會 狀況要旨(總務部)
기사 2. 齒大附屬病院／病院長選定投票
기사 3. 會員實態調査／早速報告要望
기사 4. 全國齒科醫師役員名單(2)
기사 5. 不正齒科醫療業者／拘束送廳／서울 市內에서 不過六件
기사 6. 檢試合格者
기사 7. 게시판(第1號 게시판 내용 참조)

〖3면〗

기사 1. 齒務課廢止反對／忠北道齒總會에서 議決
기사 2. 祝卒業／入學 生名單(齒大)
기사 3. 地方消息／釜山會員動態
기사 4. 금붕어와 나／李烽起

〖4면〗

기사 1. 서울市齒科醫師會의 欄／제 一回擲柶大會盛了／團體賞 서齒, 個人賞 李鎬坤氏
기사 2. 서울市內 校醫名單／中·高等學校
기사 3. 口腔保健敎育映畵／USOM에서 製作／金用琯博士 脚本提供
기사 4. 金庚洙事務長／肋膜炎으로 加療
기사 5. 83年度以前 免許證更新／十二月末까지 再延長
기사 6. 春期 學術講演會 開催地 서울로 變更
기사 7. 金谷陵參觀／春秋會첫探勢
기사 8. 알림.

□ 大韓齒醫報 第26號(西紀 1961年 4月 15日)[4]

〖1면〗

기사 1. 本會軍醫委員會事業活潑／今年卒業生 軍醫官으로서만 召集케／「인턴」 最大量收容토록 文英煥理事盡力／本會會長團의 側面的 努力으로 着着進捗
기사 2. 本會計劃樹立에 奔忙／最終決定은 保社部와 協議後／ 6·9行事
기사 3. 吳應瑞氏齒務課長就任／ 4.2保社部發令에 齒科界歡迎／齒務行政에 造詣깊은 氏에 期待도 크고
기사 4. 齒大鄭淳慶氏等／專任講師로發令
기사 5. 海外短信／第1回 日本齒科 硏修開催
기사 6. 金貴善氏辭退
기사 7. 水原月例會
기사 8. 本會顧問曺基沆氏推戴
기사 9. 4.16仁川齒醫會定總
기사 10. 魚秀喆氏／西獨서 學位獲得
기사 11. 惡質通信記者齒醫에 恐喝／白金加金補綴物이 假짜라고.
기사 12. 祝賀歡迎會／李東燮·金圭植 兩氏
기사 13. 國產品展示
기사 14. 八軍 三八線齒科 醫學會開催 5月 5,6兩日間에 外國齒／科機材展示會도 있다고
기사 15. 本會報酬 規定案發表
기사 16.「儲慶」 서울齒大同窓會／創刊號發行

〖2면〗

기사 1. 大韓齒協理事會事業報告 ／大韓齒科醫師協會의 定期理事會狀況要旨

第四回定期理事會

(各部報告)
1. 總務部
2. 韓東燦會長
3. 醫務委員會
4. 敎育委員會
5. 軍醫委員會
6. 出版委員會
7. 財政委員會
8. 國際委員會
9. 徐永圭副會長

기사 2. 決議事項
기사 3. 揭示板
   1. 求得齒科醫院
   2. 求得齒科醫院
   3. 求職技工士
   4. 求職技工士
   5. 開業案內
   6. 求레—스(中古可)
기사 4. 醫療報酬規定改定表

〖3면〗

기사 1. 齒牙周圍組織疾患의 새로운 治療／金樂熙／臨床을 爲한 紙上講座(페리오—1)
기사 2. 서울대학 齒醫學科 大學院現況
기사 3. 全國齒科醫師役員名單(3)
기사 4. 이달의 集會案內

〖4면〗

기사 1. 徵集延期와／齒大卒業生問題／軍醫理事 文英煥
기사 2. 仁川記者事件報告全文

기사 3. 醫院名制限廢止 釜山市齒會臨總서 可決

기사 4. 金英海齒科技工所篇 技工所案內

기사 5. 울릉도 진료반

기사 6.「大韓齒醫報」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기관지로서 出版委員會 委員들이 편집한 것입니다.

出版委員會

理事兼 委員長 金 晃 中

委員 金 永 善

〃 李 正 和

〃 崔 在 京

〃 李 烽 基

〃 張 榮 圭

〃 崔 正 奉

□ 大韓齒醫報 第27號(西紀 1961年 5月 15日)[5]

〖1면〗

기사 1. 本會 第二回 中央委員會開催／國民齒科醫療法案審議를 비롯한 多數案件을 處理

기사 2. 汎太平洋齒科醫學會／10月 17日～22日東京에서 開催／參加申請은 五月末日限

기사 3. 地方消息 仁川齒科醫師會 定期總會盛況

기사 4. 會告／출판위원회

기사 5. 8軍 三八線 齒醫學會盛況／日人展示會도 異彩롭고

기사 6. 今秋를 裝飾할 總會와 學會／10月 11,12,13 3三日間

기사 7. 松風森田兩社展示會參加. 三八線齒醫學會場에서 異彩

기사 8. 서울 校醫會總會開催／校醫會의 位置問題로 漸次論難

기사 9. 大韓齒科機械／商工業協會臨總

기사 10. 金一씨 晋州서 개업

기사 11. 6·9行事計劃書成案

기사 12. 校醫會性格／非公式으로 規定

기사 13. 京電東大門 齒科部移轉

기사 14. 白翎島無醫診療

기사 15. 6·9行事標語／當選者發表

기사 16. 申仁철氏 부인 별세

기사 17. 인사(全面軍檢畢)

〖2면〗

기사 1.「가깝고도 먼나라」日本齒界珍客은 말한다／本報編輯部와 一問一答 治療水準은 높으나 器械에 不便한 듯：松風／日本製品은 世界水準에 到達을 確信：森田／謙遜한 大會社의 代表들 國交正常化를 希願하는 마음도 간절하고

時日—五月六日下午七時

장소—캐톨릭의대 특별회의실

참석자

松風會社：松風定立(輸出部長)

鈴木成重(研究所主任)

森田會社：森田二郎(社長)

石井房次郎(齒科醫師)

司會：金晃中(協會 출판이사)

張榮圭(協會 출판위원)

협회역원과 회원 25

기사 2. 大韓齒協 理事會事業報告／大韓齒科醫師協會의 定期理事會 및 臨時理事會狀況要旨

기사 3. 게시판.

〖3면〗

기사 1. 齒牙周圍組織疾患에 있어서의／治療面과 其의 根本目的／大韓齒科 페리오학회장／金樂熙

기사 2. 六月九日을 앞두고서／齒科講演과 啓蒙記事／李漢水

기사 3. 이달의 集會案內／(五月 十六日 六月 十五日)

기사 4. 알리는 말씀.

〖4면〗

기사 1. 국민치과 의료법안에 대한／앙케—트

기사 2. 齒科大學附屬病院長職을 辭하며／ 의학박사 李春根

기사 3. 製藥會社視察

기사 4. (2면에서 계속, 좌담회)

□ 大韓齒醫報 第28號(西紀 1961年 7月 15日)[6]

〖1면〗

기사 1. 6月 9～15日／多彩로운 行事展開／第16回 口腔保健週間

기사 2. 제16회 口腔保健週間／豪華로운 記念式擧行／祝賀音樂會찬란하고

기사 3. 金東順氏의 醫博論文通過

기사 4. 무의촌 진료준비 분망／齒大 코스모스크럽서

기사 5. 金明起氏 博士學位獲得

기사 6. 革命課業完遂 해서／福祉社會 이룩하자／혁명표어

기사 7. 鄭熙燮准將就任／七日保社部長官更迭

기사 8. 齒大서무과장갱질

기사 9. 매·씨 兩氏離任／석별만찬회 개최

기사 10. 庭球·卓球親善 釜邱 戰延期

기사 11. 本會登錄完了

기사 12. 李有慶委員長／辭表受理
기사 13. 崔亨坤副會長／七月 十日歸任
기사 14. 尹春子氏／美國의 소리에
기사 15. 金溶瑾氏父親喪
기사 16. 安炳植氏 慈堂 別世
기사 17. 人事往來

〖2면〗

기사 1. 六·九行事는 全國各地에서 꽃피우고
〈부산〉 健齒兒童表彰式盛了 미스·텔달 選拔도 後援하겠다고
〈광주〉 健齒兒·글짓기 入選／表彰式盛況／主催光州齒科醫師會
기사 2. 無料診療 서齒會發表
기사 3. 無齒醫村診療
기사 4. 軍事革命支持／聲明書傳達키로 可決／本會理事會消息
기사 5. 江原道齒醫會／任員·代議員選定
기사 6. 學校齒科醫／講習會
기사 7. 口腔保健포스타／展示 및 表彰式
기사 8. 게시판.

〖3면〗

기사 1. 臨床을 爲한 紙上講座／페리오／咬合調整의 目的과 術式(齒牙周圍組織疾患의 治療時)—金樂熙
기사 2. 美國西北大學조지 學長／韓國六·九行事를 激勵／鮮于良國氏를 通해야 本會員에게 激勵文傳達
기사 3. 전남광주／汎太平洋總會 會費積金도 決議／全羅南道 齒科醫師會定期總會盛況
기사 4. 汎太平洋亞細亞齒科會議 本會參加準備에 奔忙

〖4면〗

기사 1. 保健政策上의 齒務行政의 比重／=就任하면서=保社部齒務課長 吳應瑞
一. 無齒醫郡對策／二. 施設擴張／三. 弗素處理. ／四. 疾病統計
기사 2. 納凉隨想 英文으로의 著者名／—李漢水—
기사 3. 6·9구강 보건주간을 맞아서(삽화)／최희섭

□ 大韓齒醫報 第29號(西紀 1961年 8月 15日)[7]

〖1면〗

기사 1. 財政的救出緊要／本會運營上의 難關許多
기사 2. 제3회 汎太平洋亞細亞／齒科醫學會日程表
기사 3. 汎太平洋齒科學會／齒科軍醫官派遣要請
기사 4. 水災民救護에 本會蹶起／本會員被害는 別無
기사 5. 公衆保健과 齒科醫學／「버—너드」氏齒大에서 講演
기사 6. 朴逌信氏 博博士學位論文通過
기사 7. 매·씨氏送別 晩餐會
기사 8. 회원실태조사
기사 9. 間接侵略을 粉碎하자(표어).
기사 10. 鮮于良國民歸國
기사 11. 第13회 총회／연제 제출요망
기사 12. 張大尉再召集
기사 13. 人事往來

〖2면〗

기사 1. 風水害地區會員의 安否問議／本會의 慰問에 生生한 現地報告／水災地區榮州 金熙東氏 回信
기사 2. 糞尿收去車登場／齒科醫師 金相讚氏가 導入／眞空自動式
기사 3. 遂! 第三卷發行／「大韓齒科醫學會誌」
기사 4. 濟州六·九行事
기사 5. 六九行事爲한／서齒회원 贊助金醵出
기사 6. 總會構成을／代議員制로／강원도
기사 7. 三名渡美留學
기사 8. 本會理事會消息／慶北要請否決／總會日字變更與否件

〖3면〗

기사 1. 根管治療의 基本的考察 齒大講師(보존학교실／金英海／臨床을 爲한 紙上講座(2)
一. 適應症 二. 拔髓法
기사 2. 待秋記／李漢水
기사 3. 第二回 남시大會
기사 4. 第三回 남시대회

〖4면〗

기사 1. 會員과 齒醫報／本報編輯을 도리켜보면서／崔在京
기사 2. 隨想／부산생각／최효봉
기사 3. 八尾島海 水浴과／齒科醫師／박두환
기사 4. 만평(삽화)／최희섭
기사 5. 게시판

□ 大韓齒醫報 第30號(西紀 1961年 9月 15日)[8]

〖1면〗

기사 1. 보사부 齒務課는 또 廢止 된다고?／政權交替마다 齒界는 緊張／本會保社部와 最高會議에 建議文提出
기사 2. 汎太平洋亞細亞齒科醫學會／準備委員長에 徐永圭氏
기사 3. 建議書／大韓齒科醫師協會長 韓東燦／國家再建最高 會議議長 閣下

기사 4. 서울 定期總會
기사 5. 本會國際部理事에 尹信鉉氏 選出
기사 6. 弗素塗布事業에／齒科醫師推薦
기사 7. 徐永圭副會長／分科委員에 參與
기사 8. 齒科會報續刊
기사 9. 金東順氏辭退
기사 10. 家宅侵入罪로 被訴／診療現場發覺 되자 狂人들이라고／不正醫姜鍾錄의 蠻行
기사 11. 慶南北도 定總
기사 12. 亞細亞齒科會議／參加者十八名決定
기사 13. 弗素塗布施行
기사 14. 本會登錄認可
기사 15. 공고.
기사 16. 삽화

〖2면〗
기사 1. 齒務課廢止反對決議／發展하는 京畿道齒科醫師會／水原「푸른 地帶」에서 定期總會
기사 2. 本會理事會消息
· 第九回定期 理事會
· 第十一回臨時理事會
· 第十二回臨時理事會
· 第十三回臨時理事會
기사 3. 金庾煥助敎授
기사 4. 李榮一氏 渡美
기사 5. 낚시 大會盛 況／第三回齒醫人
기사 6. 終身會費納付者(1).
기사 7. 學術集談盛況
기사 8. 釜邱親善萬點／庭球·卓球戰績
기사 9. 一言半句
기사 10. 揭示板／金鍾玉을 鍾旭으로 改名
기사 11. 會告
기사 12. 혁명과업 완수하고 복지사회 건설하자(혁명표어)

〖3면〗
기사 1. 根管治療의 基本的考察(Ⅱ)／金英海 臨床을 爲한 紙上講座(2)／根管에 對한 操作
기사 2. 젊은 齒醫學徒無醫村에／그들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느꼈는가／無齒醫村診療
기사 3. 9.23／三八線齒科 學術集會
기사 4. 學術發表會 開催／綜合病院齒科 인턴크럽서

〖4면〗
기사 1. 無醫村大黑山島巡廻診療記／弗素使用을 促求하면서／丁達秀

□ 大韓齒醫報 第31號(西紀 4294年 10月 15日)[9]

〖1면〗
기사 1. 慶祝第10回 大韓齒科醫師 協會 總會開幕(제목만 있음, 표어)
기사 2. 社說／無意味한 現實論의 反復 今秋 總會에 대한 하나의 기대／또한 치무행정의 망각을 슬퍼하면서
기사 3.「保社部」齒務課는 이제는 없어／政府機構簡素化엔 恒常通用되고 齒務行政의 發展은 古今同樣
기사 4. 定期總會를 맞이하여／會員과 役員勞苦에 感謝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장 韓東燦
기사 5. 不退轉의 氣魄으로／우리 權益은 守護하자／부회장 徐永圭
기사 6. 齒大保存學術／抄讀會盛況／지난 4日 치대서
기사 7. 제10회 慶北齒科醫學會 定總盛了
기사 8. 齒協 文英煥理事 華婚 10月 22日 於釜山
기사 9. 人事

〖2면〗
기사 1. 서울齒醫會定總開催／10.8 會長團 理事總 辭退／無能·無誠意를 自認코
· 辭表受理·會長團改選
· 會議錄要旨
기사 2. 本會理事會消息
기사 3. 大齒協一年의 足蹟／綿密한 企劃으로 加一層飛躍을 期待
기사 4. 終身會費納付者(2)
기사 5. 서울치의회 代議員會 盛了
기사 6. 一言半句
기사 10. 原稿募集
기사 11. 게시판
기사 12. 구직.

〖3면〗
기사 1. 제3회／亞細亞太平洋齒科會議／10月 17日 日本東京에서／韓國參加代表는 近 20名이나 되고
기사 2. The Third Asian Pacific Dental Congress Message／대한치과의사협회장 韓東燦
기사 3. 제8회 軍陣齒科醫學會開幕
기사 4. 제13회 大韓齒科醫學會／정기학술총회를 앞두고／대한치과의학회회장／의학박사 李春根
기사 5. 大韓口腔外科學會總會 지난 9月 29日齒大서 盛了
기사 6.「9.27」大韓齒醫學會準備活發 總七七篇에 一七 時間餘講演豫定

〖4면〗

기사 1. THE DENTAL AFFAIRS IN KOREA／이춘근／대한치과의학회장 · 대한구강외과학회장／서울치대교수.

〖5면〗

기사 1. 口腔領域에 있어서의／脫落細胞의 診斷學的 價値(抄)／金用琯

기사 2. 海外投稿／微粒子의 銀錫 Amalgam Micro—Alloy의 使用條件에 關한 硏究／日本松風陶齒製造株式會社硏究部長／鈴木成重

〖6면〗

기사 1. 集團에 對한 效率的齒科／診療를 爲한 人力評價／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陸軍本部醫務監室 齒務課長／陸軍大領 崔亨坤

기사 2. 論說／軍齒務業務의 方向／陸本醫務監室齒務課／中領 金裕善

기사 3. 民願 및 其他書類／醫療業者會經由要請

〖7면〗

과사 1. 13회 國際齒科會議 開催／來年七月獨逸「쾨른」에서

기사 2. 전국 齒醫一五〇三名／13年間에 二倍以上增加

기사 3. 의료기술／硏究所를 創設／日本서 科學技術導入하여

기사 4. 齒大는 80名이 減縮／전체적으로는 320명 감축

기사 5. 各市道局을／保健社會局改編

기사 6. 게시판.

〖8면〗

기사 1. 울능도 순회진료기／치과의사 임 운경

기사 2. 漫評／최 희섭

기사 3. 二回定期總會盛了／지난 十一日, 치과 보철학회서

□ 大韓齒醫報 第32號(檀紀 4294年 11月 15日)[10]

〖1면〗

기사 1. 國際部强化를 議決／副會長에 金逵澤氏選出／次期總會는「싱가폴」에서／中央委員會 11月 18日 開催

기사 2. 國際部 强化에 對하여／국제부이사 尹信鉉

기사 3. 本會正副會長 歸國人事次禮訪

기사 4. 全國防諜週間 프랑카드揭揚

기사 5. 생활합리화 운동／재건국민운동 본부.

〖2면〗

기사 1. 安鍾書氏를 推薦／「다아링 · 메달」受賞候補

기사 2. 會長에 李東燮 當選

기사 3. 서울齒會 理事陣構成／總務에 盧東鍵氏

기사 4. 서울 齒促進會／재건 국민운동

기사 5. 17日 月例集談會／대한 치과보철학회

기사 6. 齒醫登錄數／서울 四四七名

기사 7. 한미유대강화／국민대회개최

기사 8. 檢定試驗施行

기사 9. 本會理事會消息／제11회 정기이사회

기사 10. 終身會費納付者(3)

기사 11. 國際部 當面國際關係發表

기사 12. 이병도씨 강연

기사 13. 학술발표회 성대／서울大 齒大硏友會

기사 14. 金基永氏 華婚

기사 15. 金北 定期總會

기사 16. 仁川月例會

기사 17. 車尙駿氏 慈堂 別世

기사 18. 게시판.

기사 19. 朝鮮齒界를 찾음／최효봉

〖3면〗

기사 1. 大韓齒科醫師協會／10 回 定期總會 會議錄

기사 2. 報告講演會／일본방위청 육상자위대의 치무병과 狀況／대한치의부장 최 형곤

기사 3. 내가 본 保健行政에 對하여 보사부 오 응서

〖4면〗

기사 1. 第三回亞細亞齒科會議 報告講演盛況／11月 14日齒大講堂에서

기사 2. 國際會議에 參席所感／大齒會長 한 동찬

기사 3. 學會參席報告／서울대 치대교수 이 춘근

기사 4. 日本齒科敎育狀況／서울대 치대부교수 金用琯

기사 5. 本會議狀況／연세의대 金 樂 熙

기사 6. 漫評／최희섭

□ 大韓齒醫報 第33號(檀紀 4294年 12月 15日)[11]

이번호부터 새로운 것이 있어 소개한다. 오른쪽 위, 大韓齒醫報라는 제호밑에 이제까지는 없던 사서함이 적혀있다. 즉, 光化門郵遞局私書函 189號, 우편물 수발의 정확성 · 체계성이 도입되었다.

〖1면〗

기사 1. 亞細亞 太平洋齒科會議準備／第四回總會 豫算拋棄／國際部 强化豫算만 새로히 徵收／各會員協助가 要 緊事

기사 2. 本會 齒大卒業生徵兵／問題 解決摸索 兵役法改正面까지도 硏究

기사 3. 第四回 總會費／豫算은 拋棄

기사 4. 서齒顧問推戴

사기 5. 各區會對抗 척사大會

기사 6. 商工部電力課에서／24時間 送電을 다짐

기사 7. 忠南任員改編／會長에 張博氏

기사 8. 國際部 消息

기사 9. FDI總會／參加申請今月 卄日限

기서 10. 送年辭／大韓齒科醫師協會長／韓東燦

기사 11. 齒科 軍醫官도 一致하야／協會事業에 參與하자／本協會副會長 崔亨坤

기사 12. 간소한 연말연시로 새생활 설계하자／虛禮虛飾을 廢止／ 12月 10日～31日 運動 展開

〖2면〗

기사 1. 兵役法改正은 當面問題이다. 齒科醫科系卒業生徵集問題를 中心으로／대한치과의사협회이사 文英煥

기사 2. 齒務課 없어져도／그 會務縮少는 없을터／鄭保社部長官 다짐

기사 3. 終身會費納付者(4)

기사 4. 보건사회부소식, 1. 치과 교의훈련 2. 치과의사 검정시험 3. 제2부시험 4. 양호교사 강습

기사 5. 所得稅賦課率／引下 建議

기사 6. 게시판.

〖3면〗

기사 1. 大韓齒科醫師協會／10回 定期總會會議錄／하오현

기사 2. 總會決議事項執行

기사 3. 齒協基準／齒科領域의 傷害診斷 期日／機能回復時 까지가 合當하다고

기사 4. 仁川講演會

〖4면〗

기사 1. 溫室的인 齒科醫像／意慾에찬 새해를 期待하면서／崔在京

기사 2. 金粉末의 效果的인 蒐集法／편집부제공

기사 3. 分會別實施可決／任員總辭任을 撤回

기사 4. 慶南道齒總會

기사 5. 慶南學會總會

기사 6. 판평／최희섭.

□ 大韓齒醫報 第34號(西紀 1962年 1月 15日)[12]

〖1면〗

기사 1. 圓滑한 會運營을 期約／本會와 서울 齒理事첫 會同

기사 2. 一八二保健所에 齒科醫師를 配置 鄭保社部長官壯談

기사 3. 치과전문과목／審議委員 11名 推薦

기사 4. 會員의 幸運을 祈願／大韓齒科醫協會長／韓東燦

기사 5. 總團結하자／서울特別市齒科醫師會長 이형주

기사 6. 企劃調整官室轉任／吳應瑞

기사 7. 趙鏞起氏 令愛 結婚式 二月 六日

기사 8. 秋氏次女 결혼

기사 9. 정 大燮氏 入院

기사 10. 金用琯氏 伯兄歿

〖2면〗 새해에 一言(특집)

기사 1. 視野를 外界로／경상북도 치과의사회장 —卞鍾秀—

기사 2. 齒人은 孤兒가 되지말라／강원도 치과의사회장 —太錫佑—

기사 3. 大齒協의 奮發希求／부산시 치과의사회장 —金相讚—

기사 4. 民生은 口腔衛生으로부터／충청북도 치과의사회장 —朴昌熙—

기사 5. 새해에 새회 이룩토록／金義柱

기사 6. 徵收員增員

〖3면〗

기사 1. 臨床을 爲한 紙上講座(3)／齒科材料學을 中心으로(1)／치과대학 치과재료학교실 鮮于良國

기사 2. 國際部消息

〖4면〗

기사 1. 日本學校齒科界의 現況／서울 일신국민학교 치과의／金永熏

- 會員數
- 加盟團體(構成)
- 事務處位置
- 任員構成
- 財政 및 其運營
- 大會
- 齒科校醫訓練
- 學校齒科醫會의 年中重要事業
- 學校齒科醫의 校門
- 學校齒科에 關係된 重要法規
- 끝말

기사 2. 게시판

- 치과의사 招聘
- 尹炳翼氏 開業

□ 大韓齒醫報 第35號(西紀 1962年 2月 15日)[13]

〖1면〗

기사 1. 一八二個所 保健所에 齒科를／無齒醫村解決

策에 急進展／保社部 美八軍積極協力／本會對策委員 會活動에 期待

기사 2. 保健所齒醫配置爲해 美八軍에 齒科器材要請

기사 3. 對策委 첫 會合

기사 4. 鄭 淳慶氏 醫師國試合格／口腔外科發展에 期待

기사 5. 美陸軍 齒務團長／바니아少將 來韓／三八齒科 醫學會參加／

기사 6. 齒醫係復活建議／서울齒會서 市長에게

기사 7. 早春의 原州／中央과 地方의 紐帶强化希求／終身會費의 認識 薄弱

기사 8. 국제부소식

기사 9. 26日 齒大卒式 等生施賞은 23日

기사 10. 大齒協發行의／會員資格證必添도록／서울및 各道支部會에 要請

〖2면〗

기사 1. 時言／家族計劃의 重要性／金義柱

기사 2. 本會理事會消息

기사 3. 終身會費納付(5)

기사4. 게시판

〖3면〗

기사 1. 임상을 위한 지상강좌 3)／齒科用 Amalgam에 對하여 치과대학치과재료학교실／鮮于良國

기사 2. 齒醫界의 "타이코늄" 常識

〖4면〗

기사 1. 時言／校醫手當과 會運營／金相讚

기사 2. BROXODENT(Automatic Tooth Brush)

기사 3. (수필) 선달이야기／金秉式

기사 4. 반평／최희섭

▒ 大韓齒醫報 第36號(西紀 1962年 3月 15日)[14]

〖1면〗

기사 1. 改正醫療法 곧 公布？／同細則·許可制에 關心至大

기사 2. 新入會員에게 付託함／치대동창회 회장 박유신

기사 3. 柳樂達見氏來韓／38齒科醫學會 參席次

기사 4. 優秀生 施賞式／23日 서울齒大서

기사 5. 여인 나체 살해사건／齒牙의 法醫學的 價値／朴聖浩氏 감정에 개가

기사 6. 保存分科 學會／학술강연회

기사 7. 沈泰錫氏에 醫博

기사 8. 醫政局長에／申榮瑞氏 就任

기사 9. 齒務擔當官에／金南奎氏 內定

기사10. 종신회비 납부(6)

기사11. 金北 會員改編

기사12. 人事往來

〖2면〗

기사 1. 오늘 20日 부터 4月 20日 까지／軍醫務要員은 申告하라／豫備役將校는 50歲 까지

기사 2. 釜山齒醫會／分會長·班長委囑

기사 3. 本會賞狀 및 副賞／生活文化센타 展示／優秀作品에 授與

기사 4. 本會理事會消息／제19회 임시이사회

기사 5. 國際部消息

〖3면〗

기사 1. 임상을 위한 지상강좌 4)／臨床補綴에 對한 再考 (1)／치과대학보철학교실 김 인철

一. 補綴患者에 對한 前 準備及補綴設計

二. 口腔內 操作及 印像 採得

三. 架齒及技工操作

〖4면〗

기사 1. 齒科醫師 열모습／崔효峰

·安鍾書 先生

·金秉式 先生

·金東順 博士

·金相讚 先生

·許泰雲 先生

기사 2. Mouth Protector 란？

기사 3. 62年度 大學院 合格者發表

기사 4. 水原의 不正醫

기사 5. 게시판

▒ 大韓齒醫報 第37號(西紀 1962年 4月 15日)[15]

〖1면〗

기사 1. 第17回 口腔保健週間／多彩로운 行事展開／保社部主催 連席會議에서 計劃樹立

기사 2. 바니아 少將歡迎會

기사 3. 韓東燦會長 表彰／世界保健日 記念式에서

기사 4. 齒科醫師專門科目／許可에 關한 懇談會

기사 5. 서울各齒科／8坪과 10坪이 으뜸

기사 6. 종신회비 납부자(7)

기사 7. 柳樂博士 歡迎晩餐會

기사 8. 保健所勤務／齒科醫師 모집

〖2면〗

기사 1. 齒大卒兵役에 關한／實務者連席會議／希望的方案을 摸索

기사 2. 美 陸軍齒務監 Josph L. Bernier 少將／略歷과 業績

기사 3. 大韓齒科醫師協會會員 여러분에게／38 度線 齒科醫學會 會長／육군대령 C.H. Tornstrom

기사 4. 齒科醫師 1名에／8千名比率

기사 5. 大田任員改選

〖3면〗

기사 1. 臨床을 爲한 紙上講座 4)／臨床補綴에 對한 再考 (2)／치과대학 보철학 교실 김 인철

기사 2. 本理事會 消息

기사 3. 38線 齒科醫學會는 이렇다

기사 4. 口腔外科學術 發表

기사 5. 學位獲得祝賀會

기사 6. 人工齒牙 移植成功

- 제20회 임시이사회
- 제17회 정기이사회

〖4면〗

기사 1. 齒科醫師 푸로필一(崔曉峰)

- 李鎬坤 先生
- 李형柱 先生
- 鄭秀禮 先生
- 林奉燮 先生
- 南宮珍 先生

기사 2. 치과진료에 있어서 Earphone의 효능

기사 3. 구강보건표어및／포스타 모집

기사 4. 揭示板

- 金恩姬氏 結婚
- 李在賢씨 結婚
- 保存學會任員 改選
- 慶南 齒大同窓會 野遞會 開催
- 宋善榮氏 父喪
- 方洪奎氏 父喪
- 齒科圖解誌

大韓齒醫報 第38號(西紀 1962年 5月 15日)[16]

〖1면〗

기사 1. 齒科醫師申告實施／同申告不應者는 免許取消／全會員의 協助要望

기사 2. 口腔保健週間 첫 行事／서울特別市에서 記念式 마련

기사 3. 종신회비 납부요망

기사 4. 금년도 정기총회／10월 11일 치대서 개최／학회는 12·13 양일간

기사 5. 中央會經由要望／質疑陳情建議等書類

기사 6. 齒科軍醫官要員／入所者 37名

기사 7. (한국대표)／劉時學氏 派遣

기사 8. 6·9用 標語當選

기사 9. 논설／齒科商社의 健全한 商行爲를 促求한다／某齒科產業會社 事件을 귀감삼아

〖2면〗

기사 1. 兵役累積者에 對한 對策／陸軍醫務監室 大領 崔亨坤

기사 2. 韓國齒科界發展希願／生活安全 시키고저 「齒專」을 創設／感懷도 새로운 柳樂達見 博士

〖3면〗

半世紀前을 말한다(특집)

- 韓國齒科醫學과 나 (1)

  空手로 齒科專門學校(現齒大)을 設立하기 까지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 韓國齒科醫人의 奮發을 促求하여 齒科大學은 世界第一이 되여 달라고
- 生徒募集
- 式後祝賀式

〖4면〗

기사 1. 齒科醫師 프로필 (3)

- 金洙哲 先生
- 池憲澤 先生
- 金然睦 先生
- 金成河 先生
- 丁達秀 先生

기사 2. Silicate cement 充塡時의 防濕法

기사 3. 버니아少將 歡迎會／名譽會員證을 授與

기사 4. 朴中央齒科產業社長等 拘束／不正齒科材料輸入嫌疑

기사 5. 師弟之情 되살려／柳樂博士歡迎會 盛況

기사 6. 齒科醫師專門醫／制度懇談會

기사 7. 懸賞作文募集

기사 8. 李東煥氏 長男結婚

기사 9. 吳重植氏 慈堂別世

大韓齒醫報 第39號(西紀 1962年 6月 15日)[17]

월구독료는 100圓에서 10원으로 지금과 같음 화폐단위로 바뀜.

〖1면〗

기사 1. 口腔保健週間盛典／多彩로운 全國的行事展開

- 「서울」 健齒老人／兒童表彰

  興겨운 餘興에 拍手喝采
- 「大邱」
- 光州
- 淸州

・濟州
・仁川
기사 2. 各保健所에 齒科／併設할것을 示唆 鄭保社部長官 記念辭
〖2면〗
기사 1. 陸軍齒務施設紀行 (1)／陸軍醫務監室 中領 金裕善
기사 2. 本會理事會消息
・제18회 정기이사회
・제21회 임시이사회
기사 3. 豪華版「6·9 푸로」放送
〖3면〗
기사 1. 半世紀前齒科界의 證言 (2)／齒大校舍建立엔 눈물겨운 努力／歷代의 學長은 最大의 努力으로／最高의 齒科大學을 만들어 주어／柳樂達見
〖4면〗
기사 1. 齒科醫師 프로필 (4)
・朴俊遠 先生
・金鍍泳 先生
・李敏五 先生
・金浚坤 先生
・金學聖 先生
・文福楨 先生
기사 2. 無料診療班 派遣／본회 醫務委員會活動
기사 3. 千名 無料診察／서울齒會診療班
기사 4. 通貨措置緩和／本會 保社部에 建議
기사 5. 懸賞作文當選／2·3等 各 2名
기사 6. 齒科軍醫官／免許證交付要望
기사 7. 不正醫團束／積極協助要望
기사 8. 醫事講習／6月 22,23兩에
기사 9. 本會促進會解體
기사10. 審査委員委囑
기사11. 顎骨成形成功／鄭淳慶 助敎授
기사12. 李信雨氏 父喪
기사13. 張明鎭氏 母喪
기사14. 의료업자 신고／서울 561명

▒ 大韓齒醫報 第40號(西紀 1962年 7月 15日)[18]

〖1면〗
기사 1. 치협 憲章改正案作成에 愼重한 努力／학회장을 학술부 이사로／회장은 중임을 避하려는 의도도
기사 2. 業務上 過失致傷 (上)
기사 3. 技工室에 消毒施設있을 境遇／齒科醫院施設基準上 認定／保社部·技工室包含建議에 回示
기사 4. 齒大卒 軍醫官問題／國防部에 善處를 依賴／保社部 本會 建議에 對應
기사 5.「606」注射가 말썽／毒劇藥 使用에 異例的判定
기사 6. 演題 및 原稿募集／學會學會誌 發刊 앞두고
기사 7. 齒醫登用要請／公務員考試委員
기사 8. 새 領收證 發行
기사 9. 楊州 抱川 연川郡／齒醫會發足 機運
〖2면〗
기사 1. 陸軍齒務施設紀行 (2)／陸軍醫務監室 中領 金裕善
기사 2. 本會理事會消息·제19회 정기이사회·제20회 정기이사회
기사 3. 終身會費完納者 (8)
〖3면〗
기사 1. 口腔保健週間盛典／主要都市 6·9行事
기사 2. 齒科材料學紙上講座 (1)／埋沒劑의 混水率에 대하여／서울치대 치과이공학 교실 鮮于良國
기사 3. 서齒主催野遊會
기사 4. 補綴學術集談·月例會 7月 20日
기사 5. 서齒招待晩餐會
기사 6. 서齒理事陣 淸遊
〖4면〗
기사 1. 齒科醫師 프로필 (5)
・치과계의원로 韓宗鎬 선생
・往年의 蹴球名將 崔用默 선생
・바이론과 같은 風貌의「핸섬맨」朴基完 선생
・篤實한 신자의 柔道 3段 金海晩 선생
・음악애호가 —李容九 선생—
기사 2.齒科기타醫院 TO 制判明／鍾路·中區除外한 各區를 法定數未達／開設許可의 例外地域表
기사 3. 兵役關係調査／該當者早速通告要望
기사 4. 게시판

▒ 大韓齒醫報 第41號(西紀 1962年 8月 15日)[19]

〖1면〗
기사 1. 專門科目 標방許可／審議委員會規程 公布／齒科醫師 첫 委員會 8月 8日 開催／正副委員長 및 各分科委員長 選出
기사 2. Kork Laus 교수／本會招請·今秋來韓
기사 3. 定期總會 앞두고／終身會費完納을 要望
기사 4. 齒科大學學長에／金東順博士 就任
기사 5. 敎務課長署理／鮮于良國氏 就任
〖2면〗

기사 1. 本會理事會消息
　　제21회 정기이사회
기사 2. 제23회 임시이사회
기사 3. 終身會費完納者 (9)
〖3면〗
기사 1. 사단법인 大韓齒科醫師協會憲章
　第1章 總則
　第2章 構成
　第3章 目的
　第4章 事業
　第5章 會員
　第6章 任員및 選擧
　第7章 代議員總會
　第8章 中央委員會
　第9章 理事會性格
　第10章 各級 齒科醫師會
　第11章 大韓齒科醫學會및 學術大會
　第12章 各級 齒科醫師會
기사 2. 9月 15日 까지 意見提出要望
〖4면〗
기사 1. 轉役 또는 兵役免除 調書 및 願書接受／國防部에서 그 要綱發表
기사 2. 치과의사 檢定試驗
기사 3. 化學研, 庶務課長／吳應瑞氏 發令
〖5면〗
기사 1. 齒科學術集談會盛況／一軍司醫務部 齒務課主催
기사 2. 齒科材料學紙上講座 (2)／硬石膏를 물에 개는 方法／模型의 硬度를 높이기 爲하여／서울치대 이공학교실 鮮于良國
〖6면〗
기사 1. 庭球卓球大會／9月 22日 大邱에서 開催／釜山·大邱 兩齒科醫師會親善
기사 2. 22保健所齒科
기사 3. 會務狀況報告要望
기사 4. 會長에 金貴孫氏／京畿道齒北部分會創總
기사 5. 弗素도포 실시／
기사 6. 齒科醫師檢定試驗日字／11月 1日 決定實地는 22日, 應試는 一科目以上 合格者에 限해」
기사 7. 1,200名을 治療／齒大無醫村巡回診療班／江原道齒科 의사회／會長署理에 南宮圭氏
기사 8. 계시판
　·정순경치과 이전
　·金世卿齒科
　·崔大領 向臺
　·張鳳允씨 溺死
　·張榮圭氏 父喪
　·이전 개설
　·신규 개설
기사 9. 치과의사 프로필 (6)
　·李永泰 선생
　·曺 향 선생
　·朴章燁 선생
　·朴昌熙 선생
　·金貴孫 선생
기사10. 서齒 釋明書 發表에／本會 自重自愛를 要望
기사11. 學生課長署理 金仁哲氏 就任
기사12. 齒大敎授 發令
기사13. 一言半句

▩ 大韓齒醫報 第42號(西紀 1962年 9月 15日)[20]

〖1면〗
기사 1. 第11回 定期總會／憲章改正案審議와 任員改選／10月 11日 齒大에서 開催
기사 2. 定期總會에서 有功者表彰
기사 3. 新學長과 3博士／歡迎祝賀宴盛況
기사 4. 서울 代議員總會／29日 開運寺에서 開催
기사 5. 京畿道齒科醫師會／9月 30日 정기총회 개최
기사 6. 齒科醫師被害全無
기사 7. 顧問官 歡送迎會
〖2면〗
기사 1. 今秋의 齒醫界를 裝飾할／第14回 學術講演會／特講 3題 演題 120篇의 盛況／주최：大韓齒科醫學會
기사 2. 退任辭／서울대학교 치과대학 金永昌
기사 3. 特別講演／演題 및 演者
〖3면〗
기사 1. 大韓齒協憲章改正案은 이렇게／本會憲章改正案에 對하여 出版委員會에서 輿論調査／審査委員會의 勞苦致謝도 大端히 熱意 있게 熟讀하고 熱意 있는 意見回示
기사 2. 張員重 總制를 止揚했으면／서울 金用琯
기사 3. 中央總會 후에 地方總會를／地方總會結果는 本會에 提出토록／事務局給制는 持續性 있는 方案을／광주 丁達秀
기사 4. 適當主義 보다 强力한 執行을 大邱 金義柱
기사 5. 이사수는 奇數로／학회장 자격하에 이사회의／발언권과 결의권을 줌이 타당／서울 지헌택.

기사 6. 學會經費는 學會長이／부산 申鍾운

기사 7. 훌륭한 憲章案이다／各級會란 語句를／광주 曺 향

기사 8. 좋은 헌장보다／운영의 묘를／순천 나종영.

기사 9. 公務會員 보다 準會員으로／대구 劉時復

기사10. 終身會費가／고갈된 然後의 對策을／서울 沈泰錫

〖4면〗

기사 1. 本會憲章改正案에／서齒 修正案을 提示

기사 2. 學會長을 理事로 함은／學會長의 무게를 낮게 評價／치대학장 金東順

기사 3. 學術部委員을 增加하도록／劉委員長의 勞苦에 感謝／서울 奇昌德

기사 4. 個人醫院勤務 齒科醫師의／會員區分은 如何히／부산 姜致榮

기사 5. 本改正案은 學會發展에 有益／대구 卞鍾秀

기사 6. 高齡會員의 會費免除는 不當／서울 徐丙瑞

기사 7. 臨時總會召集權 會長／一人에게만 있어야 할까?／서울 李漢水

기사 8. 회원 事務局長의 給料가 걱정／除名處分에는 獨裁性이 없도록／부산 鄭王均

기사 9. 公報活動／强化에 讚意／裡里 洪俊杓

〖5면〗

기사 1. (博士學位主論文槪要)／齒牙의 鑛物質代謝에 關한 硏究／第1編 韓國人齒牙의 構成成分에 關한 硏究／의학박사 이영옥

기사 2. (3) 齒科材料學紙上講座／아말감 充塡을 爲한 窩洞形成法／서울치대 재료학 교실 鮮于良國

기사 3. 口腔外科學會／9月 28日 定總

기사 4. 補綴學會 月例會

기사 5. 金貴善氏 再選／矯正學會定總

기사 6. 金東順氏 再選／基礎學會定總

〖6면〗

기사 1. 醫學博士 學位獲得／金逵澤 이영옥 安炳珪等 3氏

기사 2. 安炳植씨 快癒

기사 3. 韓亨鎭씨 結婚

기사 4. 齒科醫師 프로필 (7)

- 李熙昌 선생
- 李聖民 선생
- 金鍾旭 선생
- 金庚煥 선생
- 金樂熙 선생
- 秋王燁 선생
- 姜德仁 선생
- 鄭王均 선생

기사 5. 邱釜戰／9月 29日 開催

大韓齒醫報 第43號(西紀1932年 11月 15日)[21]

〖1면〗

기사 1. 定期總會場에 새로운 曙光／安鍾書氏 會長에 當選／副會長에 徐永圭 吳在仁 崔亨坤 3氏

기사 2. 新豫算案을 承認／總額1,348,220원 整

기사3. 學會總會와／學術大會

기사 4. 齒科醫師專門科目試驗／應試者全員不參으로 無期延期

기사 5. 齒科專門醫試驗에 對한 建議

기사 6. 各道齒科醫師會名稱／「○○○道 支部」로 개칭요망.

기사 7. 免許稅免除建議

기사 8. 「시론」／齒醫專門醫試驗無期延期를 보고

기사 9. 서울 회장단 초청

기사10. 회관 修築竣工自親

〖2면〗

기사 1. 就任所感／忍耐와 努力으로／希望과 理想 이룩하자／회장 安鍾書

기사 2. 誠實과 果斷으로／會務遂行에 全力傾注／부회장 徐永圭

기사 3. 우리의 進路／부회장 吳在任

기사 4. 企劃的事業展開／會員의 協助精神發揮로／부회장 崔亨坤

1. 大韓齒醫師會의 發展
2. 組織的 口腔保健管理

기사 5. 協會理事會消息

- 제1회 정기이사회
- 제1회 임시이사회
- 제1회 緊急이사회
- 제2회 임시이사회
- 제3회 임시이사회

〖3면〗

(특집)우리들의 抱負는 이렇다

기사 1. 會務完遂에 奮發／各支部와의 紐帶强化／총무이사 劉寅榮

기사 2. 豫算範圍內에서／諸事業을 推進할터／이사 金萬壽

기사 3. 大局的 見地에서／理解있는 편달요망／심사이사 趙伶元

기사 4. 齒科醫界發展爲해／學術的土臺 마련／학술이사 安炳珪

기사 5. 國際齒科機構와의／緊密한 紐帶確保／국제이사 金貴善

기사 6. 協會發展爲하여／모든 會費納付要望／재무이사 李信雨

기사 7. 每事에 超然하자／獨善과 排他意識 버리고／軍務이사 文英煥

기사 8. 年間事業을 策定／全會員의 呼應으로 實現／資材이사 金東羽

기사 9.「大韓齒醫報」增刊／라디오 TV 網도 動員하고／공보이사 鮮于良國

〖4,5면〗

기사 1. 大齒協 第11回 定期總會 盛了

기사 2. 祝辭／보건사회부장관 鄭熙燮

기사 3. 會長職을 떠나면서／韓東燦

기사 4. 西紀 1963年度 歲入歲出豫算書

〖6면〗

기사 1. 사단법인 大韓齒科醫師協會定款

- 第1章 總則
- 第2章 目的
- 第3章 組織
- 第4章 事業
- 第5章 會員
- 第6章 賞罰
- 第7章 任員 및 選擧
- 第8章 代議員 및 總會
- 第9章 理事會 및 任員
- 第10章 大韓齒科醫師協會各支部
- 第11章 齒科 醫學會
- 第12章 財政

기사 2. 各支部定期總會

- 서울
- 경기
- 경북
- 대구
- 전남
- 전북

〖7면〗

기사 1. 第13回 國際齒科學會報告／서독에서 魚秀喆

기사 2. 國際齒科學會／材料學界活動을 中心으로

기사 3. 齒科材料學紙上講座 (4)／「시멘트」의 使用은 이렇게／混合初期의 酸性은 中和시켜야／서울치대 이공학교실 鮮于良國

기사 4. 原稿募集

〖8면〗

기사 1. 第1回 全體委員會／會務遂行爲한 協力 당부

기사 2. 學會消息

- 口腔保健學會
- 口腔外科學會
- 保存學會
- 補綴學會
- 페리오學會
- 소아치과학회
- 구강해부학과
- 기초학회
- 교정학회
- 일본해부학회
- 코스모스회
- 치과재료학 강연회
- 齒科研友會

기사 3. 邱釜戰

- 庭球·卓球戰績
- 釜山創立總會

大韓齒醫報第44號(西紀 1962年 12月 15日)[22]

〖1면〗

기사 1. 齒科衛生士法起草／口腔衛生／研究所 設置／齒科病院엔 衛生士配置

기사 2. 修正定款 案審議通過／서울 齒醫會特委開催

기사 3.「시론」／陣容은 갖추어지다／卞鍾秀

기사 4. 會館修理祝宴盛況／中央產業엔 感謝狀授與

기사 5. 齒醫追加 國家試驗／1月 90 兩日間에

기사 6. 定款變更申請

기사 7. X—마스 칵텔파아티

기사 8. S.SV·본슨氏「덴막」으로 歸國

기사 9. 學會消息

기사10. 辭表提出

기사11. 社告

기사 12. 소리／스코필드 박사／서울齒大를 痛駁

〖2면〗

기사 1. 齒科患者敎育의 企劃化／現危機 打開를 爲한 試案／李漢水

기사 2. 終身會費納付者(10)

기사 3.「問」「答」／잇몸에 피가 나는데요

기사 4. 理事會消息

- 第4回 臨時理事會

기사 5. 原稿募集

〖3면〗

기사 1. 釜山總會에 參席하고／吳在仁

기사 2. 齒科獎學金制度創設／부산회장에 金相讚氏／

경남회장에 高相穆氏

기사 3.「에폭시 레진」이란／金英海

기사 4. 韓國齒科醫의 이모저모 (1)／各種身上別 統計整理／金哲偉

기사 5. (5면에서 계속／부정의료업자 단속)

〖4·5면〗

기사 1. 大齒協 第11回 定期總會盛了(지난호 계속)

- 第8章
- 第9章
- 第10章
- 第11章
- 附則
- 면허세
- 치의보확장
- 회원카드
- 구강검사도
- 보험
- 전문의제도
- 면허제도
- 개설허가제도
- 舊任員의 件
- 의장·임원선거

기사 2. 신임인사／신임회장 安鍾書氏

〖6면〗

기사 1. 코발트—크로뮴 合金의 齒科的適用／演者 W.L. 쉐퍼드 中領

기사 2. 軍陣齒科醫學의 動向／金裕善 (上)

〖7면〗

기사 1. 美國의 齒周病領域의 最近知見／演者 W.C. 허트 中領

기사 2.「레진」의 溫成은 이렇게／攝氏 70度에서 1.5時間／100度에서 1時間이 適當／끓는물에 넣으면 氣泡가 생기고／鮮于良國

〖8면〗

기사 1. 서울市 齒科醫師會／어제부터 補修敎育實施

기사 2. 42郡 保健所에／齒科醫師配置

기사 3. 齒醫檢試實施

기사 4. 齒大消息

- 서울齒大敎授 定員은 增員되어야 한다.
- 明年度齒大新入生入試 2月 3日부터
- 張完植氏 副敎授로 金英海氏는 助敎授로
- 醫大齒科 金允淑敎授 齒大로
- 姉妹部落에 農牛寄贈
- 「齒大新聞」刊行

·黃牛는 가고 乾柿는 오고

기사 5. 서울市齒無料診療

기사 6. 綜合病院消息

- 연세의대 부속병원 치과
- 카도릭 醫大齒科
- 國立中央醫療院
- 首都醫大附屬病院 齒科
- 首都醫大光化門病院
- 齒大附屬病院
- 附屬病院長에 車文豪敎授就任

기사 7. 齒醫의 學術活動

- 綜合醫學
- 醫療院事務局長에 吳應瑞氏 就任

기사 8. 골프에 優勝／닥터스클럽에서

기사 9. 美8軍병원 訪問

기사10. 求齒科醫師

기사11. 華婚(9건)

▒ 大韓齒醫報 第45號(西紀 1963年 1月 15日)[23]

〖1면〗

기사 1. 齒務局을 復活設置／齒協臨時理事會에서 決議／保健社會部當局에 建議／

기사 2. 齒醫國家試驗施行／合格者發表는 來 17日에

기사 3. 釜山直轄市／支部創立總會

기사 4. 醫療法公布前／移轉者에 기득권 인정.

기사 5. 齒醫 168名 免許取消／審査委에서 再調査

기사 6. 補綴學會 釜山에서 開催

기사 7. 소리

〖2면〗

기사 1. 不朽의 名畵를／會長 安鍾書

기사 2. 새해를 맞이하여／金東順

기사 3. 協會事業의 長期企劃化와／全會員의 積極協助／崔亨坤

기사 4. 우리의 覺悟／吳在仁

기사 5. 新年新想／卞鍾秀

〖3면〗

기사 1. 癸卯年을 맞아／金東式

기사 2. 齒醫界의 發展을／金相讚

기사 3. 新年에 際하여／高相穆

기사 4. 癸卯年 頭苦言／張博

기사 5. 支部强化를 促求／朴昌熙

기사 6. 斯界의 明朗化를／曺珣

〖4·5면〗

서울特別市主催 第1回／齒科醫學講習會抄錄

기사 1. 小兒의 아말감 充塡에 對하여／차문호

기사 2. 아말감 回復／金洙哲
기사 3. 齒科用語解說／補綴學編 (1)
기사 4. 局所義齒의 調製順序와／裝着後의 措置／李永玉
기사 5. 總義齒印像에 關하여／沈泰錫
기사 6. 급성화농성질환／이춘근
기사 7. 生檢法의 槪要／金東順
기사 8. 경남지부／이사진

〖6면〗
기사 1. 迎新頌／朴南洙
기사 2. 軍陣齒科醫學의 動向／金裕善 (下)
기사 3. 感謝牌 및 名譽會員證을 授與／李永玉·「쉐꽌」兩氏에게
기사 4. 齒科材料學／紙上講座 (6)／金屬의 加工硬化란／强度는 커지고 延性은 작아진다／鮮于良國

〖7면〗
기사 1. 齒大實驗硏究室新築／冬期放學中으로 完成
기사 2. 齒科放送開始
기사 3. 國民學校 兒童에／弗素塗布
기사 4. 38線學會／(美 8軍)
기사 5. 孤兒에게／無料診療
기사 6. 齒科構圖出現
기사 7. 濟州支部／學術講演會
기사 8. 紙上診療室／中切齒가 안나오는데요
기사 9. 免許取消된／齒科醫名單
기사10. 미러／노-트좀 빌려주오!

〖8면〗
기사 1. 健齒說／「第6福」漫筆／梁柱東
기사 2. 理事會消息／12月 30日 定期理事會
기사 3. 醫院事務／區廳에 移管
기사 4. 社告
기사 5. 틀이영감(연재만화)②／최희섭
기사 6. 齒協旗圖案募集

▩ 大韓齒醫報 第46號(西紀 1963年 2月 15日)[24]

〖1면〗
기사 1. 專門醫試驗事務齒協에／保健社會部로부터 委任／齒協은 運營策을 構想中
기사 2. 國家考試事務移讓／保社部서 保健院에
기사 3. 定款變更을 認可／齒協總會 原案대로
기사 4. 改選 任員 承認
기사 5. 協會旗 결정
기사 6. 保健社會部／弗素塗布事業에 協助依賴
기사 7. 齒醫國試 100% 合格
기사 8. ADA서 齒醫報 요청
기사 9. 醫療機關의／開設許可事務／各區廳에 移讓
기사10. 소리

〖2면〗
기사 1. 社說／齒務局을 復活시키라／會長 安鍾書
기사 2. 全南支部 會務錄印刷
기사 3. 役員會盛了／慶北支部
기사 4. 齒科醫師 2,000餘名 不足／保健院서 齒醫實態發表
기사 5. 倫理審議兩委員會構成
기사 6. 앤아이버에 支局設定
기사 7. 韓敎授에 미시간大學院 講座
기사 8. 朴一鎭氏 西獨에 招請
기사 9. 齒大病院 인턴 1,000원 支給
기사10. 齒豫科生選拔은 이렇게
기사11. 원고모집
기사12. 서영규씨에 표창
기사13. 제8회 임시이사회(3면에서 계속)

〖3면〗
기사 1. 文敎部는 齒科校醫配置를／會館落成 기별엔 가슴벅찼고／金義往*
- 不正醫療業團束問題
- 口腔衛生啓豪運動
- 齒科醫配置 全國
- 弗素事業

기사 2. 許泰雲氏 支部長에／補綴學會釜山支部結成
기사 3. 螢雪의 功 이룩
- 醫學博士(3명)
- 碩士(12名)
- 學士(28名)

기사 4. 理事會消息
- 제5회 임시이사회
- 제6회 임시이사회
- 제7회 임시이사회
- 의료법 시행규칙 제17
- 의료법 시행규칙 제8(2면으로 계속)

기사 5. 終身會費納付者 (11)

〖4·5면〗
서울特別市主催 第1回／齒科醫學講習會抄錄
(건호에서 계속)
기사 1. 齒周病의 90%는 齒石 때문／文東先
기사 2. 弗素利用과 虫齒豫防／金周煥
기사 3. 架工齒의 所要條件／張完植
기사 4. 齒科麻醉學／金用琯
기사 5. 顎顔面成形外科學／鄭淳慶

기사 6. 下顎 8번의 X一線像 判讀法／安炯珪
기사 7. 齒髓는 可及的 살리도록／金英海
기사 8. 齒科材料學／鮮于良國
기사 9. 不正咬合은 原因除去부터／金貴善
기사10. 치과재료학／선우양국

〖6면〗
기사 1. 保健所齒科醫의／使命과 活動業務／國立保健院外來講師 金永熏
1. 口腔檢査
2. 早期處置
3. 豫防措處
4. 健康敎育
5. 健康相談
6. 家庭訪問
7. 學校齒科
기사 2. 타이코늄／의치가 부러졌어요
기사 3. 까운 禮讚／최상묵
기사 4. 韓國齒科醫의 이모저모／各種身上別統計整理 (2)／金哲偉

〖7면〗
기사 1. 耽羅紀行／金用琯
기사 2. 치과재료학 지상 강좌 (7)／燒金岩(Annealing)이란?／强度는 작아지고 延性은 커진다／金屬의 耐蝕性은 强化되고
기사 3. 李春根 博士／ADA 雜誌에 投稿
기사 4. 齒科醫學哲學／古代齒學과 哲學小考／이한수

〖8면〗
기사 1. 齒痛記／金永壽
기사 2. 學會消息
·口腔保健學會
·矯正學會
·顎顔面成形外科學會
·페리오學會
·서울 軍陣學術集談會
·釜山支部 補綴學會
·大邱學術集談會
·軍齒醫學會 大齒協에 吸收
·HLKY 齒科放送
기사 3. 國際部消息
·FDI(國際齒科聯盟)
·APDF(亞細亞太平洋齒科聯盟)
기사 4. 免許取消追加申告者數
기사 5. 華婚
기사 6. 訃告
기사 7. 알림／공보위원회
기사 8. 廣告募集
기사 9. 틀이영감(연재만화)③／최희섭

▒ 大韓齒醫報 第47號(西紀 1963年 3月 15日)[25]

3월 12일, 등록번호 D—50호로 새로히 받음으로써 발행인은 安鍾書, 편집겸 인쇄인에는 鮮于良國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大韓齒醫報라는 제호의 글체를 바꾸었다.

〖1면〗
기사 1. 齒醫務局復活되더나／3月 20日 超緊急理事會召集／最高會議에 傳達한다고 保社部서／本會에 要望을 물어
기사 2. 免許取消規定緩和／保健社會部長官에 建議
기사 3. 弗素塗布講習實施／保健社會部主催로／25齒科 保健醫에게
기사 4. 金讚淑女史 西獨에／치의보連絡責任도 안고
기사 5. 免許稅 反對에
기사 6. 題號變更
기사 7. 本報發行人 安會長으로
기사 8. 소리

〖면2〗
기사 1. 시론／齒醫人의 使命完遂에 邁進하자
기사 2. 理事會消息／第12回 定期總會 10月 14日로／學會는 15,16日에
기사 3. 空軍齒科軍醫官／합격자 발표
기사 4. 初代副倫理審議委員長에／安·徐·吳 3氏
기사 5. 陸軍齒科軍醫官／約 80名을 選定
기사 6. 不正業者團束을 建議
기사 7. 美38學會에서／金樂熙氏 講演
기사 8. 海軍齒科軍醫官／合格者發表
기사 9. 定款法人登記完了
기사10. 本會서 「유한치약」을 推薦
기사11. 國防部當局에 建議／齒大卒業生／兵役特別措置 토록
기사12. 치과인턴 急募／메디칼센터에서
기사 13. 齒醫國試 90%合格

〖3면〗
기사 1. 제14회 齒科醫師國試問題／63년 3월 10 시행
·齒牙周圍病學
·口腔保健學 및 醫事法規
기사 2. 春節有想／劉寅榮

〖4·5면〗
기사 1. 醫學博士 學位論文 抄錄
·Limbic system 의 損傷이 Stress 機轉에 미치는

影響／金昌旭

・韓國人의 口角糜症爛에 關한 硏究／卞鍾秀

・齒牙 및 骨에서의 放射性燐과 Calcium 攝取에 關한 硏究／金周煥

기사 2. 三博士 祝賀宴盛況／本會螢雪의 功을 讚揚

기사 3. 博士課程 9名合格／碩士課程엔 2名이

기사 4. 原州에 齒科展示會／來 3月 22日・121후송병원에서

기사 5. 원고모집

〖6면〗

기사 1. 韓美齒科敎育의 今明을 解剖／基本生物科學과／關聯된 部分에 限하여／미국미시간 대학교 치과대학 조교수／의학박사 韓性洙

・서언

・豫科敎育의 意義

・豫科課程에 合理的 制度로 創造토록

・現實齒科敎育의 長短

・美國齒科界의 發展은 基礎學의 發展에 根據

・人體治療參與에 앞서 知的 學問習得이 必要

기사 2. 中央・利韓產業硏究費傳達

기사 3. 釜山支部서／齒大에 奬學金

기사 4. 38學會에서／디너 集談會

기사 5. 案內

기사 6. 지상진료실④／아말감 充塡後／「버니싱」은 해야하나

〖7면〗

기사 1. 젊음／朴基哲

기사 2. 치과재료학 지상강좌 (8)／時效硬化 Age Hardening 란／徐冷으로 强度硬度는 커진다／새 相의 析出 때문에

기사 3. 保健所齒科醫의 所感／鐵原郡保健所／李亨奎

기사 4. 韓性洙博士／P市에서 講演

〖8면〗

기사 1. 齒痛記／朴鍾鴻

기사 2. 學會消息

・구강보건학회

・교정학회

・보철학회

・페리오학회

기사 3. 4月 7日 世界保健日行事를 推進／保健社會部에서 週間行事로

기사 4. 食生活 改善으로 國民保健 이룩하자

기사 5. 安鍾書會長 推薦

기사 6. 鄭保羅 博士 시카고에서 講演

기사 7. 婚姻

▒ 大韓齒醫報 第48號(西紀 1963年 4月 15日)[26]

〖1면〗

기사 1. 保健社會部에 建議／支部長에게도 團束權限을 줘야／不正齒科醫療業者에 對해 强力한／團束措置를 하도록

기사 2. 前線齒科軍醫官慰問 激勵次

기사 3. 稅制廢止 連判 運動／본협회 총망라코 전개

기사 4. 會費納付要望

기사 5. 會員證更新

기사 6. 美國齒醫 4氏에게／名譽 會員證

기사 7. 램포드 博士 來韓

기사 8. 專門醫事務 保健院으로

기사 9. 公報委員委囑／各支部에 1名式

기사10. 江原道支部 總會

기사11. 소리

〖2면〗

기사 1. 胎動하는 두개의 齒大／新入生募集은 來年부터／延世大와 慶北大에

기사 2. 詩／咏友人白髮／李昌鎔

기사 3. 陸軍齒科軍醫官／徵集者名單發表

기사 4. 理事會消息

・ERL 3氏를 本會顧問 推戴

・第4回 定期 理事會

・親睦野遊會 開催／本會任員들 4.29

기사 4. 齒醫울등도에／勤務를 하도록／空軍出身將校會서 協助要望

기사 5. 安東地區 時會 結成

기사 6. 前方齒科 軍醫官慰問에 다녀와서／本協會軍務理事 文英煥

〖3면〗

기사 1. 제14회 齒科醫師國試 問題 (2)

・구강외과학

・보전학(충전 근관 포함)

・보철학 재료학 포함.

기사 2. (2면에서 계속)

〖4면〗

기사 1. 마이아미紀行／美國齒科醫師年例總會 및 學會 參觀報告／陸軍中領 金光夏

・宣傳은 全國的

・페리오 學會에 등록

・4千餘 齒科器材商展示도 日本器材로 한몫

・20餘名의 日本代表로 參席

・韓國에서는 2名뿐

・63年度學會는 아틀란틱市에서

기사 2. 치과용어 해설 (4)／보철학편

기사 3. 齒人낚시大會 案內

〖5면〗

기사 1. 齒科醫業에 있어서의／經營管理의 合理化와 近代化／齒科經營學硏究會發足에 즈음하여／崔在京

기사 2. 母體의 異常과／태아의 齒牙硬組織變化／口腔病理專攻 高英澤

기사 3. 申榮均氏 渡日／10回 아세아영화제 참석차.

〖6면〗

기사 1. 韓美齒科敎育의 今明을 解剖／基本生物學과 關聯된 部分에 限하여 (下)／韓性洙

・齒大의 境遇

・醫學界의 境遇

・우리는 어찌할것인가 ?

・敎職員의 境遇

기사 2. 紙上診療室⑥／硅酸세멘트 充塡物의 變色

〖7면〗

기사 1. 兵役未畢者가 알어야할／兵役法 몇가지／陸本齒務課 大尉 邊碩斗

・忌避者 應召不應者

・歸鄕者(軍醫校에서 身檢不合格者) (4년으로 계속).

기사 2. 치과재료학／지상강좌 (9)／金屬補綴物硏磨의 理由／變色・侵蝕을 막고 審美價値도 올린다

〖8면〗

기사 1. 齒痛記⑤／吳華燮

기사 2. 美38學會總會 및／學術大會開催／6月 26日부터 3日間

기사3. 충치보유아등 77%／서울特別市編入區／國民校生口腔檢査

기사 4. 學會消息

기사 5. 學會案內

기사 6. 齒科材料學講義／Nieusma 氏 齒大서

기사 7. 朴明吉 大尉 死亡

기사 8. 鄭炅謨 會長 來訪

기사 9. 朴忠鎬氏 慈堂 回甲

기사10. 延世 李東燮氏 敎授로 昇進／金・尹 兩氏도

▒ 大韓齒醫報 第49號(西紀 1963年 5月 15日)[27]

〖1면〗

기사 1. 第18回 口腔保健週間行事決定／齒協과 保社部共同主催로／齒醫없는 村爲해 無料診療／健齒者와 有功者도 表彰／6月 9日~15日까지

기사 2. 18,000弗 치과기재／美 8軍에서 기증

기사 3. 醫療業者 定期申告마감／各市・道에 申告하되／63年度 本協會員證 提示해야／5月 1日부터 31日까지

기사 4. 檢定試驗要領

기사 5. 자유의벗 千部

기사 6. 安鍾書本協會長／保健奬學會理事에

기사 7. 金萬壽 副敎授／카톨릭 齒科科長에

기사 8. 소리

〖2면〗

기사 1. 시론／6月 9日行事를 앞두고

기사 2. 限地齒醫配置에／保社部當局에 質疑

기사 3. 江原道支部總會

기사 4. 鷄龍山總會 盛況

기사 5. 馬山軍齒學校慰問

기사 6. 濟州支部總會 開催

기사 7. 本協會誌遂發刊

기사 8. 경북 役員會開催

기사 9. 忠水支部總會

기사10. 理事會消息

제12회 임시이사회

기사11. 春川行記／부회장 吳在仁

〖3면〗

기사 1. 우리支部의 6.9 行事計劃／깨끗한 치아는 건강의 어머니

・釜山市支部

・서울市支部

・全南支部

・濟州支部

・慶北支部

기사 2. 支部消息과／大齒에 要望事項

기사 3. 齒大同窓會 結成

〖4면〗

기사 1. 킴플랜 敎育에 對하여／修練期間은 卒業後 4年／齒務課 邊碩斗

기사 2. 치과용어해설 (5)／보철편

기사 3. 金女吏 西獨서／博士課程履修

기사 4. 제14회 齒科醫師 國試問題 (3)

・보철학・재료학 포함

・교정학

〖5면〗

기사 1. 戰爭과 齒科醫師／陸本齒務課長／陸軍 大領 崔亨坤

・戰傷患者治療指針

기사 2. 在美會員 푸로필／조오지타운 分院의 韓弼駿夫婦

기사 3. 在美會員 名簿作成

〖6면〗

기사 1. 나의 世界一週記／齒科界를 보면서 (1)／서울대학 교수 의학박사 李春根

기사 2. 지상진료실⑦ 문답／에크릴릭·레진 義齒의／氣泡防止法

〖7면〗

기사 1. 치과경영학／患者管理의 問題點／崔在京

기사 2. 치과재료학／지상강좌／고무 印像材란／비싸긴하나 無比의 彈性印像材／貯藏期間도 차차 길어졌고

기사 3. 제14차 組織化學會年會參加報告 7月 7~8日 Washington D.C

기사 4. 池憲澤敎授 渡美

기사 5.「齒學」誌에 贊助金／齒大엔 大邱사과를

〖8면〗

기사 1. 올챙이의 辯／최상묵

기사 2. 38學會 參加者數要望

기사 3. 學會消息

기사 4. 趙伶元氏 入院

기사 5. 徐丙瑞齒科移轉

기사 6.「세파트」少領／국제엔도돈틱 학회／쾬大學에서 개최

기사7. 齒大서 材料學講義

기사 8. 鄭淸奎齒科 全燒

기사 9. 陳敎授 編輯委員에

기사10. 50特輯號에 贊助金

기사11. 尋人

기사12. 訃告

기사13. 人事次來訪

기사14. 華婚

기사15. 訂正

▒ 大韓齒醫報 第50號(西紀 1963年 6月 15日)[28]

〖1면〗

기사 1. 成長一路에 있는 大韓齒醫報／各會員에 郵便直送斷行／4面에서 8面으로 紙面도 늘여

기사 2. 社說／創刊 第50回를 맞이하여

기사 3. 臨時總會를 召集／20日 理事會에서 決議

기사 4. 美國顧問 3名／就任歡迎盛大

기사 5. 38學會 開幕／우리 會員參席要望

기사 6. 安會長 KA 서／口腔保健週間放送

기사 7. 本協會誌遂發刊

기사 8. 金學長渡日

기사 9. 齒科器材配定／보건소 13, 병원 2개소

〖2면〗

기사 1. 69行事를 보내면서／崔亨坤

기사 2. 6月 10日／記念式典에 參席하고／吳在仁

기사 3. 馬山軍醫學校慰問／劉·文兩理事

기사 4. 軍陣齒科補修敎育實施／第1陸軍病院에서 6週間

기사 5. 診斷書는 이렇게／保社部에서 指示

기사 6. 齒科臨床座談／慶北에서 李·安·鮮于 3氏招請코

기사 7. 럭키 化學에서／포스터 등 5만매／기증치약도 4백타

기사 8. 理事會消息

기사 9. 서울支部에 寄贈

〖3면〗

기사 1. 全南支部

기사 2. 서울 市支部／紀念式盛了

기사 3. 口腔保健有功者

기사 4. 健齒老人表彰

기사 5. 健齒兒童

기사 6. 1963年度 6.9 行事

기사 7. 慶北支部／포스타 審査發表

기사 8. 巡訪 無料診療

기사 9. 講習會開催

기사10. 不具者收容所／養老院·難民村等／無料巡廻診療

기사11. 無齒醫郡巡廻診療

〖4면〗

祝 本報 50號賀 前編輯者의 辯

기사 1. 冷嚴한 批判을 建設的으로／李漢水

기사 2. 보다 强力한 執筆陣을／朴光振

기사 3. 本報의 今昔을 生覺하면서／金晃中

기사 4. 50號까지의 大韓齒醫報 푸로필

〖5면〗

기사 1. 細胞의 超微構造／미시간 大學校 齒科大學助敎授／醫博 韓性洙 (上)

- 서언
- Ribosomes(라이 核酸顆 粒)
- Endoplasmic Revictlum(細胞內膜網)
- Granular Enpoplasmic Reitculum(다음호에 계속)

기사 2. 偏派性없는 新聞을／卞鍾秀

기사 3. 지금까지의 본보 편집멤버

기사 4. 현공보위원(43호 부터)

기사 5. 현지부 및 해외공보위원

〖6면〗

기사 1. 나의 世界一週記／齒科界를 보면서 (2)／李春根

기사 2. 본보지령 50호 발행／축하 찬조자 방명

〖7면〗

기사 1. 齒科 治療에 있어서／動作研究原則／최재경

기사 2. 치과재료학／지성강좌 (11)／齒科材料 規格이란／어떤 인레이 鑄造用埋沒劑를 例로

기사 3. 러브 少將夫婦／서울 齒大訪問

기사 4. 女任 娠婦의 齒科常識／서울大學校 齒科大學 病理學敎室／전임강사 조한국

〖8면〗

기사 1. Submarine Operation／海軍 中尉 金在哲

기사 2. 38學會 登錄은／龍山會場에서

기사 3. 學會 消息

기사 4. 허트중령에／페리오 명예 회원증

기사 5. 랩博士 메디칼／센타에서 講演／페리오 學會 招請 來 27日 19時半 부터

기사 6. 最近發表된／우리 會員의 論文

기사 7. 人事

▒ 大韓齒醫報 第51號(西紀 1963年 7月 15日)[29]

〖1면〗

기사 1. 醫療補助員法／最高議通過／技工士도 國試에 合格해야／醫療界初級大學 卒業者／保社長官 指定機關의 履修者로／補助員資格

기사 2. 臨總召集은 10月까지 延期／卞議長 上京코 會長團과 熟議코

기사 3. 랩博士 等에 感謝狀／리미쥐 大領은 安本會長에

기사 4. WHO 齒科 顧問官 홀러大領 來韓

기사 5. 한성수 박사／美치과교육자 회의에 참가

기사 6. 치과 간호보조원 교육／서울 지부서 실시

기사 7. 安會長을 推薦

기사 8. 朴一鎭氏 西獨에

기사 9. 소리

〖2면〗

기사 1. 38線 齒科學會／年次 세미나 盛了／齒周病學 權威랩博士도 來韓

기사 2. 親善體育大會에 參加하고／慶北支部大邱分會長 金義柱

기사 3. 口腔衛生座談會大盛況／各機關長 및 社會有志參席코

기사 4. 理事會消息

기사 5. 醫籍簿서 抹消／63年度 申告에 100名이 漏落

〖3면〗

기사 1. 免許稅 안내게 되려나／保社長官이 內務長官에게 免稅公文

기사 2. 免許稅免除토록／本協서 地方稅法 改正을 建議

기사 3. 濟州에서 齒科講演／卞鍾秀 博士 來道를 契機로

기사 4. 우리도 FDI 規格採擇／7月 4日 理事會에서 可決

기사 5. 協會誌 또 出版키로／7.3 分科學會長 會議에서

기사 6. 齒科材料學 懇談會

기사 7. 齒科器材器를 寄贈／美 8軍서 保健所에

기사 8. 47名 齒軍醫官任官

기사 9. 齒大入試科目 決定

기사10. 여기 저기서／無料診療實施

〖4·5면〗

기사 1. 第14回 齒科醫師國試問題 (4)／矯正學

기사 2. 50號 紀念 論文／한성수 (下)／

- 골지 內網裝／(Golgi Complex 或은 Golgi Apparatus)
- 分泌顆粒
- Lysosomes
- 미토콘드리아
- Agranular endoplasmic reticulum
- 核
- 기타
- 결언

기사 3. 齒科用語解說 (5)／口腔外科篇

기사 4. 軍醫敎育을 無事히 끝내고／陸軍 大尉 金明國

〖6면〗

기사 1. 나의 世界一週記／齒科界를 보면서 (3)／서울大學校 齒科大學 敎授／醫學博士 李春根

기사 2. 弗素塗布事業

기사 3. 診斷書에／免許番號記載

기사 4. 支部別 會費納付額

기사 5. 大韓齒醫報 紙齡50號／祝賀贊助芳名錄

기사 6. 齒科醫師學會誌原稿募集

〖7면〗

기사 1. 醫院의 經營과 管理／金錢보다 사람이 問題／崔在京

기사 2. 齒科材料學／紙上강좌 (12)／FDI 規格 採擇의 뜻／受容態勢도 時急히 가취야

기사 3. 日本齒科界를 보고／서울大學校 齒科大學長

金東順

〖8면〗

기사 1. 理髓과 鄕愁／미시간大 齒大 池憲澤

기사 2. 學會消息

기사 3. WHO 고문관 F大領 滯韓日程

기사 4. 齒大서 感謝狀授與／네 美國齒科醫師에게

기사 5. 대한치과 의료관리학회 신설／치과의원 관리를 효율화

기사 6. 齒醫界 창간호 發刊

기사 7. 의약계 배구대회 개최

기사 8. 치과에 도둑

기사 9. 人事

기사10. 원고모집 공고／대한치과의사협회지

기사11. 정기학술대회 연제모집 공고!

▨ 大韓齒醫報 第52號(西紀 1963年 8月 15日)[30]

〖1면〗

기사 1. 榮譽의 大統領章／우리 齒科界 元老에게／8.15 光復節에 安鍾書 會長에／醫業界人士 11名과 함께

기사 2. 再擡頭된 專門 醫件／別神通한 進展은 없이

기사 3. WHO 홀大領 歡迎宴 盛況／安會長이 名譽會員證도 授與／金天愛·金노현 氏의 쏠로도

기사 4. 公告／제12회 정기 총회

기사 5. 학술대회개최 공고

기사 6. 소리

〖2면〗

기사 1. 釜山市支部서 水災義捐／8,950원 衣類 19點

기사 2. 最新齒科設備一式을 寄贈／日本 鈴大會社에서 서울齒大에／松風에선 陶齒製 作用화네스를

기사 3. 80餘國 民校兒童作品 嚴選／忠北 6·9行事 懸賞募集에서

기사 4. VENEZUELA의 齒科槪況／齒科醫數는 1500／人口 850萬名에

기사 5. 安會長에게 祝賀宴을

기사 6. 慶北支部서 救護金 3,660원을 寄託

기사 7. 齒大生들 無料診療

기사 8. 本協會 任員도／水災義捐金

기사 9. 矢尾太郎·杉原德行／兩敎授 世界一週／明年엔 韓國에도 가고파

기사10. 理事會消息

기사11. 協會誌를 또 發刊／매페지당 3백원 내야돼

〖3면〗

기사 1. 安鍾書 會長 各支部巡訪／8月29日 부터 9月4日까지 一週

기사 2. 第14回 齒科醫師國試問題 (完)／齒科放射線學

기사 3. 外貨獲得?／美國에서도 本報에 贊助金／정보라 박사는 手票로 20$

기사 4. 李·金兩敎 全州에／補綴·口腔外科에 대한 講演盛況

기사 5. 綜合學術大會를 市民會館서／리도케인社 키돈博士의 招請講演도／協會誌 發刊部署는 바꾸도록

기사 6. 國產機械 生產凱歌 金星製 유닐체어에

기사 7. 알림／大學院同門會會員에게

〖4면〗

기사 1. 湖南紀行／서울齒大敎授 金用琯

기사 2. 提議／齒科醫學의 날 制定／李漢水

기사 3. 齒科用語解說 (6)／口腔外科篇

기사 4. 齒協排球팀 出戰키로／8.14 理事會서 決議

기사 5. 국 大領 名譽會員證

〖5면〗

기사 1. 信賴性 있는 統計／資料蒐集을 中心으로／육군 중위 김관홍

기사 2. 在美會員名簿 作成

기사 3. 在美會員 푸로필／鄭保羅 先生을 찾아서／미시간 大·齒大 韓性洙 記

〖6면〗

기사 1. 나의 世界 一週記／齒科界를 보면서 (4)／醫學博士 李春根

기사 2. 大韓齒醫報 紙齡 50號／祝賀贊助者 芳名錄

〖7면〗

기사 1. 醫院의 經營과 管理／최재경

기사 2. 치과재료학／지상강좌 (13)／아말감 充塡때 물끼는 禁物／亞鉛包含의 粉末은 遲延膨脹을 招來

기사 3. 랩홀 博士로부터 人事편지／

기사 4. 英語를 工夫하라는 傳言도 정보라 박사／ADA 연구원에

기사 5. 鄭保羅 博士／ADA 研究員에

〖8면〗

기사 1. 세 醫學博士 우리 會員에서／徐永圭 文東先 李烈熙 3氏.

기사 2. 矯正學者 콜크하오스氏 來韓／今年度 우리 學術大會가 招請

기사 3. 어머니의 이／괴산군 청안 국민학교／육학년 이반 권은숙 충북 1등 작품

기사 4. FDI에서 感謝狀／FDI材料 規格 採擇에 대해／파펜버거氏로 부터도 感謝狀

기사 5. 學會消息

기사 6. 安會長／서울 齒大訪問

・緊急理事會
・第1回 臨時理事會
・第2回 定期理事會
・第2回 臨時理事會
・定款 改正案 審議會
・豫算案 審議會
・事務引繼引受會議
기사 3. 祝華婚

〖3면〗

기사 1. 口腔診査法制化潔／本協會서 齒科豫防醫學에 拍車
기사 2. 兵役未畢者에 朗報／齒科軍醫官으로 吸收키로
기사 3. 齒科診療材料不足難甚大／國民口腔保健面에도 憂慮／現在不足難인 것만 60餘種
기사 4. 醫齒藥界 合同／新年招宴盛況
기사 5. 理事會記錄／第4回 定期理事會
기사 6. 免許稅免除
기사 7. 月石膏消耗量
기사 8. 鄭喆九氏外艱
기사 9. 汎太平洋 會議에 斯界關心
기사10. 알림

〖7면〗

기사 1. (2面에서 계속) 齒科材料 輸入禁止／陳情書取下要望
・FDI 檢査依賴品返送
・題目 本協會公文 및 任員不信任에 對한 解明要求
・齒科材料輸入禁止措置反對 意見書提出
・題目齒科材料輸入禁止措置 反對建議
기사 2. 치과재료학 강좌／아말감 充塡壓을 7kg 程度／充塡器 頭面直經은 1～2미리／手壓機機械 充塡 모두 臨床엔 無關／서울齒大 鮮于良國
기사 3. 會員 여러분께／알리는 消息

〖8면〗

기사 1. 우리의 살길／忠南支部長 李暾衡
기사 2. 齒科醫師倫理를 提議하면서／全南支部 理事長 丁達秀
기사 3. 善意의 解釋／高相穆
기사 4. 學會消息 大韓齒科補綴學會
기사 5. 口腔病理學會
기사 6. 醫療管理學會
기사 7. 大韓齒科醫史學會 定期總會
기사 8. 醫史學會誌 原稿마감 迫頭

▒ 大韓齒醫報 第55號(西紀1933年 12月 15日)[33]

[1면]

기사 1. 齒務行政에 期待／朴柱秉 博士를 起用／第3共和國 첫 保社長官에
기사 2. 논설／送年에 붙여／朴柱秉 長官에게 期待한다
기사 3. 改正돼야 할 醫療法39條／開設申告制는 復活돼야／本會 保健社會部에 强力建議
기사 4. 保社部次官에／姜鳳秀氏 拔擢
기사 5. 軍支部設置問題／會則改正委서 論議코해
기사 6. 醫療審議委員／金徐兩氏 選任
기사 7. 醫療保險法／16日字로 公布
기사 8. 徐永圭氏 辭任
기사 9. 三山齒科 盜難
기사10. 本會 電話番號變更
기사11. 祝華婚

〖2면〗

기사 1. 斯界에도 미친 弗不足 影響／齒科機材供給難日益加重／醫療報酬規定은 5年前 그대로
기사 2.. 釜山支部定總／釜醫大講堂서 改選
기사 3. 齒大동창회 定總／회장에 安鍾書氏 선출
기사 4. 故 朴明鎭 學長／12月 26日 周忌
기사 5. 회장에 南貞祐씨／경남지부 定總서
기사 6. 安鍾書氏 參席 保健獎學會에
기사 7. 齒醫國試施行 明春 2月 24日에
기사 8. 兪守根氏 別世
기사 9. 機材審議委員
기사10. 全體委員會／明年初開催豫定
기사11. 大韓矯正學會／月例學術集談

〖3면〗

기사 1. 現代齒科醫院設計의 새로운 傾向／崔在京
기사 2. 理事會 消息／3回 定期理事會
기사 3. 口腔外科學會／會長에 李春根氏
기사 4. 電話番稅變更(1月 1日 부터)
기사 5. 消息
기사 6. 樂園싸롱

〖4·5면〗

저무는 癸卯年에 붙여
기사 1. 앞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며／鄭淳慶
기사 2. 人和를 스로건으로／姜致榮
기사 3. 스포츠·맨 쉽 살려／文禧楨
기사 4. 一罰百戒主義로／丁達秀
기사 5. 送舊迎新／學內에서 겪은 가지가지일들／金

기사 7. 齒科醫師 5名 渡美／뉴욕「구」病院에 勤務
기사 8. 電話番號變更
기사 9. 人事

▩ 大韓齒醫報 第53號(西紀 1963年 9月 15日)[31]

〖1면〗
기사 1. 63年度 定期總會開幕／10月 4日 10時 市民會館에서／任員 總辭職은 受理될 것인가／定款修正·財政難等 打開돼야
기사 2. 吾不關焉態度를 止揚하자／總辭職 以後에의 姿勢 設定을 爲해
기사 3. 試驗實施는 決定的／남은 問題는 方法論뿐
기사 4. 免許稅 免除에 難色／內務部 地方稅 法改正案 撤回／保社部에선 안된다고 우기고
기사 5. 콜 博士 來韓中止
기사 6. 親睦運動大會開催
기사 7. 協會誌 또 나왔다
기사 8. 래미쥐 大領 離韓／지임 中領도 歸國
기사 9. 소리
〖2면〗
기사 1. 社說／우리들은 韓國의 엘리트이다
기사 2. 理事會消息
기사 3. 이런것을 建議한다／各支部 10月 總會에 建議案提出／來年總會는 釜山에서 열자고도
기사 4. 定總 代議員
〖3면〗
綜合學術大會 遂開幕(전면이 연제·연자 및 날자·시간으로 조판되어 있음)
〖4·5면〗
세 醫學博士 또 誕生／우리 齒科醫學界에서
기사 1. 韓國人 齒牙의 形態學的 硏究／徐永圭
기사 2. 糖尿病에 있어서의 齒周組織／變化에 對한 臨床 및 實驗的硏究／文東先
기사 3. 本報 11個月 살림.
기사 4. 人胎兒消化器系의 粘液腺에 대한 發生學的及組織化的 硏究／李烈熙
기사 5. 齒科用語 解說⑦／口腔外科篇
기사 6. 在美會員 名簿
〖6면〗
기사 1. 나의 世界 一週記／齒科界를 보면서 (5)／豪華色의 텍사스 齒科大學／텔레비 受像機로 齒科實習／서울大學校 齒大學敎授 李春根
기사 2. 大韓齒醫報 紙齡 50號／祝賀贊助者芳名錄
〖7면〗
기사 1. 統計上으로 본 韓國齒醫界의 現況／各種 齒科統計的 調査는 重要且緊急之事／카토릭醫大 齒科과장 金萬壽
기사 2. 치과재료학／지상강좌 (14)／아말감 練和時間은 調節돼야／너무 오랜 練和는 收縮 現象을 招來／서울·齒大 鮮于良國
기사 3. 齒醫檢定試驗最終實施
기사 4. 알림／齒大 2回 同期會
기사 5. 齒大 10回 同窓에게
〖8면〗
기사 1. 安會長 모시고의／各支部 巡訪記／崔曉峰
기사 2. 제의／學會의 呼稱
기사 3. 齒史學會總會／9月 28日 開催
기사 4. 樂喜化學等에 感謝狀／丁達秀等엔 表彰狀을／卞鍾秀氏 等엔 學術功勞狀
기사 5. 保存科를 追加
기사 6. 口解學會長에／劉鍾德氏
기사 7. 學會消息
기사 8. 公知
기사 9. 訃告

▩ 大韓齒醫報 第54號(西紀 1963年 11月 15)[32]

〖1면〗
기사 1. 12回 齒界의 盛典開幕(10.4—10.6)／12回 齒科醫師協會 定期總會／15回 齒科醫學 綜合學術大會／4選의 元老會長 多大한 功績남기고／新任 會長에 金溶瑨氏 就任
기사 2. 就任人事／박으론 醫權擁護／안으론 協心戮力／本協會會長 金溶瑨
기사 3. 補弼의 任務다할터／副會長 金鍾旭
기사 4. 名譽會長으로／安鍾書氏 推戴
기사 5. 保社部에 提出／定款變更認可 및 任員改選承認願
기사 6. 徐副會長 歸國
기사 7. 3博士 歡迎會
기사 8. 기돈 博士 講演
기사 9. 軍陣 學術大會
기사10. 장기열·金聖恩／兩氏留學
기사11. 醫務敎育基司／竣工開院式盛了
기사12. 公告
〖2면〗
기사 1. 齒科材料 禁輸反對 建議／贊反을 會員에게 問議(7면에 계속)
기사 2. 理事會消息

東順

기사 6. 第10回 軍陣齒科學會／演題 및 演士

〖6면〗

기사 1. 나의 世界 一週記 (7)／歐美齒界를 돌아보면서／서울大學校 齒科大學敎授 李春根

기사 2. 汎保健界人士의 말씀／滯獨小兒科醫의 辯／李修吉

기사 3. 醫齒藥文化交流를 主唱／金鍾秀

〖7면〗

기사 1. 醫療補助員法施行令 (案)

기사 2. 치과재료학／지상강좌／아말감 充塡의 完成／硏究는 最少 24時間 以後에／65度 以上의 磨擦 熱은 避해야／서울齒大 鮮于良國

기사 3. 第1回 齒科醫療管理學 講座

〖8면〗

기사 1. 臨床餘談／金床義齒와 洋書 및 燒酒／徐丙瑞

기사 2. 送舊片想／土亭秘訣과 口舌數／明年占을 쳐볼까?／金晃中

기사 3. 診療閑筆／하치 않은 「리크리에이션」／申鉉重

▒ 大韓齒醫報 第56號(西紀1964年 1月 15日)[34]

〖1면〗

기사 1. 甲辰과 龍／굳세고 어진일 龍은 萬物의 王이니라.

〖2면〗

기사 1. 醫療均霑理念 받들어／齒科公醫制度는 時急／本協會서 當局과의 折衝은 鼓舞的

기사 2. 연두사／保健醫療網의 運營强化／家族計劃事業擴充爲 손해 啓蒙에／힘쓸터／製藥原料生産과 醫藥品輸出奬勵

기사 3. 齒醫務局 復活 建議／本協會서 保健社會部에

기사 4. 保健社會部長官／朴柱秉

기사 5. 軍務部에서 알려드리는 말씀

기사 6. 鄭保羅 博士 快擧／韓人 惡評에 痛駁／「시카고·트리분」紙에

기사 7. 口腔解剖學會／任員名單

〖4·5면〗

기사 1. 새로운 環境과 步調／大韓齒科補綴學會 會長 沈泰錫

기사 2. 會資格緩和로／大韓口腔外科學會 會長 李春根

기사 3. 抄讀會錄集大成／大韓齒科病理學 會長 金東順

기사 4. 國際的交流등／大韓顎顔面成形學會 會長 吳在仁

기사 5. 先進國의 圖書를／大韓口腔解剖學會 會長 劉鍾德

기사 6. 荒蕪地開拓意慾／齒科醫療管理學會 會長 崔在京

기사 7. 一致團結의 힘으로／釜山支部長 金相讚

기사 8. 새로운 意慾／金南支部長 曺 항

기사 9. 齒協에 大同團結을／慶北支部長 卞鍾秀

기사10. 새 視角 새 感觸／大韓齒科醫史學 會長 李漢水

〖6면〗

기사 1. 釜山은 즐거워／雜草를 除去하여／發展의 「길」 마련

기사 2. 大齒協定期總會／多彩로운 準備構想

기사 3. 賀正

〖7면〗

기사 1. 슈바이처 86回 誕生에 부쳐／齒協의 前進姿勢 設定을 위해

기사 2. 치과재료학／지상강좌 (17)／合金과 水銀에 混合比는／5對 8比는 數 10年來의 것／1對 1 比는 새傾向／서울齒大 鮮于良國

기사 3. 診療에 앞서 考慮 되어야 할／問關係 몇가지

기사 4. 第4回 38線 齒科學會開催／來 4月 9日부터 龍山에서／大齒協會員의 多數參加 要望

〖8면〗

기사 1. 新春論壇／醫療補助員法(施行令行)正面과 側面／技工士의 位置는 向上保護되고／衛生士는 齒科新分野의 開拓者로／金晃中

기사 2. 亞細亞·太平洋 齒科會議／3月 24日 부터 「싱가폴」서

기사 3. 原稿募集

기사 4. 樂園살롱

▒ 大韓齒醫報 第57號(西紀 1964年 1月 15日)[35]

〖1면〗

기사 1. 全國緊急支部長會議／醫療法改正 齒材品貴問題／俎上에 놓고／全國支部長 一同 要路 訪問도／齒科界는 確保돼야 한다.

기사 2. 「칵텔·파티」도 盛況

기사 3. 齒大卒業生

기사 4. 榮譽의 博士

기사 5. 榮譽의 齒醫豫科 合格者／朴德相君 首席의 榮冠차지

기사 6. 決議文

〖2면〗

기사 1. 論說／醫療法改正에 參酌을 바란다. ／齒材難과 齒科弗確保

기사 2. 齒科器材弗 確保가 緊要事／臨時治療醫藥品弗中 12,000弗 따내／本協會長團이 올린 殊勳의 凱歌.

기사 3. 議政府서／健齒兒選拔

기사 4. 軍陣支部 認准을／陸本서 建議

기사 5. 齒大同窓會／臨時總會開催

기사 6. 同窓會總會

기사 7. 全體 委員會

기사 8. 소프트 齒藥

〖3면〗

기사 1. 姉妹部落 및 陸軍病院 訪問記／齒大學長·醫博 金東順

기사 2. 晩學의 感想記／劉時亨

기사 3. 謹吊

〖4·5면〗

기사 1. 醫療保險法 全文

- 第1章 總則
- 第2章 適用對象
- 第3章 保險者
- 第4章 保險給與
- 第5章 保險醫療機關
- 第6章 診療報酬
- 第7章 財政
- 第8章 審査의 請求
- 第9章 罰則
- 第10章 補則

기사 2. 大韓齒科醫師會／醫療法 改正案

〖6면〗

기사 1. 나의 世界 一週記 (8)／歐美齒科界를 돌아보면서／서울大學校 齒科大學 敎授 李春根

기사 2. 樂園싸롱

기사 3. 理事會記錄

〖7면〗

기사 1. 現代經營管理運動의 起源／崔在京

기사 2. 齒科材料學／지상강좌 (18)／完成된 「왁쓰·패턴」은 왜빨리 埋沒해야 되나／緩和에 依한 變形의 量을 最少限度로 주리기 위하여／서울齒大 鮮于良國

기사 3. 產業口腔衛生／金官與

- 意義
- 職業性
- 職業性 口腔疾患의 豫防

〖8면〗

기사 1. 꽁트／正初에 온 손님／李庭錫

기사 2. 고양이 있는 窓

기사 3. 照明

기사 4. 부산은 즐거워

▒ 大韓齒醫報 第58號(西紀 1964年 3月 15日)[36]

〖1면〗

기사 1. 李逈柱氏 主觀과 相反／保社國產齒材需給施策注目視／국산 세멘트 규격미달

기사 2. 亞細亞·太平洋 齒科會議開幕／崔景明 首席代表 參席

기사 3. 口腔外科學會／月例學術集談會

기사 4. 4醫博 歡迎宴／本協主催로 美粧서

기사 5. 齒科藥品 및 材料／年間需要量 報告要望

기사 6. 齒醫 7名渡美／구겐하임 病院에

기사 7. 38 學會遂開幕／大協會員의 參加歡迎

기사 8. 齒醫國試合格者／36名中 34名에 榮冠

기사 9. 不正業者에 鐵槌／市地檢서 嚴重團束／警告文

기사10. 軍陣學會長에 李基完 大領

기사11. 奬學金傳達式／大韓齒友會서

기사12. 齒大同窓會서／奬學金傳達

기사13. 吳應瑞氏 向英

기사14. 齒大同窓會 서울支部 任員會

〖2면〗

기사 1. 왜 李逈柱氏를 告訴했다.

- 安會長辭退의 資材部强化.
- 세멘트 輸入量이 切半으로 削減
- 大齒協 任員陣 改編과 輿論調査
- 876對 2通으로 禁輸反對 輿論이 나타나
- 齒協 役員이 手票去來 하였다는 謀略
- 9對 1의 表決은 무엇을 뜻하나
- 齒協은 齒科弗 獲得에 東奔西走
- 全國 支部長 會議에서 9對 1로 輸入原則 可決
- 李逈柱氏 告發의 直接 動機
- 監査院에서는 同 問題를 取扱하는中

〖3면〗

기사 1. 나는 齒材波動을 이렇게 본다.

기사 2. 國產齒材는 只今 禁輸가 可能한가.

〖4·5면〗

硏鑽의 보람 또 여기에／齒界에 네 醫學博士 誕生／學位論文

기사 1. 齒牙成分內 有機質枸연酸 및 酸含量의 年齡的 變化와 齒髓의 生化學的 硏究／尹信鉉

기사 2. 韓國人胎兒의 下顎齒牙에 있어서 石灰化에 關한 X線 解剖學的硏究／서울大學 校齒科大學 解剖學校室／劉鍾德

기사 3. 數種金屬이 家兎齒齦 上皮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組織化學的 硏究 (抄)／齒科大學 張完植

기사 4. 齒牙移植에 關한 實驗的 硏究／서울大學校 齒科大學 助敎授／金圭植

〖6면〗

기사 1. 合成抗菌性防腐劑의／藥物學的 知見／洪性峻

- 酸化劑
- 하로겐 및 그 化合物
- 酸類 및 그 鹽類
- 알콜 알데히드類
- 金屬化合物 및 그 鹽類
- 페놀類
- 色素類. 슬픈 아미드劑.

기사 2. 陳情書

〖7면〗

기사 1. 日本에 있어서／齒科衛生士敎育의 發展과 現況／金周煥

기사 2. 치과재료학／지상강좌(19)／갤바닉·쇼크란?／異種金屬間에 생기는／電解腐蝕의 一型이다／서울齒大·鮮于良國

기사 3. 理事會記錄

〖8면〗

기사 1. 봄／隨筆／감투이야기／이제 痼疾化인 國民病이 되었다／金用珀

기사 2. 시／아직은 눈이 내리는／金完植

기사 3. 따사로운 이봄에 꽃 時節平和 속에서 보람을／宋善榮

기사 4. 축화혼

기사 5. 신간소개

▒ 大韓齒醫報 第59號(西紀 1964年 5月 15日)[37]

〖1면〗

기사 1. 第5回／亞細亞 太平洋 齒科會議／1967年 4月／韓國에서 開催／第1副會長에 李永王氏 當選／崔·本再代表의 活動奏効

기사 2. 保健社會部長官에／吳元善 博士 就任／새 希望 걸고 齒界歡迎

기사 3. FDI 齒科會議

기사 4. 金會長 談話發表／臨時總會召集은 不可能

기사 5.. 陸軍齒科軍醫官／候補生 64名 入校

기사 6. 臨總保留通告

기사 7. 能登原 博士 來韓／서울·釜山·大邱에서 講演

기사 8. 邱釜齒醫 親善競技大會／本協會長 參席코 親善을 讚揚

기사 9. 齒科用 레스 盜難

기사10. 맥 大領 歡迎會

기사11. 國際齒科 醫學會／8月 2日~8日

기사12. 공지사항

〖2면〗

기사 1. 臨總要請願返戾／開催理由 認定할수 없다／모든것을 定總에서 解決／김 회장 담화문

기사 2. 忠南支部도 反對／開催하면 오히려 混亂

기사 3. 理事會消息

기사 4. 서울 支部長 懲戒의／總會만 賛成한다／各支部의 要請없이／開催時는 不協調

기사 5. 高相穆氏 解明／臨總要請도 撤回

기사 6. 慶尙南道支部／代議員會決定

기사 7. 分會長會議

기사 8. 釜山市支部는 一蹴／所謂 收拾委員會의 要請을

〖3면〗

기사 1. 齒科機材의 實需要者弗／大齒協 그 獲得을 爲하여 努力／現行法上으로 不可. 保社部

기사 2. 齒科材料 16種／第 1次 配給／中央齒科産業 取扱分

기사 3. 配給價格에 對해／全北支部에서 質疑／大齒協 그 經緯을 回信

기사 4. 齒大硏友會／無齒醫村診療

기사 5. 公知事項

〖4·5면〗

기사 1. 第19回 口腔保健週間／行事實施計劃書／本協會 各支部에 示達

기사 2. 醫療業者定期申告要領

기사 3. 1回 齒科材料配給割當表

기사 4. 우리나라 齒科醫院 實態調査와／患者管理의 問題點

기사 5. 齒醫候補生 選拔을 마치고 (上)／陸軍本部 齒務課長 大領 李基完

〖6면〗

기사 1. 나의 世界 一週記／歐美齒科界를 돌아보면서 (9)／서울大學校 齒科大學 敎授 李春根

〖7면〗

기사 1. 페리오 治療計劃 및 方策計定／中領 金光夏

기사 2. 치과재료학／지상강좌 (20)／갤바닉 電流의 臨床的意義／異種金屬으로된 修復物을／直接 接觸은 避

해야／서울齒大 鮮于良國

〖8면〗

기사 1. 就任辭／陸軍 大領 李基完

기사 2. 濟州에의 招待／薛泰熙

기사 3. 韓國齒科機材商工／業界의 沿革과 展望／李憲顯

・日帝時代

・解放後

・今後의 展望

・結論

기사 4. 齒大基督學生會

기사 5. 祝華婚

기사 6. 謹弔

大韓齒醫報 第60號(西紀 1964年 6月 15日)[38]

〖1면〗

기사 1. 釜山에서 10月 5,6 兩日間／第13回 定期總會／各支部 親善競技大會도 開催／10月 7日에는 學術大會

기사 2. 齒科用藥品 및 材料의／特關稅除外를 建議

기사 3. 인턴・레지덴트／국방부에 신고

기사 4. 第2回 配給實施／利韓產業과 韓一齒科商會서 期限內受配를 要望

기사 5. 配給品處分／支部裁量에 一任

기사 6. 臨時總會挫折／支部長會議도 流會

기사 7. 醫療保險法施行令公布 5日・大統領令 1832號로

기사 8. 시론／紛糾를 收拾하려다가 紛糾가 擴大안되기를／收拾은 最大公約圈을 찾는데 있다

・全面軍 檢閱畢

〖2면〗

기사 1. 臨總과 本協會態度／既定方針 대로 邁進／法廷紛糾까지 强行하여 臨總召集

기사 2. 齒醫候補生 選拔을 마치고 (下)／齒軍本部 齒務課長 大領 李基完

기사 3. 所謂收拾委員會가 召集하는／臨時總會는 反對／開催해야될 緊迫한 事態全無／京畿道支部

기사 4. 포스타—標語・齒藥／유한치약 럭키치약에서 寄贈

기사 5. 理事會消息

기사 6. 서울 會員들의 紛爭을 地方波及은 不當 全北支部도 不參 通告

기사 7. 江原道도 臨總不參

기사 8. 利韓產業薦要望

기사 9. 李永泰氏 壽宴

기사10. 謹弔

〖3면〗

기사 1. 昨年 10月 定期總會로／거슬러 올라간다

・不協和音을 造作한 것은／昨年定總直後부터 某某氏의 所行

・所謂 收拾委員會가／齒協 臨時總會를 召集하기까지／其前後 問題를 解剖한다

・齒界紛糾 만들어내는／所謂 收拾委員會는 解體하고 反省하라

〖4·5면〗

第19回 口腔保健週間

기사 1. 서울 記念式盛大／첫 行事로「미스・덴탈」選拔

기사 2. 全北支部에서／巡廻診斷班派遣

기사 3. 우리 全南의 이모저모／報告 理事長 丁達秀

기사 4. 忠北記念式 盛了／報告 總務理事 金學聖

기사 5. 忠南에서／口腔保健啓蒙에 注力／報告 總務理事 南勇旭

기사 6. 港都釜山의 6.9 行事／多彩롭게 展開／報告 金熙耽 保健理事

기사 7. 孤兒院兒를 施療／京畿道支部 活動狀況

기사 8. 第2回 齒科材料 配給割當表(A,B)

〖6면〗

기사 1. 나의 世界一週記／歐美齒科界를 돌아보면서／서울大學校 齒科大學 敎授 李春根

・國民 누구나 6歲가 되면 齒科主齒醫를 가지는 스웨덴國

・술은 4勺 以上은 許容않는 스웨덴

・스웨덴의 首府 스토크홀름

기사 2. (8面으로 부터 繼續)

〖7면〗

기사 1. 疑心스러운 것은 計算하지 말자／WHO Dental Epalmiologicas urvey 에／參加하고 와서 (上) 이정석

기사 2. 치과재료학／지상강좌 (21) 다이아몬드 切削器의 使用法／高速度에 輕壓으로／깨끗한 器具로 給水下에 깎어야／서울齒大 鮮于良國

기사 3. 구강 조사표

〖8면〗

기사 1. 醫療保險法施行令 全文

大韓齒醫報 第61號(西紀 1964年 7月 15日)[39]

〖1면〗

기사 1. 齒醫務局의 復活은／齒界의 一貫된 念願／齒協·關係要路와의 接觸도 빈번

기사 2. 孫正璿氏就任／保健社會部 次官에

기사 3. 인턴·레지덴트／追加申告

기사 4. 舊免許更新交付適否／各分科別로 審査着手

기사 5. 병원장에 심태석／교무과장 김주환씨

기사 6. 시론／우리들의 새로운 姿勢／國際會議를 맞을 共同廣場에서

기사 7. 本協會 下層建物／勝訴로 明渡强制執行

기사 8. 外換管理方針變更／各協會에서 取扱

기사 9. 공고

〖2면〗

기사 1. 怒濤에 시달려도／航路와 航速은 不變／64年度 齒協事業總和

기사 2. 알지네이트 印象材／不足量을 補償／8月 10日까지 利韓産業에서

기사 3. 收入支出의 中間報告／國際部强化費 살아있다／各支部의 會費納付要望

〖3면〗

기사 1. 各委員을 選出／亞細亞 太平洋 齒科會議像 算案과／定款 改正案 마련하기 爲해

기사 2. (大韓齒科醫師協會案)／醫療法改正案

기사 3. 陸軍齒務課消息

기사 4. 原稿募集公告／大韓齒科醫師協會誌

〖4·5면〗

—碩士學位 論文 抄錄集—

기사 1. 架工齒가 齒齦粘膜에 미치는 影響／補綴學 李善炯

기사 2. 韓國人에 있어서의 Free-Way Space 測定／보철학전공 金志洙

기사 3. 第1大臼齒에 있어서 弗化錫塗布에 依한 齒牙齲蝕 豫防／보존학전공 李鍾甲

기사 4. 韓國人下顎孔에 關한 解剖學的 硏究／구강외과학전공 南日祐

기사 5. 齒科用 金合金의 硬度及 顯微鏡的 構造에 對한 熱處理의 效果／張翼泰

기사 6. 韓國人智齒萌出의 統計學的 考察／구강외과학전공 金鳳煥

기사 7. 韓國人下顎第1大臼齒의 發育에 關한 X—線學的 硏究／보존학전공 鄭光鉉

기사 8. 唾液腺의 沃素代謝와 Acetylcholine 의 影響／口腔攻專理病學 朴基哲

기사 9. 琺瑯芽細胞腫의 臨床 및 病理組織學的 硏究／구강해부학전공 高英澤

기사10. 齒科用金合金 및 AMALGAM 合金의 變色에 關한 硏究／보철학전공 金哲偉

기사11. STANNOUS FLUORIDE 에 대하여／首都陸軍病院 中領 柳陽錫

〖6면〗

기사 1. 나의 世界 一週記 (11)／歐美齒科界를 돌아보면서／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李春根

〖7면〗

기사 1. 日本에 있어서의／社會保障制度와 齒科醫療問題／日本九州 齒大講師 能登原保

·個人과 社會 保障制度

·資金의 支出

기사 2. 疑心 스러운것은 計算하지 말라／WHO Dental Epalmiologicas Urvey 에 參加 하고와서 (下)／이정석

기사 3. 치과재료학／지상강좌 (22)／AMALGAM 충전의／成功을 위한 臨床指針／서울치대 鮮于良國

〖8면〗

기사 1. 軍醫任官式 參席記／徐丙瑞

기사 2. 無料診療實施／總數 47,281名／서울 支部의 큰 成果

기사 3. 義齒들이 漢字풀이／李憲顯

기사 4. 齒科醫院用最適

기사 5. 容九齒科 全燒

▨ 大韓齒醫報 第62號(西紀 1964年 8月 15日)[40]

〖1면〗

기사 1. 第13回 大齒協祭典은 港都釜山에서／豪華版·釜大講堂에서／定期總會迫頭！／學術大會와 親善競技大會도 마련

기사 2. 名勝地 찾아가는 中央會／總會를 準備하자／港都의 追憶도 그리며

기사 3. 保險局新設을 推進／行政制度 改革委 指示받고

기사 4. 保社部 企劃室長 吳杓氏 發令

기사 5. 釜山支部 會員慰勞

기사 6. 朴洪圭氏 發令

기사 7. 第3回 配給實施／明韓齒科器材에서

기사 8. 學術大會演題／接受 9月 10日限

기사 9. 博士 9名 誕生

기사10. 서울 醫師會／20日 歡談會 開催

기사11. 보사부 의무과장／朴洪圭氏 발령

기사12. 齒科醫師 舊免許／李基煥氏만 更新

기사13. 公告

〖2면〗

기사 1. 近代大齒協 20年의 野史／흘러간 19年 그때와 그후／崔曉峰

- 朝齒準委 結成
- 朝齒創立 總會
- 漢城支部 發足
- 京畿道齒創立
- 齒科醫師 總數
- 齒醫務局誕生

기사 2. 歷代 會長 芳名

〖3면〗

기사 1. 齒醫界의 今昔 20年／齒科大學의 發展도 刮目／서울대학교 치과대학교 金東順

기사 2. (2면에 이어 계속)

- 醫齒 一元促進
- 法定會로 進發
- 消費組合 設立
- 分派作用 3回
- 大齒協機關紙
- 口腔保健週間

기사 3. 第3回 齒科材料配給 割當表／(配給期間 8月 10日부터 9月 10日까지)

〖4·5면〗

- 8.15와 齒科醫界

기사 1. 너와 나의 힘을 合하여／커다란 結實을 봐야지／전 대치협회장 韓東燦

기사 2. 前無後無의／發展表地에서도／後進性脫皮는 遼遠／경북지부장 卞鍾秀

기사 3. 派閥形成은 遺憾／一致團結만이 發展可期／서울지부부지부장 文洪祚

기사 4. 齒務行政의 强化 緊急／충북지부장 朴昌熙

기사 5. 흘러간 20年의 齒科界／私利私慾 없는 새 氣風 바라며／충남지부장 李敦衡

기사 6. 「齒科醫師倫理」를 提唱한다／崇高한 理念으로 齒界를 和睦하게／全南支部 理事長 丁達秀

기사 7. 齒科界近代化를 爲해／새 思考方式을／대치협 名審會長 安鍾書

기사 8. 過去 20年을 反省해보고／齒醫界의 共同利益을 찾자／대구시분회장 金義柱

기사 9. 迂餘曲折의 20年을 도라보며／앞으로는 最短「코스」로 가자／춘천시 분회장 申義澈

〖6면〗

기사 1. 나의 世界一週記 (12)／歐美齒科界를 돌아보면서／서울대학교 치과대학교수 李春根

〖7면〗

기사 1. 韓國齒醫學界의 廿年略史／대치협 학술이사 金周煥

기사 2. 우리齒科商工界의 現況과 進路／黃永基

기사 3. 치과재료학／지상강좌 (23)／에크릴릭 레진 使用의／成功을 위한 臨床指針／서울치대 鮮于良國

〖8면〗

기사 1. 慶祝 8.15 光復節(전면, 전철 승차권만한 치과의원·기관의 축하광고)

▒ 大韓齒醫報 第63號(西紀 1964年 9月 15日)[41]

〖1면〗

기사 1. 第13回 大齒協祭典／菊香 그윽한 釜大講堂에서／定期總會 드디어 開催

기사 2. 感謝狀 및 表彰狀

기사 3. 이임사／지난일은 새로운 飛躍에의 발판으로／회장 金溶璟

기사 4. 各支部 親善競技大會

기사 5. 各支部選手團

기사 6. 李형柱氏 事件／檢察에서 起訴決定

기사 7. 10月 7日 學術大會

기사 8. 대의원명단

〖2면〗

기사 1. 大韓齒科醫師協會定款(改正案)

〖3면〗

기사 1. 시론／齒協定總에 臨하여／金晃中

기사 2. 日本의 醫業經營事情과／韓國과의 比較／동경치과대학 교수 木下隆治

기사 3. 容量不足分補償／알지네이트 印象材

기사 4. 設備의 合理化와 近代化

〖4·5면〗

—醫學博士 學位論文抄錄集—

기사 1. 韓國人胎兒의 下顎齒胚 및 顎關節의 發育에 關한 硏究／崔亨坤

기사 2. 韓國人 胎兒의 上顎骨發育에 關한 硏究／鮮于良國

기사 3. 韓國人의 咬合力에 關한 硏究／金仁哲

기사 4. 口蓋圖에 依한 韓國人의 發音에 關한 實驗的 硏究／陳庸奐

기사 5. 韓國人胎兒의 下顎骨發育에 關한 硏究／金明國

기사 6. 韓國人兒童에 對한 齒牙齲蝕에 關한 Survey／車文豪

기사 7. 陸軍齒務兵科의 發展相／陸軍 大尉 邊碩斗

기사 8. 공군 치무활동과 그 발자취／공군본부 의무감실 공군 대위 하정수

기사 9. 齒醫務局復活設置／齒科公醫制度新設／保社部는 果斷性 發揮하라

〖6면〗

기사 1. 나의 世界／一週記歐美齒科界를 돌아보면서／서울大학교 치과대학 교수 李春根

기사 2. 3層으로 增築／總工事費 845,000千원

기사 3. 齒科軍醫消息

기사 4. 美 8軍消息

기사 5. 本協會事務局長／崔曉峰氏 辭任

〖7면〗

기사 1. 우리 齒科商工界의 現況과 進路 (2)／黃永基

기사 2. 口腔外科學會

기사 3. 치과재료학 지상강좌 (24)／埋沒과 金鑄造의／成功을 위한 臨床指針／서울치대 鮮于良國

〖8면〗

기사 1. 隨想／낚시／글 그림 金益蘭

기사 2. 齒人낚시大會 盛況

기사 3. 波瀾많았던 1年間／大齒協執行部의 苦難史

大韓齒醫報 第64號(西紀 1964年 12月 15日)[42]

〖1면〗

기사 1.「突然」시멘트 輸入禁止措置／當局, 言約 어기고 이젠 딴소리／理事會, 總會議長 辭意表明

기사 2. 赤字危機의 打破／會員諸氏의 熟考를／副會長 李東燮

기사 3. 協心 戮力 있을뿐／서울치과의사 회장 朴鎔德

기사 4. 明日에의 새 姿勢를／協會의 重責을 맡고서／會長 李有慶

기사 5. 오직 感謝할 따름／神의 恩寵을 믿으면서／總會議長 卞鍾秀

기사 6. 醫療保險法을／保社部서 改正討議

기사 7. 各支部任員

〖2면〗

기사 1. 繁榮과 團結을／齒科 세멘트 禁輸問題周邊／부회장 金萬壽

기사 2. 서서 일하는 執行部／서울 치과의사회 부회장 崔宗善

기사 3. 融和團結 이룩하자／서울 치과의사회 부회장 曺信明

기사 4. 監事會議錄抄／三者擇一 토록

기사 5. 齒科規格依賴

기사 6. 6·9運動提言／標語와 用語再檢

〖3면〗

기사 1. 總務報告를 兼한／事務引受 뒷이야기

〖4면〗

기사 1. 越南通信／戰爭과는 外面한 表情들／異國情趣는 椰子樹 그늘밑에／閔丙一

기사 2. 理事會議錄抄

- 제1회 임시이사회
- 제2회 임시이사회
- 제3회 임시이사회
- 제4회 임시이사회
- 제1회 정기이사회
- 제2회 정기이사회

기사 3. 本協事務局長／李濟憲氏 就任

기사 4. 技工士國試／3月中 實施視

기사 5. 國際部 消息

기사 6. 人事消息

기사 7. 讓渡

기사 8. 求人

大韓齒醫報 第65號(西紀 1965年 3月 15日)[43]

〖1면〗

기사 1. 國際齒科聯盟(F.D.I)／齒科用 燐酸亞鉛 세멘트／(規格 第6號)

- 1項 範圍 및 等級
- 2項 適用規格
- 3項 要求條件
- 4項 試驗見本採取·檢査·試驗過程

〖2,3면〗

기사 1. 改正醫療法(全文)

第1章 總則
第2章 資格과 免許
第3章 醫療審議會
第4章 醫療業務
第5章 權利義務
第6章 專門科目의 標榜과 廣告
第7章 醫療機關
第8章 公醫
第9章 國家試驗
第10章 醫療關係團
第11章 罰則
第12章 雜則

기사 2. 無齒醫保健所／志願者를 바람

기사 3. 齒科衛生士／延世大서 養成

기사 4. 38선 치과학회／워커힐서 개최

기사 5. 國際口腔保健敎育展示會

〖4면〗

기사 1. 理事會議錄
- 제3회 정기이사회
- 제4회 정기이사회
- 제5회 임시이사회

기사 2. 齒科材料學 紙上講座 (24)／아말감이냐? 인레이냐?／서울齒大 鮮于良國

기사 3. 알림

大韓齒醫報 第66號(西紀 1964年 12月 15日)[44]

이번 66호부터, 발행인 李有慶 그리고 편집겸 인쇄인 李漢水로 바뀌었다.

〖1면〗

기사 1. 國產 세멘트와 禁輸問題／大齒協會의 立場及 保社部門에 至今까지의 經過／大韓齒科醫師協會 會長 李有慶

기사 2. 38齒科學會 終了

기사 3. 技工士國試／應試者推薦

기사 4. 醫博五氏 論文

기사 5. 사과의 말씀

기사 6. 알림

기사 7. 公報部 公知

〖2·3면〗

기사 1. 定款
- 第1章 總則
- 第2章 目的
- 第3章 組織
- 第4章 事業
- 第5章 會員
- 第6章 賞罰
- 第7章 任員 및 選擧
- 第8章 代議員 및 總會
- 第9章 理事會 및 任務
- 第10章 大韓齒科 醫師協會 各齒科醫師會
- 第11章 齒科醫學會
- 第12章 齒科機材 및 藥品審議委員會
- 附 則

기사 2. 李永王氏 就任／서울치대 학장에

기사 3. 亞細亞 太平洋／齒科會議準委

기사 4. 日本齒科界近況／保險制死角增大／점차로 새 動向을 엿보여／永井齒科商會 神田金一社長談

〖4면〗

기사 1. 退任辭／敎授醫博 金東順

기사 2. 리더와 퍼서낼리티와／邊碩斗

기사 3. 敎務課長 金用琯／學生課長 劉鍾德／兩敎授 新任發表

기사 4. 齒大인사

기사 5. 泰安齒科開業

大韓齒醫報 第67號(西紀 1965年 5月 15日)[45]

〖1면〗

기사 1. 컷(5月은 신록의 계절!)

기사 2. 原稿磨勘

〖2·3면〗

기사 1. 제20회／口腔保健週間行事實施計劃／保健社會部／大韓齒科醫師協會
1. 趣旨
2. 日時
3. 實施
4. 主催
5. 後援
6. 行事推進部署
7. 公報宣傳要領
8. 指導要領
9. 週間中行事
10. 行事實施

기사 2. 제20회／口腔保健行事實施要領／主催 서울特別市／서울特別市 齒科醫師會
1. 趣旨
2. 日時
3. 施行範圍
4. 行事推進部署
5. 行事週間宣傳
6. 指導要領
7. 口腔保健週間行
8. 口號
9. 實施要領

기사 3. 6·9 行事에의 異議／有蟲齒學童表彰

기사 4. 診療案內

기사 5. 레지던트／交換敎育

기사 6. 齒科軍醫官追加募集

기사 7. 韓國齒科公論／6月 1日 創刊

기사 8. 老人齒科學／研究會發足

〖4면〗

기사 1. 齒科醫로서의 性格에 對하여
1. 健康
2. 正直
3. 能力
4. 積極性

5. 氣轉
6. 熱意
7. 精力的
8. 寬容性
9. 明朗性
10. 謙虛
11. 博愛性
12. 自矜心
13. 援助心
14. 容姿／齒科管理學會長 崔在京

기사 2. 寸言尺信

▩ 大韓齒醫報 第68號(西紀 1965年 8月 15日)[46]

그러니까 1965년 6월 15일과 7월 15일, 2회는 신문이 나오지 않아 결간하게 되었다. 사설에도 續刊한다고 하였다.

〖1면〗

기사 1. 10月 29日부터 齒大講堂에서／제14회 大齒協總會開催／定款改定案 30日까지／演題는 20日까지 提出

기사 2. 第5回 APDF 總會／67年 歷史的인 韓國개최

기사 3. 不合格通告 받아／세멘트의 質向上이 시급

기사 4. 119會集會／25日 齒大에서

기사 5. 專門醫標榜 應試의뢰서 保社部와 保健院에 提出

기사 6. 板門店觀光 30日에 가기로

기사 7. 17日 8軍에서 38學會開催

기사 8. 學術講演會 開催／서울시 의사회서／會報는 15日 發刊코

기사 9. 알림

기사10. 사설／全會員間의 對話의 廣場으로／續刊과 함께 協助와 發展을 期約하면서

〖2면〗

기사 1. 齒科專門醫制度에 對한 所見／金萬壽

기사 2. 美國齒醫師協會의 近況 週43時間에 年2萬弗벌고／敎育費 萬弗에 每年 3千名 輩出

기사 3. 行政 企劃機關의 常設을／國民保健週間의 再檢討를 바라며／金聲來

기사 4. 專門醫制는 時期尙早／外國과 與件이 다르다／池憲澤

〖3면〗

기사 1. 約2百명의 外國人이 參加／學術的 지식 交換時間을 最大로／APDF 準備計劃과 報告／李學秀

기사 2. APDF 總會／韓國開催가 갖춘 意義／文英煥

기사 3. 外國 저널에서

〖4면〗

기사 1. 標準規格에 合格을 바람／李有慶／禁輸하려면 規格에 합격후／좋은 器材使用은 大齒의 權利와 義務

기사 2. 理事會 會議錄

- 第6회 임시이사회
- 제6회 정기이사회
- 제7회 정기이사회
- 제8회 정기이사회
- 제9회 정기이사회

기사 3. 不合格通告가 있기 까지／尹信鉉

기사 4. 재무보고

기사 5. 會長團 選出에 3人 立候補 27日 서울市 齒科醫師會總會 開催

기사 6. 齒大 또 綜合優勝／서울大·綜合體育大會에

기사 7. 119會活動／점점 具體化되다

기사 8. 親善競技大會／30日 齒大에서

▩ 大韓齒醫報 第69號(西紀 1965年 10月 15日)[47]

9월 15일자는 결간되었다.

〖1면〗

기사 1. 제14회 정기총회／飛躍하는 大齒協의 잔치／建設的인 案件等은 審議／전회원의 복지문제 愼重히 다뤄질 豫定

기사 2. 제17회 學會·140餘題의 盛況／齒醫業界의 밝은 빛을 보일 演題들

기사 3. 60萬원을 補助／65年度에 保社部서

기사 4. 제3회 儲慶祭／새 傳統의 齒大綜合藝術祭

기사 5. 尹·吳兩氏參席／FDI 代表로

〖2면〗

기사 1. 第14回 大齒總會를 맞으면서／今年에 무엇좀 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會長談話文

- 入齒師免許更新問題
- 세멘트 禁輸問題

기사 2. (사설) 全國民의 行事로 이끌라！／總會맞는 會員의 姿勢確立을

기사 3. 齒科 一般材料／標準規格制定

기사 4. 총회소집공고／동창회장 安鍾書

〖3면〗

기사 1. 時急히 要求되는 齒大移轉／齒科醫의 배움터를 解剖한다／會員은 當局의 良心을 깨우쳐야／建物이 비좁아 學業에도 지장 招來

기사 2. APDF 의 年歷과 그 意義/

- 初創期
- 成長過程
- 構成
- 行政
- 豫算
- 將來問題


1965年10月15日 THE KOREAN DENTAL PRESS 第69號

大韓齒醫報

第14回 定期總會 飛躍하는 大齒協의 전진

建設的인 案件等을 審議 愼重히 다뤄질 豫定

第17回學會 百40餘題의 盛況 齒醫業界의 밝은빛을 보일 演題들

齒大 또 綜合優

會長團選出에

사진 : 1965년 10월 15일의 第69號 大韓齒醫報라는 이름으로는 最終號

국가사회적 환경[48]

복간 大韓齒醫報는 서기 1961년 2월 18일 부터 서기 1965년 5월 15일 까지 발행되고 있었다. 당시 정치·경제·문화 등 국가사회의 중대 사건을 열거하였다.

1961년

1. 1 한미화폐환율 1000대 1로 인상.

1.16 특검 업무개시.

2. 2 한·미화폐환률 1300대 1로 인상.

2. 9 한·미경제협정 조인.

2.10 특재, 3·15 부정선거관계자 공판시작

2.11 「민족일보」 창간.

2.17 육군참모총장에 장도영 중장 임명.

2.25 법무부, 공민권제한 자동케이스 명단(609명)을 발표.

2.28 공소시효만료로 특검활동 종결(입건 886건, 기소 31명, 도망 185명).

3. 2 민족일보 인쇄 중단.

3. 8 국무원사무처, 반공법안 성안.

3.13 민의원, UN 감시하 총선거의 통한방안을 재확인.

3.14 북괴, UN 에 통한각서 전달.

3.19 정부, 통한각서 발표.

3.31 병역기피공무원 2,700명 해임.

4. 8 대구서 8,000여군중, 악법반대 데모.

4.11 주한미대사 버거 임명.

4.14 일정부, 교포북송 재개.

4.21 여판사 황윤석 변사.

4.28 국세조사결과 발표(총인구 2349만 4117명).

5. 3 장 내각, 3차개각.

5. 3 서울대 민통련, 남북학생회담·문화교류 등을 주장.

5.16 미명에 군사쿠데타. 혁명위 구성, 의장 장도영 중장(~61.7)부의장 박정희 소장(~63.12). 혁명공약을 발표. 포고령 발포하여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 집회·국외여행 금지, 보도관제, 금융동결, 공항·항만폐쇠 등 단행.

5.16 각급의회 해산, 정치단체의 활동 금지, 전각료에 체포령.

5.16 그린 미대리대사·매그루더 UN군사령관, 합헌적정부(장면내각) 지지를 공동성명.

5.16 물가를 5.15선으로 동결.

5.18 장 면 내각 총사퇴.

5.18 윤 대통령, 계엄령을 추인코 군사혁명에 협력토록 국민에 호소.

5.18 육사생, 혁명지지 행진.

5.18 볼즈 미국무장관서리, 군사정권 인정을 발표.

5.19 윤 대통령 하야를 성명(20일 번의).

5.19 혁명위,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편.

5.20 최고회의, 혁명내각을 조직(수반에 장도영의장 겸임 ~61.7).

5.21 특검검찰관 전원 구속.

5.22 최고의, 정당·사회단체를 해체.

5.22 치안국, 전국에서 깡패 4,200여명·용공분자 2,000여명 검거했다고 발표.

5.23 최고의, 언론기관을 정비.

5.24 최고의, 각도지사와 9개시장에 군인 임명.

5.25 최고의, 농어촌고리채정리령 공포.

5.26 한국군의 작전권, UN군에 복귀.

5.28 공보부, 신문·통신사 정비(일간지 39, 주간지 22. 통신사 12).

6. 6 국가재건비상조치법 공포.

6.10 국가재건최고회의법·중앙정보부법·농어촌고리채정비법 공포.

6.22 공보부 신설.

6.30 제3대 대법원장에 조진만 임명.

6.— 초대 중앙정보부장에 김종필(~63.1).

6.— 대법원장 직무대리에 사광욱(~61.6).

6.— 대법원장 직무대리에 김성수(~61.6).

7. 1 특정범죄처벌임시특례법 공포.

7. 1 한국전력 발족.

7. 1 서울국제방송국(HLCA) 개국.

7. 2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 박정희 소장(~63.12).

7. 2 내각수반에 송요찬 임명(~63.1).

7. 3 반혁명 음모혐의로 장도영 중장 등 44명 체포.

7. 3 반공법 공포.

7. 8 혁재소장에 최영규 준장, 혁검부장에 박창암 대령 임명.

7.10 주곡·연탄 등을 제외한 물가통제 해제.

7.10 능의선 개통.

7.12 영주·남원지구 수해(전국서 사망 119명, 실종 130명, 손해 78억 7000만환).

7.13 대법원, 장부통령 저격배후인 임흥순·이익흥에 무기, 김종원에 15년 언도.

7.22 정부기구를 1원 11부 1처로 개편(건설부 폐지코 경제기획원 신설).

7.22 최고의, 종합경제재건 5개년 계획안 발표.

8. 1 중소기업은행 발족.

8. 2 부정축재처리위, 해당 89개업체에 부정축재액 통고(83억 1000만환).

8. 5 농어촌고리채 신고 시작(~24).

8. 6「자유신문」, 자진폐간.

8.10 표준시간을 변경(국제표준 자오선 기준으로 30분 앞당김).

8.12 박의장, 63년 5월 총선으로 민정복귀한다고 선언.

8.13 부정축재처리 통고액을 수정 반감(총 47억 7600만환).

8.15 농협 발족.

8.17 혁재, 폭력사건피고 이정재에 사형언도(9월 19일 집행).

8.24 금융동결을 전면해제.

8.24 농·어촌고리채 신고기간 1개월 연장.

8.25 혁재, 고대생 습격사건에 언도(임화수 사형, 신도환 무기, 유지광 20년).

8.26 혁재, 폭력사건 申廷湜에 사형언도(9월 19일 집행).

8.28 혁재, 민족일보사건 조용수·안신규·송지영에 사형 언도.

8.29 한국노조총연맹 결성.

9. 2 최고의, 부의장에 이주일 소장 선출(~63.12).

9. 7 국민운동본부장에 유달영 임명.

9. 9 집회에 관한 임시조치법 공포(비정치적 집회 해금).

9.12 신문윤리위 발족.

9.15 신 정부청사 낙성.

9.17 부정축재처리위, 공무원·정당인에 부정축재환수액을 통고(7억 2200만환).

9.20 혁재, 3·15 부정선거사건에 언도(崔인규·이강학·한희석에 사형).

9.21 춘천화력발전소 기공.

9.25 부정축재처리위 제1조사단 전원과 설경동·이양구 구속(부정축재조사단 부정사건).

9.28 문교부, 출판물 통제를 강화하는 출판물 등록에 관한 규정 공포.

9.30 혁재, 경무대 앞 발포사건(홍진기·곽영주 사형, 유충열 무기), 마산발포사건(박종표 무기), 서울대 민통련사건(유근일 15년) 등에 언도.

10.2 새 정부조직법 공포(1원 12부 2처 4청).

10.24 김종필 중앙정보부장 도일, 지전일수상과 한·일회담의 막후교섭.

11. 9 물가조절 임시조치법 공포.

11.14 박의장, 케네디 미대통령과 공동성명 발표.

11.18 사립대학을 정비(주간 37교중 12교 폐교).

12. 2 국토건설단 설치법 공포.

12. 2 세제를 전면개편(호별세·교육세 폐지, 재산세 신설 등).

12. 7 최고회의 공보실장에 이후락 임명.

12.15 마산 발포사건 박종표 피고에 무기 확정.

12.19 혁재, 경무대앞 발포사건 피고 홍진기에 무기, 곽영주에 사형 확정.

12.21 최인규·곽영주·임화수·조용수(민족일보 사장)·최백근에 사형 집행.

12.22 전국 학사자격 국가고시 실시.

12.31 행정부 파견군인 52명 원대복귀 조치.

12.31「서울일일신문」자진폐간.

1962 년

1. 1 공용년호를 서력으로 변경.

1. 1 외환관리법 공포.

1.13 정부,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성립(총투자 3조 2000억환, 년성장률 7.1%, 투자재원 민간 44%, 정부 56%).

1.20 새상법 공포(63년 1월 1일 발효).

1.31 국민은행 개점.

2. 1 서울특별시를 내각수반 직속으로 승격.

2. 1 울산공업센터 계획 발표(내자 1000억환, 외자 2억불, 2월 3일 기공).

2.10 국토건설단 창단.

2.10 전국대학을 정비코 정원 확정.

2.15 정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62~66) 발표.

3.12 한일외상회담 개최(~17).

3.17 이승만 전대통령, 사과성명코 귀국을 희망(18일 정부서 거부).

3.19 원자력연구소, 전자로시험점화에 성공.

3.22 윤보선 대통령 사임(24일 최고회의서 수리).

3.24 최고의, 비상조치법 개정코 박정희 의장의 대통령 권한 대행(~63.12)을 결정.

4. 1 전국 버스요금 인상.

4. 2 농촌진흥청 발족(청장 정남규).

4.20 군사혁명기념 산업박람회 경복궁서 개막.

5. 1 해양경찰대 발족.

5. 1 국제음악제, 국립극장서 개최.

5. 5 신문회관 개관.

5. 6 일제 새나라자동차 입하 시작.

5. 8 보사부, 의사 697명 동원하여 무의촌에 배치.

5. 9 혁재·혁검 해체.

5.10 김창숙(심산, 1880~) 몰.

5.12 제9회 아세아영화제 서울서 개막(~16), 16개국 참가.

6. 1 IOC, 동경올림픽에 남북한 단일팀 구성토록 KOC에 요청(8월 14일 동의 통고).

6. 1 파주·양주 등지서 한국인에 대한 미군인 린치사건 接踵.

6. 6 고대생, 미군린치사건에 항의코 한·미행정협정 촉구데모(13명 구속).

6. 6 미국무성, 미군린치사건에 정식 사과.

6. 8 서울대생 1000여명, 한·미행정협정 체결과 구속고대생 석방요구 데모.

6.10 제2차 통화개혁(10대 1로 평가절하코 환을 원화로 변경).

6.17 긴급금융조치법 공포코 화폐개혁 사후조치를 발표.

6.20 제2한강교 기공.

6.26 통화대상위 발족.

6.28 최고의, 언론정책 발표.

7.10 김현철, 내각수반에 취임(~63.12).

7.13 「민국일보」 무기휴간.

7.30 ROTC(학도군사훈련단) 입소식.

7.31 언론정책시행기준 10개항목 발표.

8. 2 동아일보 필화사건(7월 28일자 사설로 고재욱주필·집필자 황산덕 논설위원 구속).

8. 3 태풍 노라호 전국에 엄습(사상 31명, 가옥파괴 982동, 선박피해 165척, 전답유실 82만정보).

8. 3 상급자 살해한 학보병 최영오에 사형 언도.

8.14 3군사병 계급장을 통일.

8.14 태풍 오팔호 서해안에 내습(어선 행방불명 30척, 어부사망 16명, 실종 165명).

8. 28 순천시에 폭우(이재민 8988명, 가옥피해 1500호).

8.31 장준하 사상계 사장 막사이사이 상(언론상) 수상.

9. 4 국토건설단 5지단서 늑막염환자 76명 집단 발생.

9. 7 한강서 나룻배 전복, 37명 행방불명.

9.14 박의장, 국민의 비난을 받더라도 한·일회담을 타결하겠다고 강조.

9.17 제1차 일경제인단 내한(22일 이한).

9.20 불교분쟁 재연, 대처측 총무원서 탈퇴.

10.1 새 병역법 공포.

10.10 국민투표법 공포.

10.22 미, 쿠바 해상 봉쇄(11.20 해제).

11. 6 동해북부선 개통.

11.12 학사자격고시 실시.

11.14 병무청 발족, 각도에 설치.

11.22 중앙청 수리코 개청.

11.27 교통부, KNA 허가 취소코 KAL에 취항권 허용.

11.29 한국일보, 「가칭사회노동당 준비설」 기사로 필화, 장기영 사장등 4명 구속.

12. 6 경비계엄 해제.

12.10 황지선 개통.

12.17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투표율 85.28%, 찬성 78.78%).

12.17 브라질 이민단 17가구(91명) 출발.

12.26 제5차 개헌(전면개정) 공포(시행은 연기).

12.26 한·일회담서 재산청구권문제에 타결(일측 무상 3억불·차관 3억불 제공).

12.27 박의장, 민정이양절차 발표(대통령선거 63년 4월, 국회의원선거 5월, 민정이양 8월).

12.31 집합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

12.31 국토건설단 해체.

1963 년

1. 1 최고의, 민간인의 정치활동재개를 허용.

1. 1 부산시, 정부직할시로 승격.

1. 7 중앙정보부장에 김용순 소장 임명(~63.2).

1.15 국회의원선거법 공포.

1.16 대학교수실적검사결과 발표(72명 실격).

1.18 민주공화당 발기 선언(위원장 김종필).

1.18 전남 가지도 앞바다서 정기여객선 연호 침몰(138명 익사).

1.27 민정당 발기.

2.21 중앙정보부장에 김재춘 소장 임명(~63.7).

2.25 김종필, 순회대사 자격으로 외유(10월 23일 귀국).

2.25 주가폭락으로 증권시장 마비.

3. 6 중앙정보부, 4대의혹사건 수사경위를 발표, 유원식·천병규등 15명 구속.

3. 7 박의장, 정계혼란하면 민정에 참여한다고 원주 1군사서 시사(원주발언).

3.14 염상섭(횡보, 1897~) 몰.

3.16 박의장 군정 4년 연장을 제의,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성명.

3.16 정당활동의 정지·언론·출판·집회를 제한하는 비상사태수습임시조치법 공포.

3.17 동아, 조선일보, 15일간 무사설로써 군정연장성명에 항의.

3.20 야당, 군정연장반대 메모 감행.

3.22 군비상지휘관회의, 군정연장 지지.

3.22 재야정치인, 구국선언대회 개최코 군정연장 반대대모.

3.29 서울 문리대생 300여명, 자유수호궐기대회 개최코 군정연장반대·구정치인 자숙을 결의.

3.30 박의장·윤보선·허정등 제1차 조야 영수회담 개최(31일 제2차 회담).

4. 2 버거 미대사, 군정종결을 희망하는 케네디 친서를 박 의장에게 전달.

4. 4 경제기획원, 62년현재 상주인구 발표(2628만 7635명).

4.19 서울대생, 군정연장·미의 내정간섭반대 데모

4.25「동아방송」개국.

4.27 증권시장을 공영화.

5.14 민정당창당대회, 대통령후보에 윤보선 지명.

5.15 동경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협상, 항항서 개막(6월 1인 결렬).

5.27 공화당전당대회, 박의장을 대통령후보로 지명.

6. 2 인천서 무허가화약공장 폭발(사망 9명, 중경상 100여명).

6. 3 오상순(공초, 1893~) 몰.

6.22 전국에 수해(사망 77명, 이재민 3만 8587명, 재산피해 20억원).

6.25 거제도서 산사태로 70명 생매장.

6.27 군재, 증권파동 피고 10명 전원에게 무죄 언도.

7.13 중앙정보부장에 김형욱 임명.

7.15 민정·신정·민우 3당영수, 무조건 통합에 합의.

7.18 한미경위(ECC) 신설협정 체결.

7.18 민주당 창당대회(총재 박순천).

7.31 UN군사령관에 하우즈 대장 취임.

8.10 군재, 군일부 쿠데타사건 언도(박림항·이규광·정 진 사형).

8.20 서울 교외선 개통.

8.23 동경올림픽위, 남북한에 초청장을 동시 발송.

8.31 박의장, 공화당전당대회서 당총재와 대통령후보 지명을 수락.

8.31 김활란 이대명예총장, 막사이사이상 수상.

9. 3 자민당 창당(위원장 김준연).

9.25 공명선거투쟁위, 황태성 간첩사건을 폭로.

10.10 서울가정법원 개원.

10.15 대통령 총선거, 제5대 대통령에 박정희 당선.

10.19 IOC 60차총회, 동경올림픽에 남·북한 두팀 출전을 통고.

10.22 간첩 황태성 사형 확정(12월 14일 집행).

10.23 여주서 나룻배 침몰로, 국민교생 49명 익사.

10.30 한국독립당 등록(대표 김홍일).

11.22 케네디 미 대통령 피살.

11.22 영친왕 이 은 귀국.

11.25 박의장, 존슨 미 대통령과 회담.

11.26 국회의원총선거 실시(공화당 압승).

12.12 개헌으로 신설된 국무총리에 최두선(~64.5).

12.17 신헌법(62.12.36 공포) 발효(제3공화국 발족).

12.17 제5대국회 개원, 국회의장에 이효상.
부의장에 장형순·나용균.

12.19 서독파견 광부 제1진 123명 출발.

12.23 광산노조산하 9개노조, 임금인상 요구코 쟁의.

1964 년

1. 1 미터제 실시.

1. 6 미군, 극동지역 미군표 일제 갱신.

1.13 법관추천회의, 대법원장에 조진만을 선출.

1.13 김병로(가인, 1887~) 몰.

1.16 치안국, 18일 자정을 기해 제주도 일원에 통금을 해제(통금실시후 최초의 항구적 해금조치).

2. 4 한독투자증진조약 체결.

2.10 양곡보유량 신고제 실시(쌀·보리 50가마, 밀가루 200대 이상).

2.22 일본과 비료 유안황산 8만 5000톤 구매계약 체

결.

2.29 최규하대사, 대평 일외상에게 3월 10일까지 정치회담 개최할 것을 제의(3월 2일 일측 수락).

3. 4 김국방장관, 현행징집년령 35세를 30세로 인하한다고 언명.

3. 5 안양 한국탄약분해공업사 작업장서 폭발사고, 93명 사상.

3.15 대일굴욕외교반대투위, 전국유세.

3.24 서울대·고대·연세대생 약 5000명 굴욕외교반대 데모, 경찰과 충돌, 중경상 40명, 34명 구속.

3.30 박대통령, 서울시내 대학생대표 11명과 면담.

4. 1 한전, 무제한송전 실시.

4. 1 삼분폭리 조사전모 판명(총판매고 249억 881만원, 소득액 25억 4463만원, 세금부과 8억 7115만원).

4.21 서울대·동대·성대생들 데모(7명 구속).

5. 2 민주·자민·국민 3당 통합 선언.

5. 2 기본환율 255대 1로 개정한다고 발표(3일부터 실시).

5. 7 울산정유공장 준공.

5. 7 정부미 30만석, 서울·대구·부산서 방출.

5. 9 최두선내각 총사직, 총리에 정일권 임명.

5.20 서울시내 9개대학생 약 2000명, 서울문리대 마당에서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및 성토대회」 개최.

5.21 무장군인 13명 법원에 난입 데모학생에 영장발부토록 압력.

5.30 서울대 문리대생 약 40명, 문리대 4월탑 앞서 단식농성투쟁 시작.

6. 3 서울서 만여 학생 데모, 일시 파출소 점거, 수원농대생, 도보로 입경 데모.

6. 3 반일데모로 서울시 일원에 비상계엄 선포(~64. 7.29).

6. 5 김종필 공화당의장, 당의장직 사퇴.

6. 5 전국대학에 방학조치.

6. 8 제 8공수단장교 8명 밤중에 동아일보에 난입.

7.20 파라구아이와 이민예비협정 체결(매년 500가구씩 10개년간).

7.29 비상계엄 해제.

8. 2 국회, 언론윤리위법 통과(5일 공포) (언론파동 시작)(~64.9.9).

8. 7 브라운 신임 미대사 착임.

8.13 중부지방에 수해(사상 133명, 이재민 2만 2000명, 손해액 4억 3000만원).

8.17 한국기자협회 창립.

8.17 서울시내 각대학, 75일만에 개교.

8.20 감천 화력발전소 준공.

8.31 정부, 언론윤리위법 반대 5개사(경향·동아·조선·매일·대한)에 보복조치 단행.

8.31 국무회의, 전기료 평균 50% 인상을 의결(9월 1일부터 시행).

9.13 서울·경기·강원일대에 폭우(실종 758명, 이재민 4만2000명, 피해액 11억원).

10.9 북한여자선수 신금단, 월남한 아버지 신문준과 14년만에 동경서 상봉.

10.10 동경올림픽 개막(~24).

10.14 장창선 선수, 동경올림픽서 레슬링·플라이급의 은메달 획득.

10.14 소 수상 흐루시초프 사망, 후임에 코시긴, 공산당 제일서기에 브레즈네프.

10.16 중공, 핵실험 성공.

10.24 함태영(1873~) 몰. (30일 국민장).

10.31 국군 파월에 관한 한월협정 체결.

11. 4 미대통령에 존슨 당선.

11. 6 문경새재서 버스사고, 21명 사망.

11.29 울산 제3비료공장 기공.

12. 3 자유센터 개관.

12. 6 박대통령, 서독방문 등정 (~15).

1965 년

1. 8 국무회의, 한국군(비전투원 2000명)을 파월키로 의결.

1.25 제2한강교 개통.

2.10 춘천댐 수력발전소 준공.

3. 1 충청북도 일원 통금 해제.

3.22 단일변동환율제 실시.

4.13 서울시내 대학생 4000여명, 굴욕외교 반대데모.

4.19 국방부, 위수령 발동코 데모저지에 병력 투입.

5. 2 진해 제4비료공장 기공.

5. 6 「신아일보」 창간.

5. 7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시판 진통제 속에서 마약 메사돈 검출.

5.19 박·존슨 대통령, 월남지원협조등 공동성명.

5.24 보사부, 청주서 메사돈함유 진통제 19만갑 압수 (27일 20개 제약회사에 영업정지처분).

6.12 메사돈사건, 6개제약사 대표 구속.

6.21 서울 13개대학과 지방 58고교에 방학 및 휴교조치.

6.21 서울시내학생, 한일회담 반대데모.

6.22 동경서 한일협정 정식 조인.

6.23 일서 반환될 문화재 품목 1321점으로 판명.

6.26 서울 FM방송국 개국.

6.28 서울시내 대학생, 한일협정 비준 반대 데모.

7. 7 신탄진 연초공장 준공.

7. 9 문인·학자등 각계서 한일협정 비준 반대 성명.

7.19 이승만(우남, (1875~) 하와이서 몰(23일 유골 환국, 27일 국립묘지 안장).

8.12 야당의원 총사퇴서 제출(민중당소속 61의원 사퇴서 제출, 그중 14의원만 탈당계 제출로 정식사퇴).

8.12 서울시내 대학생, 국회해산요구 궐기대회 개최.

8.13 국회, 야당불참리에 월남파병 동의안 통과.

8.14 국회, 야당의원 불참리에 한일협정비준 동의안 통과.

8.23 서울대 법대생, 유기천 학장 사퇴요구로 무기맹휴(9월 22일 맹휴 철회).

8.25 무장군인, 고대에 난입(26일 연세대에도 난입).

8.26 서울지구에 위수령 발동(~65.9.25), 6사단 병력 서울에 진주.

9. 1「신동아」 중간.

9. 4 정부, 고대·연대에 무기휴업령 내리고 학사감사 착수(20일 해제).

9.16 WHO 서울회의 개막.

9.18 경인선 복선 개통.

9.20 파월 청용부대(해병대) 결단.

9.21 한·호 무역협정 조인.

9.22「중앙일보」 창간.

9.25 위수령 해제.

9.30 금리현실화 실시(예금 년 30%, 대출 년 26%).

10.5 광주서 제45회 국체 개막, 새벽에 입장혼란으로 참사(13명 압사, 100여명 중경상).

10.29 북괴함정, 강화 앞바다서 어선 109명 납북(11월 20일 104명 귀환).

11.26 불, 첫 인공위성 A1 발사 성공.

12. 7 진삼선(사천~삼천포) 개통.

12.16 국내 텔렉스 개통(400회선).

12.17 철도화물요금횡령사건 적발(700명 관련, 18억원 횡령).

12.18 서울서 한일협정비준서 교환.

12.20 섬진강댐 준공.

12.28 한·불문화협정 조인.

평 가

단기 4291년 9월 1일(서기 1958년 9월 1일)에 창간되어 1960년 6월 1일에 제22호로 폐간 되었던 大韓齒醫報의 제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서기 1961년 2월 18일부터 1965년 10월 15일 까지 발행한 복간 大韓齒醫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임원이 임기만료되어 바뀌면 기관지인 신문도 폐간당하는 사례를 지적할 수 있다. 이 현상이 지극히 부당함을 알면서도 개선·제도화하지 못했음이 유감스럽다.

2. 또 大韓齒醫報를 제작하기 위하여, 직접 관계된 극소수 치과의사의 백의종군, 몇몇 그리고 한두명의 사무직원과 외부 인사의 도움으로 발간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大韓齒醫報의 재정적 뒷받침은, 김홍중 이사가 제작 담당 시절에는 치협으로 부터의 보조 없이 회장단의 찬조, 일부 치과의사들의 부담으로 이뤄졌음을 밝힐 수 있었다. 그리고 선우양국 이사의 제작 담당 시절에는 치협의 보조가 약간 있었을 뿐이다. 광고는 주로 김준권 전 치협사무국장이 담당하여, 大韓齒醫報는 치협의 예산적 제도적 도움없어 이른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야만 했다.

4. 복간 大韓齒醫報의 주무 책임자는 공보이사 金晃中·鮮于良國·李漢水였다.

5. 신문 특히 출판물의 존재성과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우리나라 치과의 역사적 자료가 풍부히 수록되어 있다.

6. 大韓齒醫報는 복간되면서 몇번의 결간이 있기는 하였으나 7년간이나 간행되었으며 그 제호는 金晃中이 결정하고, 약업신문을 창간한고 함승기 사장이 쓴 것이다.

7.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재무구조 자체가 불확실한 시대에서 탈피하는 과정에 있었던 大韓齒醫報나 복간 大韓齒醫報가 오늘에 와서는 당시의 치협 기관지로서 높히 평가되어야 마땅하다고 믿는다.

8. 저자는 폐간된었다가 다시 발행된 치협신문을 복간 大韓齒醫報라 불렀다.

참고 문헌

1. 이병태 : 우리나라 치과 출판에 관한 연구, 제3편 1950년대 대한 치과의사협회의 신문, 大韓齒科醫師會報와 大韓齒醫報발행에 관한 검토. 대한 치과의사학회지, 제6권 제1호, 1985.

2. 大韓齒醫報, 第1號, 서기 1961년 2월 18일, 大韓齒科醫師協會.

3. 大韓齒醫報 第25號, 서기 1961년 3월 15일, 大韓齒科醫師協會.

4. 大韓齒科報 第26號, 서기 1961년 4월 15일, 大韓齒科醫師協會.

5. 大韓齒醫報，第27號，西紀1961年 5月 15日， 大韓齒科醫師協會).

6. 大韓齒醫報，第28號，西紀 1961年 7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7. 大韓齒醫報，第29號，西紀 1961年 8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8. 大韓齒醫報，第30號，西紀1961年 9月 15日， 大韓齒科醫師協會).

9. 大韓齒醫報，第31號，西紀1961年 10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10. 大韓齒醫報，第32號，西紀1961年 11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11. 大韓齒醫報，第33號，西紀1961年 12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12. 大韓齒醫報，第34號，西紀1962年 1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13. 大韓齒醫報，第35號，西紀1962年 2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14. 大韓齒醫報，第36號，西紀1962年 3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15. 大韓齒醫報，第37號，西紀1962年 4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16. 大韓齒醫報，第38號，西紀1962年 5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17. 大韓齒醫報，第39號，西紀1962年 6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18. 大韓齒醫報，第40號，西紀 1962年 7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19. 大韓齒醫報，第41號，西紀 1962年 8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20. 大韓齒醫報，第42號，西紀 1962年 9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21. 大韓齒醫報，第43號，西紀 1962年 11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22. 大韓齒醫報，第44號，西紀 1962年 12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23. 大韓齒醫報，第45號，西紀 1963年 1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24. 大韓齒醫報，第46號，西紀 1963年 2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25. 大韓齒醫報，第47號，西紀 1963年 3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26. 大韓齒醫報，第48號，西紀 1963年 4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27. 大韓齒醫報，第49號，西紀 1963年 5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28. 大韓齒醫報，第50號，西紀 1963年 6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29. 大韓齒醫報，第51號，西紀 1963年 7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30. 大韓齒醫報，第52號，西紀 1963年 8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 會)

31. 大韓齒醫報，第53號，西紀 1963年 9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32. 大韓齒醫報，第54號，西紀 1963年 11月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33. 大韓齒醫報，第55號，西紀 1963年 12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34. 大韓齒醫報，第56號，西紀 1964年 1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35. 大韓齒醫報，第57號，西紀 1964年 2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36. 大韓齒醫報，第58號，西紀 1964年 3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37. 大韓齒醫報，第59號，西紀 1964年 5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38. 大韓齒醫報，第60號，西紀 1964年 6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39. 大韓齒醫基，第61號，西紀 1964年 7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40. 大韓齒醫報，第62號，西紀 1964年 8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41. 大韓齒醫報，第63號，西紀 1964年 9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42. 大韓齒醫報，第64號，西紀 1964年 12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43. 大韓齒醫報，第65號，西紀 1965年 3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44. 大韓齒醫報，第66號，西紀 1965年 4月 15日,大韓齒科齒師協會).

45. 大韓齒醫報，第67號，西紀 1965年 5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46. 大韓齒醫報，第68號，西紀 1665年 8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47. 大韓齒醫報，第69號，西紀 1965年 10月 15日，大韓齒科醫師協會).

48. 東亞年鑑 67년 창간호특집,「한국백년표」, 동아일보사.

49.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 협회사, 1980.

50. 김황중：개인면담

近世朝鮮에서 齒科治療에 使用한 木草

東醫寶鑑을 中心으로 考察

朴 勝 五*

Ⅰ) 序 言

漢方에서는 生化學的 또는 藥理的 機轉에 依한 治療보다는 所謂 本草秘方이라는 것이 있어 植物의 果, 花, 落葉, 胚, 等을 利用하여 經驗的으로 疾病을 退治하고 痛症을 경감시킨 例가 많았던 것이 事實이고 또한 通例였다. 이것은 主로 民間의 口傳으로서 傳해오는 民間療法에 지나지 않았으나, 齒科疾患에 使用된 그 木草類의 藥材가 多樣하고, 그 體驗的 治療形態 또한 복잡하였기에, 저자는 여기에, 利用된 木草를 東醫寶鑑을 中心으로 文獻的 考察을 하고자 한다.

Ⅱ) 本 論

特記할 것은 齒科治療에 있어서 利用될 수 있던 植物이란 그 大部分이 食用 可能한 作物이였고, 또 栽培도 可能한 作物이었다는 점이다. 그 代表的 例를 들면 이러하다.

虫齒의 경우, ⓐ 가지의 뿌리를 찧어 즙(汁)을 만들어 바르거나, 뿌리를 태운 재를 齒牙에 발라 주는 것으로 되어있다. 입안이 헐고 잇몸이 부었을 경우에는, 가지 껍질을 태워 그것을 물에 개어 바른다고 記述되었다. ⓑ 감은 小兒齒科에서 舌炎이나 咽喉炎이 發生했을 때에, 곶감에 붙어있는 흰 가루를 바르거나, 고백반을 동일한 비율로 混合시켜 그것을 患部에 바른다. 虫齒와 風齒의 痛症에는 勿論 그 理由는 明白하지 않지만, ⓒ 검은 콩을 毒酒에 끓여 그 물을 使用하여 양치질하면 効果가 있다고 했다. ⓓ 겨자의 경우, 齒根部位 炎症時나, 종창이 되었을 경우는, 1~2年生 짜리를 골라 태워서 炎症部位에 바르면 治療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것이 齒根部位에 선택적으로만 작용되는지의 與否와, 그 治療 期間에 對해서는 確實치가 않다. 입술이 부르텄거나 부스럼에는 ⓔ 푸른 귤껍질을 태워 그 재를 豚油에 混合시켜 患部에 바르는 것으로 되었다.

以上 痛症에 關係되는 療法과는 달리 또 口腔內 惡臭를 除去하기 爲해서는 適量의 ⓕ 김을 삶아 3回로 나누어 服用하는데, 이때에는 소금이나 간장을 첨가하지 않는것으로 되었다. ⓖ 마늘의 경우, 虫齒나 風齒의 痛症이 극심할 때에는 마늘 한쪽을 불에 뜨겁게 해서 患齒에 물고 있으면 그 痛症이 除去되는것으로 되어있다. 加熱한 마늘을 使用하는 것이 왜 보다 効果的인 것인지에 對해서는 그 理由가 確實치 않다. 齒痛에 依해 볼이 붓으면, ⓗ 복숭아나무, 뽕나무, 버드나무 등의 白皮를 같은 비율로 混合하여 삶은 다음, 여기에 適量의 酒를 타서 몇차례 양치질을 함과 동시에, 이것을 부어있는 部位에 자주 바르면 効果가 있는 것으로 되었다. 또한 입술이 마르고 갈라지는 데에는 복숭아씨를 가루로하여 豚油에 混合시켜 바르면 良好한 効力이 있다고 했다. 特記할 것은 齒牙의 漂白에 關한 것이다. 누런 齒牙를 희게 하려면 상치(根을 포함)를 말려 그 粉末을 만들어 朝夕으로 양치질을 할 때 使用한다고 되었다. 一般的인 虫齒나 風齒의 治療方法중 一例로서, ⓘ 생강을 벽돌위에 놓고 구어서 말린후에 適量의 고번을 섞어서 粉末을 만들어 그것을 바르면 좋은 効果가 있는 것으로 되었다. ⓚ 석류는 석류나무과에 속하는 작은 낙엽을 가진 교목으로서, 그 키는 5~10m 가량이다. 그 잎은 마주나고 긴 타원형으로서 광택이 나며 가지에는 가시가 난다. 10월에 그 열매인 석류가 여문다. 이 때 불규칙하게 갈라져 연분홍의 투명한 씨를 드러낸다. 이 열매 껍질을 태운 재가루로 養齒질을 하면, 口瘡이나 齒痛에 특별한 効力이 있는 것으로 되었다. ⓛ 자두는 앵두과에 속한 작은 크기의 나무로서, 높이는 5m 가량 된다. 8월경 核果는 노란빛이나 자주빛으로 익으며 그 모양은 둥글다. 그 성질은 온화하고 맛은 쓰다. 떫으나 毒은 없다. 虫齒나 風齒로 인한 痛症에는 자두나무 껍질을 달여 그 물로써 養齒하면 좋다. ⓜ 참벼는 벼과에 속하며 그 種子의 胚乳는 不透明한 白色이고, 實의 껍데기는 대개 검은 빛을 띤 자주빛이다. 그 성질은 차나 온화하고 그 맛은 쓰며 또한 毒은 없다. 齒牙를 漂白하려면 참쌀의 겨를 태운 재가루로써 養齒하면 된다. 舌出血에는, ⓝ 꽃 1와를 찧어 여기에 2와의 물을 붓고 졸여서 즙을 만든

* 大韓齒科醫史學會總務, 朴勝五 齒科醫院

다음에 수시로 이것을 服用하면 效果가 있다. ◎ 후추는 후추과에 속하는 常綠 교목으로서 그 줄기는 지름 2cm 가량의 둥근 기둥 모양으로. 조금 넝쿨지는 성질이 있고 그 잎은 어긋나서 나오며 그 끝이 뾰족한 둥근 달걀모양이다. 虫齒로 인한 痛症에는 후추 9알에 녹두 適量을 섞어 갈아서 헝겊에 쌓서 患齒에 물고 있으면 治癒된다.

Ⅲ) 結 論

1) 近世 朝鮮初의 齒科 治療에 利用된 木草의 種類는 多樣하다.
2) 齒科 治療에 使用된 大部分의 植物은 食用 作物이다.
3) 그 木草類의 선택은 경험에 의존한 것이다. 勿論 그 藥理는 확실치 않다.
4) 齒科 治療를 위해 使用된 大部分의 木草는 그 利用 部分이 잎, 열매, 뿌리 等이다.
5) 齒科 治療時 이들 植物은 自然物 그 自體를 使用하기 보다는 태워서 粉末을 만들거나 찧어서 즙을 만드는 等 人工的 操作을 加味하였다.

參 考 文 獻

1. 東醫寶鑑, 民晶社, 1978.
2. 韓國史大系, 三珍社, 1976.
3. 韓國史, 震壇學會, 1978.

THE PLANTS OF ORAL DISEASE THERAPICS WERE USED IN YI-DYNASTY.

Abstracts

Park, Seung Oh. D.D.S., M.S.D.

There are many plants that used for treatment oral disease in enrly YI-Dynasty. (A.D. 14c~16c).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classification of many plants in oral disease therapy.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There are many plants that used for dental disease in early YI-Dynasty
2. All most of these plants were provisions.
3. The plants that used for dental therapy, especially were used plants of leaves, fruits, and roots.
4. The kinds of plants in therapics in oral disease are followings. There are eggplant, pepper fruit, bean, mustard. orange, green seaweed, peach, ginger pomegranate, plum, and red-bean, etc.

齒科界 團體活動 (4)

(1935年)

辛 在 義*

1935年 9月 24日 午前 8時에는 第15回 朝鮮齒科醫學會 總會 및 講演會가 京城帝國大學附屬醫院內 臨床講義室에서 열렸다. 總 39演題中에서 韓國人은 趙昊衍, 孫洪兌, 裵珍極, 鄭用國, 5人이 9個의 演題를 發表하였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았다.

1. 齒髓組織內에 淋巴導 存在するか—原田一幸
2. 切除されたる齒槽突起部の 組織學的 研究—平下證
3. 上顎竇內に 發育せる 齒根囊腫の手術に就て—趙昊衍
4. 齒牙疾患に 繼發せる耳痛 上顎竇炎及 扁桃腺 肥大に 就て(標本供覽)—孫洪兌
5. 「ナノゲサアン」の 萌出に際し如何なる組織が斷裂 するものなるか—趙昊衍
6. 痲疹經過後に 發生せる壞疽性口腔炎の一例—大脇博人
7. 先天齒の一例—大久保光雄
8. 根端孔部齒根膜創瘍の治癒機轉に關する實驗的 研究—松本一男
9. 慢性齒槽膿瘍に因する增殖性化骨性下顎骨炎の一例—北野幸雄
10. 乳齒晩期存在の一例—今村汎
11. 拔齒後に繼發せる顎骨々髓炎の一例—鈴木望
12. 肝油の齒科的應用價値—原田一幸
13. 齒髓の生物學的機能に關する實驗的研究—原田一幸
14. 急性骨髓性白血病に因する壞疽性口腔炎の一例—松本一男
15. 拔齒創內に挿入せる齒齦辨の組織學的研究—松本一男
16. 實驗的「モルフイン」中毒の骨發育に及ぼす影響に就て—楠國雄
17. 「モルフイン」 中毒家兎の齒牙及び其支持組織にうたける變化(第三回報告)—楠國雄
18. 琺瑯眞珠の 組織學的所見—高田正英
19. 亞砒酸「糊劑」に因する顎骨骨疽の一例—高田正英
20. 先天齒の二例に就ての組織學的研究—裵珍極 (海州醫院)
21. 陳舊性下顎骨骨折の一例—渡邊忠雄
22. 初生兒に於ける齒齦結核の一例—鄭用國
23. 成熟犬の齒髓內に認めたる「マテツセ丨氏」上皮索に就て—藤川誠一
24. 先天性徽毒胎兒の齒牙及び顎骨の變化—藤川誠一, 楠國雄
25. 實驗的根端性齒根膜炎の病理(宿題報告)—生田信保, 松本一男
26. 頰部に遊離する石灰性組織塊の一例—孫洪兌
27. 西洋齒科醫學輸入事情の回顧(特別講演)—日本之齒界主幹 今田見信氏
28. 色素性齒齦纖維腫の一例—鈴木望
29. 膿胞性齒牙囊腫の一例—鄭用國
30. 乳齒の支持組織內に存在せる「マテツセ丨氏」坡索に就て—楠國雄
31. 下顎骨齒槽突起部の複雜骨折の處置—杉山常夫 (永安)
32. 齒槽突起部骨折時に於ける特殊印象法— 杉山常夫 (永安)
33. 隔世遺傳に現はれる人類齒牙缺如症三例に就て—鄭保羅 (セブランス醫專齒科)
34. 臨床藥局學に就て(特別講演)—京城帝大醫學部附屬醫院藥局長
35. 齒槽壁切除拔齒創の治癒機轉に關する實驗的研究 —松本一男
36. 齒性上顎竇炎の實驗的研究—松本一男
37. 上顎竇蓄膿症根治手術後に現はれたる慢性上顎骨骨炎の一例—松本一男
38. 光力學的作用の齒牙發育に及ぼす影響に就て殊にそれと脾臟及網狀織內被細胞系統との關係—裵珍極(城大病理)
39. 臨床齒科病理學と其治療學への應用(特別講演)—東京齒科醫學專門學校敎授 正木正氏

* 서울 辛在義齒科

1935年 9月 25日 午前 10時에는 朝鮮聯合齒科醫師會가 京城商工會議所 特別會議室에서 開催되었다. 會議의 內容은 다음과 같았다.

1. 法定齒科醫師會設立認可申請建議案에 關한 件 (咸北, 群山, 兩齒科醫師提出)
2. 學校齒科醫設置建議案 (咸北齒科醫師會提出)
3. 入齒營業 規定中一部改定請願의 件(咸北齒科醫師會提出) (拔齒, 治療에 關한 件은 凡て削除のこと)
4. 朝鮮聯合齒科醫師會에 口腔衛生部를 設置し以て地方醫師會의 斯道宣傳普及의 便을 圖られ度し(釜山齒科醫師會提出)
5. 齒牙交換表를 作製し全鮮小普通學校에 配布備付せらるる樣當局에 要望의 件 (黃海道齒科醫師會提出)
6. 朝鮮齒科醫師의 滿洲國進出에 關한 件 (京城府齒科醫師會提出)
7. 會則一部改正 (役員會 提出)
8. 「ムシ齒豫防デー」에 關한 件 (役員會 提出)

또한 新加盟한 地方齒科醫師會는 다음과 같았으며 韓國人의 漢城齒科醫師會도 이때에 參加하였다. 咸興齒科醫師會, 木浦齒科醫師會, 新義州 〃 , 全州 〃 , 光州 〃 , 平南 〃 , 水原 〃 , 開城 〃 , 漢城 〃 .

1935年 9月 22日 午後 1時에는 朝鮮齒科醫師의 한 團體인 朝鮮齒科醫師會의 第11回 總會가 京城 長谷川町 總督府 圖書館에서 會員 30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業權擴張運動의 報告에 이어서 役員 改選을 하였다.

1935年 9月 22日과 23日에는 第4回 京城齒科醫學會 總會가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 講堂에서 開催되었다.

總 58個의 演題中에서 韓國人은 孫洪兌, 安正造, 金仁煥, 鄭保羅, 朴明鎭, 7個를 發表하였다.

1. 局所麻醉藥ニ及ボス 「アドレナリン」ノ還元酸化系ノ影響ニ就テ—矢尾太郎
2. 口腔ニ於ケル內科學的疾病ノニ, 三治驗例ニ就テ—孫洪兌
3. 齒牙疾患ニ因スル耳鼻科的疾病ノ二, 三治驗例ニ就テ—孫洪兌
4. 兄弟ニ見タル過剩齒ノ例症—安正造
5. 京城師範學校附屬小學校學童ニ於ケル口腔衛生實況ニ就テ—杉原卓
6. 上顎中切齒ニ原因セル濾泡性齒牙囊腫ノ二例ニ就テ—澁谷榮
7. 不安定ナル總義齒ニ應用セル補助維持法ノ二例—弘田精一, 松田春一
8. 上顎前齒反對咬合ノ一治驗例—奧野範一, 岡田肇
9. 下顎前突ノ一治驗例—奧野範一, 牧山正文
10. 全身麻醉劑「インチシン」ノ應用ニ就テ—金仁煥
11. 朝鮮人ニ於ケル下顎突起 Apaphysislemurica ニ就テ—西山幸男, 稻川英一
12. 上顎骨ニ於ケル巨大ナル濾泡性齒牙囊腫ノ一治驗例—片瀨幸俊, 小官孝
13. 齒窩ト顏面頭蓋ニ腦頭蓋トノ關係(來賓)—太島新治
14. 黃金ト所謂金代用合金トノ間ニ於ケル「ガルバニツク, アクシン」ニ就テ—松尾鎭
15. 齒牙異常萌出ノ頭蓋骨數例—桑山邦松
16. 動物ノ齲蝕ニ就テ—西山幸男
17. 都北構成要素トシテノ齒科醫師—矢尾太郎, 西野重利
18. 下顎骨ニ現ハレタル齒性骨膜骨髓炎ニ就テ (特別講演)—弓倉繁家
19. 「クン, ピース, キヤスデング」 局部義齒ノ調製順序及ビ設計基準ニ就テ—鄭保羅
20. 局所麻醉藥ニ因ル神經髓鞘ノ組織的變化ニ就テ—桑山邦松
21. 食道異物トシテノ義齒18例ノ齒科學的考察—窪盛
22. 唾液ノ形態學的研究 (第二輯)—奧野範一
23. 學童ニ於ケル唾液水素「イオン」濃度ノ年齡消長—窪盛, 森藤陽三
24. 齒科用「ゴム」ノ蒸和ト强度ニ就テ (來賓)—松風憲二
25. 亞砒酸ニ因ル血小板增多ノ中樞性調節—平岡彌之助
26. 亞砒酸ノ知覺神經及ビ運動神經ニ及ボス作用ノ追補—朴明鎭
27. 亞砒酸藥理作用ニ對スル一考察—矢尾太郎, 朴明鎭
28. 亞砒酸ニ關スル實驗的研究—垣具庸三
30. 局所麻醉藥ノ效力增强法ニ就テ (特別講演)—尾崎良純
31. 舌下線淋巴組織內ニ於ケル可染體ニ就テ—西山幸男
32. 齒髓刺戟ニ關スル實驗—弘田精一
33. 所謂下顎前突ノ施術方針並ニ其式ニ就テ—高橋新太郎
34. 解熱藥性漢藥ノ鎭痛效力ニ就テ—矢尾太郎
35. 朝鮮人ノ咬合型ニ就テ—西山幸男, 稻山幸英一, 德谷幸雄
37. 上顎竇ト口腔トノ穿通閉鎖例ニ就テ—大島新三
38. 支那人ノ顎型並ニ齒牙ノ傾斜角度ニ就テ—中河原重輔
39. 2,3「アルコール」ノ末梢鎭痛效力ニ就テ—矢尾太郎, 杉原卓
40. 鉛ノ排泄及ビ沈着ニ就テ—野口三郎
41. 「レントゲン」 線ノ神經末ニ及ボス影響ニ就テノ實

驗的研究（來賓）—穗坂恒夫

42. 齲蝕豫防ニ關スル卑見（特別講演）—芝田信

43. 硝酸銀ニ因ル時蕾ノ組織學的變化ニ就テ—桑山邦松

44. 下顎關節ノ關節盤ニ就テ—稻川英一

45. 有管陶齒ヲ用ヒタル「レゾウイン」床義齒供覽—飯塚徹

46. 磨齒劑ノ理學的研究（其一）—窪盛．森藤陽三

47. 先天齒牙ノ 2例ニ就テ（來賓）—窪盛

48. 鮮產埋沒劑「ラン，ペウダー」ニ就テノ實驗供覽—松岡克己

49. 顎下腺ノ血液「アシラーゼ」ニ及ボス影響（第二回報告）—園部軍藏

50. 臨床例 2,3ニ就テ（來賓）—田中寬一

51. 阿片「アルカロイド」ノ構造ト鎭痛作用ニ就テ—矢尾太郎，森藤陽三

52. 內地ニ於ケル學校齒科ノ發達ト其現況（特別講演）—高津式

53. Aconitin 及ビ Veratin ノ家兎齒髓ノ知覺的反應—弘田精一

54. 古代人ノ齲齒ニ就テ（特別講演）—清野謙次

55. 下顎骨骨折ヲ危惧スル際ニ於ケル顎間副木ニ就テ—新井香

56. 大臼齒齒根ノ形態學的研究特ニ下顎大臼齒根ノ彎曲ニ就テ—松本一夫

57. 鹽酸「ピロカルピン」注射時ニ於ケル家猫舌下線ノ遊走細胞—西山幸男．青田壽雄

58. 象牙質齲蝕透明層ニ關スル臨床的考察ニ就テ（特別講演）—沖野節三

1935年 2月 2日 午後 7時에는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 會議室에서 京城齒科醫學會의 京城支會의 例會가 開催되었다.

그 演題는 다음과 같았다.

1. 對照的に發生したる齒齦囊腫の一例に就て—岡田肇
2. 內地に於ける齒痛の民間療法に就て—森藤陽三
3. 青年期に於ける齒列矯正の一方法に就て—森哲郎
4. 「セメント」鎭談—松風陶齒會社 官津一
5. 虎と「ライオン」の話—城大教授（醫博）津崎孝道

1935年 6月 19日 午後 7時 30分부터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 會議室에서 京城齒科醫學會 京城支部 例會가 開催되었다.

1. 口腔結核ノ一例—稻川 英一君
2. 下顎兩側舊齒缺如ニヨル低位咬合ノ一恢復例ニ就テ—奧野 範一君
3. 所謂中樞性鎭痛藥ニ就テ—矢尾 太郎君
4. 京城ノ治革ナイ諸慶ガ丘（幻燈使用）—京城府史編纂課 岡田貢氏

1935年 9月 23日 午後 5時에는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 校友會 總會가 同校講堂에서 열려서 役員을 改選하였는데 韓國人으로는 文箕玉외 5人이 評議員으로 被選되었다.

會長 柳樂達見，副會長 矢尾太郎，增田二郎，評議員 今村況，朴俊榮，齊藤新平，文箕玉，山中正男，岩宮馨，朴明鎭，宮入公男，坂井俊雄，楠國雄， 百崎武平，金喆庸，趙明鎬，小松松夫，鄭保羅，永瀨英一， 深水浩，山本重男，瀨口矩郎，萩野正邦，幹事 堀之內哲夫，三科造三，若松重義，奧野範一，杉原卓，青澤一男.

한편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 校友會 京城支部의 設立도 이어서 되었다.

京城支部長 黑木琴一

幹事. 坂井俊雄，佐藤二男，羽生博，稻川英一

1935年 4月 27日 午後 8時에는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 會議室에서 前會長團의 總辭退로 인하여 새로운 任員陣을 改選하였는데 會長에는 飯塚徹이 被選되었다.

1935年 5月 17日 午後 7時에는 模範的 齒科醫師會의 하나인 群山齒科醫師會의 總會가 全會員 參席하에 開催되었다.

演 題

1. 肝油の齒科的應用
2. 齒根端切除術に就て—東齒學士 廣瀨清氏
3. 拔齒創の處置—醫學博士 生田信保氏

속담(俗談)중 치과영역에 관련된 표현의 고찰(考察)

裵 珖 植*

目 次

Ⅰ. 머리말
Ⅱ. 속담에 나타난 치과분야에 관한 표현
1. 구강영역의 해부학적인 구조(또는 분비물)나 이상을 가리키는 명칭
(1) 이(이빨)
(2) 잇몸
(3) 혀
(4) 입
(a) 언어기능으로서의 입
(b) 식음기능으로서의 입
(c) 공격기능으로서의 입
(d) 기타
(5) 입술
(6) 턱
(7) 목(목구멍)
(8) 볼
(9) 침
(10) 언청이
2. 구강의 기능 및 역할과 관련된 표현
(1) 식음(食飮) 및 미각기능
(a) 식음기능
(b) 미각기능
(2) 언어기능
(3) 심미기능
(4) 기타
Ⅲ. 맺음말
참고문헌

Ⅰ. 머리말

한 민족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말과 글자는 필수적인 존재이다. 지나간 시대와 현시대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주는 것도 역시 말과 글자이다.

글자로 기록된 사서(史書)를 통해서 우리는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을 대체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사서(史書)는 몇몇의 사가(史家)들이 집필하게 되므로 사가(史家)가 아무리 객관적이려고 노력하여도 우리는 사가(史家)의 시대관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바라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사서는 아무래도 그 시대의 대중적이고 평범한 대다수의 삶을 대변하기 보다는 어느 드러난 특정인에 대한 기술(記述)이기 쉽고, 특이한 사건들의 엮음을 통해 그 시대를 나타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등 어느 일면을 강조한 것이 아닌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생생한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기가 어렵다. 이러한 사서의 결함을 보충하고 이해를 돕는 것으로 유물을 통한 연구도 이루어 질 수 있으나 남아 있는 유물의 양이 한정되어 있어 역시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서 속담은 어느 한 사람이 창작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대중의 공감 속에서 형성되는 슬기와 경험과 철학과 교훈이 농축된 언어표현으로서, 그 속담이 태어난 문화권 속의 사람이 그 속담을 들으면 마치 소의 뿔만을 보고도 소를 알게 되듯이, 또는 빙산의 드러난 부분을 보고 물 속의 얼음덩이를 알듯이 그것이 함축하는 내면의 표현을 즉석에서 구차한 설명없이 확연히 알게되는 언어 속의 언어이다.

우리나라의 치과역사를 대별하면 서양치의학이 들어오기 전의 재래치과역사와 서양치의학이 들어온 이후의 신치과역사로 양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신치과역사는 비교적 많은 참고문헌과 아직 생존해 계시는 원로 치과인을 통해서도 앞으로 계속 연구 집성될 것이다. 그러나 재래치과역사는 문헌이 희귀하고 유물이 될만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상파악이 매우 어렵다.

이제 속담 속에 나타난 치아 등 구강내외조직의 명칭과 기능에 관한 언급들을 살펴봄으로써 지나간 시대와 현시대 대중의 치과분야에 대한 인식정도를 조감해보는 것도 재래치과역사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치과분야에 관련된 속담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속담에 나타난 치과분야에 관한 표현

1. 구강영역의 해부학적인 구조(또는 분비물)나 이상을 가리키는 명칭.

이(이빨), 잇몸, 혀, 입, 입술, 턱, 목, 볼등의 명칭을 포함한 속담들이 다수 있으며, 구강내 분비물인 침을 포함한 속담, 구강영역의 이상을 가리키는 뻐드렁니, 옥니박이, 언청이 등의 단어를 포함한 속담도 다수 있다. 아가리, 주둥이는 입의 항목에 넣었다. 각각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이(이빨)

여든에 이 앓는 소리라
이 아픈 날 콩밥한다
이빨 아픈 날 콩밥한다
앓던 이가 빠진 것 같다
<치통과 관계된 속담>

홍시 먹다 이 빠진다
두부 먹다 이 빠진다
<치주질환이 심해 쉽게 탈락하는 치아에 관한 속담>

이가 아니 나서 황밤을 먹는다
이도 안 나서 콩밥 씹는다
이(빨)도 안 난게 뻐다귀 추념하겠단다
<치아의 씹는 기능에 관한 속담>

배 먹고 이 닦기
냉수 마시고 이 쑤신다
<구강청결에 관한 속담>

앞니 빠진 중강생이
<유치교환에 관한 속담>

삶은 무우에 이 안 들 소리
여드레 삶은 호박에 이 안 들 소리
애동호박 삼년을 삶아도 잇금도 안 들어 간다

수레 위에서 이를 간다
송곳니가 방석니가 된다.
<이갈이 또는 교모(咬耗)에 관한 속담>

이가 자식보다 낫다
사자 어금니다
<치아의 중요성에 관한 속담>

꼴 같지 않은 말은 이도 들춰보지 않는다
<나이와 건강의 척도로서의 이에 관한 속담>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무치악에 관한 속담>

곱슬머리 옥니박이 하고는 말도 말랬다.
장모는 사위가 곰보라도 예뻐하고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뻐드렁니에 애꾸라도 예뻐한다.
<치아배열부정에 관한 속담>

부전조개 이 맞듯
<정상치열교합에 관한 속담>

날은 좋아 잘 웃는다마는 동남풍에 잇속이 그슬린다
<심미기능으로서의 치아에 관한 속담>

(2) 잇몸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3) 혀

혀 아래 도끼 들었다
입의 혀 같다
더운 죽에 혀 데기
더운 죽에 혀 데기
혀를 빼 물었다
마파람에 곡식이 혀를 빼물고 자란다
혀는 짧아도 침은 길게 뱉는다
입에 문 혀도 깨문다

(4) 입

(a) 언어기능으로서의 입
백성의 입 막기는 내 막기보다 어렵다
입이 여럿이면 금도 녹인다
좁은 입으로 말하고 넓은 치마자락으로 못 막는다
입질에 오르내리다
입이 걸기가 사복 개천 같다
입이 광주리만 하여도 말 못한다
입은 비뚤었어도 말은 바로 하여라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다
문 바른 집은 씨도 입 바른 집은 못 쓴다
입찬 말은 무덤에 가서 하여라

노는 입에 염불하기
입은 비뚤어져도 주라는 바로 불어라
삭은 바자 구멍에 노란 개 주둥이

(b) 식음(食飮)기능으로서의 입
감나무 밑에 누워 연시 입 안에 떨어지기 바란다
홍시 떨어지면 먹으려고 감나무 밑에 가 입 벌리고 누웠다
입이 밥 빌러 오지 밥이 입 빌러 올까
입이 서울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입으로 먹고 배로 먹고
산사람 입에 거미줄 치지 않는다
몸이 되면 입도 되다
시원찮은 국에 입가 덴다
입에서 젖내 난다
입에 맞는 떡
호박씨 까서 한 입에 넣는다
자던 입에 콩가루 떨어 넣기
맨 입에 앞 교군 서려 한다
입맛 나자 노수 떨어진다
건너다 보니 절터요 찌그르 하니 입맛
확 갚은 집에 주둥이 긴 개 들어 온다
범 아가리에 날고기 넣은 셈

(c) 공격기능으로서의 입
무는 말 아가리가 깨진 독 서슬 같다

(d) 기타
입에 문 혀도 깨문다
코 아래 입
입의 혀 같다

(5) 입술
입술에 침이나 바르지
웃입술이 아랫입술에 가 닿았다

(6) 턱
모처럼 태수가 되니 턱이 떨어진다
턱 떨어진 개 지리산 쳐다 보듯 한다
턱 떨어진 광대

(7) 목(목구멍)
목구멍이 포도청
산사람의 목구멍에 거미줄 치랴
목구멍의 때도 못 씻었다
물 말은 밥도 목이 멘다
급히 먹는 밥에 목이 멘다
목 메인 강아지 겨 탐하듯

(8) 볼
개 주 쑤어 줄 것 없고 새앙쥐 볼가심할 것 없다

(9) 침
돈에 침 뱉는 놈 없다
웃는 낯에는 침 못 뱉는다
제 낯에 침 뱉기
누워서 침 뱉기
침 뱉은 우물물 다시 먹는다
<경멸의 의미로서의 침>

배 고픈 때는 침만 삼켜도 낫다
공복에 인경을 침도 안 바르고 먹으려 한다
<소화기능을 행하는 의미의 침>

입술에 침이나 바르지
<언어보조로서의 침>

침 먹은 지네

혀는 짧아도 침은 길게 뱉는다
침 뱉고 밑 씻겠다

(10) 언청이
언청이 아니면 일색
언청이 아가리 토란 비어지듯
언청이 아가리에 콩가루
언청이 아니면 병신이라 할까
언청이 퉁소 대듯

2. 구강의 기능 및 역할과 관련된 표현

구강의 기능 및 역할은 크게 나누어 식음(食飮) 및 미각(味覺)기능, 언어기능, 심미기능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능에 관한 표현을 각 기능별로 구체적인 표현단어를 열거하고 그 표현을 포함한 속담을 열거하도록 하겠다. 식음기능에서 '먹다'를 포함한 속담과 언어기능에서 '말'을 포함한 속담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극히 일부만을 예로 들었다.

(1) 식음 및 미각기능

식음에 관한 표현으로는 먹다, 마시다, 물다, 씹다, 삼키다, 추념하다, 훑다, 핥다, 목 마르다, 떨어 넣다, 넣다, 잡수시다, 뜯다, 요기, 켜다, 굶다, 얌냠, 트림, 이쑤시다 등이 있고, 미각기능에 관한 표현으로는 맛, 입맛, 쓰다, 달다, 시다, 짜다, 맵다, 떫다, 뜨겁다, 덥다, 차다, 식다 등이 있다.

(a) 식음기능

무른 감도 쉬어 가면서 먹어라
나한에도 모래 먹는 나한이 있다
꿩 먹고 알 먹는다
쇠죽가마에 달걀 삶아 먹을라
이 먹자는 장사요 속 먹자는 만두
냉수 먹고 된 똥 눈다
남의 밥 보고 장 떠 먹는다

남양 원님 굴회 마시듯
우물 들고 마시겠다
떡 줄 놈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공것이라면 양잿물도 들고 마신다
냉수도 불면서 마신다
내 마신 고양이 상
아들네 집 가 밥 먹고 딸네 집 가 물 마신다
물라는 취나 물고 씨암탉은 물지 말라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은 차려라

고기는 씹어야 맛이고 말은 해야 맛이다
이도 안나서 콩밥 씹는다

후추 온이로 삼킨다
개구리 삼킨 뱀의 배 같다
배 고플 때는 침만 삼켜도 낫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도 안 난게 뼈다귀 추념하겠단다

훑어 먹은 돼지 죽통 같다

공작은 날거미만 먹고 수달피는 발바닥만 핥고 산다
곰이라 발바닥 핥으랴
수박 겉 핥기
연주창 앓는 놈의 갓끈을 핥는다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
우물 옆에서 말라 죽겠다

자던 입에 콩가루 떨어 넣기
범 아가리에 날고기 넣은 셈
호박씨 까서 한 입에 넣는다

시주님이 잡수셔야 잡수었나 하지

제주말 제 갈기 뜯어 먹듯
황소 제 이불 뜯어 먹듯
제 언치 뜯는 말이다

짐 벗고 요기할 날 없다
배 고픈 놈더러 요기 시키란다

소금 먹은 놈이 물 켠다
온 바닷물을 다 켜야 맛이냐
벌물 켜듯 한다

저녁 굶은 시어미 상
생일날 잘 먹으려고 이레 굶을까
굶어 죽기는 정승하기 보다 더 어렵다
닷새를 굶어도 풍잠 맛으로 굶는다
여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흘 굶는다
흉년에 어미는 굶어 죽고 아이는 배 터져 죽는다
잔칫날 잘 먹으려고 사흘 굶을까
사흘 굶어 도둑질 아니 할 놈 없다
사흘 굶으면 양식 지고 오는 놈 있다
정직한 사람의 자식은 굶어 죽지 않는다
주인 많은 나그네 밥 굶는다
가난한 집 신주 굶듯

줄 수록 얌냠

진 잎죽 먹고 잣죽 트림한다
미꾸리 국 먹고 용트림한다
비지죽 먹고 용트림한다
잉어죽 먹고 용트림한다

냉수 마시고 이 쑤신다

(b) 미각기능

맛 좋고 값 싼 갈치 자반
똑배기 보다 장맛이 좋다
작아도 후추 맛이다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절에 빈대가 안 남는다
맛 없는 음식이 뜨겁기만 하다

말 많은 집에 장맛이 쓰다
개살구도 맛 들일 탓이다
쓴 배도 맛 들일 탓이다
맛 있는 음식도 늘 먹으면 싫다
끓는 국에 맛 모른다
검은 고기 맛 좋단다
맹물에 자갯돌 삶은 맛이다
방귀에 초친 맛

돈 떨어지자 입맛 난다
입맛 나자 노수 떨어진다
건너다 보니 절터요 찌그르 하니 입맛
뜻과 같이 되니까 입맛이 변해진다

쓴 맛 단 맛 다 보았다
공것이라면 써도 달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먼 데 단 냉이 보다 가까운데 쓴 냉이가 낫다
말 많은 집에 장맛이 쓰다
꿀도 약이라면 쓰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붉고 쓴 장

꿀은 적어도 약과만 달면 좋다
장 단 집에는 가도 말 단 집에는 가지 마라
달기는 엿집 할미 손가락이라
크고 단 참외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
고욤이 감보다 달다
사후 술 석잔 말고 생전에 한 잔 술이 달다
말 단 집에 장이 곤다

시지도 않아서 군동내부터 난다
시기는 모과 한 잔등이다
시기는 산 개미 똥구멍
시거든 뭡지나 말고 얽거든 검지나 말지
아내 나쁜 것은 백년 원수, 된장 신 것은 일년 원수
온 바닷물을 다 먹어야 짜냐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

고추는 작아도 맵다
고추보다 후추가 더 맵다

뭡기로 고욤 하나 못 먹으랴

쓰게운 국에 맛 모른다
못 된 음식이 뜨겁기만 하다
김 안 나는 숭늉이 더 뜨겁다
가만히 먹으라니까 뜨겁다고 한다

거지도 부지런하면 더운 밥을 얻어 먹는다
더운 죽에 혀 데기
더운 죽에 혀 데기

아이 보는데 찬물도 못 먹는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찬 밥 두고 잠 아니온다

남의 말 하기는 식은 죽 먹기
식은 죽도 불어가며 먹어라

(2) 언어기능

언어기능에 관한 표현으로는 말, 거짓말, 청, 소리, 이야기, 노래 부르다, 넋두리, 정말, 벙어리, 자랑, 통곡, 입바르다, 입차다, 우기다, 지절대다, 조잘거리다, 떠들다, 악마구리 끓다, 걸다, 짖다, 수다떨다, 불다, 울다, 야단치다, 호령하다, 염불하다, 물어보다, 외다, 웃다 등이 있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말 안하면 귀신도 모른다
음식은 갈 수록 줄고 말은 갈 수록 는다
어린이 말도 귀담아 들어라

거짓말이 외삼촌보다 낫다
거짓말하고 뺨 맞는 것 보다 낫다

뜨물 먹은 당나귀 청
모주 먹은 돼지 껄때청
장마 도깨비 여울 건너가는 소리를 한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빌어는 먹어도 다리 아래서 소리하기는 싫다
벙어리 발등 앓는 소리냐
새 까먹은 소리
익은 밥 먹고 선 소리한다

생이 벼락 맞던 이야기를 한다
서른 세 해만에 꿈 이야기한다

나 부를 노래를 사돈집에서 부른다

촉에서 넋두리도 하는데

정 들었다고 정말 마라

꿀 먹은 벙어리
벙어리 재판
열 벙어리가 말을 하여도 가만 있거라

벙어리 서방질 해도 속이 있다
귀머거리 삼 년이요 벙어리 삼 년이라
벙어리 냉가슴 앓 듯
벙어리 속은 그 어미도 모른다
벙어리 차첩을 맡았다

자랑 끝에 불 붙는다
자랑 끝에 쉬 쓴다

밤새도록 통곡해도 어느 마누라 초상인지 모른다

문 바른 집은 써도 입바른 집은 못 쓴다

입찬 말은 무덤 앞에 가서 하여라

세 사람만 우겨대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낼 수 있다
쟁반이 광우리 같이 길고 깊다고 우긴다

지절대기는 똥 본 오리

조잘거리기는 아침 까치로구나

떠들기는 천안 삼거리다

악마구리 끓듯 한다

입이 걸기가 사복 개천 같다

개 못된 것은 들에 가서 짖는다
무는 개 짖지 않는다
똥네 개 짖는 소리만 못하게 여긴다

수다떠는 똥 본 오리

원님 덕에 나팔 분다
입은 비뚤어져도 주라는 바로 불어라

우는 아이 밥 한 술 더 준다
울지 않는 아이 젖 주랴
울려는 아이 뺨치기
울며 겨자 먹기
아이는 칠 수록 운다
암탉이 운다
밤새도록 울다가 어느 마누라 상사 났나 한다
학이 곡곡하고 우니 황새도 곡곡하고 운다

사돈 남 야단친다

양반 못된 것이 장에 가 호령한다

노는 입에 염불하기

아는 길도 물어 가라

아동판수 육갑 외듯

선 떡 먹고 체하였나 웃기는 왜 웃나
외삼촌 물에 빠졌나 웃기는 왜 웃노
웃으며 한 말에 초상난다
웃는 낯에는 침 못 뱉는다

(3) 심미기능

심미감에 관한 표현으로는 옥니박이, 뻐드렁니('이'에 관한 항목 참조), 언청이('언청이 항목 참조'), 입비뚤어지다('입'항목 참조)등이 있다

(4) 기타

위의 세가지 기능 이외의 기능에 관한 속담을 여기에 모았다.

개도 무는 개를 돌아 본다
앞에서 꼬리치는 개가 후에 발 뒤꿈치 문다
내 밥 먹은 개가 발 뒤축을 문다
제가 기른 개에게 발꿈치를 물린다
소한테 물렸다
무는 말 있는데 차는 말 있다
갈치가 갈치꼬리를 문다
도둑놈 개에 물린 셈이다
젖 먹는 강아지 발 뒤축 문다
뒷간 쥐한테 하문을 물렸다
무는 말 아가리가 깨진 독 서슬 같다
게새끼는 물고 고양이 새끼는 할킨다

궁서가 고양이를 문다
무는 개 짖지 않는다
무는 호랑이는 뿔이 없다.
개미에게 불알 물렸다
<공격기능으로서의 '물다'>

돼지가 깃을 물어 들이면 비가 온다
까마귀가 알 물어다 감추듯 한다
사당치레 하다가 신주 개 물려 보낸다
백정이 버들잎 물고 죽는다
칼 물고 뜀뛰기
<운반이나 파지(把持)기능으로서의 '물다'>

침 뱉은 우물물 도로 먹는다
제 낯에 침 뱉기
누워서 침 뱉기
웃는 낯에는 침 못 뱉는다
<경멸을 표현하는 기능으로서의 '침뱉다'로서 광의의 언어기능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냉수도 불면서 마신다
불면 꺼질까 쥐면 터질까
국에 데인 놈 물 보고 분다

입술에 침이나 바르지

혀를 빼 물었다

수레 위에서 이를 간다

배 먹고 이 닦기
냉수 먹고 이 쑤신다

모처럼 태수가 되니 턱이 떨어진다
턱 떨어진 개 지리산 쳐다 보듯 한다
턱 떨어진 광대

입술에 침이나 바르지

꼴 같지 않은 말은 이도 들춰 보지 않는다

Ⅲ. 맺음말

1. 속담 속에 구강영역의 일부분을 지칭하는 이(이빨), 잇몸, 혀, 입(아가리, 주둥이), 입술(윗입술, 아랫입술), 턱, 목(목구멍), 볼 등의 명칭이 다수 등장한다.

2. 이를 세분한 명칭으로 앞니(前齒), 송곳니(犬齒), 방석니(小臼齒), 어금니(大臼齒)가 속담 중에 나타난다

3. 치열부정을 가리키는 옥니박이, 뻐드렁니가 나타나고, 입술이나 구개의 이상인 언청이(兎唇)가 등장한다. 또 좌우대칭의 이상으로 '입 비뚤어지다'가 등장한다.

4. 구강의 식음 및 미각기능, 언어기능, 심미기능에 관한 표현들이 상당히 많은 양이 존재하는데 특히 식음기능이 가장 많고 그중에서도 '먹다'가 포함된 것은 너무 많아서 지면관계상 극히 일부만 예거(例擧)하였다. 또 언어기능에서 '말'을 포함한 속담도 매우 많아서 일일히 열거할 수가 없었다.

5. 치통, 치주질환, 치아탈락, 무치악에 관한 속담이 발견되고, 유치교환, 구강청결, 이갈이, 교모(咬耗)에 관한 속담이 나타난다.

6. '침뱉다'는 주로 경멸의 뜻으로 쓰이고, 분함의 표시로 '이를 갈다'라는 표현이 쓰인다.

7. '턱 떨어지다'는 표현은 기능이나 능력의 상실을 뜻한다.

8. 건강상태나 나이를 알아보는 기준으로서의 치아에 관한 속담이 있다.(꼴 같지 않은 말은 이도 들춰보지 않는다)

9. '물다'라는 것은 식음기능과 공격기능 양쪽으로 쓰이며 손을 대신하는 파지(把持)기능이나 운반기능으로도 쓰인다.

10. 미각에 관한 표현으로는 맛, 입맛, 달다, 쓰다, 시다, 짜다, 맵다, 떫다, 뜨겁다, 덥다, 차다, 식다 등이 나온다.

하나의 속담은 수많은 가지와 뿌리를 다 쳐내고 둥치만 남은 나무토막과 같아서 온 나무에서 곁가지를 쳐내어 둥치만 남게 되는 과정을 같이 겪은 경우는 단박에 둥치만 보고도 온 나무를 알게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여기에 다시 가지와 뿌리를 붙이려면 많은 양의 설명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속담만으로도 하나의 논제가 되고도 남겠으나 우선은 잊혀져 가는 속담들을 모아놓는다는 의도에서 치과분야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된 속담을 최대한 항목별로 분류집성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지면관계상 '먹다'와 '말'을 포함한 속담은 극히 일부만을 예거(例擧)하는데 그쳤다.

앞으로 '먹다'와 '말'을 포함한 속담을 모두 다루고 또 각 속담별로 그 내포한 의미와 상황을 상세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李基文 編著「韓國의 俗談」三星文化財團 出版部, 1976.
2. 李成祖 監修「古事成語」東南書籍, 1980.
3. 崔根學 編「韓國俗談辭典」文學出版公社, 1986.
4. 한국토속문화수집회 편「속담·격언·수수께끼」가야출판사, 1984.
5. 東亞出版社 編輯部 編「동아國語廣辭典」東亞出版社, 1978.

Abstract

The Expressions Related To Dentistry In The Korean Proverbs

Kwang Shik Bae, D.D.S., M.S.D., Ph.D.

Bae's Dental Clinic

Proverbs were formed by the general public, so we can know the knowledge and the viewpoint of the past and present general public by studying proverbs.

The author observed the expressions about the tooth and oral region in the Korean proverbs.

In the Korean proverbs, we can see the terms about the parts of oral region as a tooth, gums, a tongue, a mouth, lips, jaws, a throat and a cheek, and the terms about the anomaly of oral region as an inturned tooth, a bucktooth, a hairlip and a wry-mouth.

There are lots of expressions about the function of eating, drinking, tasting, speaking and esthetics. Proverbs related to toothache, periodontal disease, loss of teeth, anodontia, attrition, oral hygiene can be found.

Loss of jaws means loss of ability and power.

朝鮮時代 後期 齒科醫學史

李 漢 水*

目 次

序 文
本 文
總 論
1. 光海君朝의 醫書
2. 東醫寶鑑의 刊行
Ⅰ) 總目次와 齒科醫學 關係 記錄의 目次
Ⅱ) 引用 醫書
Ⅲ) 編輯 體制
Ⅳ) 刊本
Ⅴ) 齒科醫學 關係 記錄
Ⅵ) 齒科醫學 關係 記錄 中의 特記할 事項
Ⅶ) 東醫寶鑑 刊行의 意義와 그 背景
3. 壬辰 丁酉亂 後의 海外와의 醫學 交流
1) 日本과의 交流
2) 明 및 淸과의 交流
4. 西歐 醫術의 傳來와 實證的 醫學의 胎動
5. 仁祖朝의 醫書
6. 鍼灸術의 發達
7. 孝宗朝의 醫書
8. 顯宗朝의 醫書
9. 肅宗朝의 醫書
10. 景宗朝의 醫書
11. 自家 經驗方과 民間 救急醫方의 發達
Ⅰ. 山林經濟
1) 山林經濟의 齒科醫學 關係 記錄
2) 山林經濟의 齒科醫學 關聯 記錄 一括
Ⅱ. 四醫經驗方
Ⅲ. 醫門寶鑑
12. 白光炫의 治腫術
13. 英祖朝의 醫書
14. 正祖朝의 醫書
15. 純祖朝의 醫書
16. 憲宗朝의 醫書
17. 哲宗朝의 醫書
18. 小兒齒科醫學의 發達과 及幼方의 刊行
1. 及幼方의 槪要
2. 及幼方의 齒科醫學 關聯 記錄 內容
19. 齒科法醫學的 知見의 應用 및 普及
1. 增修無寃錄
2. 增修無寃錄大全
3. 增修無寃錄의 齒科醫學 關聯 記錄 內容
20. 西洋醫學과의 接觸과 그 認識
1) 主制群徵의 傳來
2) 星湖僿說의 西洋醫說과 本草論
3) 荷蘭陀小兒方과 西洋收露方의 認知
4) 晝永編과 醫零
5) 種痘奇法의 傳來
6) 人體內外總象辨證說
7) 西洋醫學 漢譯 醫書의 輸入
8) 天主敎의 宣敎 醫療 事業
21. 李宜春의 瘍醫微와 그의 治腫術
22. 朝鮮時代 後期 齒科醫學 槪觀
23. 朝鮮時代의 醫事 制度와 醫人의 社會的 地位
Ⅰ. 朝鮮時代의 醫事 制度
Ⅱ. 朝鮮時代의 醫科 取才 制度
Ⅲ. 朝鮮時代 醫人의 社會的 地位
24. 朝鮮時代 齒科醫學의 總括的 特徵
結 文
主要 參考 文獻 및 英文 抄記

서 문

본 논문은 본지 제6권 제1호에 발표된 저자의 논문인 조선시대 전기 치과의학사의 속편이다.

본 논문에서 조선시대 후기라 함은, 1609년부터 1863년까지의 255년간을 뜻한다. 곧, 광해군(光海君) 원년으로부터 철종(哲宗) 14년까지 이다.

물론 조선시대라고 하면, 순종(純宗) 4년인 1910년까지이나 연구의 편의상 이렇게 설정한 것 뿐이다.

* 서울·李漢水齒科醫院

저자는 본 논문을 통해 그 동안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여 조선시대 후기 치과의학의 발달을 다소나마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이 방면의 보고는 1986년 현재 아직도 거의 없다.

본 문

총 론

조선시대 후기의 우리 문화는 서서히 모든 분야에서 부흥적 새 기운을 보이게 되었고, 그것은 치과의학 부문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이 시기에는 동의보감의 편찬이 완성되었으며, 임진정유란 중에 망실된 의서들의 복간 사업과, 침구술의 발달 들도 있게 되고, 또 중국을 통한 서구 의학의 도입과 더불어 실증적 치과의학(實證的 齒科醫學)의 태동이 미미하나마 있게 되었다.

그 후 계속된 실증적 학풍의 전래는, 전통적 우리나라 치과의학에도 동요를 일으키게 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쇄국 정책으로써 많은 변화를 보이게는 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치과의학 임상면에까지 특기할만한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인 치과의학은 대략 17세기 후반부터는 그 발달의 침체를 면치 못했다.

1. 광해군조(光海君朝)의 의서

광해군(1609—1623) 때에 간행된 의서로서는 5종이 알려졌다. 실록을 비롯한 벽온신방(辟瘟神方)과 지봉류설(芝峰類說)에 따르면, 광해군의 재위 기간인 15년간에는 10회에 걸친 유행성 전염병이 서울을 위시해서 지역적 내지는 전국적 규모로 창궐하였다. 하여 이러한 문제는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기록으로서 당시의 병사자 수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1회만이 있다. 함경도에서 광해군 4년 10월에 여역으로 사망한 자는 2천여명이라 했고, 기타의 경우는 사자 심다(死者甚多), 혹은 여역 대치(癘疫大熾)라 기록되었다.

광해군조의 의서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전해진다.

1) 동의보감(東醫寶鑑)

본서는 허준(許浚)의 편저로서 25권 25책이다. 이 의서는 광해군 2년인 1610년 그 편집이 완성되어, 광해군 5년인 1613년 내의원(內醫院)에서 간행되었다.

본서에 관해서는 보다 자세히 따로 기술하기로 한다.

2) 신찬벽온방(新撰辟瘟方)

본서 또한 광해군 5년인 1613년에 내의원에서 간행했다. 이 책도 허준의 저서로서, 당시 유행성 전염병인 여역(癘疫)이 전국적 규모로 파급되어, 왕명에 의해서 간행되었다. 1권 1책이다.

실록에 따르면, 여역은 그 전해인 1612년 5월 함경도로부터 발생하여, 서울은 물론 전국에 파급되어 수천명의 희생자가 있었다.

3) 벽역신방(辟疫神方)

본서 역시 광해군 5년인 1613년의 허준의 저서로서 내의원에서 간행되었다. 이 책은 그 전해부터 유행되기 시작하던 여역이 그 해 여름 이후부터는 다시 독역(毒疫·唐毒疫)까지 함께 유행하기 시작하여 왕명에 따라 화급히 간행된 것이다. 1권 1책이다.

4) 이양편(二養編)

본서는 광해군 10년인 1618년에 간행되었다. 조탁(曺倬)의 저서이다. 그 상편은 6권이고, 하편은 3권이다. 내용은 주로 양생과 운기(運氣)와 섭생 그리고 치병(治病)등에 관한 것이다.

5) 수양총서류집(壽養叢書類輯)

본서는 광해군 12년인 1620년에 간행되었다. 이창정(李昌庭)의 저서로서, 상하 2권인 본서에는 섭생과 양생 그리고 약물과 구급 단방(救急單方)을 취급했다.

이상의 의서 중에서, 치과의학 부문에 관한 기록이 다소나마 있을 가능성을 지닌 것은, 첫번째의 동의보감을 제외하고는 이양편과 수양총서류집 등 2종이다.

그런데 이 2종은 모두가 당시까지 알려졌던 중국의 의서들을 참조한 것으로 추찰되어, 새로운 치과의학 관계의 기록이 있을 것으로는 일단 고찰되지 않는 것들이다. 김두종(金斗鍾)은 그의 저서 한국의학사에서 수양총서류집은 의방서(醫方書)가 아니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저자는 동서(同書)의 성격은 물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보건 위생과도 연관은 되는 것이라 일단 기록에는 남긴다.

허나 광해군조의 동의보감을 제외한 전기한 의서들이 과연 당시 국내적으로 어느 정도로 일반에게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점에는 아무 자료도 저자로서는 얻지 못하였다.

2. 동의보감(東醫寶鑑)의 간행

동의보감은 16세기 말까지의 우리 나라와 중국의 의학 및 치과의학의 정화(精華)를 총 망라한 의서이다. 본서는 근세 조선의 의학과 치과의학 발달의 큰 기초를 마련하였을 뿐아니라, 고금을 통한 우리 나라의 대표적

의서의 하나이기도 하다.

본서의 편저자(編著者)는 그 편저의 작업 초기에는 허준(許浚), 정작(鄭碏), 양예수(楊禮壽), 김응탁(金應鐸), 이명원(李命源), 정예남(鄭禮男) 등 6명이었다. 이들 중, 정작만이 유의(儒醫)이고, 기타의 5명은 태의(太醫·內醫院 所屬 醫官)이었다.

그런데 그 편저의 작업 도중, 정유난(丁酉亂)을 만나 허준 외의 사람들은 흩어져, 그 때부터는 허준만이 단독으로 그 편저 작업을 완성시켰다.

즉, 본서는 왕명에 따라, 허준이 선조(宣祖) 29년인 1596년부터 그 편저에 착수하여, 그로부터 14년 후인 광해군(光海君) 2년인 1610년에 그 작업을 마쳤다. 그리고 그 간행은 그로부터 다시 3년 뒤가 되는 1613년에 되었다. 본서는 25권 25책이다.

원본의 서문에 따르면, 선조는 그의 31년인 1598년 허준에게 단독으로 그 작업을 계속하도록 명할 때에, 그 당시까지 궁중에 소장되었던 의서 5백권도 고증의 자료로 삼도록 하였다.

허준(許浚)의 호(號)는 구암(龜巖), 자(字)는 청원(淸源), 본관은 양천(陽川), 그는 1546년 4월 15일 김포군 양천면(현재의 서울 영등포구 가양동)에서 부친 허론(許碖)과 모친 손씨(孫氏) 사이의 차남으로 출생하였다. 그는 가락국(伽洛國)의 시조인 김수로(金首露)의 왕비 허씨(許氏)의 20대손이라 한다. 군인 가정의 서자(庶子)로 태어나, 경남 산청(山淸)에서 크면서 류의태(柳義泰)에 사사하여 의학을 공부하였고, 선조 7년인 1574년 의과에 등과하여 그 이듬해에 30세로 내의원 의관이 되었다. 양평군(陽平君), 정일품(正一品)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충근정양호성공신(忠勤貞亮扈聖功臣) 삼등(三等), 광해군 7년인 1615년 11월에 70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그는 곧 근세 조선의 의성(醫聖)이라 할 수 있다.

저서로서는 동의보감 외에 언해찬도방론맥결집성(諺解纂圖方論脈訣集成), 언해두창집요(諺解痘瘡集要),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産集要), 언해구급방(諺解救急方) 등이 있다.

Ⅰ. 총목차(總目次)와 치과의학 관계 기록의 목차

목록 상하 2권(目錄 上下 2卷)

內景篇(附, 修養, 養老)

卷一 身形, 精, 氣, 神

卷二 血, 夢, 聲音, 言語, 津液, 痰飮

卷三 五臟六腑, 肝臟, 心臟, 脾臟, 肺臟, 腎臟, 膻腑, 胃腑, 小腸腑, 大腸腑, 膀胱腑, 三焦腑, 胞, 蟲

卷四 小便, 大便

外景篇

卷一 頭, 面, 眼

卷二 耳, 鼻, 口舌, 牙齒, 咽喉, 頸項, 背

卷三 胸, 乳, 腹, 臍, 腰, 脇, 皮, 肉, 脉, 筋, 骨

卷四 手, 足, 毛髮, 前陰, 後陰

雜病篇

卷一 天地運氣, 六十歲主客民病, 審病, 辨證, 診脈, 用藥, 吐, 汗

卷二 風, 寒(上)

卷三 寒(下), 暑, 濕, 燥, 火

卷四 內傷, 虛勞

卷五 霍亂, 嘔吐, 咳嗽

卷六 積聚, 浮腫, 脹滿, 消渴, 黃疸

卷七 痎瘧, 瘟疫, 邪祟, 癰疽(上)

卷八 癰疽(下), 諸瘡

卷九 諸傷, 解毒, 救急, 怪疾, 雜方, 諸法

卷十 婦人

卷十一 小兒

湯液篇

卷一 湯液序例, 水部, 土部, 穀部, 人部, 禽部, 獸部

卷二 魚部, 蟲部, 果部, 草部(上)

卷三 草部(下), 木部, 玉部, 石部, 金部

鍼灸篇

鍼灸

치과의학 관계 목차

치과의학 관련 목차는 물론 이것만이 특별히 따로 기록된 것은 아니다. 저자가 본서의 외형편(外形篇) 권 2에 있는 6, 구설(口舌)과, 7, 아치(牙齒) 조목을 조사 작성한 것이다.

6) 구설(口舌)

1. 입을 옥지(玉池)라고도 함.
2. 혀는 심(心)에 속함.
3. 구순은 비(脾)에 속함.
4. 맥법(脈法).
5. 구설은 오미(五味)를 주관함.
6. 입에 신맛이 돌 때. 口酸.
7. 입에 쓴맛이 돌 때. 口苦.
8. 입에 단맛이 돌 때. 口甘.

9. 입에 매운맛이 돌 때. 口辛.
10. 입에 짠맛이 돌 때. 口醎.
11. 입에서 악취가 날 때.
12. 구미(口糜·口內炎)
13. 허화(虛火)와 구창(口瘡).
14. 순종(脣腫)과 순창(脣瘡).
15. 견순(繭脣·蚕脣)
16. 설종(舌腫).
17. 중설(重舌).
18. 중설을 마찰시키는 방법.
19. 목설(木舌·舌癌)
20. 설뉵(舌衄).
21. 설장(舌長)과 설단(舌短).
22. 혀에 태(苔)가 나는 경우. 舌上生苔.
23. 혀를 마찰시키는 방법.
24. 혓바늘이 돋을 때. 舌生芒刺.
25. 구설(口舌)의 크기.
26. 기지개와 하품으로 턱이 빠질 때. 失欠脫頷.
27. 혀 또는 볼이 깨물릴 때. 自嚙舌頰.
28. 침을 흘릴 때. 口流涎.
29. 입을 열지 못할 때. 口噤不開.
30. 순설(脣舌)로써 병을 감별하는 방법. 視脣舌占病
31. 소아(小兒)의 구설병(口舌病).
32. 구설창(口舌瘡)에 사용되는 약.
33. 구설창의 외치법(外治法).
34. 주객(酒客)의 후설(喉舌)의 창(瘡).
35. 입에 벌레가 들어갔을 때. 諸虫入口.
36. 혀가 끊어졌을 때. 補舌斷方.
37. 구설 질환용 단방약(單方藥).
38. 구설 질환 때의 침구법.

7) 아치(牙齒)

1. 치아와 골과의 관계. 齒者骨之餘.
2. 상하은(上下齦)은 수족(手足)의 양명맥(陽明脈)에 속함. 上下齦屬手足陽明.
3. 치통으로써 오한 및 악열이 있을 경우. 齒病惡寒惡熱.
4. 치아의 변화. 齒牙盛衰.
5. 치아의 명칭. 齒牙異名.
6. 맥법(脈法).
7. 7종의 치통. 齒病有七.
8. 치아의 동요. 牙齒動搖.
9. 치아의 탈락. 落齒.
10. 귀(耳)와 코(鼻)에 넣어 치통을 치료하는 약. 塞耳鼻止牙齒痛.
11. 충치통의 치료법. 出牙虫殺虫法.
12. 감닉창(疳蝕瘡)의 치료. 牙齒疳蝕瘡.
13. 아감(牙疳)의 치료.
14. 치아 색채의 이상. 齒黃黑.
15. 치옹(齒壅)의 치료. 消齒壅法.
16. 치아가 점차로 크는 경우. 牙齒漸長.
17. 투치(鬪齒)의 치료.
18. 치뉵(齒衄)의 치료.
19. 개치(齘齒)의 치료.
20. 통치(痛齒)의 비외과적인 발치법. 去痛齒不犯手方.
21. 낙치(落齒)의 재생법(再生法). 落齒重生法.
22. 산(酸)으로 인한 치아의 손상. 食酸齒齲.
23. 치병에 문지르는 약. 齒病塗擦方.
24. 치병에 쓰는 함수제. 齒病含漱方.
25. 수양(修養)으로써 고치(固齒)시키는 방법. 修養固齒方.
26. 치병일 경우의 금기(禁忌) 식품. 齒病禁忌.
27. 치아 색채에 의한 병세의 감별법.
28. 치과용 단방약(單方藥).
29. 치과 침구법.

총목록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내경편에서는 주로 내과 영역의 질환을 다루었고, 외경편에서는 주로 외과 영역의 그것을 취급했으며, 잡병편에서는 주로 진단학 분야에 속할 사항과 부인과 및 소아과에 관련되는 것들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탕약편에서는 약리학 분야를 다루었으며, 침구편이 따로 취급되었다.

이상의 목록을 일괄할 때에, 본서는 근세의 의학 및 치과의학 전서로서 그 내용에 미흡됨이 거의 없다고 해야만 될 것이다.

치과의학 관계의 총 67조목에 달하는 그 내용을 살피면, 대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수록되었다.

구강해부학	치아형태학
구강병리학	구강생리학
구강진단학	구강외과학
소아치과학	구강치료학
구강보건학	치과약리학
치과조제학	치과침구법

물론 본서에는 치과의학 관계의 기록이 단지 구설문(口舌門)과 아치문(牙齒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기타 여러 개소에도 단편적인 언급이 있기는 하나, 번잡을 피하기 위해 그것은 생략한다.

Ⅱ. 인용 의서

동의보감은 총 75종의 의서를 참고 문헌으로 삼았다.

그중 우리나라 의서이리라 고찰되는 것은 3종이다.

복서에 채택된 우리 고유의 의서는, 세종조의 의방류취(醫方類聚) 및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그리고 선조조의 의림촬요(醫林撮要)이다.

총 75종 중, 71종에 달하는 중국 의서는 대략 별표와 같다. 일반적으로 후한 남북조(後漢南北朝)로부터 명(明)나라에 이르기까지의 1638년 간에 간행되었던 의서로서, 그 대표적인 것으로 정평이 있는 것은 83종인데, 그 83종 중의 거의 대부분이 본서에서는 채택되었다.

먼저 복희(伏羲)의 저서로 알려진 천원옥책(天元玉册), 신농(神農)의 본초(本草), 황제(黃帝)의 소문 및 영구경(素門·靈樞經), 동군(桐君)의 채약대(採藥對)와 채약별록(採藥別錄), 뢰교(雷敎)의 지교론(至敎論)과 약성포구(藥性炮炙), 이윤(伊尹)의 탕액본초(湯液本草), 편작(扁鵲)의 난경(難經) 등등, 그 연대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전설적인 색채까지 엿보이는 유명(有名) 의서들을 위시해, 후한 때부터의 그 인용 의서들은 대략 별표와 같다. (김두종의 저서 한국의학사에서 참고)

書名	年代	著者名	書名	年代	著者名
傷寒論	後漢	張仲景	三因方	〃	陳無擇
金匱玉經	〃	〃	聖惠方	〃	諸太醫撰
內照圖	〃	華陀	聖濟總錄	〃	〃
甲乙經	西晋	皇甫謐	宣明論	金	劉完素
范汪方	東晋	范汪	原病式	〃	〃
脈經	西晋	王叔和	素問元機	〃	〃
脈訣	〃	〃	明理論	〃	成無己
金匱藥方	晋	葛洪	儒門事親書	〃	張從政
肘后方	〃	〃	東垣十書	元	李杲
藥對	後周	徐之才	醫壘元戎	〃	王好古
集驗方	〃	姚僧垣	醫家大法	〃	〃
病源	隋	巢元方	湯液本草	〃	〃
外臺秘要	唐	王燾	丹溪心法	〃	朱震亨
千金方	〃	孫思邈	玉機微義	〃	劉純
食療本草	〃	孟詵	衛生寶鑑	〃	羅謙甫
本草拾遺	〃	陳藏器	得効方	〃	危亦林
素問註	〃	王氷	養生主論	〃	王珪
玄珠密語	〃	〃	永類鈐方	〃	李仲南
明堂圖	〃	甄權	證治要訣	〃	戴元禮
本草音義	〃	〃	百病鉤玄	明	王履
古今錄驗方	〃	甄立言	續醫說	〃	倪維德
本事方	宋	許叔微	傷寒瑣言	〃	陶華
備用本草經史證	〃	唐愼微	經驗良方	〃	鄒福
本草補遺「類」	〃	寵安常	婦人良方	〃	熊宗立
活人書	〃	朱肱	醫學正傳	〃	虞搏
神應鍼經	〃	許希	醫學權輿	〃	〃
活幼新書	〃	陳文中	醫學集成	〃	〃
脈訣	〃	劉元賓	丹溪心法附餘	〃	方廣
醫說	〃	張擴	醫通	〃	韓懋
傷寒指迷	〃	錢乙	醫林集要	〃	王璽
小兒方	〃	〃	醫學綱目	〃	明人所著
直指方	〃	楊士瀛	醫學入門	〃	李梴
日華子本草	〃	宋人	明醫雜著	〃	王綸

(계속)

書 名	年 代	著 者 名	書 名	年 代	著 者 名
丹 溪 附 餘	〃	〃	萬 病 回 春	〃	〃
本 草 集 要	〃	〃	外 科 發 揮	〃	薛 己
古 今 醫 鑑	〃	龔 信	醫 方 集 畧	〃	明人所著

위의 인용 의서 명목 외에도, 엄밀히 조사해 보면, 그 인용 의서는 더 있다. 그 일례로서, 저자는 치과의학 관계 부문의 인용 의서를 조사한 결과, 상기한 김두종의 보고에는 빠진 것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점에 관해서는 후술하는 치과의학 관계 부문에서의 그 인용 의서에서 언급한다.

치과의학 관계 부문의 인용 의서

동의보감의 치과의학 관계 기록이 있는 구설문(口舌門)과 아치문(牙齒門)에 인용된 의서의 총 수는 44종이다.

이 44종 중에는 물론 엄밀히 따지면 의서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도 있으나, 일단 그 인용 의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의학입문(醫學入門)
세의득효방(世醫得效方)
단계심법부여(丹溪心法附餘)
직지방(直指方)
고금의감(古今醫鑑)
의학정전(醫學正傳)
삼인극일병증방(三因極一病證方)
영구경(靈樞經)
상한지미론(傷寒指迷論)
명리론(明理論)
유문사친서(儒門事親書)
상한론(傷寒論)
자생경(資生經)
위생보감(衛生寶鑑)
담료방(澹寮方)
양생주론(養生主論)
화제국방(和劑局方)
탕액본초(湯液本草)
주후방(肘後方)
구선활인심(臞仙活人心)
황정경(黃庭經)
맥결(脉訣)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
본초강목(本草綱目)
동원십서(東垣十書)
만병회춘(萬病回春)
천금방(千金方)
난경(難經)
의방류치(醫方類聚)
본사방(本事方)
의림집요(醫林集要)
의설(醫說)
황제내경(黃帝內經)
엄씨제생방(嚴氏濟生方)
종행(種杏)
연수(延壽)
하간(河間)
가감십삼방(加減十三方)
의루원계(醫壘元戒)
한사(漢史)
회남자(淮南子)
집험方(集驗方)
위생이간방(衛生易簡方)
서죽당경험방(瑞竹堂經驗方)

이상과 같은 저자의 조사를 보면, 전기했던 김두종이 보고한 의서 서목 중에는 없는 의서를 발견할 수가 있다.

동의보감만이 아니라, 의학 고서(古書)에는 흔히 그 서명(書名)이 약기(略記)되었다. 예컨데 득효방(得効方)이라 함은 세의득효방(世醫得効方)이고, 성혜방(聖惠方)이라 함은 태평성혜성(太平聖惠方)을 약한 것이다. 해서 어떠한 경우는 무엇을 약기(略記)한 것인지 해득하기 어려운 수도 있다. 곧, 위에 기록한 인용 의서 서목 중에도 그러한 예가 있다. 종행(種杏), 연수(延壽), 하간(河間), 혹은 한사(漢史)등등은 저자로서 정확히 해득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뿐아니라 기타의 서목 중에도 그 일부에 있어서 해득의 잘못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후학의 즐정(叱正)을 바란다.

중국 고금의 의서들 중에서 정평있는 83종의 의서명

을 들면 별표와 같다. 곧, 동양의학의 정수(精髓)를 이루는 의서이다. 이러한 의서들은 우리나라 의약 발달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이러한 의서가 본서에서는 인용 참고된 것이다.

中國歷代醫書中의 代表的이라 定評있는 名著書目錄 總83卷

醫書名	年代	著者名	醫書名	年代	著者名
天元玉冊	?	伏羲	直指方	宋	楊士瀛(登父)
本草	?	神農	日華子本草	〃	不明
靈樞經	?	黃帝	三因方	〃	陳無擇
素問	?	〃	聖惠方	〃	太宗時, 諸醫共著
採藥對	?	桐君	聖濟總錄	〃	〃
採藥別錄	?	〃	宣明論	金	劉完素(守眞)
至敎論	?	雷敎	原病式	〃	〃
藥性炮炙	?	〃	素問玄機	〃	〃
湯液本草	殷朝	伊尹	明理論	〃	成無己
難經	戰國	扁鵲	儒門事親書	〃	張子和(從政)
傷寒論	後漢	張仲景(機)	東垣十書	元	李東垣(杲)
金匱玉函經	〃	〃	醫壘元戎	〃	王好古(海藏)
內照圖	〃	華陀(元化)	醫家大法	〃	〃
甲乙經	西晋	皇甫謐(士安)	湯液本草	〃	〃
針經	〃	〃	丹溪心法	〃	朱震亨(彦脩)
范汪方	東晋	范汪	玉機微義	〃	劉純(宗厚)
脈經	西晋	王叔和	衛生寶鑑	〃	羅謙甫(益之)
脈訣	〃	〃	得効方	〃	危亦林(達齊)
金匱藥方	晋	葛洪(稚川)	百病鉤玄	明	王履(安道)
肘後方	〃	〃	續醫說	〃	倪維德(仲賢)
藥對	後周	徐之才	傷寒瑣言	〃	陶華(尙文)
集驗方	〃	姚僧垣	經驗良方	〃	鄒福
外臺秘要	隋	王燾	婦人良方	〃	熊宗立(道軒)
病源	〃	巢元方	醫學正傳	〃	虞搏(天民)
千金方	唐	孫思邈(地仙)	醫學權輿	〃	〃
食療本草	〃	孟詵	醫學集成	〃	〃
本草拾遺	〃	陳藏器	丹溪心法附餘	〃	方廣(約之)
素問註	〃	王氷	養生主論	元	王珪(均算)
玄珠密語	〃	〃	永類鈐方	〃	李仲南(棲季)
明堂圖	〃	甄權	證治要訣	〃	戴元禮(復庵)
本草音義	〃	甄立言	醫通	明	韓懋(飛霞道人)
古今錄驗方	〃	〃	醫林集要	〃	王璽
本事方	宋	許叔微	醫學綱目	〃	不明
備用本草經史證類	〃	唐愼微	醫學入門	〃	李梴
本草補遺	〃	龐安常	明醫雜著	〃	王綸(汝言)
活人書	〃	朱肱(無求)	丹溪附餘	〃	〃
神應鍼經	〃	許希	本草集要	〃	〃
活幼新書	〃	陳文中	古今醫鑑	〃	龔信
脈訣	〃	劉元賓	萬病回春	〃	〃
醫說	〃	張擴(豫充)	外科發揮	〃	薛己
傷寒指迷論	〃	錢乙(仲陽)	醫方集略	〃	不明
小兒方	〃	〃			

Ⅲ. 편집 체제

동의보감의 편집 체재는, 그 기록 내용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매우 질서 정연하다.

먼저 그 전체를 크게 5가지, 내경(內景), 외형(外形) 잡병(雜病), 탕액(湯液), 침구(鍼灸) 편으로 나누고, 이어 각 편을 다시 항(項)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다시 각 항은 목(目)으로 세분했다. 이를테면, 치과의학 관계인 외형편 권 2의 6, 구설(口舌)은 항(項)이고, 그 다음에 열기(列記)된 것은 목(目)이다.

구설의 항을 본다면, 먼저 그 목으로서 그 항에 해당되는 병론이 인용된 서명을 밝히면서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는 역시 목으로서 전기한 바와 같은 여러 내용들이 기록되었다. 아치의 항도 역시 그러하다. 모든 치방(治方·藥方)은 질서있게 그 출전을 명기하면서 연대순으로 기록되었다.

그 기록은 번잡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간략하지도 않은 적절한 것이다. 곧 저자의 놀라운 정리 작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7) 아치(牙齒)

1) 치아와 골과의 관계.

치아는 골의 나머지이니 신(腎)이 그 영양의 공급을 맡고 있으며, 호흡하는 문호(門戶)가 되는 기관이다.(득효·得效)

치아는 골의 마지막이요, 수(髓)의 기르는 바가 되며, 신(腎)이 주관하는 까닭에, 경(經)에서는 말하기를, 신이 쇠하면 치아도 약화되고, 정(精)이 성하면 치아도 견고하며, 허열(虛熱)하면 치아는 움직이는 법이다.(직지·直指)

치아는 골에 속하니 신(腎)의 표(標)가 된다. (입문·入門)

Ⅳ. 간 본(刊本)

동의보감이 활자로써 처음 간행된 때는, 광해군 5년인 1613년이다. 곧, 중국의 경우는 명(明)의 신종(神宗) 때가 되는 만력(萬曆) 41년이다. 곧 본서의 초간본(初刊本·初版) 뒤에는 萬曆 41年 11月 內醫院 奉敎刊行이라 하였다.

본서는 그 후 영조(英祖 1725—1776) 때와 순조(純祖 1801—1834)때에 중간(重刊)된 것이 확실하다.

동의보감은 중국과 일본에서도 그 후 그 진가가 높이 평가되었다. 중국의 경우는 본서가 청(淸)나라 때인 1763년과 1796년 그리고 1890년에 각기 간행되었고, 민국(民國) 상해석인본(上海石印本)은 지금도 그 곳에서 크게 알려진 의서일 뿐아니라, 최근에는 대만에서도 그 영인본이 애용된다. 일본의 경우는 1724년과 1799년에 각기 인쇄되었다. 일본에서는 본서가 保民丹經, 醫家私笈이라 하며 왕명으로써 간행되기까지 하였다.

Ⅴ. 치과의학 관계 기록

동의보감의 치과의학 관계 기록을 크게 요약하면 대요 다음과 같다.

1. 구강해부학

치아 조직은 골조직과 동일하다. 그 영양은 수(髓)가 담당한고 신(腎)이 주관한다.

치아에는 수족양명맥(手足陽明脈)이 분포되었다. 상악 치은에는 족양명위(足陽明胃)가 분포되었고, 하악의 치은에는 수양명대장(手陽明大腸)이 분포되었다.

구전(口前)의 양대치(兩大齒)는 판치(板齒)라 하며, 그 양옆의 긴 치아는 아치(牙齒)라 하고, 치은 제일 뒤에 나오는 치아를 진아(眞牙)라 한다. 치아의 은(齦)은 아상(牙床)이라 한다.

치아의 교환은, 남자는 8세부터 시작되며, 여자는 7세부터 있게 된다. 유치는 생후 8개월만에 나기 시작한다. 직아(眞牙·智齒)는 남자의 경우는 24세, 여자는 21세에 맹출된다.

치아는 40세에 마르기 시작하여, 64세에 탈락된다.

구설(口舌)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구순으로부터 치아에 이르는 거리는 9푼(分)이고, 입의 넓이는 2치반(2寸半)이다. 치아 뒤로부터 회염(會厭)에 이르는 거리는 3치반(3寸半)이며, 구강의 용적(容積)·大容)은 5홉(合)이다. 혀의 무게는 10량(兩)이며, 그 길이는 7치(寸)이고, 넓이는 2치반(2寸半)이다.

구강(口腔·玉池)의 타액(唾液·淸水·津液)은 혀(舌·靈根)로 흐른다.

혀는 심(心)의 관(官)이 되니, 오미(五味)를 맛보는 일을 주관한다.

심(心)의 본맥(本脈)은 설근(舌根)에 매였고, 비(脾)의 낙맥(絡脈)은 설방(舌傍)에 매였다. 간맥(肝脈)은 음기(陰器)를 따라 설본(舌本)에 연락되며, 신(腎)의 진액(津液)은 설단(舌端)에 나와서 오장(五臟)으로 분포되는 것을 심(心)이 주관한다.

2. 구강병리학 · 구강생리학 · 구강치료학

치아우식증의 발생 원인은, 음식을 든 후에 치아를 닦지 않아 그 음식물의 나머지가 입안에서 부패되서 그 기(氣)가 치아에 구멍을 생기게 하며 그 곳을 충이 파먹게 되는 까닭이다. 치아우식증은 전염성이 있다.

치통은 위중(胃中)의 습열(濕熱)이 그 원인이다.

치통이 바람을 마실 때에 심하면, 위에 풍사(風邪)가 있는 까닭이다.

구강에 악취가 심한 것은, 장위(腸胃)에 적열(積熱)이 있는 까닭이다.

치은에 종(腫)이 생기고 아픈 것은, 위열(胃熱)이 있기 때문이다.

치통이 있으면서 치아의 동요가 있는 경우는, 신원(腎元)이 허(虛)한 까닭이다.

치아에 구멍이 있는 경우는, 충식(虫蝕)이 그 원인이다.

치통은 다음 7종으로 분류된다.

풍열통(風熱痛)	풍냉통(風冷痛)
열통(熱痛)	한통(寒痛)
독담통(毒痰痛)	충식통(虫蝕痛)
어혈통(瘀血痛)	

풍열통은 치은이 붓고 배농이 있으며 악취가 나는 것이다.

풍냉통은 치은은 붓지도 않고 충도 아니면서 치아가 동요되는 것이다.

열통은 장위(腸胃)의 적열(積熱)로써 치은이 붓고 구취가 심한 것이다.

한통은 한사(寒邪)가 뇌(腦)를 침범한 것이 그 원인이다.

독담통은 담(痰)이 심하며 해타(咳唾)하는 것이다.

충식통은 치아를 청결히 하지 않아, 음식의 썩은 기(氣)가 축적되어, 치은에 구멍이 생기고, 그 사이를 충이 먹어 생긴다.

충은 치아 한 개를 다 먹으면 다시 그 나머지들도 먹는다. 감닉(疳蟹)과 같은 것이 그러한 종류이다. 해서 반드시 그 충을 죽여야 그 동통은 멈춘다.

우(齲)란 치아의 벌레이니, 치충이 먹어서 아픈 증(症)이다.

치병(齒病)은 골조풍(骨槽風 · 骨炎)이 되어 출혈되며 뼈가 드러나는 일도 있다.

어혈통은 풍열(風熱)이 은간(齦間)에 작용하여 출혈되며, 어(瘀)가 체(滯)하여 마치 침으로 찌르듯 아픈 경우다.

취아충법(取牙虫法) : 충치통을 치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편와(片瓦 · 기와의 작은 파편) 위에 기름을 조금 떨어 트리고, 또 구자(韭子)를 놓아 연기가 나도록 사르고, 그것을 물그릇 속에 넣되 물속에는 잠기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그것을 누두(漏斗)로 덮어서, 충아(虫牙)가 그 연기를 받도록 하면 아내(牙內)의 충은 모두 물그릇 속으로 떨어진다. 이러한 방법을 반복하면 점차 효과가 있다. (강목 · 綱目)

② 구채두(韭菜頭)를 연근(連根)채로 송진(松脂)이 많은 소나무 판자(板子)위에 있던 진흙과 함께 혼합시켜 바르고, 그것을 아픈 치아와 볼(腮上)에 종이로 덮어두면, 조금 지난 뒤에는 세충(細虫)이 니약(泥藥)으로 나와 치통을 근절시키게 된다. (득효 · 得効)

③ 충치가 오래된 것을 치료하려면, 작맥초(雀麥草)를 고호엽(苦瓠葉) 30매에 달린 이슬에 씻어 하룻밤 재우고, 그 이튿날 아침에 작맥초를 다시 내어 접어서, 그 길이가 2치(寸) 넓이 1치, 두께가 5푼(分)으로 한다. 그리고 고호로 그것을 싸서 초(醋)에 담가 두었다가 오정(午正)때쯤 그 중의 2개를 내서 뜨겁게 구어(炮) 그중의 한 개는 충치에 붙이고 또 한 개는 바깥 볼에 붙인다. 이어 그 위에 다리미질(熨)을 해서 뜨겁게 하고 그것이 식으면 교환한다. 그리고 한동안 지낸 뒤에 동기(銅器)에 물을 떠서 붙였던 약을 씻어보면, 그 때에는 충이 많으면 30—40마리, 적으면 10—20마리가 보인다. 그 때 보기에 황적색인 것은 늙은 충이고, 백색인 것은 젊은 충인 것이다. (천금 · 千金)

낭탕자(莨菪子)의 3홉(合)을 병에 넣고, 청동전(青銅錢) 7개를 빨갛게 불에 달구어 넣으면, 낭탕자가 소리를 내며 연기가 날 것이다. 그러면 죽관(竹管)으로 그 연기를 끌어 환치에 대면, 충은 나오고 치통은 그친다. 혹 낭탕자가 없으면 총자(葱子), 구자(韭子)를 이용해도 좋다. (천금 · 千金)

귀와 코를 막아 치통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 곧 그 약은, 1) 웅황정통고(雄黃定痛膏), 2) 살충환(殺虫丸), 3) 색이약(塞耳藥), 4) 곡래소거산(哭來笑去散), 5) 치아통방(治牙疼方)이다. 첫번째와 두번째 및 세번째의 약은 귀에 넣는 약이고, 네번째와 다섯번째의 것은 코에 넣는 약이다.

첫번째와 두번째의 것은, 치통이 우측에 있으면 우측 귀에 넣고, 좌측이면 역시 좌측에 넣는다.

그런데 세번째의 것은 치통이 우측에 있을 적에는 그와 반대되는 좌측에 넣는 것이다. 좌측이면 우측에 넣

는다.

코에 넣는 약은, 네번째와 다섯번째의 것이다.

네번째의 약은, 남자의 치통일 경우는 좌측에, 여자의 그것일 때에는 우측에 불어넣는 것이다. 男左女右吹入鼻中이다.

다섯번째의 약은 치통 발생이 우측이면 역시 동일측인 우측 코에 불어 넣는다.

저자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러한 약과 사용 방법은, 본서에서 처음 발견되는 일은 아니다. 의방류취(醫方類聚)에도 그 자세한 기록이 있는 것이라, 여기서는 그 처방 내용을 생략한다.

3. 구강와과학

본서에서 가장 많이 취급한 것이 구강외과 분야에 속할 여러 질환인 점은, 이미 언급한 치과의학 관계 목차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을 터이다.

해서 여기서는 중복과 번잡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며, 다만 4가지 점을 지적하기로 한다.

① 구순암(口唇癌·繭唇·緊唇·潘唇)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것은 기병(奇病)에 속한다 라고 하고, 이 병은 구순이 긴소(緊小)해져서 개합(開合)을 하지도 못하며, 또 음식을 들지도 못해 급히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치료의 약방으로서는 약 10종을 기재하였다. 설암(舌癌)의 기록도 있다.

② 통치(痛齒)를 발거하는 경우라 하여, 본서에는 여기에 관한 것을 하나의 목(目)으로 따로 취급하였으나, 그 내용은 외과적인 발치 수술법은 아니라 하는 점이다.

그 내용은 발치하고저 하는 치아에 약을 문지르든가, 발치할 치아 부위에서 피를 조금 내고 점약(點藥)하면 발치된다든가, 혹은 치근 부위에 점약을 하면 발치가 된다는 것들이고, 일체 외과적인 술법에 관한 것이라고는 없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다만 발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본서의 치과 관계 기록 중 어디에도 외과적 수술법은 없는 것이다.

③ 치아 재이식(再移植)에 관한 기록이 있다. 치아가 상타(傷打)를 입어 빠졌어도, 혈사(血絲)가 끊어지지 않은 경우는 치은간(齒齦間)에 약을 발라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기록이다.

④ 구설 생창(口舌生瘡)과 구창(口瘡)의 치료법으로 특이한 료법이 있다.

하나는 탁족법(濯足法)이고, 또 하나는 화독법(化毒法)이다.

탁족법은 구설 생창의 경우, 백반(白礬) 2—3양(兩)을 분말로 해서 열탕에 타서, 발을 반일(半日)동안 그 안에 담그는 치료법이다.

화독법은 더욱 신기한 방법이다. 구창일 경우, 밤에 누워서 자신의 음낭(陰囊·兩丸)을 양수(兩手)로 30—50번 주무르고, 다시 잠이 깬 후에도 그렇게 반복하면 점차 효과가 있다.

4. 구강보건학

구강 보건에 관해 비교적 많은 기록이 있다. 7종의 중국 의서와 우리나라 의서인 의방류취에서 인용 기재하였다.

① 치석 제거를 권장했다. 그것은 침도(鍼刀)로 했다. 치아를 다스리는 사람은 먼저 치석(齒石·齒牀)을 제거하고 약을 써야 한다. 치석을 제거치 않으면 치아는 잇몸과 부착되지 않는다.

② 구치(口齒)의 양생(養生·保健)은 신체 다른 부위의 그 어느 양생보다 앞선다. 조석으로 음식을 든 다음에는 꼭 양치하고, 소금물 혹은 농다(濃茶)로 함수(含嗽)한다. 그것은 곧 치아우식증과 치질(齒疾)의 예방은 물론이고 치아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③ 치아 보건에는 고치(叩齒)가 좋다. 고치란 상하의 치아를 서로 마주치게 하는 것이다. 매일 새벽 소금으로 온수(溫水)에 양치하고 백번씩 고치하면, 치환(齒患)으로 치아가 드러나 과채(果菜)조차 먹지 못하는 경우라도 불과 5일만에 효과를 본다.

④ 치아 질환에 금기(禁忌)인 음식물은 유류(油類), 건조(乾棗), 계심(桂心)이다.

⑤ 일식(日蝕)과 월식일 때에는 음식을 들지 않는다. 이러한 때에는 치통이 많은 법이라, 음식을 드는 일은 금해야 된다.

5. 치주학

치주학 부문의 기록은 특별히 없고, 다만 전기한 구강 보건 분야의 기록중에 있는 치석 제거에 관한 것만 있을 뿐이다.

6. 치과충전학

특별한 기록이 없다.

7. 치과보철학

일체 치아 보철에 관한 기록은 없다.

8. 교정치과학

교정치과학 분야의 기록은 전혀 없다.

9. 구강진단학

진단학 부문의 기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편작(扁鵲)의 난경(難經)에서 인용되었다.

① 구순에 종인 생기고 치아가 초고(焦枯)한 경우는, 비(脾)와 신(腎)이 끊어진 때문이다. 곧 죽게 된다.

② 치아의 색채가 무득 변해서 흑색이 되면 그 후 13일만에 죽는다. 소음(少陰)이 끊어진 때문이다.

③ 치아가 마치 팥(小豆)를 삶아 놓은 것과 같으면 죽는다. 이것은 음양이 모두 마른(竭) 까닭이다.

④ 맥법(脈法)으로서 치아 질환의 원인이 되는 전신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이 기재되었다.

⑤ 구순이 희며 고골(枯骨)과 같이 된 환자는 난치(難治)다. 비병(脾病)이 오래되면 구순은 희게되는 법이다.

⑥ 구순이 뒤집혀지면 난치다. 구순은 육(肉)의 근본이니 이것이 뒤집혀지면 육이 죽는다.

⑦ 구순이 푸르며 란(卵)이 위축하면 반드시 위중하다. 간(肝)의 기(氣)가 끊긴 까닭이다.

⑧ 상한 열병(傷寒熱病)에 있어서, 입이 어구(魚口)같이 되어 다물지를 못하면 죽는다.

⑨ 구순을 벌린지 3일이 되면 난치다.

⑩ 구순이 뒤집혀지고 인중(人中)이 부풀어오르면 난치다.

⑪ 설근(舌根)이 헤어지고 열이 그치지 않으면 역(逆)한다.

⑫ 구순의 종적(腫赤)은 열이 많은 경우이고, 그것이 청흑(青黑)일 경우는 한(寒)이 극심한 경우다.

10. 치과침구법

각종 치과 질환의 경우 침구하는 부위에 관해서 중국 의서에서 각기 인용한 것이 19개 있다.

그 인용 의서와 횟수는 다음과 같다.

본초강목	7회	득효방	5회
자생경	2회	만병회춘	2회
동원십서	1회	삼인방	1회
의학정전	1회		

11. 치과의학 영역 질환의 수(數)

본서에 기재된 치과의학 관계 부문의 질환 수를 정확히 계산하기는 심히 어려운 점이 있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그 첫째의 이유이고, 둘째로는 고서(古書)의 경우 흔히 그 표현법 내지는 용어에 있어서 그 명확성을 기하고 있지 못한 까닭이다. 동양의학은 병증(病證) 위주이나, 서양의학의 경우는 병명(病名) 위주의 것이라는 점을 유의한다면 이 점은 쉬이 해될 터이다.

하지만 저자가 이러한 조사상의 어려움을 유의하면서 조사한 결과, 본서에 기재된 치과 질환 수는 약 64종이다. 그 중 치아 관련의 그것은 약 26종이며, 구설 관련의 그것은 약 38종이다.

12. 치과의학 영역의 약방 수(數)

치과 관계의 약방(藥方·處方)의 수를 정확히 계산하기는 용의하지 않다. 그 어느 것은 과연 그것을 약방이라 해야 될 것인가 심히 분간키 힘든 것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자는 약방이라는 해석을 보다 넓게 잡아 그 총수를 조사하였던 바, 약 280종이다. 이 280종 중에는 단방(單方)인 59종도 포함시켰다.

Ⅵ. 치과의학 관계 기록 중의 특기할 사항

동의보감의 치과의학 관계 여러 기록에 대해 우선 저자는 그 특기할 사항으로서 치아 충전법의 기록이 없는 점을 지적한다.

우와(齲窩)의 충전법은 이미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1433年)과 의방류취(醫方類聚 1477年)등에 기재된 것인데, 본서에서 일체 그에 관한 기록을 발견할 수 없는 점은 지적할만 하다.

둘째로, 성종(成宗 1470—1494) 때의 치과의녀(齒科醫女)이던 장덕(張德) 또는 귀금(貴今)등이 시술했던 발수법(拔髓法)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는 사실도 지적할만 하다.

세째로는 치주 질환에 대한 기록 내용이 거의 없는 점이다. 치주 질환에 관한 기록은, 향약집성방에서 그 연구가 크게 발달된 사실을 보여주는데, 본서에서는 그것이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본서의 간행는 향약집성방이 간행된지 약 170년이 경과된 때인 점을 유의할 적에 이러한 사실은 크게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네째 치아우식증의 발생 원인에 있어서, 본서에서는 단지 그것이 음식을 든 다음에 치아를 깨끗이 닦지 않아, 그 음식의 부패된 기(氣)가 엄지(淹漬)해서, 날이 오래됨에 따라 치은에 구멍이 생기며 그 사이를 충이 먹어 발생된다 라고만 하였다.

향약집성방에서는 이미 그 발생 원인을 3가지로 지적하였는데, 본서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

다섯째, 치과의학 용어(用語)의 정의가 뚜렷하지 않다. 그 용어에 관해서 명확한 정의를 기재한 일은, 향약집성방의 경우이었는데, 본서의 경우는 이 점에 있어 언급이 되지 않았다.

저자는 동의보감을 치과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곧 두가지 방향으로 평할 수가 있다고 주장한다. 본서를 학술적인 입장에서만 본다면, 본서보다 훨씬 이전에 간행된 향약집성방이나 의방류취보다 높이 평가하긴 힘든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본서를 임상적일 실용성 면에서 본다면, 그 편집 내용이나 기록에 있어서 매우 우수한 의서로 평가해야만 하겠다.

다만 치과의학 분야로써만 본서를 평가한다면, 세종(世宗 1419—1450) 시대에 이르러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렀던 학문적 면이, 그 후 약 170년 간에는 그 발전의 정체(停滯)를 보였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기록상으로는 큰 발달이 없는 것이다.

저자는 그러나 이러한 지적도 보다 많은 금후의 연구가 있지 않고서는 경솔히 주장할 것은 물론 아니라 본

다. 이 점은 후학의 연구에 기대할 길 밖에는 없다.

Ⅶ. 동의보감 간행의 의의와 그 배경

동의보감 간행의 배경과 의의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대략 8가지이다.

1. 본서는 고려시대 중기부터 활발히 연구되었던 향약에 관한 관심이, 중종(中宗 1506~1544)때부터 서서히 퇴조되었던 점이 그 간행의 사회적 배경의 하나로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본서 편찬에서 그 기초 자료가 된 인용 의서의 서목(書目)을 볼 때에 확실하다.

본서의 인용 서목으로 채택된 의서의 수는 74종에 달한다. 그런데 그 중의 우리나라 고유의 것으로 그 당시까지 간행되었던 의서 중에서 채택된 것은 불과 3종에 지나지 못한다.

우리 고유의 의서로서 본서에 채택된 것은, 단지 세종조(世宗朝)의 의방류취(醫方類聚)와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선조조(宣祖朝)의 의림촬요(醫林撮要) 뿐이다. 그리고 그 외의 71종은 모두가 중국의 의서들이다. 곧 향약 관계의 의서로서는 단 하나가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후한 남북조(後漢南北朝)시대로부터 수, 당, 송, 원, 명에 이르기까지의 중국 의서로서 대표적이라 정평이 있는 의서의 수는 총 83종이다. 그런데 본서가 정평이 있는 그들 의서만 거의 대부분을 인용 대상으로 삼은 점을 보면, 향약에 관한 신뢰도가 당시에는 이미 상당히 퇴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급성 유행성 전염병의 연속적인 창궐과 각종 질환으로 인한 막심한 사망자의 속출이, 곧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문제로서 크게 대두되었던 점도, 그 배경으로서 지적할 수 있다.

물론 그러하였던 국가적 문제는 본서가 간행될 당시만의 것은 결코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러한 계속적이었던 질병으로 인한 당시의 국가적 불안 요소의 내재는 그 간행의 배경으로서 지적되어야 한다.

본서 편찬에 착수하였던 때는, 선조(宣祖 1568~1608) 29년인 1596년이다. 선조의 즉위로부터 당시까지의 29년간 급성 유행성 전염병이 전국적 내지는 지역적 규모로 크게 발생되어, 많은 사망자가 있었던 경우는 실록에 따르면 무려 19회나 된다. 선조 10년 12월의 경우는 급성 유행성 전염병으로, 영남과 호남 지방에서는 무려 10만여의 사망자가 발생되었다.

실록에 따르면, 당시는 또 거의 매년같이 기근까지도 계속되었다. 하여 농촌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다. 당시의 정치적인 부패, 그로 인해 파생된 농민의 공납과 부역의 증대, 노비의 급증, 농촌 경제의 파탄은 이것이 그대로 민심 수습을 위한 의료 혜택의 보급이라는 본서 간행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의 하나가 되었다.

3. 임진 정유의 난으로, 다수의 전상자와 각종 질병의 만연이 있었음도, 그 간행을 서둘게 한 하나의 배경을 이루었다.

임진과 정유의 두 난으로, 전국적 혹은 지역적 규모로서 각종 악질(惡疾)이 창궐되었던 사실은, 실록에 의하면, 임진난 발생 후인 1593년부터 선조의 말년인 37년, 1604년까지 9회의 기록이 있다. 그 기록을 보면, 여역치발(癘疫熾發), 여역지여 학질대치(癘疫之餘 瘧疾大熾) 또는 계속 여역대치(繼續 癘疫大熾)등등의 표현을 하였다. 그리고 그 규모는 전국적인 때가 2회, 영남만이 2회, 호남이 3회, 경성이 2회이다.

4. 본서 간행 이전까지, 국내에서 간행되었던 각종 의서들의 망실(亡失)과, 또한 그 의서들의 발행 부수는 본시부터 부족했던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본서의 간행 이전까지 이미 발행되었던 의서들 가운데에는 매우 훌륭한 의서들, 이를테면 전기한 향약집성방, 의방류취, 의림촬요들도 있었으나, 그것은 본시부터 그 부수가 기십(幾十)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5. 의학 지식의 축적과 의사(醫事) 제도의 정립, 그리고 우수한 의사들의 확보이다.

조선의 의사(醫事)제도는 그 건국 초부터 정비되기 시작하여, 성종조(成宗朝)에 이르러 거의 정비되었다. 그 후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때를 거치면서 국내의 정치적인 혼란은 있었다 하더라도, 의학 부문에서는 비교적 그 여파가 적었다.

임진란의 경우, 명군의 전상자들을 조선의 의료진이 치료했던 사실은 실록의 기록으로써 확실하다. 이것은 곧 당시의 우수했던 조선의 의학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6. 우리 민족 의학의 자주적 진흥 정신의 발로로서 본서의 간행 의의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조선의 역대 왕조는 중국으로부터 허다한 수모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꾸준히 중국 의학을 도입하여 드디어는 도리어 그들보다도 뛰어난 의학의 발달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동의보감은 간행된 이후, 중국과 일본에서도 계속 높이 평가되어 왔다.

거듭 말하지만, 동의보감은 우리나라 고유의 의학을 포함시킨 넓은 의미의 동양 의학 전체를 충실히 총 정리한 점에서, 그 간행의 뜻은 무엇보다도 크다.

세종조에서 향약집성방과 의방류취를 편집하여 당시

까지의 우리 고유의 의학과 중국의 그것을 총 정리한바 있는데, 전자가 간행된 때는 1433년이고, 후자가 간행된 때는 1477년이었다. 하여 그 후 본서가 간행된 1613년 까지는 약 146년 또는 170년이 경과되었다.

해서 본서 동의보감은, 다시 그 동안의 새 지식과 경험의 축적을 토대로 전체적인 동양 의학의 정리를 기도한 것으로, 본 작업의 배경으로서는 당시의 우리나라 의학의 뛰어난 발달과 역량 그리고 자주적 의식의 발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7. 중국 명(明 1368~1662)나라 의학계의 새로운 조류(潮流)의 영향도 간접적이나마 본서 간행의 배경의 하나로서 지적되어야 한다.

명(明)의 의학은 내용적으로는 금(金)과 원(元)의 연장으로서 설사 학술적인 면에서는 특별히 지적될만한 것이 없다고는 하더라도, 그러나 의학의 보급에 있어서는 일찌기 볼 수 없던 큰 융성을 보였다.

명대의 의사로서 청대(清代)에 편찬되었던 의술명류렬전(醫術名流列傳)에 수록된 사람은 무려 914명이며, 그들의 의서 저술 활동도 활발하였다. 그리고 그들 의서는 수십권 이상되는 것들이 대부분으로, 그것은 총서(叢書) 또는 전집(全集)의 체재를 갖춘 것들이 많았다.

이를테면, 유명한 왕긍당(王肯堂)의 증치준승(證治準繩)은 120권이며, 명대의 대표적 의서인 장개빈(張介賓)의 유경(類經)은 32권, 또 본초학의 집대성으로서 그 때까지의 신비적인 색채가 농후하던 이 방면의 연구에 대해 처음으로 자연 분류(自然分類)를 가한, 이시진(李時珍)의 본초학의 결정판인 본초강목(本草綱目)은 52권에 달하는 그 내용과 규모가 매우 큰 것들이다.

해서 이러한 당시의 이웃나라 명의 의학계 조류는, 곧 본서의 간행 사업에 비록 간접적인 것이라곤 해도 영향을 끼쳤다고 고찰하지 않을 수 없다.

8. 본서는 17세기 초의 우리나라 의학의 새로운 지성(知性)의 표현으로서 그 간행의 의의는 높이 평가될 뿐 아니라 깊이 주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고유의 의서와 중국 의서 중에서, 본서가 간행된 당시까지, 실제로 그 약효가 뛰어난 것들을 임상적 경험을 통해 취사 선택하여 편집한 것이 곧 동의보감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성종 8년 1477년에 간행된 의방류취의 내용보다 본서의 내용이 간결한 점을, 그 하나의 예로 보더라도 쉬 알 수 있다.

의방류취의 치문(齒門)에 수록된 약방의 총수는, 무려 9백여종에 달하는 실로 방대한 갖가지 내용인데 비해서, 본서의 외형편(外形篇) 7, 아치(牙齒)에 기재된 약방의 총수는 불과 1백여종인 사실이다.

본서가 간행되기 이전까지도 우리나라에는 많은 의서들이 있었지만, 그들 의서의 내용과 실제의 임상적 약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었을 점은 짐작되는 일이다. 동서를 막론하고 봉건적인 풍조가 농후하던 시대의 문헌은 거의가 다분히 신비 주의, 혹은 비전(秘傳)주의적 색채가 짙었거니와, 과장과 견강 부회(牽强附會)의 내용이 흔한 점을 유의할 때에, 본서는 곧 그러한 점을 지양하려던 우리나라 17세기 초의 새로운 지성(知性)의 표현이라 고찰한다.

저자는 이러한 견지에서, 본서 간행의 의의는 현재까지 보고된 본서에 관한 여러 연구 보고의 내용과는 달리,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금 새로 평가되어야 마땅하리라 주장한다.

3. 임진 정유란 후의 해외와의 의학 교류

1598년 일본군의 패퇴로써 7년간의 전란이 끝난 뒤, 일본과의 국교가 회복된 때는 선조(宣祖) 40년인 1607년이다. 그 첫번째 우리 측의 수호 사절단 대표로서는 여우길(呂祐吉)이 파견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일본측에서 사절이 파견되어, 광해군 원년인 1609년에는 대마도(對馬島)와 기유조약(己酉條約)을 맺었다. 해서 당시부터 부산포(釜山浦)에는 왜관(倭館)이 설치되어 문물 교류를 보았다. 즉, 대일 무역의 발달은 이때부터로서, 의약 부문에서의 교류 역시 점차 활발히 되었다.

1. 일본과의 교류

양국간 사절단의 교환은 곧 활발한 의약의 교류를 가져왔다.

실록에 따르면, 17세기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갔던 의사는, 그 설명이 확실한 사람만 4명이다.

광해군 9 년(1617년) : 정종례(鄭宗禮) 문현남(文賢男)
효 종 7 년(1656년) : 성명 불명
현 종 13년(1672년) : 함득일(咸得一)
숙 종 4 년(1678년) : 박상문(朴尙文)

효종(孝宗 1650—1659)때부터 대마도로 간 의사들은 그 쪽의 요청에 따라 파견되었던 것이다.

의서의 교류로서는 17세기에 있었던 일로서, 그것이 실록에 기록된 경우가 3번있다. 그 모두는 일본측에서 요청한 의서이다.

인조 18년(1640) : 마의서(馬醫書), 응골방(鷹鶻方)
현종 3년(1662) : 동의보감, 의림촬요

현종 11년(1670) : 비급본초(備急本草), 의학입문(醫學入門)

17세기에 일본으로 수출된 약재는 대요 다음과 같다.

인삼, 황랍, 우황, 사향, 오미자, 천궁, 육종용(肉蓯蓉), 청심환(淸心丸)

수입된 약재는 다음과 같다. 주로 일본을 거쳐 들어온 남방과 중동 지방의 약재들이다.

호초, 용뇌향, 소뇌, 침향, 침치(沈束), 목향, 패향(佩香), 육계(肉桂), 계피, 유황, 단목(丹木), 적동설(赤銅屑·구리)

2. 명(明) 및 청(淸)과의 교류

16세기 말부터 17세기에 걸친 명(明) 및 청(淸)과의 교류는 중단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무역이 활발히 된 때는 17세기 중엽부터 이다.

의사의 교류로서는 실록의 기록을 통해보면 2번 있었다.

선조 31년(1598) : 명의 반납훈(潘納勳), 암기주(巖期周)등이 내주(來駐)했다.

인조 21년(1643) : 청의 태조의 요청으로, 침의(鍼醫) 유달(柳達)과 약의(藥醫) 박군(朴裙)을 파견했다.

의서는 실록의 기록 상으로는 명과 청의 그것이 각각 1번씩 전래되었다.

인조 4년(1626년) : 명의 사절이 의서를 가져왔다. 그 의서명은 미상이다.

경종 2년(1722년) : 청에 갔던 역관(譯官) 황하성(黃夏成)이 적수현주(赤水玄珠) 1질 51책을 구입해 왔다.

약재의 수출품은 다음과 같다. 그 일부는 무역이 아닌 헌상이었다.

대조(大棗), 황률(黃栗), 건시자(乾柿子), 사탕, 단목, 호초, 표피(豹皮), 수달피(水獺皮)

약재의 수입품은 다음과 같다.

침향(沈香), 납약(臘藥), 소목(蘇木), 백반(白礬), 원유(原油), 공청(空靑)

4. 서구의술의 전래와 실증적 의학의 태동

우리나라가 새로운 서구 문명에 관한 견문을 비록 단편적으로나마 얻게 된 시기는, 대략 14—15세기 경부터 당시 중국을 왕래하던 사신과 일반인을 통해서 이었으리라 하는 견해가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중국은 그 당시에 이미 포르투갈 상인들이 마카오를 중심지로 삼으면서 동서간의 무역의 길을 열었다. 그리고 스페인과 네델란드 상인들도 그 후 왕래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선조조(宣祖朝 1567—1608)말경부터 중국을 통해 구체적으로 서구 문명을 대하게 되었고, 인조조(仁祖朝 1623—1649) 때에는 보다 많은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효종조(孝宗朝 1650—1659)의 1653년 1월부터는 처음으로 서양 역법(西洋曆法)인 시헌력(時憲曆)을 채택해서 그것을 실용화시켰다. 이어 같은 해인 1653년 8월에는, 네델란드 상인들이 제주도에 표착해서 13년간을 체류하게도 되어, 그들이 가지고온 약재를 위시한 여러 상품을 통해서 직접 그들의 새로운 문물을 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치과의학 분야에서는 이러했던 모든 접촉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서구의 그것을 받아드린 점은 발견되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은, 곧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겠으나, 우선 동양 치과의학이 지닌 뿌리 깊은 숭고적이며 수구적(守舊的)인 성격에 그 일차적 원인이 있겠고, 거기에 더하여 당시의 의사들의 사회적 지위가 그러한 새 지식을 쉬 대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도 지적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17세기초인 인조조(仁祖朝)때부터는 의학 부분에 있어서도 관찰에 입각한 경험을 중시하는 실증적 학풍이 서서히 일게 되었다.

이병도(李丙燾)는 그의 저서 국사대관에서, 이러한 경향은 곧 실학파의 이쉬광(李睟光) 일파의 자극을 받은 결과이리라 고찰했다.

그 예로선 인조조 때부터는 침구학 발달에 따른 개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삼는 의서들이 나오게 된다. 그들 의서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5. 인조조(仁祖朝)의 의서

실록에 따르며, 인조(仁祖 1623—1649)의 재위 기간인 27년 간에도 수많은 유행성 전염병이 국내 각처에 지역적 또는 전국적 규모로 19회나 창궐하였다. 뿐아니라 기근까지 발생되어 그로 인한 다수의 사망자의 속출까지도 겹쳤다.

인조 때에 간행된 의서는 대요 다음과 같다.

1)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

본서는 허임(許任)의 저서로서 인조 22년인 1644년에 간행되었다. 1권으로서 본서에 관해서는 따로 언급한다.

2) 사의경험방(四醫經驗方)

본서는 그 간행 시기가 확실하지 않다. 김두종(金斗鍾)은 그의 저서인 한국의학사에서, 본서의 간행은 아마도 인조 때가 아니면 효종(孝宗) 때일 터이리라 추정하였다. 저자 역시 일단은 그의 추정을 좇기로 한다.

본서의 내용은, 네사람의 의사, 곧 이석간(李碩幹),

채득기(蔡得己), 박렴(朴濂), 허임(許任)의 경험방(經驗方)과 이들의 본초(本草)에 관한 동의문견방(東醫聞見方)을 수록한 것이다.

본서는 경험방(經驗方)이라 하는 이본(異本)으로도 전해진다. 치과 관계로는 치통, 우통의 목(目)이 있고, 설강(舌强) 등등 설질환(舌疾患)에 관한 전기한 사의(四醫)의 요법이 기재되었다. 또 침료법과 구료법도 병기되었다. 그런데 우통의 경우는 含嗽堅齒去虫止痛이라 하였다. 이것은 허준(許浚)의 경험방이라 명기했다. 각 요법에는 그 누구의 경험방이라 명기하였다.

3) 두창경험방(痘瘡經驗方)

본서 역시 그 간행 시기가 확실하지 않다. 김두종(金斗鍾)은 그의 저서인 한국의학사에서, 본서의 간행은 아마도 인조 14년 이후부터 현종(顯宗) 말년 전일 터이리라 추정하였다. 본서는 박진희(朴震禧)의 저서로서 1권이며, 언해(諺解)가 각 조문에는 삽입되었다.

6. 침구술의 발달

동의보감은 침(鍼)과 구(灸)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취급했다. 동서의 각문(各門)에는 그 문에 해당된 침구의 여러 기록이 있으나, 다시 그와는 별도로 침구편을 두었다. 그리고 자세한 기록을 다루었다. 즉, 무려 90항(項)에 걸친 기록이 있다.

이러한 사실 하나만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침구술의 발달은 이미 17세초에 높은 수준에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다. 더우기 선조와 광해군 그리고 인조는 자주 그들 자신이 침구 치료를 받았고, 또 국내의 전문의를 서울로 소집하여 우대하였기에 이 분야의 발달은 더욱 촉진되었다.

침구 전문의는 세종조(世宗朝)때에 이미 정책적 배려가 있었기에, 당시의 전의감(典醫監)과 혜민국(惠民局) 및 제생원(濟生院)등 삼의사(三醫司)에는 그들이 배속되어 있었다.

뿐아니라, 침구의의 취재(取才)에 있어서 책택되었던 당시의 침구 전문 의서들은 모두가 중국의 유명 의서들이었다. 곧, 동인경(銅人經), 침경지남(針經指南), 자오류주(子午流注), 옥룡가(玉龍歌), 자생경(資生經), 십사경발휘(十四經發揮), 침경적영(針經摘英) 등등이 그것이다.

저자는 중국의 경우, 명대(明代 1368—1662)와 청대(淸代 1616—1911)의 그들의 문화와 산업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는 양자강의 하류 및 중류를 중심으로 삼고 있었는데, 바로 이 점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침구술의 큰 발달이 16세기말부터 17세기에 걸쳐 있었던 점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리라 고찰한다.

황제내경(黃帝內經)의 소문(素問)에 따르면, 본시 중국 대륙에서 침술이 일찍 발달되었던 지역은 양자강 유역과 그 이남 지역이었고, 또 구술(灸術)은 북부 산악지대이었다. 그런데 명과 청대에 이르러 그 정치적 지리적 영향으로, 침구술은 양자강 유역을 중심으로 자연히 더욱 발달되었던 것이다. 해서 이러한 중국의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점은 능히 추찰되는 점이라 보겠다.

저자는 또 하나 우리 나라에서 17세기초에 침구술이 발달된 배경의 하나로서는,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인 불안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과 유행성 전염병의 연속적인 창궐로 인한 약제의 결핍도 지적되어야 할 점이라 본다. 다시 말해서 약재의 사용보다는, 보다 더 손쉬울 침구를 일반인들은 택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하는 점이다.

참고로 보면, 선조(宣祖)때의 침경요결(鍼經要訣 1600年刊 柳成龍 撰 1卷)은, 명(明)의 의학입문(醫學入門·李梴著)을 초록한 것이고, 동의보감의 침구편은 주로 중국의 동인경과 자생경에 의거한 것이다.

그런데 그 후, 인조(仁祖) 22년인 1644년에는 허임(許任)이, 그 이전까지의 침구법과는 다른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삼은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 1卷)을 간행했다. 김두종은 그의 한국의학사에서, 동서는 저자의 경험에 의한 독자적 내용이 기록된 것이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동서에는 구부(口部) 및 치부(齒部)라 하여 치과의학 영역의 그것이 기록되었다. 그 구부(口部)에는 침과 구를 행하는 부위가 그 이전까지의 의서들과 달리 기록된 것은 아니나, 일부에 있어서 그 시술 방법이 달리 되었다. 곧, 보사법(補瀉法)이 새롭다. 이러한 허임의 독자적일 술법이란 침구술의 많은 지식의 축적과 발달이 없이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침구술의 발달은 넓은 의미로서 볼 때에, 곧 치과의학의 발달과도 깊이 연관되는 것이다. 해서 이 부문에 관한 문헌 자료는 아직 많이 수집되지 못하였으나 금후 계속 유의할 부문이라 본다.

이제 전기한 침구경험방의 구부(口部)와 치부(齒部)에 기록된 내용을 원문대로 보면 다음과 같다. 본서의 서두에는 침구에 관한 기본적이며 이론적인 총설이 있다.

口部.

口屬脾，鼻屬肺，上齒上腭斷及 唇屬胃，下齒下斷及唇屬大腸，

督脈任脈主中行，各隨其經，治之萬無一失.

胃熱，則生口臭.

肺熱，喉辛.

脾熱，口甜.

膽熱，口苦，嘔苦.

心熱，口苦.

肝熱，口酸.

腎熱，口醎.

胃熱，口淡.

그리고 이어 각론으로서 이렇게 기재되었다. 19개의 항목이다.

口中生瘡，承漿勞宮.

唇腫，內關神門合谷下三里內庭三陰交.

口中如膠，大谿.

口中出血不止，上星五十壯風府針三分.

口鼻并出血，亦炙上星.

唇吻不收，合谷下三里.

口苦，下三里絕骨然谷神門.

重舌，舌者心之竅也. 神門隱白三陰交.

舌裂，同上.

舌强，同上.

口噤牙車不開，上關頰車阿是.

그리고 치부(齒部)에 기재된 내용은 이러하다.

齒部.

齒者骨之餘，骨者腎之精，千金云， 凡人患齒者，多由於日食夜飮食所致也.

上齒痛，下三里 灸七壯.

下齒痛，合谷 灸七壯.

上下齒痛，并灸手表腕上踝骨尖端

三壯若不愈 更灸七壯.

左痛灸右，右痛灸左 神效.

又方，

灸痛齒七壯 愼勿加灸 必患附骨疽.

又方，

取片瓦畫人口形 又明計病人上下齒之元數 以墨筆盡記於畫口內仍察痛齒第幾 而當於畫齒上 灸三七壯 不數日等差 神効.

齒齲痛，벌레먹는이 合谷列缺厲兌中渚神門 下三里

齒斷齦，合谷中脘 下三里 并針承漿七壯，勞宮一壯.

실록에 따르면, 인조조(仁祖朝 1623—1649)의 침의(鍼醫) 이형익(李馨益)은 인조에게 수차에 걸쳐 번침(燔鍼)을 놓았다. 그런데 그 방법은 당시의 침의들도 전혀 모르던 방법이라 하였다. 번침법(燔鍼法)은 중국의서에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그는 당시의 조정 내외의 반대 여론까지를 무릅쓰고도 행하였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본다면, 이것은 침술의 상당한 경험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 추찰되어, 이러한 사실 또한 당시의 침구술 분야의 큰 발달을 추찰케 한다.

이상으로 저자는 16세기 말부터 17세기에 걸친 우리나라 침구술의 발달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치과의학 분야에 있어서의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못하게됨을 유감으로 여긴다. 자료의 미흡 때문이다. 이 점은 금후 보다 깊이 연구되어야 할 부문이다.

침구술의 체계는 황제내경(黃帝內經)에 그 모든 근거를 둔다. 특히 영추(靈樞)는 주로 침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기에 황제침경(黃帝鍼經)이라고까지 한다. 침구관계의 최고(最古) 문헌은 황제명당경(黃帝明堂經 3卷)이다. 본서는 황제가 그의 신하인 명의들과 함께 명당(明堂·政治하는 곳)에서 생명 현상을 토론하여 그 결론을 모은 의서인 황제내경 중에서도 주로 침구에 관한 것만을 수록한 것이다. 해서 명당(明堂)이라 하면 후세에는 경락경혈설(經絡經穴說)의 문헌을 총칭하는 관례가 되었다.

경락경혈설은 내경의 천인합일설(天人合一說)과 음양설 그리고 오행설 등의 이론을 더욱 확충시킨 것이다.

인체의 피부(皮部)에는 경락(經絡)이라는 일련의 계통이 흐르고 있으며, 이들은 오장 육부(五臟六腑)로부터 각기 시작되는 생명 현상의 흐름으로서 거기에는 총 12종류가 있다고 했다.

그 12종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태음폐경(太陰肺經)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

수소음심경(手小陰心經)

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

족태양방광경(足太腸膀胱經)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

수궐음심포경(手厥陰心包經)

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

족소양담경(足少陽胆經)

족궐음간경(足厥肝經)

여기에서 말하는 음과 양은, 상한론(傷寒論)의 병위(病位)의 음양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것이다. 또 그 내장의 명칭도 현대의학에서 지칭하는 그것과 반드시 동

일하지도 않다.

상기한 여러 경락(經絡) 위에는 특정한 부위가 있는데, 그것이 곧 경혈(經穴)이다. 또 복배(腹背)의 인중선(人中線)상에는 임맥(任脈)과 독맥(督脈)이라는 두 경(二經)이 있다고 하여, 위에 기재한 12경과 이것과를 합해 경락은 총 14종이라 한다. 곧, 이렇게 해서 십사경락(十四經絡)이라는 말도 있게 된 것이다.

십사경락의 경혈(經穴)은 신체 복배(腹背)에 각기 365개(穴)있는 것이다.

환자 치료에 있어서는, 그 병의 원인이 우선 어느 경락의 이상인가를 판별하고, 그 경락의 경혈에 시술을 가하는 것이다. 그 시술에 있어서도 환자 체질의 허실(虛實)을 중시하여 여러가지 기술적인 보사법(補瀉法)을 택하는 것이다. 침이나 구나 여기에는 기술적인 많은 술법과 유의할 점이 있음을 황제내경은 기록하였다.

치과의학 영역의 여러 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經)은, 주로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과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이다. 물론 그러나 이것만이 관련된 것이 아님은 침구술의 다기성(多岐性)을 볼 때에 쉬 긍정될 것이다.

침(鍼·針)은 본시 석기 시대의 마제 예기(磨製銳器)로부터, 그리고 구(灸)는 원시 시대의 마찰열(摩擦熱)의 이용으로부터 시작된 동양 특유의 경험 의술이다. 침은 석침(石針)으로부터 시작되어 은침(銀針) 혹은 금침(金針) 등으로 변하였고, 또 치료의 목적에 따라 그 형태도 9종류로 구분되었다. 구(灸)에 의한 온열 자극(溫熱刺戟)도 침의 그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가 있게 됨에 따라, 이러한 술법은 황제 내경의 여러 의학 사상과 함께 체계화되어 드디어는 침구의학을 형성한 것이다.

동의보감의 침구편에 기록된 침의 9종은 다음과 같다.

참침(鑱針)	원침(圓針)
시침(鍉針)	봉침(鋒針)
피침(鈹針)	원리침(圓利針)
호침(毫針)	장침(長針)
대침(大針)	

이상 9종의 침은 그 시초가 소문(素問)과 영추(靈樞)에 유래되는 것이라 한다. 하지만 그 후 어느 정도까지 개량되면서 사용되었는가 하는 점은 확실치 않다.

그런데 정조(正祖 1777—1800)때의 침의이던 신로인(申老人)은 순금 제품인 망형(芒形)의 원리침(圓利針)과 철도금병(鐵刀金柄)인 삼릉침(三稜針)을 사용했다고 한다.

한편, 정조조(正祖朝)의 의서로 추정되는 재물보(才物譜)의 사본에는 참침(鑱針), 원침(圓針), 시침(鍉針) 등 3종이 기록되었고, 또 현종조(顯宗朝)의 백광현(白光炫)이 사용한 침은, 종침(腫針), 곡침(曲針), 삼릉침(三稜針), 산침(散針)등 4종이었다.

부기하면, 명종조(明宗朝 1546—1567)의 임언국(任彦國)이 배종(背腫)의 수술에 사용한 침은 단순한 침이 아니고, 현재의 수술도(手術刀)를 사용한 것이었다. 당시에는 종침(腫針), 곡침(曲針), 삼릉침(三稜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명(明)나라의 침구술 의서로서 널리 알려진 것에 침구대전(鍼灸大全·鍼灸大成)이 있다. 본서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전해졌는가 하는 점은 확실치 않다. 본서는 명의 양계주(楊繼洲)의 저서로서 10권이다. 소문(素問), 영추(靈樞), 난경(難經)을 위시한 관련 의서 약 20종을 참고한 책이다.

본서에는 그 권 1의 기병론(奇病論)과 무자론(繆刺論)에 치과 관계의 총론이라 할 수도 있는 해설이 있고, 그 권 8의 비구문(鼻口門)에는 치과 영역에 있어서의 침구 놓는 부위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있다. 비교적 요령있는 편집 내용이다. 그러나 본서이 진위(眞僞) 여부에 대해서는 저자로서 아직 무엇이라 언급할 수 없다.

7. 효종조(孝宗朝)의 의서

효종(孝宗 1650—1659) 재위 기간인 10년간에도 여역은 12회나 계속 발생하였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혹은 지역적 규모로 유행되어 많은 사망자를 냈음이 실록에 기록되었다. 여역은 장티푸스 내지는 발진티푸스를 뜻하는듯 하며, 벽온(辟瘟)이라고도 한 것 같다.

벽온신방(辟瘟新方)

본서는 효종 4년인 1653년에 여역이 유행되므로, 어의(御醫)이던 안경창(安景昌) 등에게 명해서 언역까지를 붙여 간행한 의서다. 그 후 본서는 다시 영조(英祖) 3년인 1727년에 재간행되었다. 1권으로 되었다.

8. 현종조(顯宗朝)의 의서

현종(顯宗 1660—1674) 재위 기간인 15년간, 여역을 비롯한 각종 전염병은 더욱 거세게 국내 각처에 창궐하였다. 실록에 따르면, 50회나 발생되었다. 당시는 우역(牛疫)까지도 발생되어 수만두(數萬頭)가 죽었다. 숫자적인 기록이 그 이전까지의 기록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 때부터 이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있던 때는 한 번에 3천여명이다. 그리고 기근까지 겹쳐 현종 12년인 1671년 12월의 기록에는 기근

과 여역으로 죽은 자가 전국에서 기백만(幾百萬)이라 하였다. 獻納 尹敬敎 疏曰 死於飢癘者 今一國計之 其數幾至百萬. 또 그 해 5월에는 기근으로 사망한 자가 어찌나 많았던지 是年 飢病死亡之慘 萬古所無라고까지 하였다. 당시의 우리나라 인구는, 실록의 기록인 1699년 현재가 577만 2천 3백명이라, 그보다 29년 전인 그 때의 인구는 추정하기 어렵지 않다.

현종조의 의서로는 용산료두편이 알려졌다.

용산료두편(龍山療痘編)

본서는 현종 13년인 1672년에 나왔다. 저자는 이번(李蕃)이며 1권이다. 이 책은 전기한 박진희(朴震禧)의 두창경험방(痘瘡經驗方)을 참고하면서 다시 저자가 경험한 병증을 추가한 것이다.

9. 숙종조(肅宗朝)의 의서

숙종(肅宗 1675—1720)의 46년간의 재위 중에도 각종의 유행성 전염병은 무려 66회나 발생하였다. 우역(牛疫)까지도 크게 유행되어 그 우역의 전염으로 사망하는 자까지도 있었다. 격심했던 여러 전염성 열병은 점차 그 발생 규모가 전국적인 양상을 갖기 시작하였다. 더우기 기근까지 계속되어 그러한 참상은 일찌기 없었다고까지 실록에는 기록되었다. 飢饉癘疫之慘 實前古所 未有也. 숙종 25년인 1699년의 전국 인구 조사에 따르면, 5년 사이에 인구 141만 6천 2백 74명이 감소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死亡無算 兒弱夭札者尤甚 小兒爲之稀少라는 표현도 있거니와, 京外民兵死者 至幾十萬이라는 기록까지 있다.

숙종조의 의서로서 알려진 것은 다음과 같다.

1) 주촌신방(舟村新方)

본서는 숙종 13년인 1687년의 신만(申曼)의 편저이다. 그는 옛적 약방을 피하고, 향약을 중심으로 삼는 새 약방을 소아와 부인 그리고 대인(大人) 등등 3편으로 나누어, 그 각편에 병론과 약방을 기록했다.

2) 고금경험활유방(古今經驗活幼方)

숙종 때의 두의(痘醫)이던 유상(柳相)의 편찬으로 1권이다. 아마도 치두법(治痘法)을 다룬 의서일 것이다.

3) 산림경제(山林經濟)

본서는 숙종 44년 경에 간행된, 산림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 상식을 수록한 책이다. 물론 의학 서적은 아니나, 여기에는 의약 관계의 많은 기록이 있어, 많은 주목을 받는다. 홍만선(洪萬選)의 저서로서 4권 4책이다. 본서에 관해서는 따로 기술한다.

10. 경종조(景宗朝)의 의서

경종(景宗 1721—1724) 재위 기간 중의 유행성 전염병의 기록은 없다. 당시의 의서로서는 의문보감(醫門寶鑑)이 있다. 동서는 경종 4년 1724년 주명신(周命新)이 편찬한 것이다. 8권으로서 그 중의 제 3 권에는 구(口), 설(舌), 순(脣), 아치(牙齒)등의 병문이 있다.

임상적인 여러 병증에 역점을 두었으며, 각 병문 말미에는 자기 경험에 의한 치방(治方·治療法)이 기재되었다. 곧 실증적 태도가 엿보이는 저술이다. 저자는 숙종조의 의인이다.

11. 자가(自家)경험의방과 민간 구급의방의 발달

17세기 전반인 인조 때부터는 실학 사상의 대두로써 의학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의사들의 경험의방의 많은 발달을 보게 되었고, 또 민간의 구급의방에 있어서도 실제 생활에 있어서 긴요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경험방들이 편수되었다. 이러한 의약 부문의 흐름은 서서히 실증적 치과의학을 발전시키는 큰 토대가 되었다.

이제 그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을 들면, 산림경제(山林經濟)와 사의경험방(四醫經驗方) 그리고 의문보감(醫門寶鑑)이 있다. 산림경제는 민간 구급의방이고, 사의경험방과 의문보감은 경험의방이다.

Ⅰ. 산림경제(山林經濟)

산림경제(山林經濟 4卷 4冊)는 17세기말—18세기 초에 편저된 것으로 추정된다. 농림업(農林業) 종사자의 일상 생활을 과학적으로 이끌려는 백과사전적인 지도서이었던 것으로, 곧 당시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서라고도 할 수 있다.

본서의 저자는 홍만선(洪萬選 1663—1715 號 流巖)이다. 그는 중농적(重農的) 개혁 사상가로서, 그의 주장은 당대의 재야 지식인들의 공감을 받았으나, 그러나 국가 정책에 까지는 반영되지 못했다.

본서는 흔히 전사본(轉寫本), 또는 초사본(抄寫本)으로 전해진다. 그 원본이라 추정되는 것이 있다고도 하나 역시 확실치 않다. 본서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당시 국민 생활에 끼쳤는가 하는 점도 아직은 확언할 수 없다.

산림경제 중의 의약 관계 부분을 살피면, 대요 다음과 같다.

제 1 권은 복거(卜居), 섭생(攝生), 치농(治農), 치포(治圃)로 크게 나뉘었다. 그 중의 섭생은 서언(序言)과 총론, 양심지(養心志), 성기욕(省嗜慾), 절음식(節飮食) 보신체(保身體), 신기거(愼起居), 도인(導引), 복식(服食), 신침법(神枕法)의 항목으로 되었다. 그리고 그 기록의 인용 서목(書目)도 명기되었다.

그 기재 내용은 농림업(農林業)에 종사하는 누구나가 실용할 수 있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 2 권은 종수(種樹), 양화(養花), 목양(牧養), 치선(治膳)의 항목으로 되었고, 치선의 항목에는 식이(食餌)와 관련된 실과(實果), 다탕(茶湯), 소채(蔬菜), 어육(魚肉), 조료물(造料物), 조장(造醬), 조작(造醋) 등등이 포함되었다.

제 3 권에는 구급과 치약(治藥)으로 나뉘어, 구급 항목에는 서언(序言)과 자의사(自縊死), 익수사(溺水死), 입정사(入井死), 졸사(猝死) 등등, 흔히 경험하는 병증 138종이 기재되었다.

그 인용 서목(書目)은 대요 다음과 같다.

동의보감(東醫寶鑑)
전방(全方)
허준구급방(許浚救急方)
의학입문(醫學入門)
허임방(許任方)
고사촬요(攷事撮要)
오방(吳方)
윤방(尹方)
경험방(經驗方)
만병회춘(萬病回春)
의학정전(醫學正傳)
문견방(聞見方)
증류본초(證類本草)
백의방(白醫方)
산거사요(山居四要)
신은서(神隱書)
속방(俗方)
지봉류설(芝峰類說)
단계심법(丹溪心法)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
신효방(神效方)
자경편(自警編)
공여일록(公餘日錄)
수양총서(修養叢書)
포박자(抱朴子)

이 중에서 치과 관계의 기록은 주로 동의보감, 자경편, 공여일록, 수양총서, 윤방(尹方), 전방(全方) 등에서 인용되었다.

참고로 본서 전체의 인용 서적의 수를 살피면, 그것은 74종에 이르고 있다.

본서의 각 인용 문헌에는, 그 문헌명이 약기(略記)되어 해득하지 못하는 것도 있으나, 명대(明代)의 의서인 의학입문, 만병회춘, 의학정전, 증류본초, 산거사요, 신은서, 단계심법 등등도 있으며, 우리 고유의 의서들도 있어서, 주로 우리 풍토에 맞을 경험방을 수록한 점을 추찰할 수가 있다.

제 4 권에는 약재와 선택(選擇), 잡방(雜方)과 잡기(雜忌) 등등 많은 내용이 있으며, 약재로서는 일상 흔히 이용되는 포황(蒲黃), 백지(白芷) 등등 70종이 기재되었다. 그리고 의약 관계의 여러 실용적인 상식도 그 인용 의서를 밝히면서 인용 기재되었다.

이러한 본서의 내용은 곧 당시의 실학파들의 학풍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능히 추찰되는 것이다.

1) 산림경제의 치과의학 관련 기록

산림경제의 치과의학 관계 기록은 물론 이것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그것이 주로 기록된 곳은, 성기욕(省嗜慾), 절음식(節飮食), 보신체(保身體), 섭생(攝生), 구급(救急)의 항목 중에서 이다.

이제 그 내용을 살피면, 성기욕 항목에서는 과욕(過慾·性交過多)으로써 전신이 쇠약되면 눈도 간(肝)도 약해지며 살도 빠지고 신기(神氣)도 감소되며 비(脾)도 약해져서, 치아와 머리카락도 들뜨며 빠진다. 齒髮浮落이라 하였다. 그리고 전신 상태와 치아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이것은 자경편(自警編)에서의 인용이라 기재하였다.

절음식 항목에는 뜨거운 음식과 찬 음식을 교대로 들면 치아에는 반드시 병이 생긴다 라고 하였다. 冷熱相激, 必患牙齒. 이것은 공여일록(公餘日錄)에서 인용하였다. 그리고 다시 언급하기를, 음식은 어느 계절이나 따뜻해야 하며 그것을 든 다음에는 입을 깨끗이 하라고 역시 전기한 책에서 인용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충치 예방의 목적은 아니다.

보신체(保身體)의 항목에는 그 서두에서, 치아의 건강에는 고치(叩齒)를 조석으로 하면서 타액을 늘 섞어삼기면 좋다 하였고, 이어 치아는 편측(片側)으로만 씹지 말 것과, 치아의 건강을 위해 뜨거운 물로 입안을 씻지 말 것, 따스한 소금물로 입안을 씻을 것을 권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청소할 것과, 포박자(抱朴子)에서 인용하면서 치아 청소를 하고나서 일상 고치(叩齒)를 행한 사람은 120세까지도 살았다고 하였다. 더우기 그 사람은 풍(風)에 걸렸던 사람이었으나 그러하였다 라고까지 했다.

더우기 흥미있는 기록은, 잇솔(刷牙子)의 사용을 아

침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말꼬리로 만든 잇솔은 치근을 썩게 한다는 것이다. 그 원문을 이러하다.

刷牙子早起不可用刷牙多是馬尾馬尾能腐齒根.

이러한 기록은 수양총서에서 인용한 것이라 했다. 저자의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잇솔(刷牙子) 사용상의 주의 사항은, 송(宋)의 주수충(周守忠) 편찬인 양생잡찬(養生雜纂 22卷 附 月覽 2卷)에 있다.

신기거(愼起居)의 섭생(攝生) 항목 중에서는, 입을 벌리고 자면 기가 손실되고 사기(邪氣)가 침입하여 치아는 일찍 빠진다 라고 하였고, 불의의 불상사를 당해 그것을 물리치려고 하면, 좌측의 상하 치아를 36회 고치(叩齒)하고, 또 나쁜 일을 당했으면 그와 반대로 우측의 고치를 36회하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노라고 역시 양서에서 인용 기재하였다. 뿐아니라 고치에 관해서는 이것을 수양(修養)이라는 관점에서도 논급하였다. 즉, 본문 중에 특별히 구선도인결(臞仙導引訣 附 叩齒集神等 入法爲註)이라고 하여 신선계(神仙系)의 의학적 사상이 농후한 고치의 자세한 방법도 기록되었다.

침을 삼키는 방법은, 혀로 윗잇몸을 받치면 입안에는 자연히 침이 생긴다. 그러면 그것으로 입안을 씻어 삼키는 것이 그 기본 방법이다. 그러나 잇몸을 받치고 있다고 해서 꼭 침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오직 혀를 굽혀서 혀 뿌리를 흔들어야 침은 생긴다. 오래 해봐서 그런 습관이 들면, 자연히 그러한 습관은 그만 둘 수 없게 된다. 마치 배고플 때에 침을 상기면 침이 나는 것과 같다.

이어 복식(服食)의 항목에는, 낙치(落齒)가 다시 나며 수(壽)가 3백년이 되어도 늙지 아니하는 방법으로서, 구기자(枸杞子)를 술에 담가 마시는 법이 있다. 그 술 만드는 방법은 복잡하다. 정월 상인일(上寅日)과 2월의 상묘일(上卯日), 4월의 상사일(上巳日), 5월의 상오일(上午日), 7월의 상신일(上申日), 8월의 상유일(上酉日), 10월 상해일(上亥日), 11월 상자일(上子日)에 계속 구기자의 잎과 줄기와 열매들을 각기 채취해서 술에 담그는 것이다.

고치(叩齒)는 당(唐)의 손사막(孫思邈)의 저서인 천금방(千金方·30卷)에 나온다. 천금방의 의학 사상을 소위 내경계(內經系)의 의학을 근본으로 삼으면서 거기에 신선계(神仙系)의 의학을 첨가시키며 다시 불교의 의학 사상도 융합시킨 것으로, 도가(道家)들도 본서는 물론 장생을 논한 일상 생활의 실용서로서 존중한 것이었다.

고치를 치료가 아닌 순수한 수양 목적으로 삼을 때에는, 좌우측의 치아를 동시에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신체의 독(毒)을 제거하여 치아들 역시 튼튼해지는데, 이것을 명천고(鳴天鼓)라 부른다. 좌측만을 고치하는 방법은 타천종(打天鍾)이라 하며, 우측만일 때는 퇴천경(搥天磬)이라 한다.

구급(救急) 항목에는 윤방(尹方)에서 인용한, 하품을 하다가 턱이 빠진 경우와, 동의보감에서 인용된 견순(蠶脣·蘭脣·口脣癌)과, 윤방(尹方)에서 인용한 순종(脣腫)과, 동의보감에서 인용한 설종(舌腫)을 비롯한 구강내의 이물 제거(飛絲入口舌門 及 匙着口中)와 초생아(初生兒)의 촬구 불능(撮口不能·開口不能·牙關緊急) 등등이 주로 기재되었다.

특히 설종에 대해서는, 침(鍼)을 사용한 관혈적(觀血的) 치료법과 소작(燒灼) 지혈법이 기록되었다. 그 원문은 이러하다.

鍼法 急用鍼 刺舌下兩傍 大脈出血. 又刺舌尖 或舌上出血 即燒切勿 刺舌下中央 血脈不止則死 若誤刺以銅箭火燒烙之.

이제 여러 기록을 전체적으로 보다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치과의학 관계 기록이 주로 기록된 본서의 권 3의 구급 항목의 서문은 이러하다.

산골에 살면 성읍과는 멀리 떨어졌기에, 고질이면 병원을 찾아 진찰도 받고 침을 맞거나 약을 쓸 수도 있으나, 만일 급한 병이 나면 치료할 길이 없어 결국은 요절하는 사람이 많다. 해서 구급법을 여기 기록하여 제 10편으로 삼는다.

턱이 하품을 하다가 빠졌을 때(下顎骨脫臼) : 웃거나 하품을 하다가 아차(牙車·牙牀)가 어긋나서 입을 벌리지도 또 다물지도 못하고, 물도 마실 수 없어 구제하지를 못하게 되었으면, 술을 먹여 크게 취하게 하고 잠이 들었을 때에, 조각자가루를 코에 불어 넣어 재채기를 시키면 즉시 절로 바로 잡힌다. 또 염매육(鹽梅肉) 2개로써 어금니를 문질러 주어도 즉시 벌어진다. 또 남성(南星)가루를 강즙(薑汁)에 개어 붙이고 비단으로 싸매어 하룻밤을 지내도 자연히 낫는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한 사람이 환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한 사람이 손으로 그의 턱을 끌어, 차츰 차츰 뒤로 밀면 턱은 다시 들어간다. 이 때에, 턱을 미는 사람은 자기 손가락을 속히 입에서 빼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에 교상(咬傷)을 입을 수 있다. 이 부분만은 동의보감에서 인용한 부분이다.

또 황랍(黃臘)을 불에 쬐어 조각을 만들어, 그것이

뜨거울 때에, 턱이 빠져 늘어난 쪽 가에 붙여주되, 턱이 들어 갈 때까지 반복한다. 이 부문은 전기한대로 윤방(尹方)에서 인용하였다.

견순(繭脣) : 견순은 입술이 긴축되어 작아져서 입을 벌리든가 다물지 못해 음식을 들지 못하는 경우다. 급히 치료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병은 기이한 병으로서 이름하여 견순이라 한다. 급히 의이인탕(薏苡仁湯) 즉, 의이인·방풍·초(炒)·적소두·구(炙)한 감초 등을 각각 1전반씩 처방해서 달여 먹어야 한다. 그리고 겸해서 황백(黃栢) 2냥에 오매자와 밀타승(蜜陀僧) 각 2전, 감초 2푼을 가루로 만들어 물에 개서 황백 위에 발라서 굽되, 그것이 마르면 다시 발라, 그것을 굽고 말려, 그 약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한다. 그 다음에는 황백을 얇은 조각으로 만들어 잠을 잘 때에 견순이 된 곳에 붙여주면 다음날 즉시 낫는다.

또 백포(白布)로써 등잔심지를 손가락 크기만큼 만들어, 그것을 도끼날 위에 올려놓고, 심지를 태워 거기서 물기가 생기게 하여, 그 물기를 썻어 버리고, 입술 위에 하루 두세 차례씩 바른다. 고청포(故靑布·오래된 푸른 천)로 만든 심지도 좋다. 저지(猪脂·돼지기름)를 개어 붙이면 더 좋다. 또 청피(靑皮)를 태워 재로 만들어서 저지에 개어 입술에 붙이고, 다시 청피 태운 잿가루 1전을 술에 타서 먹여도 된다. 사세피(蛇蛻皮)나 제조(蟭螵·굼벵이)를 태워서 재를 만들어, 저지로 개어 붙여주어도 좋다. 이것은 동의보감에서 인용하였다.

순종(脣腫) : 순종에는 생서(生鼠)의 배를 갈라 장부(腸腑)를 제거시키고, 피가 있는채로 붙이면 비록 독종(毒腫)일 경우도 잘 낫는다.

유월(六月)의 건립(乾笠)의 잔털(茸)을 뜯어, 물에 담갔다가 그 즙을 짜서 닭깃으로 자주 찍어 바르면 즉시 효력을 본다. 이것은 윤방(尹方)에서 인용했다.

설종(舌腫) : 설종은 혀가 갑자기 저포상(猪胞狀)으로 붓어 입안으로 가득차는 증세다. 이것은 환자가 알지를 못해 그 치료 시기를 놓쳐, 수일간에 죽게 되는 일이 많다. 음식을 들지 못하게 된 자도 죽는다. 곧 백초상(百草霜) 가루를 초에 개서 혀의 위와 아래에 바르고 그것이 떨어지면 다시 바른다. 그러면 저절로 쉬 사라진다. 또 우물물로 입을 닦아내고 조각자(皁角刺)를 태운 재에 용뇌(龍腦)를 좀 넣어 혀의 상하에 바르면 침이 나오면서 즉시 낫는다. 또 포황(蒲黃) 가루를 자주 바르며 황련전탕(黃連煎湯)을 자주 먹는다. 비마자(萆麻子)의 기름을 짜서 거기에다 종이를 담갔다가 불에 태워 그 연기를 쐬여도 곧 낫는다.

침술로서는 침으로 급히 혀 밑 양쪽의 대맥(大脈)을 찔러 피를 내고, 혀 끝을 찌르거나 혀 위를 찔러 피를 내면 쉬 사라진다.

그러나 혀끝의 중앙맥(中央脈)은 결코 찌르지 말 것이다. 혹시 잘못 찔러, 피가 나와 그치지 않으면 죽는다. 만일 잘못 찔렀다면, 구리 젓가락을 달구어 그 곳을 지져라.

혀가 빠지고 들어가지 않을 경우를 양강(陽强)이라 한다. 상한열병(傷寒熱病)을 앓은 후에, 혀가 한 치 남짓이나 나와 여러 날이 지나도 들어가질 않으면, 편뇌(片腦)의 가루를 만들어 혀 위에 바르면, 그 약을 바르던 손을 떼기가 무섭게 줄어든다. 단지 5전만을 쓰면 곧 낫는 것이다.

산부(産婦)의 혀가 빠져 다시 들어가지 않을 경우는, 주사(朱砂)를 혀에 바르고, 아이 낳는 시늉으로 두 여자로 하여금 부액(扶掖)시키고, 문밖에 와분(瓦盆)을 놓았다가 그것을 땅에 떨어뜨려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들리자 혀는 곧 들어간다.

이러한 기록은 동의보감에서 인용한 것이다.

비사(飛絲)가 입안에 붙었을 경우 : 비사가 입과 혀 사이에 끼었을 경우는, 생소엽(生蘇葉)을 씹어 백탕(白湯·맹물을 끓인 것)을 들면 효력이 있다. 비사는 유사(遊絲)라고도 한다. 벌레들이 토해 낸 실이나, 식물들의 실 같은 씨앗들이 하늘을 날라다니는 것을 말한다. 역시 동의보감에서 인용했다고 하였다.

순갈이 입안에 붙었을 경우 : 순갈이 입안에 저절로 붙어 점점 끌려 들어가면서 떨어지질 않을 경우는 위열(胃熱)이 있는 까닭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삼리혈(三里穴)에 침을 놓으면 곧 떨어진다. 또 시두(匙)에 7장(壯)을 떠도 쉬 떨어진다.

전자는 허임방(許任方), 그리고 후자는 전방(全方)에서 각기 인용하였다.

갓 난 소아(小兒)의 금병 : 초생아(初生兒)의 구금(口噤)은 태한(胎寒)의 증세다. 급히 백강잠산(白殭蠶散)을 써야 한다. 이것은 백강잠·목향·육계(肉桂)·진피(陳皮)·빈랑(檳榔)·구(炙)한 감초 각 5푼을 조제해서, 물로 달여 즙을 짜고 거기에 솜을 담갔다가 환자의 입안에 넣어주면 된다. (중략).

초생아가 갑자기 촬구(撮口)가 되어 젖을 먹지 못하는 경우를 마아(馬牙·齒糞)이라 한다. 환자의 치은을 보면, 좁쌀 모양의 작은 물집이 있다. 이것을 침으로

곧 따서 피를 내고, 박하즙(薄荷汁)으로 먹을 갈아 놓고는, 산모(産母)의 머리카락을 조금 잘라 그것으로 손가락을 싸매고, 먹물을 찍어, 입안을 문질러 주고 한동안 젖을 먹이지 않으면 곧 치유된다.

그러나 이렇게 치료하지 않으면 백의 하나도 살릴 수가 없다. 침이나 손톱으로 긁어 물집을 터트리고, 생밀(生蜜)을 발라도 효험이 있다.

초생아가 촬구로써 젖을 먹지 못할 때에는, 죽력(竹瀝)에 우황 2푼반을 타서 입에 넣어도 묘효가 있다. 또 적족오공(赤足蜈蚣) 1조(條)의 그 두족(頭足)을 제거하고 구초(炙焦)해서 분(粉)이 되게 갈아, 매번 그 5푼씩을 저유즙(猪乳汁) 2홉에 타서 고루 섞어 나누어 먹인다.

촬구(撮口)는 초생 후 1납(臘), 즉 3일안에 발생되는 위독한 병이다. 이 병의 경우는 아이가 기촉(氣促)이 되며, 또 입을 주머니처럼 오무리고 젖을 먹지 못하여 그 얼굴과 눈이 누렇고 붉어지며, 울어도 소리가 나오질 않으며, 혀도 굳어지고 입술은 푸르게 된다. 이 때에는 백강잠(白殭蠶) 2개를 조금 볶아 분말로 해서 꿀에 개어 입술에 붙이면 곧 낫는다.

구금(口噤)의 경우는 남성(南星)의 가루전과 뇌자(腦子)를 조금 갈아 섞고 강즙(薑汁)에 타서 그것을 손가락으로 찍어 아은(牙齦·齒齦)에 발라 주면 즉시 그 입은 열린다.

초생아의 아구(鵝口)란 혀위에 백설(白屑)이 가득하여 젖을 빨지 못하는 때를 말한다. 이 때에는 급히 난발(亂髮)을 손가락 끝에 감아, 그것을 박하즙이나 정화수(井華水·精華水)에 찍어 그것으로 혀를 씻어야 한다. 만일에 백설이 벗어지질 않으면, 웅황 3전, 붕사 2전, 감초 1전, 용뇌 2푼반을 분말로 해서 꿀물에 개어 바르거나, 마른 가루로 뿌려주면 묘효가 있다. 또 서부충(鼠婦虫)의 즙을 내서 바르거나, 혹은 백양수(白楊樹) 가지를 태워 역(瀝·생나무를 불로 태우면 거기서 나오는 진액)을 내서 바른다.

이상의 기록은 모두 동의보감에서 인용되었다. 의학용어의 설명이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사실은 곧 본서의 편찬 목적을 그 편자가 뚜렷이 한 것이기도 하다.

감창(疳瘡) : 구창(口瘡)이 미란(糜爛)으로 되었을 경우는 오배자(五倍子)를 세말(細末)로 해서 바른다.

주마감(走馬疳)이란 치근이 궤란(潰爛)되어, 치아가 검게 되면서 빠지며, 신문(顖門)에는 구멍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는 마땅히 유향환(乳香丸)·입효산(立効散)·동청산(銅靑散)·요백산(尿白散)을 써야만 된다.

유향환의 조제는 유향·경분(輕粉·水銀粉·汞粉)·비상(砒霜) 각 5품에 사향을 가늘게 조금 갈아, 부추잎 크기의 박지(薄紙)로 그 가루들을 모우고, 그 종이를 비벼서 소황미(小黃米) 크기로 섞어서 환(丸)으로 만든다. 그 환을 잠자리에서 환처에 메워주면 다음날 아침에는 낫는다. 환자는 이 때에 장(醬), 소금, 초를 먹어선 안된다.

입효산(立効散)의 조제는 청대(靑黛)·황백(黃栢)·백반고(白礬枯)·오매자 각 1전씩을 분말로 한다. 먼저 미감(米泔·쌀 씻은 뜨물)으로 입을 씻고 나서 바른다.

동청산(銅靑散)의 조제법은 백지(白芷) 5전에 동록(銅綠) 2전반과 마아초(馬牙硝) 1전과 사향 1자(字)를 분말로 한다. 그 마른 가루를 그대로 바른다.

요백산(尿白散)의 처방은 화하(火煆)시킨 인중백(人中白)·백반고(白礬枯)·백매육(白梅肉) 각 2전씩을 분말로 해서, 먼저 부추의 뿌리와 묵은 쑥을 농전(濃煎)시킨 즙을 계령(鷄翎)으로 찍어, 썩은 살은 닦아내고 선혈(鮮血)은 씻어낸 후에 하루 2,3회씩 이 약을 붙인다.

다른 치료법으로서 장육(獐肉·노루고기)를 먹이며 또한 붙여도 된다.

첫번째의 치료법과 제일 뒤의 것은 윤방(尹方)에서 인용한 것이고, 그 외의 방법은 동의보감에서 인용하였다.

이상의 기록 외에도, 극히 단편적으로 언급된 치과의학 관계 기록이 또 있으나, 번잡을 피하기 위해 그 모든 기록은 생략한다. 다만 참고로 그것이 언급된 개소만을 기록하면 아래와 같다.

익수사(溺水死) : 동의보감에서 인용
동사(凍死) : 동의보감에서
졸사(猝死) : 동의보감에서
시궐(屍厥) : 허임경험방에서
기궐(氣厥) : 오방(吳方)에서
중풍(中風) : 의학입문에서
중한(中寒) : 동의보감에서
졸두통(猝頭痛) : 동의보감에서
구규출혈(九竅出血) : 동의보감에서
모규출혈(毛竅出血) : 동의보감에서

특별히 졸두통(猝頭痛)의 조(條)에는 궐역두통(厥逆頭痛)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두통이 치통으로 연결되는 경우이다. 치료제로서는 백부자산(白附子散)이 좋다고 했다. 그 처방은 이러하다. 백부자 1량, 마디를 제거하지 않은 마황(麻黃), 천오(川烏)와 천남성(天南星) 각 5전, 전갈(全蝎) 5개, 건강(乾薑), 주사(朱砂), 사향 각각 2반씩을 분말로 해서 2푼반씩 술에 타서 먹고, 베개가 없이 잠시 자

고나면 치유된다.

2) 산림경제의 치과의학 관련 기록 일괄(一括)

산림경제의 치과의학 관계의 여러 기록 내용은, 치과의학적으로는 거의 새로운 것이 없다. 주로 그 대부분은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삼으면서 윤방(尹方), 허임방(許任方), 전방(全方) 등등에서 각기 인용되었다.

해서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으나, 다만 의학 용어의 설명이 비교적 자세한 점은 지적할만 하다.

저자의 관견(管見)이나, 전기한 윤방(尹方) 또는 전방(全方)이란 아마도 필사본으로서 윤모(尹某) 또는 전모(全某)라는 사람이 일상 생활에 필요할 구급법을 여러 의서에서 인용 기록했던 책이 아니었을까 추찰된다. 물론 이 점은 더욱 조사 연구되어야 할 부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고찰한 문헌은 아직 없는가 싶다.

산림경제는 많은 필사본으로서 전해진다. 해서 그 내용에 다소의 차이가 있는 점은 이해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내용에 큰 논난이 될만한 점은 없는가 한다.

전술한대로 본서 중에서 치과의학 관계로서 그 용어의 정의(定義)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해설되어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견순(繭脣)	설종(舌腫)
양강(陽强)	마아(馬牙)
아구(鵝口)	주마감(走馬疳)
궐역두통(厥逆頭痛)	촬구(撮口)

그리고 또 설종에 대한 관혈적(觀血的) 수술법이 있는데, 물론 본서는 본시 여러 의서에서 인용한 것이긴 하나, 동의보감의 내용과 다른 기록은 거의 없다. 산림경제와 동의보감과의 연대 차이는 대략 백년 전후라 보아 좋을까 한다.

Ⅱ. 사의경험방(四醫經驗方)

본서에서 사의(四醫)라 함은, 곧 이석간(李碩幹), 채득기(蔡得沂), 박렴(朴濂), 허임(許任)이다.

이석간은 인조(仁祖)때의 의사이고, 채득기는 인조와 효종(孝宗)때의 유의이며, 박렴은 인조 때의 의사이거니와, 허임은 광해군과 인조 시절의 침구의 대가로서 그는 인조 22년인 1644년에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 1卷)을 저술했다.

본서는 이들이 직접 저술한 것은 아니고, 후학들이 그들의 경험방을 수집 기록한 것이다.

내용으로서는 먼저 초(草), 목(木), 금(禽) 등등 14부(部)로 분류된 각 부문의 약물명 3백여 종을 들고, 그 아래에 우리말 약명을 달았다. 그리고 각 병증의 경험방을 부(部) 또는 문(門)으로 나누어서 여러 증후에 해당되는 증목(症目)을 분류했고, 다시 각 목(目)은 조(條)로 세분했다. 조(條)는 두부(頭部), 이부(耳部), 목부(目部) 등등 30조이다. 치과 관계는 5번째로 구부(口部)라 하여 기록되었다. 그 기록은 출전(出典) 혹은 누구의 경험방임을 확실히 했을 뿐아니라, 곳에 따라서는 우리말 해석도 부기되었다.

그 내용들은 거의가 실제 생활에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병에 중심을 둔 것으로서 매우 실용적인 것이다. 해서 김두종(金斗鍾)은 그의 저서 한국의학사에서, 본서는 고증적 학풍을 세우는 데에나, 또는 실증적 의학을 발전시키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Ⅲ. 의문보감(醫門寶鑑)

본서는 주명신(周命新)이 경종(景宗 1721—1724) 4년인 1724년에 저술하였다, 주명신은 숙종조(肅宗朝)의 의사인데, 본서는 고종(高宗 1864—1906)때의 내의(內醫)이던 이명석(李命錫)이 고정(考訂)한 것을 그 후에 간행한 것이다. 본서 의문보감은 8권으로서, 권두에는 자서(自序)와 범례(凡例) 그리고 인용 서목이 있으며, 그 제 3 권에 구(口), 설(舌), 순(脣), 아치(牙齒)의 문(門)이 기재되었다.

본서 또한 일상 생활에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병증에 중점을 둔 것이며, 각 병문(病門)의 기록 끝에는 자기 경험방이 자세히 기재되었다. 당시의 실증적 사조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다.

12. 백광현(白光炫)의 치종술(治腫術)

백광현(白光炫) (1605(?)—1677)은 독학으로 의술을 습득하여 치종술(治腫術)에 뛰어나 신의(神醫)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전한다. 그는 현종(顯宗 1660—1674) 때에 치종교수(治腫敎授)로서 내의원의 의관을 겸했고, 숙종(肅宗 1675—1720) 18년인 1692년에는 숭록(崇祿) 벼슬까지 하였다. 당시로서는 이례적(異例的)인 관직이다.

그는 효종(孝宗 1650—1659)의 인선왕후(仁宣王后)의 항후 발제 종창(項後髮際腫瘡)을, 거침(巨鍼)으로써 천자형(川字形)으로 그 길이 각 4치(寸) 씩을 절개하여 치유시켰고, 또 현종(顯宗 1660—1674)의 항종(項腫)과 숙종(肅宗 1675—1720)의 후종(喉腫)과 제종(臍腫)도 침 혹은 구로써 치유시켰다.

하지만 그의 치종술 내용에 관한 의학적인 자세한 기록은 없다. 다만 그 대체적인 술법은 지사공유사(知事

公遺事)와 희조질사(熙朝軼事)를 보면 알 수 있을 따름이다.

곧 전자는 백광현의 저서이고, 후자는 윤정현(尹定鉉)의 저서이다.

그 내용의 대요는 다음과 같다.

백광현은 늘 대침(大針)으로 단번에 절개하여 독(毒)을 제거하며 근(根)을 뽑았고, 그가 사용한 침은 종침(腫鍼), 곡침(曲鍼), 삼릉침(三稜鍼), 산침(散鍼)이었다.

백광현의 치종 수술법이 그의 창안인지, 또는 우리나라 고유의 것이었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다. 김두종은 그의 저서 한국의학사에서, 그것은 아마도 전통적 방법을 계승한 것이리라 고찰하였는데, 저자 또한 동일한 견해를 가졌다.

전술한 희조질사에 따르면, 백광현(白光鉉·白太醫)이 죽은 다음에는 그의 아들인 백흥령(白興齡)이 그 의술을 계승하여 명성이 있었고, 또 그의 제자인 박순(朴淳)이 그것을 계승하여 명성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수술법이 백광현으로부터 창시된 것이나, 그러나 후학들은 모두들 그것을 믿지 않고, 치종법의 어려움만을 한탄할 뿐이라 했다.

뿐아니라, 장지연(張志淵 1864—1921)의 일사유사(逸士遺事)에도 우리나라의 치종 수술법은 백광현으로부터 창시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의 서양 의사들의 수술법이다. 이것은 그 방법을 창안한 후에 그것을 권장시키는 사람이 없었고, 또 교육시키는 사람도 없었기에 이제와서는 이 방법의 기술을 그만 서양인에게 양보하게 되었다고 했다.

전기한 희조질사는 고종(高宗) 3년인 1866년에 윤정현(尹定鉉)이 편저한 것이고, 또 장지연(張志淵)의 일사유사는 1922년에 간행된 것이다.

이상으로 고찰할 때에, 우리나라의 경우 17세기에 이르러 외과적인 관혈적 수술법이 많이 시술되었던 점만은 확실하다.

13. 영조조(英祖朝)의 의서

영조(英祖 1725—1776) 때의 의서로서 알려진 것은 다음과 같다.

영조는 그 때까지의 흐트러진 문물을 크게 재정비하며 신문고 제도를 부활시키기도 하여 왕권을 신장시켰고 민생 안정과 부국 강병에 많은 공적을 남겼다.

1) 개수고사촬요(改修攷事撮要)

본서는 영조 19년인 1743년에, 그 이전이 되는 명조 9년인 1554년에 어숙권(魚叔權)에 의해 간행되었던 것을 다시 5권 5책으로 개수한 것이다.

본서에 대해서는 따로 서술한다.

2)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본서는 영조 24년인 1748년의 구택규(具宅奎)의 저서로서, 상하 2편으로 되었다. 본서에 관해서도 따로 서술한다.

3) 급유방(及幼方)

본서는 영조 25년인 1749년 조정준(趙廷俊)의 편찬으로 간행된 것으로서 13권 4책이다. 소아과 전문서이다. 본서에는 치과의학 관계로서 그 권 2와 권 6에 촬구 금구(撮口 噤口)와 구설창(口舌瘡)에 관한 기록이 있다. 주로 의학입문(醫學入門)과 전을제방(錢乙諸方)을 기초로 삼으면서 저자의 오랜 경험을 함께 기록한 책이다.

4) 임신진역방(壬申疹疫方)

임서봉(任瑞鳳)의 편찬이나 그 내용은 미상이다. 영조 28년인 1752년에 간행되었다.

5)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본서는 영조 42년인 1766년의 유중임(柳重臨)의 편저이다. 홍만선(洪萬選)의 산림경제(山林經濟)를 증보한 것이다. 본서에 대해서는 따로 서술한다.

6) 고사신서(攷事新書)

영조 47년인 1771년의 서명응(徐命膺)의 편술이다. 15권 7책이다.

치과의학 관계로서는 본서 권 15의 의약문(醫藥門)에 치이비설단(治耳鼻舌斷), 치비사입구설간(治飛糸入口舌間), 치시착구중(治匙着口中), 치견순(治蠒唇), 치순종(治唇腫)등이 있다.

본서는 의서는 아니다. 일상 생활에 필요한 백과 사전적인 성격의 것이다. 치과 관계의 새로운 내용은 없다.

7) 마진방(麻疹方)

본서는 이헌길(李獻吉)의 저서로서 영조 51년인 1775년의 간행이다.

8) 윤초창(尹草窓)의 운기론(運氣論)

윤초창(尹草窓)은 숙종과 영조 때의 유의(儒醫)로서 운기론(運氣論)의 대가이다. 그의 저서는 초본(抄本)으로 몇몇 전해진다. 곧, 초창결(草窓訣), 원기활법(円機活法), 운기술법(運氣術法) 등이다.

9) 언해랍약증치방(諺解臘藥證治方)

본서는 해마다 12월(臘月)에 내의원에서, 새해에 수급될 여러 상비약명과 약방을 초록했던 것을, 다시 모운 것이다. 그 약들은 주로 당재(唐材)로서 납월(12월)에 조제하므로 납약(臘藥)이라 했다. 본서는 1책으로서 아마도 영조 때의 것이리라 추정되고 있다.

10)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본서는 근세 조선 최대의 전서이다. 저자는 고사신서

(攷事新書)의 저자이던 서명응(徐命膺)의 손자(孫子)인 서유구(徐有榘)이다. 총 권수 113권 52책으로 사본(寫本)이다. 인쇄되지는 못했던 책이다. 그 연대는 미상이나 편의상 여기에 수록한다.

본서 중에 치과의학 관계 기록이 있다. 본서의 인제지(仁濟志 卷 28) 중의 권 3에 치뉵(齒衄), 권 8에는 치통, 권 13에 제감(諸疳), 권 17에 구창(口瘡)등 13종의 구내 병증(口內病證), 권 19에 호구저(虎口疽), 관구저(顴口疽) 등등이 있다. 그 중의 권 8에서 특히 치과 관계는 주로 취급하였다. 그 인용 의서는 직지방(直指方), 의감(醫鑑), 동원십서(東垣十書), 의학강목(醫學綱目), 동의보감(東醫寶鑑), 단계심법(丹溪心法), 만병회춘(萬病回春), 경악전서(景岳全書), 의학입문(醫學入門), 득효방(得效方), 천금방(千金方), 본사방(本事方), 서축당방(瑞竹堂方), 도경본초(圖經本草)등이다. 그 기록에 새로운 내용은 없다.

영조(英祖) 52년 간의 재위 기간 중에도 50회에 걸친 유행성 전염병이 전국을 휩쓰렸다. 우역(牛疫)도 극심했다. 당시의 인명의 피해는 어찌나 많았던지 癘疫死者累萬 不可勝計라는 표현이 실록에는 있고, 民戶十空七八云이라는 표현도 있다. 참고로서 실록을 통해 영조 26년 12월 현재의 전국 인구 조사 결과를 보면, 679만 1천 226명이다. 그런데 이 해의 여역으로 인한 사망자의 수는, 기록된 숫자만도 29만 2천 104명이다. 당시의 영의정이던 조현명(趙顯命)은 말하길, 이러한 숫자 이외에도 실제로 죽은 자는 더 있어서, 그 수는 30여만명쯤 될 것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70여만명이 1년 사이에 죽은 셈이다. 곧 전체 인구의 약 1활이 한해에 사망했다.

14. 정조조(正祖朝)의 의서

정조(正祖 1777—1800) 때의 의서로서 전해지는 것은 대요 다음과 같다.

정조는 영조의 완권 강화 정책을 계승 발전시켜 여러가지 치적을 쌓았다. 특히 그는 규장각을 설치해서 정약용 등 신진 인재들을 등용하고 학술을 장려하였다. 한편 그는 문헌 편찬 사업에도 힘을 기울려, 그로써 왕조의 통치 체제는 더 한층 정비되고, 15세기에 비견되는 문화의 중흥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 유유일실(幼幼一心·幼幼集成)

정조조의 의관 이정섭(李廷燁)의 편찬으로, 소아병 69증에 관한 병증과 약방이 수록된 3권 1책이다. 본서에는 치과의학 관계로서 촬구(撮口)와 검구(撿口)에 관한 것이 있다고 한다. 정조 5년인 1781년에 사본으로 나왔다.

2) 진역방(疹疫方)

본서는 박상돈(朴尙敦)의 저서이다. 본서는 그 내용이 적절하므로 왕명에 의해서 정조 10년에 언해(諺解)되어 전국에 배포되었다.

3) 광제비급(廣濟秘笈)

정조 14년인 1789년 이경화(李景華)의 편찬으로서 4권 4책으로 나왔다.

본서는 그 편찬 목적이 함경도 도민들에게 의학 지식을 알리기 위해, 당시까지의 실용적이던 민간 요법을 소개한 것이다.

치과의학 관계로서는 동의보감에서 인용한 아관긴급(牙關緊急)등 몇몇 약방이 수록되었고, 그것도 그 지역적인 문제를 배려하여 그 곳에서 얻기 쉬운 약재들의 단방 치험(單方治驗)을 채택하였다. 저자는 아마도 유의(儒醫)이던 것 같다.

그 권 1에서 치과 관계 조목의 대요를 보면 이러하다.

아관긴급(牙關緊急)
구창(口瘡)
구설생창(口舌生瘡)
순설초조생창(唇舌燋燥生瘡)
구창불검(口瘡不斂)
구내감창(口內疳瘡)
구문생창(口吻生瘡)
사입구비(蛇入口鼻)
구졸금(口卒噤)
대경구금(大驚口噤)
설건어흘(舌蹇語吃)
설종만구(舌腫滿口)
중설(重舌)
중악(重腭)
설완(舌緩)
설출(舌出)
설창(舌脹)
설출혈(舌出血)
설찬공(舌鑽孔)
설풍무(舌風舞)
설창소풍(舌瘡消颯)
설하창(舌下瘡)
설상창(舌上瘡)
설생망자(舌生芒刺)
설단(舌斷)
순종흑통(唇腫黑痛)
순창(唇瘡)

구내담핵(口內痰核)
아감창(牙疳瘡)
아치점장(牙齒漸長)
발치성농(拔齒成膿)
치통(齒痛)

이상의 항목은 물론 모두 동의보감만을 참고한 것은 아니다. 의학강목(醫學綱目), 역험(歷驗), 제방(諸方) 등등에서도 인용되었음이 명기되었다.

뿐만아니라 본서의 권 1 오절(五絕)에는, 또 증수무원록(增修無寃錄)을 참고한 치과법의학적인 지견도 기재되었다. 권 3의 소아문(小兒門)에서는 소아치과에 관해서 특히 상세히 기록된 점도 지적될만 하다.

4) 증수무원록대전(增修無寃錄大全)

이 의서는 정조 20년인 1796년에 구택규(具宅奎)의 아들인 구윤명(具允明)의 저서로서 간행되었다. 상하 2권이며 언해가 되어 있다. 본서에 관해서는 따로 서술한다.

5) 마과회통(麻科會通) **및 의령**(醫零)

정조 22년인 1798년의 정다산(丁茶山·丁若鏞)의 저서다. 본서는 6권 3책으로서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 들었다.

의령(醫零)은 마과회통의 말미에 부기된 것으로, 실증적인 서구 의학 사상을 받은 병론이 기재되었다.

6) 마진휘성(麻疹彙成)

정조 22년인 1798년 간행된 이원풍(李元豊)의 저서다. 저자는 유의(儒醫)로서 소아과 전문이었다.

7) 제중신편(濟衆新編)

정조 23년이던 1799년에 왕명으로써 당시의 내의원 수의(首醫)이던 강명길(康命吉 1737—1801)이 편찬한 의서다.

본서는 동의보감의 요점을 뽑아 간결하게 서술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의 내의원에서 사용되던 약방에 대해서는 특별히 내국(內局)이라 기재했다. 동의보감에 없는 것으로서는, 약로편(養老篇)과 약성가편(藥性歌篇)을 그 말미에 새로 추가했다.

본서는 의서의 가치로서는 동의보감을 따르지 못한다. 그 내용에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본서는 전기한 광제비급(廣濟秘笈)과 함께 조선시대 후기인 18세기 말과 19세기의 대표적 의서로서 의의가 있다.

본서는 그 간행 이후, 수차 재간행되었고, 중국에서도 1817년(淸 仁宗 嘉慶 22年)에 간행되었다.

치과의학 관계로서는 권 3에 구설(口舌) 및 아치(牙齒)의 2개 항목이 있다. 전기한대로 이것은 거의 동의보감에 의거했다.

먼저 아치의 해부 병리가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고, 맥법(脈法)이 있으며, 아치동(牙齒痛)에는 유칠(有七)이라 하며 7종의 그것이 설명되어 있고, 그 치료법도 있다. 그리고 동의보감에서 인용된 점을 명기하면서, 아치동에 필요한 세신탕(細辛湯), 백지탕(白芷湯), 온풍산(溫風散), 청위산(淸胃散), 정통산(定痛散), 고치산(固齒散), 향초산(香椒散) 형개탕(荊芥湯), 초염산(椒鹽散) 등의 처방이 있다. 이어 치옹(齒壅·息肉), 아치점장(牙齒漸長), 개치(齘齒)에 관한 기록이 있고, 거통치불범수방(去痛齒不犯手方)이라 하여, 통치 자락(痛齒自落), 곧 외과적 발치가 아니면서 아픈 치아가 그 스스로 빠지게 되는 약방을 소개하였다. 치옹 이하의 기록은 그 인용 서목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내용이 아닌 점은 확실하다. 전통적 약방으로서 이미 알려졌던 내용이다.

8) 수민묘전(壽民妙詮)

정조가 우리나라 백성에게 알맞는 약방을 동의보감 중에서 선택 수록한 의서다. 홍제전서(弘齊全書)에 들어있는 것으로서 어느 때에 나왔는가는 미상이다.

9) 통현집(通玄集)

강명길(康命吉)의 편찬으로서, 저자가 동의보감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것이다. 그 연대는 정종의 어느 때인지 아직 미상이다.

15. 순조조(純祖朝)의 의서

순조(純祖 1801—1834) 때의 의서는 다음과 같다.

1) 마방통휘(麻方統彙)

본서는 순조 2년인 1802년의 홍석주(洪奭周)의 저서로 4권 4책이다. 정다산의 마과회통(麻科會通)을 간추린 것이다.

2) 예방고(例方攷)

본서는 순조 18년인 1818년의 고시(顧諟)라는 저자의 자서(自序)가 있는 의서다. 그 내용은 풍(風), 한(寒) 등 11항목 및 신(身), 정(精) 등의 잡방(雜方)에 이르는 여러 예방(例方)을 소개한 것이다.

3) 영운제방(纓雲齊方)

순조조의 수의(首醫) 이명운(李命運)의 저서로서 그 간행 연대는 미상이다. 뿐아니라 그 내용도 미상이다.

순조조 시기에는 그 이전까지와는 다소 그 병세가 다른 유행성 질환이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만연되었다. 해서 실록에는 무명지질(無名之疾), 괴질(怪疾), 윤질(輪疾)이라는 등의 표현으로써 막대한 사망자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 숫자를 밝힌 것은 21회로서, 순조 21년인 1821년 8월에는 10만여명, 그 다음해 8월에는 1

만 5천여명이라 하였다. 이러한 사망자의 발생은, 순조 재위 34년 중에 14회나 있었다.

16. 헌종조(憲宗朝)의 의서

헌종(憲宗 1835—1849)의 15년간의 재위 중에는 다음과 같은 의서가 나왔다.

1) 양의미(瘍醫微)

본서는 헌종 2년인 1836년에 이의춘(李宜春)의 찬과, 신기영(申耆永)의 편으로서 3권 1책으로 나왔다.

치종(治腫) 전문 의서로서 여기에는 치과의학 관계로는 견순(繭脣)과 아관창(牙關瘡) 등이 기록되었다. 외과적인 절개법, 배농법 등도 있다.

2) 의감산정요결(醫鑑刪定要訣)

헌종 말쯤에 간행된듯 싶은 본서는, 동의보감을 참고하면서 그 저자인 이이두(李以斗)의 경험방을 신방(新方)이라 하면서 추가한 것이다.

17. 철종조(哲宗朝)의 의서

철종(哲宗 1850—1863) 6년인 1855년, 황도연(黃度淵)은 부방편람(附方便覽) 14권을 편술했다. 또 7년인 1856년에는 박양경(朴亮敬)이 각세신편팔감(覺世新編八鑑·11卷 6册)을 간행하였는데, 그 권 11에 의약감(醫藥鑑)이 있다.

본서는 도교의 도장경(道藏經)에 있는 약방들 중에서 이용하기 쉬운 것들을 수록한 것이다.

철종 때에도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온 각종 유행성 전염병은 전국을 휩쓸었다. 실록에는 계속 사망 심다(死亡甚多) 또는 사망 상계(死亡相繼)라 표현하였다. 급성 전염성 질환의 거의 계속적인 창궐로써 조선시대 후기는 더욱 더 그 혼란을 가중시켰고, 치과의학의 발달도 그 침체를 가져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순조, 헌종, 철종 등, 나이 어린 군주가 잇달아 즉위하면서 왕권은 약화되면서, 여러 가지 변칙적인 노론파의 정치는 약 60년간 계속되었는데, 이러한 국가적 불운은 정치면에서만이 아니었다.

18. 소아 치과의학의 발달과 급유방(及幼方)의 간행

근대적 문화 부흥의 기운이 우리나라에 태동된 시기는, 대체로 영조(英祖 1725—1776) 때부터 이다. 치과의학 분야에 있어서는 치과의학만을 다룬 실증적 학풍의 독자적 경험과 새로운 관찰을 기반으로 삼은 치과 전문 의서가 비록 간행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새로운 기운에 힘입은 소아과학(小兒科學) 전문 의서가 영조(英祖)때에 이르러서는 간행되어, 거기에 치과의학 관계의 기록도 수록된 점은 주목할만 하다.

영조 때에는 그 초기부터 특히 소아의 홍진(紅疹), 마진(痲疹), 두역(痘疫)이 계속 경향 각지에 유행되었다. 영조의 재위 52년간 중, 실록에 기록된 유행성 전염병의 창궐은 무려 50회나 된다. 그 중에서도 소아(小兒) 관계의 그것은 영조 5년인 1729년과 6년인 1730년에는 홍진(紅疹)이 크게 유행되어, 전국에서 그 사망자는 (幾萬)에 이르렀고, 그 28년인 1752년에는 진역(疹疫)이 전국에 유행되어 京外無人不痛 死亡甚多라는 놀라운 표현으로 그 참상은 전해진다. 뿐아니라 그의 51년인 1775년에도 홍진(紅疹)은 경향 각처에 크게 유행되었다. 京外 紅疹熾盛이라 전한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급성 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국가적 위기에 처했을 때에, 소아과(幼科) 전문 의서인 급유방(及幼方 趙廷俊 著 13卷 4册)은 간행되었다. 곧 영조 25년인 1749년이다.

그 저자인 조정준에 관한 문헌 자료는 많지 않다. 그는 횡성(橫城) 출신으로, 자(字)는 중경(重卿), 일찌기 우승(郵丞)을 지냈다. 실록에 따르면, 영조 4년 11월에 동궁(東宮)의 병세가 악화되어 그 치료를 담당했다.

그는 본서의 서(序)에서, 자신은 신농(神農) 황제(黃帝)의 의학 이론부터 후세의 의서에 이르기까지 수업하여 소아과를 전공한지 50여년이라 하면서, 이제 나이 80을 바라보게 되어, 옛의서를 참고하며 또 자신의 소견도 약기하면서 본서를 저술하였다고 했다. 곧 본서는 고서를 그대로 인용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삼은 소아과 전문의 의서인 것이다.

1. 급유방(及幼方)의 개요

급유방(及幼方)은 명대(明代)의 의학입문(醫學入門 李挺 著)과 송대(宋代)의 소아방(小兒方 錢乙 著)를 주로 참고로 삼으면서, 간혹 거기에 미비된 것을 저자 자신의 경험으로 보충하였다. 그 자신이 경험한 것은 각 병문(病門)의 기록 말미에 추가시켰다.

그는 본서 권 1의 서두인 동방육기론(東方六氣論)에서, 우리나라 풍기(風氣)는 중국과 동일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여러 병은 우리나라 고유의 풍기로써 발생되는 것이라, 치료에 있어서는 그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약을 써야만 된다고 했다. 즉, 우리 풍토에 맞는 치료법을 알아서 치료함을, 치료의 근본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본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소아의 특성과 초생아의 세욕법(洗浴法), 유포법(乳哺法), 보호법으로부터, 소아 질환의 진찰법과 소아 특유의 질환과 또 이환되기 쉬운 질병의 치료법 등등을 널리 취급하였다. 다시 말해서, 본서는 실제적으로 이용 가치가 높은 전문적 의서인 것이다.

이제 그 내용을 좀더 살피면 다음과 같다.

권 1에는 동방육기론(東方六氣論)외에 19항목이 수록되었고, 권 2에는 신생잡증(神生雜症) 외 6항목, 권 3에는 변증(變蒸) 외 5항목, 권 4에는 제경(諸驚) 외 13항목, 권 5에는 마진(痲疹) 등 3항목, 권 6에서는 제열(諸熱)등 7항목, 권 7에는 감질(疳疾) 등 4항목, 권 8에는 복통(腹痛) 등 9항목, 권 9에는 부종(浮腫) 등 3항목, 권 10에는 외감(外感) 등 2항목, 권 11에서는 해수(咳嗽) 등 3항목, 권 12에는 대변불통(大便不通) 등 20항목, 권 13에는 본초 발명(本草發明)과 식치 발명(食治發明)이 수록되었다.

치과의학 관계의 내용은 물론 본서의 여러 개소에 단편적으로 기재되고 있지만, 주로 권 2와 권 6에 독립된 항목으로서 기재되었다. 즉, 권 2에는 촬구(撮口)와 금구(噤口)에 관해서, 그리고 권 6에서는 구설창(口舌瘡)에 대해서 많이 기재하였다.

2. 급유방(及幼方)의 치과의학 관련 기록 내용

급유방(及유방)의 치과의학 관계의 여러 기록이 모아져 있는 곳은, 권 2와 권 6이다.

그 내용을 살피면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 확실히 할 점은, 저자가 참고로 한 현재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소장인 본서는 그 원본이 아니고 초본(抄本)인 사실이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곤 해도 학문적인 연구에 있어서는 큰 지장 내지는 근본적 과오는 아마도 없으리라 사료되는 점이다.

卷2 撮口

撮口風者 面目黃赤 氣喘啼聲不出 胎熱 流毒心脾則舌强唇青 撮口聚面飮乳有妨 又有 初生七日內患此者 急看兒齒齦上 有白點 如粟米狀 以針挑出 即開口便安 參考口舌瘡馬牙條.

蝎梢散. 治一切 胎風 臍風 撮口 噤口. (以下 本處方內容 中略)

噤口

噤口風者 眼閉啼聲漸少 舌上聚肉 如粟米狀 吮乳不得 口吐白沫 二便皆通 由胎中受熱 毒流心脾 故形見於喉舌或爲風邪 所搏之致宜 瀉黃散 方見諸熱.

小兒初生 呼吸微高 啼聲漸少 飮乳似妨者 必生噤撮之漸兼嘔 服朱砂丸 方見嘔吐.

宣風散. 治胎風 噤口 多啼不能 口吐白沫. (以下 本處方 內容 省略)

辰砂全蝎散. 治初生兒口噤. (以下 省略)

控痰散. 治噤口 撮口 臍風 三者一同 皆因裡氣欝 閉先用此吐痰(以下 省略)

卷6 口舌瘡

小兒口中諸疾 乃心脾經熱也. 皆母熱遺兒之致也. 俱宜瀉黃散. 方見諸熱. 或有吐瀉後虛熱上炎 口舌糜爛者 古方用理中湯. 下寒未除 上熱復起 故有口瘡.

鵝口瘡(以下 省略).

重舌. ……刺出血 再生再刺 (以下 省略).

木舌 (以下 省略).

弄舌 (以下 省略).

馬牙. ……急以鍼挑出 (以下 省略).

舌生芒 (以下 省略).

口瘡 (以下 省略)

小兒經痘後 或紅疹後 回裏熱未淨發 爲口瘡齒齦糜爛者 治之當如救焚拯溺 不然則 回成走馬牙疳. 治見腎疳. (以下 省略).

본서의 치과의학 관계 기사를 정리하면 대요 아래와 같다.

1) 본서에 치과 관계 병증(病症)으로서 기재된 것은 모두가 14종이다.

촬구(撮口)
금구(噤口)
구설미란(口舌糜爛)
아구창(鵝口瘡)
중설(重舌)
중악(重腭)
중치(重齒)
목설(木舌)
농설(弄舌)
마아(馬牙)
설생망(舌生芒)
구창(口瘡)
치은미란(齒齦糜爛)
주마아감(走馬牙疳)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중악(重腭)과 중치(重齒)라는 용어(用語)가 있는 점이다. 그 용어 해설에서, 전자는 협(頰) 또는 상악(上顎)에 작은 혀와 같은 것이 붙어 있을 경우이고, 후자는 혀와 같이 작은 것이 치은에 부

착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치은(齒齦)이라는 용어가 있는 점이다. 치은이라는 용어는 본서보다 앞선 여러 의서의 경우는 흔히 사용되지 않던 것으로 사료된다.

2) 치과 영역 치료에 있어서 외과적인 치료법을 병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병증의 경우다. 즉, 침(針)으로써 절개를 가하는 것이다. 그 치료법의 발달을 인식케 한다.

촬구(撮口)
중설(重舌)
중악(重腭)
중치(重齒)
마아(馬牙·齒蠹)

3) 본서에 기재된 처방(處方) 수(數)는 약 40종에 달한다.

4) 본서의 치과의학 관계 기사를 조사한 결과로써는, 저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기록한 부분이 과연 그 어느 부분인가는 확실치가 않다. 그 출전(出典)이나 저자의 경험임을 명기한 곳이 저혀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초본(抄本)인 연유일지도 모르겠다.

해서 저자는 여기서 의학입문(醫學入門)을 조사해 본 결과, 촬구(撮口)일 경우에 외과적 절개, 곧 以針挑出이라 급유방에 기재된 부분은, 조정준(超廷俊)의 경험을 기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의학입문에는 以針挑出이라는 말이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마아(馬牙·齒蠹)일 경우에, 본서 급유방에 기재된 急以鍼挑出이라 하는 부분도, 의학입문에는 전혀 기재되지 않는 내용이다. 하여 아마도 이 부분 역시 조정준의 경험에 의한 기록이 아닐까 싶다.

중설(重舌), 중악(重腭), 중치(重齒)일 때에 刺出血再生再刺라 한 급유방의 기록은, 외학입문의 원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기술(旣述)한 소아방(小兒方)이 기초로 삼은 소아약증직결(小兒藥證直訣 上·中·下 3卷 1冊, 閻孝忠 編 1740年)을 조사한 결과로서는, 전술한 급유방의 농설(弄舌) 조목이 동서에는 있을 뿐인데 그 기록에 상이된 점은 없다. 본서에는 그 서두에 송(宋) 전을(錢乙) 중양(仲陽) 저라 라고 명기되었으니, 치과 관계의 다른 조목은 없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 일단 추찰된다.

참고로서 여기에 부기하면, 급유방에는 그 병증(變蒸) 조목에, 골의 여기(餘氣)가 치은에 들어가서 치아는 32개를 만든다고 하고, 그러나 32개가 되지 못하는 수도 자주 있다고 하였다. 蒸骨之餘氣, 自腦分入齦中, 作三十二齒, 而齒牙有不及三十二數者, 由變不足, 其常也. 或二十八日即至長, 二十八齒, 已下倣此但, 不過三十二之數也.

그리고 그 잡병증(雜病症) 조목에는, 咬牙甚者發驚, 口中吐沫水者, 後必虫痛. 口噤不止, 則失音遲聲亦同, 齒久不生, 生則不固라고도 하였다. 뿐만아니라, 그 불치증(不治證)의 조목에는 치과 관계로서는 魚口氣急과 病重口乾不睡 그리고 時氣唇上靑黑點 등의 병증일 때를 열거하고 있다.

19. 치과법의학적 지견의 응용 및 보급

우리나라에서 치과법의학적인 지식이 그 형정(刑政)에 응용된 때는 세종(世宗) 즉위 당시부터이며, 그것이 좀더 널리 응용된 시기는 세종 22년인 1440년에 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이 간행된 때부터 이다.

그런데 그 후 영조(英祖 1725—1776) 21년인 1745년 속대전(續大典)을 편찬할 때에, 새로 그 동안에 알려진 법의학적 지식과 문제점을 보완 수정하여 이 분야의 많은 발전과 지식의 보급을 보게 되었다. 곧, 증수무원록(增修無寃錄)의 간행이 그것이다. 본서는 객관적 관찰에 기초를 둔 법의학 전문 의서이다.

1. 증수무원록(增修無寃錄)

증수무원록(增修無寃錄 上下篇)은 구택규(具宅奎 1693—1754)의 편저로 1748년에 간행되었다.

본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전기한 신주무원록의 편집 체제와는 전혀 판이하다. 즉, 신주무원록에 수록되었던 원나라(元朝)의 검안 문례(檢案文例)는 삭제되었을 뿐 아니라, 또 그 후에 청나라(淸代)에 이르러 그 성조(聖祖 1662—1722) 때에 율례관(律例館)에서 교정했던 세원록(洗寃錄)과 그 밖의 평원록(平寃錄) 미신편(未信編) 등을 참작하였고, 또 이독(吏讀)으로써 구결(口訣)을 가해서 이해하기가 쉽게 편술되었다. 그 지식의 보급을 위한 뚜렷한 편집 의도를 볼 수가 있다.

2. 증수무원록대전(增修無寃錄大全)

증수무원록대전(增修無寃錄大全 上下 2卷)은 정조(正祖 1777—1800) 20년인 1796년에 간행되었다. 편자는 구윤명(具允明 1720—1792)이다. 전기한 구택규의 아들이다. 본서는 증수무원록이 간행된 약 50년 뒤에 간행되었다.

본서는 전기한 증수무원록의 기록 내용과 크게 다른 것이 없다. 편저자는 증수무원록의 유(冗)를 빼고 누(漏)를 보충하며 오자(誤字)를 정정하여 그 내용을 보다 잘 정리하였고, 어려운 자귀(字句)에는 훈의(訓義)와 보주(補註)를 가했다. 그러한 모든 정리 작업은 그 자신이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고, 몇몇 학자의 자문을

받았다.

본서는 초간(初刊)된 후 철종(哲宗 1850—1863) 10년인 1859년, 고종(高宗 1864—1906)의 초기와 그의 27년인 1890년, 그리고 그의 말년에도 각각 인출되었다. 그 지식의 보급에 힘쓴 것이다.

그리하여 본서는 20세기 초까지도 형정(刑政)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서적(敎書的) 역할을 했던 것이다.

본서의 언해(諺解)는 정조(正祖) 16년인 1792년 왕명으로써 서유린(徐有隣 1738—1802)에 의해 간행되었다. 이러한 언해서의 간행 사실만을 통해서도, 당시의 치과 법의학적 지식의 보급은 놀라운 것이었음을 또한 여실히 추찰할 수 있다.

3. 증수무원록(增修無寃錄)의 치과의학 관련 기록 내용

증수무원록(增修無寃錄)의 치과법의학 관계 기록은, 구택규의 편저나, 구윤명의 그것이나 그 모두가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그 치과 과계 기사를 전체적으로 찾으면 물론 단편적으론 도처에서 산견된다. 그러나 특히 치과 관계의 그것만이 기재된 개소는, 본서의 하편에 수록된 구치교상사(口齒咬傷死)와 압새구비(壓塞口鼻) 및 론인신골조(論人身骨條)의 3종목에서 이다.

그 원문은 이러하다.

下篇

口齒咬傷死

齒內有風，一本作毒，(增)風亦毒也. 著於瘡口，多致身死，其咬破處，瘡口周回，傷痕周匝， 骨折必有膿，水淹浸皮，肉損爛，其痕有口齒痕， 及皮肉不齊，(增)謂如鋸而參差處.

壓塞口鼻死

凡被人以衣服，或濕紙， 搭著口鼻死則腹乾脹. 被人以物，壓塞口鼻，出氣不得， 命絕死者，眼開睛突，口鼻內流出清血水，滿面血癍赤黑色，糞門突出及便，(增)大便. (以下 省略)

論人身骨條

有牙二十四，或二十八，或三十二，或三十六.

이상의 기록을 보면, 물론 有牙三十六이라 기록된 개소도 있기는 하나, 그러나 본서의 간행 당시의 여러가지 실정을 고찰할 때에는, 그 형정(刑政)에 있어서의 실용적 가치는 대단한 것이었음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증수무원록에 치과 관계 기록이 있는 곳을, 그 항목에 따라 모두 조사하면 다음과 같은데, 우선 범례 다음에 있는 자훈(字訓)에는 아관(牙關)이라 하고, 이것을 설명하여 牙之所開閉 故曰關이라 하였다. 즉, 하악관절(下顎關節)을 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용어(用語)의 해설로서는 총 79개가 있다.

상편(上篇)

검식(檢式)

사시변동(四時變動)

시장식(屍帳式)

앙면(仰面)

하편(下篇)

태상사(胎傷死)

늑에사(勒縊死)

자에사(自縊死)

자늑사(自勒死)

피인늑사(被人勒死)

피인살가작자에(被人殺假作自縊)

익수사(溺水死)

자익사(自溺死)

피인살가작자익(被人殺假作自溺)

변생전사후익(辨生前死後溺)

구타사(毆打死)

피타사(被打死)

구치교상사(口齒咬傷死)

인상사(刀傷死)

자할사(自割死)

피인살사(被人殺死)

변생전사후상흔(辨生前死後傷痕)

화소사(火燒死)

인로병재상실화소사(因老病在牀失火燒死)

변생전사후화소(辨生前死後火燒)

중독사(中毒死)

생전중독사(生前中毒死)

중충독사(中虫毒死)

중서무초독사(中鼠莽草毒死)

중비상야갈독사(中砒礵野葛毒死)

중금잠분독사(中金蠶糞毒死)

중주독(中酒毒)

중균심독사(中菌蕈毒死)

중파두독사(中巴豆毒死)

복염로사(服鹽滷死)

병환사(病患死)

병환기동구걸재로사(病患飢凍求乞在路死)

사마중풍졸사(邪魔中風卒死)

중암풍사(中暗風死)

상한사(傷寒死)

시기사(時氣死)

중서사(中暑死)

고내병사(辜內病死)
남자작과사(男子作過死)
동사(凍死)
아사(餓死)
압사(壓死)
압새구비사(壓塞口鼻死)
은점사(隱墊死)
경학신사(驚謔身死)
차년사(車碾死)
뢰진사(雷震死)
주식취포사(酒食醉飽死)
호교사(虎咬死)
론인신골조(論人身骨條)

이상의 각 조목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것은 그 필요에 따라, 구순의 개폐, 색상, 치아의 노출 여부, 상하의 치아를 깨물고 있는가의 여부, 아관 긴급의 유무, 구강 내에 혈액 혹은 이물이 있는가의 여부, 혀를 입밖으로 내밀고 있는가의 여부 등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 기록은 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 上下 2卷, 1440年刊行)보다는 좀더 발달된, 곧 조사의 대상 범위가 넓어진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근세 법의학과 매우 유사한 체제를 갖추었다. 다만 그것은 모두가 육안적인 관찰로써만 끝나는 점이 미흡할 뿐, 그 내용들은 어느 것이나 심히 이론적인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20. 서양의학과의 접촉과 인식

17세기 전반인 인조(仁祖 1623—1649) 때부터 서서히 서양의학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우리나라 의학은, 17세기 후반부터는 중국의 명말(明末) 청초(淸初)인 당시에 중국으로 왔던 서구의 천주교 신부들이 한역(漢譯)한 교리서(敎理書)를 통해서, 서구의 의학적 지식과 다시 접촉하게 되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 의학 지견은 점차 동요를 일으키게 되었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새로운 지식이 그대로 곧 실제적인 면으로까지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고, 다만 당시의 진보적이던 소수 인사들의 관심을 끄는데에 멈추었다.

당시 우리나라에 알려진 서양의설(西洋醫說)을 살피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주제군징(主制群徵)의 전래(傳來)

주제군징(主制群徵)이 과연 어느 연대에 누구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는가 하는 점은 미상이다.

본서는 천주교 교리서(敎理書)의 일종으로서, 그 한역자(漢譯者)는 독일인 신부 아담샬(Adam Shall 漢名 湯若望)이다. 그 내용은 아리스토틀(Aristotle)의 철학과, 게일랜(Claudius Galen 131—210 B.C.)의 인체 해부 및 생리설을 소개한 것이다.

본서는 아마도 인조(仁祖)의 장자 소현세자(昭顯世子)가 귀국할 당시에 전래된 것이 아닐까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곧, 그것은 인조 23년인 1645년 청(淸)의 순치(順治) 2년이 아닐까 추정하는 것이다.

게일랜(Galen)의 해부학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그는 동물의 해부와 인체 골격의 관찰을 통해, 골(骨)은 그 내부에 수관(髓管)을 갖는 장골(長骨)과, 그것을 갖지 않는 평골(平骨)로 구분하였고, 두개골 형성에 관해서도 자세히 인식하여, 치아는 골의 일종이라 주장하였다. 뿐아니라 척추, 관절, 근육, 혈관계 및 뇌신경의 분포 상태에 관해서도 세세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생리학 분야에서는, 생명 유지의 근원은 호흡을 통해서 흡입되는 영기(靈氣)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그 영기는 기관(氣管)을 통해 폐에 이르고, 다시 폐정맥을 통해서 심장 좌실(左室)에 도달해서, 혈액과 혼합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체의 영양은 장으로부터 흡수되어 간에 이르러 혈액이 되고, 하나의 특별한 활소(活素)인 자연 영기(自然靈氣)가 다시 새로 거기 부여되어, 인체의 성장과 영양으로서의 힘을 얻는 것이라 하면서, 간장에서 나쁜 혈액은 폐로 가는 폐동맥에 의해 정화되고, 그것은 호흡으로써 신체 외부로 방출된다. 정맥관 속의 혈액은 부단히 정화되면서 그 영양 공급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 맥관을 순환한다. 그 정맥혈(靜脈血)의 극소량은 심장의 근성 중격(筋性中隔)의 미세한 관을 통해 심장의 좌실(左室)로 도달하여 거기서 폐정맥을 통해 폐에서 운반된 공기와 혼합된다. 그 혼합을 통해서 동맥혈은 생성되며, 생명 유지의 근원물이 되기 위한 생명 영기(生命靈氣)도 함께 부여된다. 생명 영기가 부여된 혈액은 동맥 속을 돌면서 여러 장기에 기능을 부여한다. 그 혈액이 뇌에 이르면 거기서는 동물 영기(動物靈氣)가 또 부여된다. 그 동물 영기는 뇌로부터 신경에 전달되어 운동 혹은 감각 등등의 기능을 발생케 한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혈액과 영기를 운반하는 혈행(血行)은, 조류(潮流)의 간만(干滿)에 따라 어떤 힘을 얻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는 또 척수색(脊髓索)의 손상은 곧 생명 유지에 큰 장해가 될 수도 있음을 실험을 통해서 확실히 하였다.

이러한 서양 의설은 아마도 당시 우리나라 인사들에게는 충격적이며 크나 큰 호기심을 끄는데에 충분하였

으리라 사료된다.

2. 성호새설(星湖僿說)의 서양의설(西洋醫說)과 본초론(本草論)

성호새설(星湖僿說) 권 5에는 서구의(西國醫)와 본초(本草)라는 두 제목의 기록이 있다. 본서의 저자는 이익(李瀷 1682—1764)이다. 아마도 이 기록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소개된 서양의설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는 이 기록에서, 서양의 의설은 중국 의학에 비해서 더 자세하기 때문에 쉽게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 하였고, 또 아담샬(湯若望)의 저서를 보면 중국인의 본초 연구보다는 서양인들의 그것이 더 우수하다고도 했다.

그런데 이익의 이 기록 내용을 살피면, 그 용어의 특수성에 비추어 세세한 점까지 이해하기엔 힘든 점이 없지 아니하나, 전술(前述)한 주제군징(主制群徵)에서 한역(漢譯) 소개된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 내지는 이해의 잘못 같은 점이 있지나 않은가 추찰되기도 한다.

김두종(金斗鍾)은 그의 한국의학사에서 이익의 그 기록은, 우선 자세히 해득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전제를 하면서, 그것을 생리 원칙(生理原則), 혈액, 호흡, 뇌척수신경 등 5개항으로 그 나름대로 요약하였는데, 그것은 기술(旣述)한 바와 같은 게일랜(Galen)의 의설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하여 이 부문의 정확한 연구는 주제군징(主制群徵)의 원본이 자료로서 입수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사료한다. 다시 말해서, 저자는 김두종이 요약한 그 내용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의 원문에 대해서 다소의 의문을 느낄 수 있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갖는 것이다. 즉, 이익으로서도 게이랜의 새로운 그러면서도 전혀 생소한 의설을 충분히 해득 이해하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추찰하기 때문이다.

西國醫人鄔若望. 天啓間至中國. 其主制群徵云. 有骨有肉形備矣. 然必須本熱爲生. 血爲養氣爲動覺. ……(中略) 今論血所由來. 必賴食化. 食先歷齒刀. 次歷胃釜.…(省略).

鄔若望者. 西洋人也. 天啓間. 至中國善醫. 究中國本草八千餘種. 惜未飜譯云. 其人長於考至. 凡物理之說. 皆非華人所及. 此必有奇方異材. 大益於人生. 華人尊信猶未至, 不能傳後而泯焉. 可異.

3. 하란타소아방(荷蘭陀小兒方)과 서양수로방(西洋收露方)의 인지

열하일기(熱河日記 朴趾源 著 1737—1805)의 권 38의 금료소초(金蓼小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록이 있다.

내가 열하(熱河)에 있을 적에 대리사경(大理寺卿)인 윤가전(尹嘉銓)에게, 요즘 의서들 중의 새 경험방(經驗方)으로서 사서 가져 갈만한 게 있읍니까 물었더니, 윤경(尹卿)은 근세의 일본의 판각(版刻)인 소아경험방(小兒經驗方)이 가장 좋은 의서인데, 그 책은 서남 해양 중에 있는 하란원(荷蘭院·네덜란드의 교회)에서 냈다고 합니다. 또 서양의 수로방(收露方)이란 의서가 매우 정미로우나, 시험해 보니깐 그다지 효력이 없었읍니다. 이것은 그 곳의 기후와 풍토는 다르며, 또 옛적과 지금 사람들의 기품이나 성질이 다른 탓입니다. ……(중략). 나는 연경(燕京)으로 돌아가 프랑스(佛國)의 소아방(小兒方)과 서양의 수로방(收露方)을 구해 봤지만 그러나 모두 구하지를 못하고……(생략). 余旣還燕, 求荷蘭小兒方, 及西洋收露方, 俱不得…….

이러한 기록으로써 당시에는 이미 새로운 서양의 의서가 많이 중국에는 있었음을 우리나라 인사들도 알게 되어, 그에 대한 관심도 점차 진작되었으리라 추찰된다.

4. 주영편(晝永編)과 의령(醫零)

주영편(晝永編 上下 2卷)은 실학자 정동유(鄭東愈 1744—1808)의 저서로서 순조(純祖) 5년인 1805년에 간행되었다. 본서의 사본은 4권 4책으로 전해진다.

본서에서 저자는 주장하기를, 동양에는 일찍부터 오행설(五行說)이 의학 이론에 도입되어 왔다. 그런데 인체의 오장(五臟)과 오행(五行)을 서로 배속(配屬)시킴에 있어, 사람에 따라서 그 주장이 다르다. 서로 그 주장이 다르다는 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 하면, 동양의학의 경우는 그 오행의 생극(生克)에 따라 진병(診病)과 약성(藥性)등을 논하는 것이라, 만일에, 그 배속이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면, 그 치료 결과는 전혀 달라지기 마련아닌가. 소문(素門)은 심(心)이 화(火)라고 하고, 양웅(揚雄)은 심(心)이 토(土)라고 하니, 이 어찌된 일인가 하는 뜻의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그러한 동양의학의 오행설은, 치료에 있어서 필요치 않은 것이라 주장하였다. 놀라운 실학자의 지적과 주장이다.

의령(醫零 1卷)은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저서로서 정조(正祖) 22년인 1798년에 간행되었다.

본서에서 저자는, 고금의 동양 의인들은 선배들의 주장에서 그 그릇됨을 밝히려 들지는 않고, 오직 전래되는 의설만을 그대로 신봉하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라는 말을 했다. 그리고 근세 물리학적인 이론을 전하면서 그의 근시론(近視論)에서는, 동양의학에서 근시는 양(陽)이 부족하며, 수(水)가 무(無)한 까닭이라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며, 동구(瞳球)가 돌(突)하면 시심(視心)이 근(近)에 회(會)하는 까닭에 그만 근시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안경이 돌(突)하면, 가까운 것은 볼 수 있어도

좀 멀면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 하는 말도 하였다. 다시 말해서, 저자는 동양의학의 음양설과 오행설에 대해 크게 반대하는 태도를 취했다.

정동유와 정약용 등 실학파(實學派)의 이러한 일련의 증장은 능히 서양의학에 관한 당시의 국내의 관심을 크게 모았으리라고 추찰된다.

5. 종두기법(種痘奇法)의 전래

1796년(正祖 20年, 淸 嘉慶 元年)에 영국의 에드워드 젠너(Edward Jenner)에 의해 발견된 우두종법(牛痘種法)이,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래된 정확한 시기는 미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헌으로서 종두기법(種痘奇法)이 기록된 것은, 정약용(丁若鏞)의 마과회통(痲科會通 6卷 3册)의 권말에 부기된 것이 그 최초이다. 마과회통은 정조(正祖) 22년인 1798년에 간행되었다.

저자는 중국에서 1828년에 간행된 한역(漢譯) 종두기법의,) 중간본(重刊本)인 신증종두기법상실(新證種痘奇法詳悉)을 소개한 것이다.

김두종(金斗鍾)은 그의 한국의학사에서, 정약용이 본법을 실용한 때는, 대략 헌종(憲宗 1835—1849) 원년 말이리라 추정하였다.

정약용이 실시한 종두법은, 당시의 국내 의사들에게 서양의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모았을 터이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60卷 寫本 李圭景 著)의 권 12의 종두변증설(種痘辨證說)에도, 정약용이 1835년인 헌종 원년에 종두법(種痘法)을 실시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 某方茶山秘不示人, 或有見者相傳, 如此即牛乳種痘方取牝牛乳……(省略).

6. 인체내외총상변증설(人體內外總象辨證說)

이규경(李圭景)은 그의 저서인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권 19에서 인체내외총상변증설(人體內外總象證說)을 쓰고 있다. 이것은 기술(旣述)한 주제군징(主制群徵)의 서양의학의 해부 및 생리 등 새로운 지식을 소개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각 장기의 생리 작용을 주로 설명한 것이고, 각 장기의 위치나 형태 또는 조직에 관한 지식을 소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개로써 당시의 우리나라 인사들에게는 서양의학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되었을 점은 확실하리라. 凡爲格物 窮理之學者更不知 人形內外 景藏府骨肉之爲如何……(省略).

7. 서양의학 한역(漢譯) 의서의 수입

19세기 당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서양문명에 관심을 품고 거기 대해 많이 연구한 학자들 중에는 최한기(崔漢綺 1803—1879)가 있다. 그는 서양의학에도 관심을 갖고 한역 의서들을 수집하였다. 그가 생전에 수집했던 명남루문집(明南樓文集)은 1천권에 달한다. 그 중에는 다음의 의서 5종도 포함되었다. 이 5종의 한역(漢譯) 의서는 청(淸)의 문종(文宗 1851—1861) 원년인 함풍(咸豊) 원년부터 그 8년까지(1851—1858), 영국의 의사 합손(Habson 漢名 合信)이 상해(上海)의 인제의관(仁濟醫館)을 통해 간행했던 것이다.

전체신론(全體新論)	1851년 간행
서의략론(西醫略論)	1856年 간행
내과신론(內科新論)	1858년 간행
부영신설(婦嬰新說)	1858년 간행
박물신편(博物新編)	1858년 간행

전체신론은 인체의 모든 골격 등, 총 271개에 달하는 그림을 곁들인 인체 해부 서적이다.

서의략론은 상·중·하 3권 1책으로서 외과 의서이다.

내과신론은 내과 전문 의서이며, 부영신설은 부인과와 소아과의 전문 의서이고, 박물신편은 물리와 화학 및 생리학 관계의 서적이다.

이러한 의서들이 어느 때에 누구에 의해 수입되었는가는 미상이나, 당시의 인사들에게 서양의학에 흥미를 갖게 하기에는 충분하였으리라 고찰된다.

8. 천주교의 선교 의료 사업

천주교의 초기 선교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새로운 서양의학이 소개되었으리라 하는 추정은, 결코 무리는 아니라 고찰된다. 당시의 천주교 선교 신부들은 천주 교리서만이 아니라, 각종의 새로운 서양 문명의 이기들을 함께 갖고 왔던 사실은, 이미 확실한 근거를 여러 가지로 들 수 있다.

그런데 의학 부문에 있어서의 그들의 활동 내지는 업적에 관해서는 아직도 많은 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그런대로 이 분야에 관한 자료의 정리는,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1984년 5월 1일 간행한 한국교회사 논문집에서 이루어졌다.

한국교회사 논문집 I에 따르면, 한국 가톨릭 초기 신자들의 12.20%는 의원(醫員)이었다.

초창기의 최량업(崔良業) 신부가 선교본부에 보낸 서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조선의 풍토는 건강에 퍽 좋으나, 물은 어디엘 가나 맛이 없고, 또 물이 여러 지방에서는 많은 병의 원인이 된다……(중략). 조선사람들은 이 병을 수토병(水土病), 즉 물과 흙에서 오는 병이라 부른다. 폐 넓은 몇 줄기의 도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꼬불꼬불한 좁은 길로 되어 있어 공기가 잘 통하지 않고, 발에 밟히는 것이라고는 오물 뿐이다……(중략). 비위생적인 물을 소독할 약을 청하고 싶습니다. 지식이 많은 프랑스 사람들은 그런 약 한가지를 저희들에게 일러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쁘띠니꼴라(Michel Alexandre Petitnicolas)신부는 많은 신자들이 그가 준 약으로써 목숨을 건졌다는 기록도 했다.

다시 말해서, 초기의 선교 신부들의 의료 활동은, 개인적인 것이었으나 그것은 점차로 교회 당국의 사업이 되었다.

즉, 베르뇌(Siméon Berneux) 신부는 1858년, 중요 도시마다 시약소(施藥所)를 설치했고, 그 이전부터 가톨릭 교회에서 시작했던 성영회 사업(聖嬰會事業)의 하나로서, 비록 의사들에 의한 사업은 아니었으나마 활발한 의료 사업을 전개했다.

전기한 한국교회사 논문집 Ⅱ에 따르면, 어느 천주교 교인 의사가 어느 날 다블뤼(Daveluy) 주교에게 말하기를, 그가 몇 주일전에 약을 준 어린아이 72명 가운데, 2명만이 죽음을 모면하였다고 보고했다는 기록도 있다.

뿐아니라 또, 제 3대 조선교구장 페레올(Ferréol) 주교는 결석(結石)으로 오랫동안 고생해서 빈사 상태에 이르렀으나, 한의사(漢醫師)에 의해 불과 몇 시간만에 낫게 되었었다고도 하였다.

가톨릭 선교와 관련되었던 당시의 약국에 관해서는 중인(中人) 출신이던 최필제를 들 수 있다. 최필제는 서울 네거리에서 약국을 경영하면서 그 곳을 교인들의 비밀 집회소 혹은 첨례 보는 장소로도 이용하였다가, 1801년의 천주교 박해 때에 순교하였다.

이상으로써 고찰할 적에, 천주교의 초창기 교인들이 과연 어떠한 내용의 서양의학의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그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물론 상세히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 교인들이 가장 먼저 서양의학에 접촉한 사실과, 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서구적인 내용의 의료 사업을 시작하였다는 점만은 아마도 거의 틀림이 없는 점이리라 일단은 추찰된다.

21. 이의춘(李宜春)의 양의미(瘍醫微)와 그의 치종술

이의춘(李宜春)은 순조(純祖 1801—1834)때의 치종(治腫) 전문의이다. 그는 순조 14년인 1814년 순조의 명을 받아 입궐한 기록이 있다. 그는 옹저(癰疽) 치료에 능숙했다. 그 치료법은 그의 제자이던 신기영(申耆永)에 의해 양의미(瘍醫微 3卷 1册 寫本)라 이름하여 헌종(憲宗) 2년인 1836년에 간행되었다.

본서는 서명 그대로 옹저(종기·등창)에 관한 전문 의서이다. 그 기록은 계통적이며 과학성이 풍부해, 당시의 옹저 치종법의 대요를 추찰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

본서에서 옹저는 오장 육부의 불화가 곧 그 발생 원인이라 하였다. 그의 치종법은 대요 다음과 같았다.

치종에 있어서 먼저 유의할 점은, 그 초기에 소농제(消膿劑)를 사용하여 화농이 되지 않도록 할 점이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그 다음에는 화농을 촉진시킬 점이다. 그것을 촉농(促膿)이라 한다. 모든 옹저는 절개(切開)보다는 그것이 절로 터지게 하는 것이 좋다. 즉 자궤(自潰)시키는 것이다. 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그 때는 개도(開刀)한다. 개도는 잘 화농되어 농이 생길 의심이 없을 때에 한다. 그 방법은 칼(刀)을 하향(下向)시켜서 농의 두처(頭處)를 파(破)해 혈(穴)을 만드는 것이다. 그 혈은 클수록 좋다.

개도(開刀)시킨 후에는 삽임(揷紝)한다. 임(紝)은 심지이다. 삽임은 헝겊조각에 약을 발라 개도한 창구에 넣는 것을 말한다. 임(紝)의 종류에는 보통 네가지가 있다. 도창지(塗窓紙)를 꼬운 것과, 백면(白綿)을 해조(海藻) 속에 넣어 꼬운 것과, 낭유근(槐楡根)의 백피(白皮)를 꼬운 것 그리고 건복(乾鰒)을 쪼갠 조(條)를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다. 옹저는 어느 경우나 자주 세척하는 것이 좋으며, 또 그것이 치유된 다음에는 주위의 피부가 잘 펴지도록 한다. 혹시 옹저의 창구가 잘 폐색되지 않으면 합창(合瘡)시킨다. 오래 치유되지 않을 때에는 충(虫)이 생겨 후골(朽骨)이 된다. 그리고 그 창중(瘡中)에는 악기(惡氣)가 응결된다. 창상은 모두가 화(火)에 속하는 것이다. 그 치료법은 3가지로 나누어 진다. 탁리(托裏)는 내(內), 소통(疎通)은 외(外), 영위(榮衛)는 중(中)을 치료하는 것이다.

본서의 제 2 권에는 옹저의 발생 부위로서 인후(咽喉)외 15개소를 열거했고, 제 3 권에서는 치루(痔漏)등 17종을 기재하였다.

치과의학 관계로서는, 제 2 권에 견순(繭唇·口唇癌)이 있고, 제 3 권에는 아관창(牙關瘡)이 있다.

이상으로써 농양의 절개법을 위시한 그 치료법은, 우리나라의 경우 19세기 전반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었음을 여실히 알 수 있다. 물론 본서는 치과의학 관계의 전문 의서는 아니다. 그러나 외과학의 진보는 곧 구강외과의 진보를 뜻하는 것이다.

22. 조선시대 후기 치과의학 개관

조선시대 후기 치과의학은, 그 전기의 학문적 전통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였다. 후기의 그것을 가장 잘 대표하는 의서는, 광해군(光海君 1609—1623) 5년인 1613년에 성립된 동의보감(東醫寶鑑)이다. 물론 본서가 간행

된 후에도 허다한 의서들이 계속 간행되었지만, 그러나 그 대부분은 본서에 크게 의존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7세기 전반인 인조(仁祖 1623—1649)때부터 서서히 새로운 서양의학을 인지하기 시작하였고, 17세기 후반부터는 좀더 그것과 접촉하게 되었으나, 그것이 임상면(臨床面)에 까지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 동의보감의 간행 이후에 보다 많은 치과의학의 발달이 왜 계속 없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가지 사정을 들 수 있겠으나, 한마디로 국력의 쇠퇴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해서 조선시대 후기의 치과의학을 개괄적으로 살피는 데에 있어서는, 우선 동의보감을 주로 삼는 것이 옳으리라 고찰된다.

치과의학의 경우, 그 전기에 속하는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이나 의방류취(醫方類聚) 등에서 보여준 높은 수준의 발달이, 동의보감(東醫寶鑑)의 간행 이후부터는 그 특기할만한 진보를 지적하기에 다소 주저되는 바 없지 아니함은 숨길 길이 없다.

다시 말하서, 조선시대 후기의 치과의학은, 대략 17세기 후반부터 계속 정체를 벗어나지는 못하였다고 해도 고찰의 큰 잘못은 없을까 한다. 이 부문은 금후 보다 더 연구되어야 될 점임은 더 논할 바도 없다.

이제 기술(旣述)한 바와 같은 조선시대 후기 치과의학의 발달을, 포괄적이며 간략하게 그 분야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구강해부학

악골의 존재와 상하의 구분을 인식하였고, 치아 조직은 골조직과 동일한 것임을 인식하였다.

치아의 영양 공급은 수(髓)가 하며, 신(腎)이 주관한다.

치아에는 수족양명맥(手足陽明脈)이 분포되었다.

치아의 교환은 남자는 8세부터, 여자는 7세부터 이고, 유치는 생후 8개월만에 맹출하기 시작한다. 지치는 남자는 24세, 여자는 21세에 맹출되며, 남녀 보두 40세부터 마르기 시작하여 64세에 탈락된다.

구전(口前)의 양대치(兩大齒·中切齒)는 판치(板齒), 그 양옆의 치아(側切齒)는 아치(牙齒), 치은 제일 뒤의 치아(智齒)는 진아(眞牙)라 한다.

치아의 총 수는 32개이나, 24개, 28개, 36개일 경우도 있다.

구순으로부터 치아에 이르는 거리는 9푼(分)이며, 입의 넓이는 2치반(2寸半), 치아들의 뒤로부터 회염(會厭)에 이르는 거리는 3치반(3寸半), 구강의 용적은 5홉(5合)이다.

혀(舌)의 무게는 10량(兩), 그 길이는 7치(寸), 넓이는 2치반(2寸半)이다.

타액은 혀로 흐른다.

혀는 모든 미각(味覺)을 주관한다.

심(心)의 본맥(本脈)은 설근(舌根)에 분포되었다.

비(脾)의 낙맥(絡脈)은 설방(舌傍)에 분포되었다.

간맥(肝脈)은 음기(陰器)를 따라 설본(舌本)으로 연락되었다.

신(腎)의 진액(津液)은 설단(舌端)으로 나와 오장(五臟)으로 가는데, 그것을 주관하는 것은 심(心)이다.

2. 구강생리학

구강생리학적 지견은 전통적인 그 이전까지의 음양설과 오행설에 의거된 생리설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서양의학의 새로운 생리설이 소개된 때는 아마도 1645년이 아닐까 추찰된다. 그 내용은 16세기 문예 부흥의 영향을 받은 근세의 생리학적인 내용은 아니었고, 게일랜(Claudius Galen 131—210 B.C.)의 생리설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아마도 그나마 그것이 한역(漢譯)되는 과정에서 정확히 이해되지는 못하지 않았던가 추찰되기도 한다.

음식물 소화에 타액이 필요한 것임도 인식하였던 것 같다.

3. 구강병리학

전통적으로 전승된 음양설, 오행설, 오운육기설(五運六氣說·運氣說)이 병리(病理)의 기본 이론을 이루었다.

동의보감의 병리설은, 한대(漢代)로부터 명대(明代)에 이르는 대표적 각 의서들의 병리설을 종합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론 전개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러한 중국 의서에만 의존하지는 않았고, 우리나라 풍토에 맞을 독자적 이법(理法)을 서서히 갖추게 되어, 그 후 우리나라 병리학 부문 발달의 기초를 이룩했다.

치과 질환은 위(胃)의 습열(濕熱), 풍사(風邪), 적열(積熱), 위열(胃熱) 등, 또는 신원(腎元)의 허(虛) 등으로써 주로 설명되었다.

4. 치아우식증에 대한 이해와 인식

치아우식증은 음식물의 나머지가 부패되어, 그 기(氣)가 치아에 구멍을 발생시키며, 그 곳을 충이 파먹는 까닭에 발생된다.

치아우식증은 전염성을 가졌다. 충은 한개의 치아를 파먹은 다음에는 다시 그 인접 치아를 파먹는다. 해서

그 치료에 있어서는 충을 반드시 잡아야만 한다.

본증에 관한 이해와 인식에 있어서는, 그것이 조선시대 전기의 그것보다 도리어 후퇴된 감마저 있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물론 속단키는 힘들까 싶다.

5. 치통의 분류

치통은 7종으로 분류하였다. 풍열통(風熱痛), 풍냉통(風冷痛), 열통(熱痛), 한통(寒痛), 독담통(毒痰痛), 어혈통(瘀血痛), 충식통(虫蝕痛)이 그것이다.

6. 치주학

치아주위염은 풍열(風熱)이 은간(齦間)에 작용한 결과 발생되며 출혈도 있게 된다.

치석은 제거해야 된다. 그것은 침도(鍼刀)로써 한다. 만일 이것을 제거치 아니하면, 치아와 치은은 부착되지를 못한다.

치주학 분야에 관한 동의보감의 기록은, 그 내용만을 본다면 조선시대 전기의 그것보다 도리어 후퇴된 느낌마저 있다. 그러나 물론 속단키는 어렵다고도 고찰된다.

7. 구강보존학

구강보존학 분야에 있어서의 발달은, 조선시대 전기의 그것보다 보다 발달된 점을 찾기 힘든다. 동의보감은 발수(拔髓)에 관해서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충전(充塡)에 관해서도 자세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

이상의 사실만을 가지고 속단하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으나, 이 분야의 발달은 조선시대 전기의 그것 보다 특기할 발달은 없다고 일단은 사료된다.

8. 구강외과학

구강외과학은 치과의학 전체를 두고 고찰할 때에는 가장 많이 발달된 분야이다.

구순암(口唇癌·繭唇·緊唇·潘唇)과 발치와 치아의 재이식 등에 관한 연구 내지는 인식이 많았다.

동의보감의 치과의학 관계 기록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구강외과 관계이다. 그러나 관혈적 수술법(觀血的手術法)에 관해 언급한 곳은 단 한 개소도 없다.

우리나라에서 침도(鍼刀)를 사용한 관혈적 수술법은 17세기에 많이 발달하였으나, 치과의학 관계의 그에 관한 전문적인 기록은 1986년 현재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다. 외과적인 농양의 절개법과 그 치료법 일체는, 19세기 전반에 이르러서는 상당히 우수한 이론적이며 체계적인 진보를 보았다. 곧, 그 내용은 근세 외과학으로서 큰 손색이 없을 우수한 내용이다.

9. 구강보건학

구강보건학이 많이 발달되었다. 구치(口齒)의 양생(養生)은 신체 어느 부위의 그것보다 앞서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양치(養齒·齒牙淸掃)는 식사 후에는 해야만 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치아 보건을 위해서는 고치(叩齒)가 좋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10. 치과보철학

치과보철학 발달에 관한 문헌 자료는, 1986년 현재까지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다.

11. 구강진단학

진단법은 이미 통일신라 시대로부터 전승된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그런데 동의보감에 따르면, 편작(扁鵲)의 관상법(觀相法)도 구강진단학 분야에 응용되었다.

12. 치과약물학 및 조제학

조선시대 전기의 모든 지식을 그대로 전승하였다. 임진 정유란을 위시해서 그 후 서양의학과의 접촉도 있기는 하였으나, 치과약물학 및 조제학 부문에서 새로운 지식을 흡수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13. 치과법의학

치과법의학 분야에서는 증수무원록(增修無寃錄)과 증수무원록대전(增修無寃錄大全) 및 그 언해(諺解)의 간행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검험(檢驗)의 방법이 많이 발달되었을 뿐아니라, 그 지식도 널리 보급되었다.

법의학 서적의 내용은, 그 취급 대상의 범위가 확대는 되었으나, 조선시대 전기의 그것보다 크게 새로운 것을 지적하기는 힘든다. 하지만 그 기록 자료들은 주로 객관적 관찰에 기초를 둔 것들이기에, 사체 검안에 관한 치과법의학적 지견에는 상당한 진보가 있었던 것으로 고찰된다.

14. 교정치과학

교정치과학에 관한 문헌 자료는, 1986년 현재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다.

15. 치과침구료법

치과의학 분야에서의 침구료법은, 17세기 초에 높은 수준에 달하였던 것 같다. 침구 전문의는 각 의료 기관

에 배속되었다.

16. 소아치과학

소아치과학의 발달은, 영조(英祖) 25년인 1749년에 간행된 급유방(及幼方)을 그 효시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사료된다. 소아를 따로 취급한 점은 큰 진보라 해야만 될 것이다.

17. 치과 의료용 기구

1986년 현재, 치과 의료용 기구에 관한 자료는 발견되지 못했다. 다만, 치석 제거용 기구로서 침도(鍼刀)가 사용된 사실과, 외과적인 절개를 침도로써 하였던 점만이 확실하다.

18. 치과의학 영역 질환의 수(數)

치과의학 영역의 질환으로서 인식된 것은 대략 64종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당시에 인식된 그것들을 현대 치과의학적 입장에서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동양치과의학은 본시가 병명료법(病名療法)이 아닌 수증료법(隨症療法)이라는 근본적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19. 치과의학 영역 약방(藥方)의 수(數)

치과의학 영역 관계 질환에 이용되던 약방의 수는, 동의보감에 따르면 약 280종이다. 그 약방의 수를 정확히 조사하여 그 총수를 밝히기는 실제적인 면에서는 매우 힘든 형편이다.

20. 치과의학 관계 의서

치과의학 전문 의서의 간행은 없었다. 하지만 역대의 왕조는 꾸준히 의서 간행에 노력하였고, 그들 칙찬(勅撰) 의서들은 거의가 치과 관계의 많은 기록을 수록하였다. 뿐아니라 17세기부터는 개인의 의서 간행도 서서히 있게 되었는데, 그 모든 의서들도 거의가 치과 관계의 기록을 수록하였다.

23. 조선시대의 의사 제도와 의인의 사회적 지위

Ⅰ. 조선시대의 의사 제도

조선의 이태조는 건국과 더불어 의사 제도에 있어서는 고려의 그것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였다. 역대의 왕은 비교적 빈번히 정부 조직이나 직제의 개편이 있을 때마다 의사 관계 역시 부분적이나마 개정하였다.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에 관해 그때마다 명확히 기록한 문헌은 찾을 수가 없다.

Ⅰ. 중앙의 각 의료 기관

1. 내의원(內醫院·내약방·內藥房)

이태조가 건국초 반포한 관제 중에는 내약방(內藥房)이 없다. 내약방은 조선조 초기에는 왕실에 소속된 기관으로 왕실의 약을 점당한 곳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관이 있었던 사실은 실록의 기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알게 될 뿐, 자세한 점은 알 수가 없다. 세종은 그의 25년 1443년에, 내 약방의 명칭을 내의원(內醫院)이라 개칭하면서 배속 인원도 16명으로 증원시키며, 그 관직명도 제거삼품(提擧三品), 별좌육품(別座六品), 참외조교(參外助敎)등으로 구분하였으나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내의원에 관해 그 명확한 조직 내용을 알게 되는 때는 세조 11년인 1465년부터이다. 당시의 내의원의 관직과 품위 및 정원수를 보며, 이어 성종 16년 1485년에 반포된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보면 별표와 같다.

별표와 같은 내의원 기구 조직은, 그 후 거의 그대로 계승되어, 고종(高宗) 2년 1865년까지 변화가 없었다. 다만 극히 일부인 봉사(奉事)와 부봉사(副奉事)의 수가 연산군 때에 1명으로 되었던 적이 한번 있을 뿐이다.

왕실 소속 기관으로서 내의원 외에 별도로 시약청(侍藥廳), 의약청(議藥廳), 산실청(産室廳·護産廳)도 있

내의원의 직명과 관직의 품위 및 그 인원의 수

관직명 / 연대	정(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使)	참사(參事)
세조 11년 1465년	1명	1명	2명	2명	3명	2명	2명	2명
성종 16년 1485년	1명 정 3품	1명 종 4품	1명 종 5품	1명 종 6품	3명 종 7품	2명 종 8품	2명 정 9품	2명 종 9품
고종 2년 1865년	동상	동상	동상	동상	동상	동상	동상	동상

였다.

이러한 기관들은 각기 어느 때부터, 혹은 어떠한 때에 있었는가 확실히 알 수는 없다. 저자는 이러한 기관들은 상설(常設)이 아니라, 그 필요에 따라 설치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왕실에 중환이 발생되었을 때, 혹은 왕자나 왕손이 탄생할 때에 임시로 설치되는 것이었으리라 추찰한다. 다시 말해서, 내의원만으로써는 그 진료 문제를 전담하기 힘들 때에, 좀 더 규모가 큰 시약청을 조직하고, 또 진료에 있어서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에는 좀 더 규모가 큰 의약청을 조직한 것이 아니었을까 추찰하는 것이다. 의약청이라 하면 그 이름 자체로 미루어 보아, 여기에는 아마도 전문적이며 의료 관계의 직업적 인사가 아닌 인사들까지도 광범하게 참여시킨 조직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의약청이 그렇게 설치되었던 경우를, 실록을 통해 보면 찾을 수 있다. 숙종(肅宗 1675—1720) 승하의 경우, 그 전해인 그의 46년 4월, 병세가 가중되어 의약청이 설치되고, 여기서 시약청에게 입진(入診)을 시킨 기록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의약청 지시에 따라 시약청의 의관이 진료를 했다는 기록이다.

시약청의 직명을 실록을 통해 살피면 다음과 같다.

도제조(都提調)
제조(提調)
부제조(副提調)
어의(御醫)
장무관(掌務官)
침의(針醫)
제약관(劑藥官)
월령제약관(月令劑藥官)
의녀(醫女)
서원(書員)
탕약사령(湯藥使令)
약방고직(藥房庫直)
차비대령사환(差備待令使喚)
사령(使令)

2. 전의감(典醫監)

전의감은 조선 건국 초부터 설치되었다. 이 기관에서는 왕실의 의약 관계 업무와 의학 교육 관계의 업무 그리고 의학 취재(取才)의 사무를 보았다.

그 직제는 고종 2년까지, 실록에 기록된 경우만 9번 개정되었다. 하지만 그 개정 내용은 새삼 지적할만한 내용의 것이 아니다.

조선 건국 초의 그 관직명 및 직제와, 성종(成宗) 16년인 1485년에 반포된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살피면 별표와 같다.

3. 제생원(濟生院)

제생원은 태조 6년 1397년에 창설되었다. 그 후 혜민국과 함께 향약의 수납과 환자의 구호 및 치료 업무를 담당하였고, 의녀의 교육도 주관했다.

창설 당시에는 이 기관의 책임자를 지원사(知院事)라 하였고, 그 밑에 영(令), 승(丞), 주부(主簿), 녹사(錄事)의 직이 있었다. 그리고 태종 14년인 1414년에 직명의 개정이 있어, 영(令)은 승(丞)으로, 승은 부령(副令)으로, 주부는 녹사로, 녹사는 부록사로 개칭되었고, 세조 5년인 1459년에 혜민국으로 흡수 통합되었다.

4. 혜민국(惠民局·惠民署)

혜민국은 일반 환자의 진료와 의학의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삼는 기관이다. 제생원보다는 그 기구가 좀 더 컸다. 명확한 기록이 없으므로 확실하지는 않으나, 혜민국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삼으며, 제생원은 관직에 있는 관리들을 주로 대상으로 삼는 의료 기관이었던 점이 다른가 싶다.

조선 건국 초, 혜민국에는 판관(判官) 4명이 있고, 그 밑에 영(令) 2명, 승(丞) 2명, 주부(主簿) 그리고 녹사(錄事)가 있었다. 그리고 그 후 약간의 관직명 개칭이 있었다. 성종 16년 1485년의 경국대전(經國大典) 반포 당시는 영(令) 2명이 있고, 그 밑에 승(丞) 2명, 다시 그 밑에 주부(主簿) 1명이 있으며, 계속하여 그 밑에 의학교수(醫學敎授) 2명, 직장(直長)과 봉사(奉事) 그리고 의학훈도(醫學訓導)가 각각 1명씩, 또 그 밑으로 참봉(參奉) 4명이 배속되었다.

전의감의 관직명과 그 품위와 인원의 수

태조 원년	판사 2명 정 3품	감 2명 종 3품	소감2명 종 4품	승 2명 종 5품	겸승 2명 종 5품	주부 2명 종 6품	겸 주 부 2명 종 6품	직장 2명 종 7품	박사 2명 종 8품	검약 4명 정 9품	조교 2명 종 9품
성 종 16년 경 국 대 전		정 1명 정 3품	부정1명 종 3품	첨정1명 종 4품	판관 1명 종 5품	주부 1명 의학교수 2명		직장2명	봉사 2명 종 8품	부봉사 4명, 의학훈도 1명	참봉 5명 종 9품
고 종 2년 대 전 회 통	동상	동상	동상	동상	동상	동상	동상	동상	동상	동상	동상

그리고 이러한 조직 내용은, 고종 2년 1865년에 대전회통(大典會通)이 반포될 당시까지도 거의 변동이 없었다.

저자는 여기서, 전기한 경국대전 반포 당시에 의학교수 2명 중의 1명은 문관으로 겸임시킨 점을 주목한다. 그리고 이 겸임제는 대전회통 반포 당시에도 그대로 답습된 점에도 역시 주목한다. 저자는 이것이 당시의 의과(醫科)의 일면을 엿보여주는 것이라 추찰하는 것이다. 혜민국의 문관은 아마도 의서의 해독과 지도를 위해 배속되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5.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活人署)

동서대비원은 고려시대의 관서명(官署名)을 그대로 사용한 기관으로서, 주로 전염병 환자를 수용한 곳이다. 이 기관은 수도의 동서 2곳에 하나씩 있었다.

태종 4년인 1404년에는 활인원(活人院)이라 개칭되었고, 세조 11년 1465년에는 활인서(活人署)라 개칭하였다.

태조 때에는 부사(副事)와 녹사(錄事)라는 관직명으로 6명이 배속되었고, 성종 16년 1485년의 경국대전(經國大典) 반포 당시에는 종 6품의 별제(別提) 4명과 종 9품의 참봉(參奉) 2명이 배속되었으며, 고종 2년 대전회통(大典會通)이 반포될 때에는 별제 2명과 참봉 2명으로 되었다. 역시 큰 변천은 찾을 수 없다.

6. 치종청(治腫廳)

치종청은 어느 때에 설치되었는가 명확하지 않다. 치종청은 치종의(治腫醫)의 교육과 직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치종의는 학식은 많지 못하나, 외과적인 종창 치료에 경험이 풍부한 자, 혹은 약간의 침술 기술을 습득한 자로서 주로 종창 치료에 능한 자이었다.

치종청의 기록은 선조(宣祖) 36년 1603년에, 이 관서를 다시 설치한 것이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卷 223 職官考 10)에 처음으로 나온다. 당시의 치종청은 교수 1명과 침의(鍼醫) 3명 전가(前衙) 10명과 생도 10명으로 되었다.

치종청은 그 후 발전하지는 못하고, 대전회통이 반포될 때까지 단독 기관으로서 때로는 전의감이나 혜민서의 부속 기관으로 존속되었던 점만이 확실하다.

7. 의서습독관(醫書習讀官)

의서습독관이 어느 때부터 있게 되었는가는 확실치 않다. 세조 2년 1456년에는 의서 연구를 위해 의서습독관 15명을 선발한 기록이 있다.

의서습독관의 특색은 그 출신 성분이 높았던 점이다. 그들은 동서 양반에 속한 사족(士族) 출신들이고, 장차 그들은 문무(文武) 어느 직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특전이 있었다.

의서습독관 제도는 경국대전을 위시하여 그 후에도 계속되어 대전회통에도 있다. 이것은 의사(醫事) 행정 기관의 고관(高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었다.

8. 종약색(種藥色·種藥田)

종약색은 종약(種藥)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이 부서가 어느 때에 창설되었는가는 확실치 않다. 그런데 태종 5년에 제정된 그 소속 관서의 기록을 보면 육조(六曹)의 소속 부서로 있다. 그 후 6년뒤에는 전의감 소속 부서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다시 경국대전부터 대전회통까지는 이 부서가 종약전(種藥田)이라 하여 계속 혜민서에 소속되었다.

이 밖에 중앙의 각 관공서에도 의무관이 배치되었었다. 이조(吏曹), 예조, 병조, 그리고 의정부, 육조, 종친부, 도총부, 충훈부, 기노소, 중추부 등등이다.

Ⅱ. 지방의 의료 기관

지방에는 독립된 의료 기관이 설치되지는 않았다. 각 도와 각급 관서에는 의무 담당 행정관인 심약(審藥), 의학교유(醫學敎諭), 의학생도(醫學生徒), 또는 의무관들이 각기 배치되었다.

심약(審藥)은 종 9품으로서, 각 도마다 1명 내지 3명까지이고, 의학교유는 각 도에 1명씩 배치되어, 이들은 각 도에서, 태종과 세종 때에는 의원 1개처를 설치하여 의학 교육을 담당하면서 향약의 관리와 채취도 관장하였다. 의학생도는 부(府)에 16名, 대도호부와 목에는 10명, 도호부에는 12명, 군에는 10명, 현에는 8명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지방의 각 부(府)와 도호부와 유수부에는 의무관이 1명 혹는 2명씩이 배치되었다.

중앙과 지방의 각급 의료기관의 제도는 그 시대에 따라 다소의 변혁은 있었으나, 그러나 성종 16년의 경국대전의 제정 내용이 그 뚜렷한 골격을 이루면서 조선 왕조말까지 거의 그대로 습용되었다.

Ⅱ. 조선시대의 의과 취재 제도

조선 건국 초부터 의학 취재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태조 원년에 제정된 입관보리법(入官補吏法)에는 의학 취재가 포함되었다. 그런데 그 자세한 취재 방법이나 과정은 기록으로선 전해지고 있지 않다.

취재라는 말은, 문과(文科)와 무과(武科) 이외의 과거를 뜻한다. 문무 정과(文武正科) 이외의 과(科)는 이것을 통틀어 잡과(雜科)라 하였다. 의과는 잡과에 속하였다.

근세 조선의 의학 취재에 관한 규정을 가장 명확히 알 수 있는 문헌은, 성종 16년인 1485년에 반포된 경국대전과, 영조(英祖) 20년 1744년의 속대전(續大典), 정조(正祖) 9년 1785년의 대전통편(大典通編), 고종(高宗) 2년 1865년의 대전회통(大典會通)이다.

경국대전의 의학 취재 제도를 별표로써 보면 다음과 같다.

성종 16년 이전인, 태조 원년 1392 년부터 성종 16년 1485년까지의 약 백년간의 그것은, 극히 단편적으로 실록에 기록되었을 뿐, 그 전모를 소상히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A. 경국대전(經國大典)

경국대전(經國大典, 6卷, 4册)의 취재에 관한 부분은, 예전(禮典) 잡과의 취재조(取才條)에 있다.

1. 의과 초복시(醫科初覆試)

의과 초시와 복시의 내용

시험별	선발 인원수	시험하는 의서와 시험의 방법
초 시	18명 전의감에서 실시	찬도맥, 동인경을 송한다. 직지방, 득효방, 부인대전, 창진집, 태산집요, 구급방, 화제방(지남은, 송하다), 본초, 경국대전을 임문(臨文)한다.
복 시	9명 예조와전의감 제조가 실시	동 상

2. 의학 취재

의학 취재의 내용

과 별	시험하는 의서와 시험 방법
의 학	찬도맥, 동인경을 송한다. 창진집, 직지방, 구급방, 부인대전, 득효방 태산집요, 화제방, 본초, 자생경, 십사경발휘를 임문한다.
침 구	찬도맥, 화제지남, 동인경을 송한다. 직지맥, 침경지남, 자오류주, 옥류가, 자생경, 외과정요, 십사경발휘, 침경적영집은 임문한다.

상기한 시험 과목으로서의 여러 의서를, 경국대전주해를 통해서 그 주(註)를 보면 다음과 같다.

取才條

纂圖脈
　西晉 王叔和 撰
銅人經
　宋 王惟一 撰
瘡疹集 胎產集要
　本國 任元濬 撰
直指方 直持脈
　宋 楊士瀛 撰
救急方
　本國人 撰
婦人大全, 外科精要
　宋 陳自明 撰
得効方
　元 危亦林 撰
和劑方
　宋 大觀中 詔通醫刊正 藥局方書 閣歲 書成庫部 郎中 陳師文 等 校正
本 草
　宋 唐愼徽 撰
資生經
　宋 王執中 撰
十四經發揮
　元 滑壽 撰
和劑指南
　宋 寧宗時 許洪 校正, 和劑局方 又著 和劑指南
針經指南, 子午流注
　金竇傑 字 漢卿 著 針經指南, 又著 子午流注

B. 속대전(續大全)

속대전의 경우는, 의과의 초시(初試)는 전의감의 제조와 감관 2명이 시행하며, 18명을 3년에 1회씩, 식년(式年)에 선발한다.

그 시험은 찬도맥과 동인경을 배송(背誦)시키고, 직지방과 본초와 경국대전을 임문(臨文)한다. 속대전에서는 소문, 의학정전, 동원십서를 새로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때까지 실시하던 다른 의서는 폐지시켰다.

복시(覆試)는 역시 식년에 전의감의 제조와 감관 2명이 실시하며, 여기서는 9명을 선발한다. 그 시험 과목과 방법은 초시의 경우와 같다.

의학 취재는 찬도맥과 동인경을 배송시키고, 직지방, 본초는 임문하며, 소문, 동원십서, 의학정전을 새로 정하여 임문시켰다. 그리고 경국대전에 있던 다른 과목

은 폐지했다.

침구의의 취재는 의학의 그것과 동일하나, 단 소문을 배송하는 자는 그 봉급을 배로 하였다. 침구의의 경우는 소문을 중시하였다.

C. 대전통편(大典通編)

의과의 초시는 식년(式年)에 전의감에서 18명을 선발한다. 찬도맥과 동인경은 송으로 하고, 직지방, 득효방, 부인대전, 창진집, 태산집요, 구급방, 화제방(지남은 송한다), 본초, 경국대전은 입문으로 한다.

의과 복시는 예조와 전의감의 제조가 9명을 선발한다. 과목은 초시와 같다.

의학 취재는 음력 정월, 4월, 7월, 10월에 예조와 동학(同學)의 제조가 한다. 제조가 없는 부처이면, 그 해당 조(曹)의 당상관과 예조가 취재한다.

과목은 찬도맥과 동인경을 배송하고, 수험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이면 배강(背講·背誦)으로 한다.

의학송(醫學誦)을 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50세 이하는 창진집, 직지방, 본초, 소문, 동원십서, 의학정전을 입문한다.

침구의도 의학 취재와 같으며, 소문을 배송한 자에게는 봉급을 배로 준다. 소문을 중요시했다.

D. 대전회통(大典會通)

의과의 초시는 식년(式年)에 18명을 전의감의 제조와 의관 2명이 선발한다. 과목으로서 찬도맥은 배송시키고 동인경은 입문한다. 직지방과 본초와 경국대전도 그 원전을 보면서 입문시키고, 소문, 의학정전, 동원십서를 새로 추가시켰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 있었던 다른 과목은 폐지하며, 의학입문은 배송으로 추가시켰다.

의과의 복시도 9명의 선발을 초시와 같이 한다.

의학 취재는 내의원 관원으로서 응시할 경우는 50세 이하이어야 되며, 전의감에서 선발한다.

시험 과목은 찬도맥, 동인경은 배송이고, 직지방, 본초는 입문이며, 소문과 동원십서와 의학정전을 새로 추가해서 입문시켰다. 그리고 종전의 기타 과목은 폐지했다.

침구의도 의학의 그것과 동일하다. 다만 소문을 배송하는 자는 봉급을 배로했다.

대전회통의 내용은 경국대전과 대전통편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저자는 침구의의 취재가 경국대전부터 계속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시험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계속 그 대우도 높은 점이 주목해야 될 점이라 본다. 지금까지 이 점에 대해서 주목되지 않은 점은 시정되어야만 한다.

교주대전회통에는 주(註)로서 의서에 관한 것이 그 난외(欄外)에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그 주에 있어서 경국대전 주해의 그것과 다른 주해도 있기에 여기 기재한다.

纂圖脈：纂圖方論脈訣集成의 略. 時代不明, 高楊生 編

銅人經：銅人腧穴鍼灸經의 略. 宋 仁宗王 天聖 5年, 惟德, 銅人을 鑄하여 奉하다. 그 후 命하여 本書를 撰케 함.

直指方：仁齊直指方의 略. 宋 楊士瀛 撰.

素門：黃帝의 著라 하는 古醫書.

得効方：世醫得効方의 略. 元 危亦林 撰.

婦人大全：婦人大全良方의 略. 宋 陳自明 撰.

瘡疹集：任元濬 撰. 世宗 初年 著.

胎產集要：世宗 16年 盧重禮에 命하여 撰시킨 胎產要錄의 別名일 것이리라.

救急方：世宗朝에서 命하여 撰시킴. 著者 不明.

和劑方：太平惠民和劑局方의 略. 宋 大觀年間 陳士文 等 奉勅 撰.

本草：經史證類大全本草의 略. 宋 唐愼徽 著. 宋 政和 6年 寇宗奭 等 奉勅 修正重刊.

醫學正傳：明 虞搏 著, 正德 10年 印行.

醫學入門：明 李梴 著, 萬曆 3年 印行.

E. 세종과 의학 취재

조선 건국 초기의 의학 취재법은 전기한대로, 극히 단편적인 기록만이 있어, 경국대전 반포 이전까지의 그것은 소상히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세종(世宗)때에 이르러, 그 자세한 내용을 모두는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대체적인 윤곽이 잡힌 점을 인지할 수 있다.

세종은 그의 원년인 1419년, 의학의 취재도 잡과의 하나로서 그 선발 시험은 수시로 필요에 따라 하였다. 그의 12년인 1430년에는 그 일정한 시험 과목도 정했다. 과목은 직지맥(直指脈) 외의 25종의 의서이다. 뿐아니라 그는 계속하여 같은 해인 1430년, 의과 출신자의 서용 방법(叙用方法)도 좀 더 명확히 정했다.

① 맹춘삭(孟春朔), 음력 정월 초에 취재할 때에는, 지난 겨울 3개월간 만 50일을 근무했던 자에게만 그 수험을 허락하고,

② 그 나머지 3맹삭(음 4월 7월 10월)의 취재와 4맹삭에도 그것을 허용하였다.

③ 하지만 그 해에 또 그 방법을 개정해서, 의학 취재는 예조가 담당하며 4맹삭에 하기로 했다.

이상의 실록의 기록으로 보아, 세종 12년 1430년까지는 의학 취재가 물론 있었지만, 그 뚜렷한 어떤 관계 법

규는 없었음을 알 수 있고, 세종이 이 때에 다른 잡과와 함께 취재법의 기초를 비로소 마련한 점을 알게 된다.

그리고 세조(世祖) 10년인 1464년에 이르러, 의학 취재 시험은 그 관직의 품위에 따라 수험 과목도 다르게 되었다. 또 시험 과목에 따라서 그 시험의 방법도 임강(臨講·臨文)과 배강(背講·背誦)으로 구분되었다.

Ⅲ. 조선시대 의인의 사회적 지위

조선시대 의인의 사회적 지위가 너무나도 얕았던 사실은 주지된 일이다. 의인들 중에는 유의(儒醫)와 중서계급(中庶階級) 출신의 의관과 일반 의원(醫員)들이 있었다. 다만 일반 시정(市井)의 의원들은 약간의 지식과 경험만으로도 누구나가 할 수 있었다.

Ⅰ) 의인의 지위

조선시대 의인의 사회적 직위는, 실록의 기록을 통하여 단편적이기는 하나마 그 개요를 파악할 수 있다.

이태조는 그 건국 초에 관제(官制)를 정하였을 때, 의료 관계의 관서(官署)를 동반(東班·文)에 소속시켰다. 그 당시의 의학은 정과(正科·文武)에는 속하지 못하는 잡과(雜科) 중의 하나이었다. 그러나 당시에 의학을 수업하는 생도들은 동서 양반과 양가(良家)의 자제들이었다.

해서 태조는 비록 의과가 잡과이기는 하나, 그러나 의과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하여, 의인에게도 검교(檢校)의 직을 주었다. 검교는 비록 실권은 없지만, 정 3품 이상의 당상관(堂上官)으로서 높은 관직이다. 그리하여 그 후 정종조(定宗朝)와 태종조(太宗朝) 때에는 의인들 중에서도 높은 관직을 얻는 자가 배출되었다. 이를테면, 김지연(金之衍), 허도(許道), 양홍달(楊弘達), 조청(曹聽), 양홍도(楊弘道), 양홍적(楊弘迪) 등을 들 수 있다. 김지연과 허도와 양홍달의 경우를 보면, 검교 한성윤(檢校 漢城尹)의 관직까지 얻었으며, 양홍도는 낭장(郎將)의 직까지 받았으니 상당한 고관의 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관례도, 태종조의 후기부터는 사라지게 되었다. 태종조의 사헌부(司憲府) 혹은 형조(刑曹)에서는 그러한 의인들에 대한 대우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해서 동서 양반의 자제들은 의학을 수업하지 않게 되었고, 동서 양반의 자제들이라면 서자일 경우와, 그렇지도 않으면 동서 양반 출신이 전혀 아닌 자들만이 의학을 배우게 되었다. 해서 결국 의인들의 사회적 지위는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그 시기는 대체로 1415년, 태종 15년이다.

세종조(世宗朝)에서는 의인의 공적에 따라 정 3품 까지 승진하는 예도 있게는 되었다. 이를테면 노중례(盧重禮), 배상문(裵尙文)이다. 그러나 세종 때에도 의인에게 높은 관직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은 매우 거셌다. 세종은 그의 13년인 1431년에, 일찌기 태조의 사의로서 활약하고, 그 후도 계속 역대 조정에 봉직한 양홍달(楊弘達)이 사망하자, 그 공을 참작하여 그의 자제 양제남(楊濟南)에게 삼품직(三品職)을 주는데에 있어, 여론이 두려워 주저하면서 삼의정(三議政)과 밀의(密議)한 후에야 비로소 그것을 주었다.

세조조(世祖朝)에서는 의학 수업을 동서 양반 출신의 자제들이면 전혀 하려고 하지 않았기에 특별 조치를 취하였다. 세조는 문벌있는 집안 자손이나 연소하면서 총명한 자에게 의학습득관(醫學習得官)으로서 의학을 수업케 권장하고, 그들도 장차는 고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세조 4년인 1458년의 일이다.

성종조(成宗祖)는 의학 진흥 시책의 하나로서, 의학에 정통한 자는 동서반에 임용케 하였고, 내의원(內醫院)만은 문무 양반(文武兩班)에 열(列)케 하며, 전의감과 혜민국의 의관은 동반(東班)의 관직을 주어, 고간으로 승진할 길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역시 이때에도, 고관으로서의 의인의 진출은 거센 여론의 반대를 받았다. 때는 성종 13년인 1482년의 일이다.

의관 천시의 풍조는 조선왕조 후기에도 그대로 지속되었다. 좋은 예가 허준(許浚)의 경우를 지적할 수 있다. 선조조(宣祖朝)와 광해군조(光海君朝) 시절에 크게 공을 세운 그는, 선조 39년인 1607년 양평군(陽平君) 정 1품 보국 숭록(輔國崇祿)의 가자(加資)를 받았다. 하지만 그 때 사간원(司諫院)과 사헌부(司憲府)에선 그것을 크게 반대하여 결국 호(號)만은 그대로 두고 보국의 자(資)는 취소되었다. 그리고 그 후 그가 사망하자, 취소되었던 보국의 자를 추증(追贈)하였다. 왕명까지도 취소되는 그러한 의인의 천대 시대이었다.

또 좋은 예로, 현종조(顯宗朝)의 유후성(柳後聖)의 경우도 있다. 유후성은 인조(仁祖), 효종(孝宗), 현종(顯宗) 3대에 걸친 의관으로서, 현종 3년 1662년에 보국 숭록 정 1품의 벼슬을 받았다. 하지만 역시 이 때에도 거센 여론의 반대가 있었다.

이처럼 조선왕조 전기(全期)를 통해, 의인으로서 정 1품에 오른 사람은 단 2명 밖에 되지 못한 사실을 보면, 의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대우가 어떠하였던가를 여실히 짐작케 한다.

조선시대 의인들은 그 의술이 뛰어났을 경우, 내의원의 전의(典醫)로 임용되거나, 명예직인 중추(中樞)의 관직이나 검교(檢校)의 직을 얻었고, 지방 관서의 부사(府使), 군수(郡守), 현감(縣監)의 직을 특명으로 얻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의인으로서 정 3품까지만 승진하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의인이 동반(東班)인 관직에서 승서(昇叙)되는 관계(官階)와 품계는 다음과 같았다.

輔國崇祿大夫	正一品	下位
崇祿大夫	從一品	上位
崇政大夫	從一品	下位
正憲大夫	正二品	上位
資憲大夫	正二品	下位
嘉義大夫	從二品	上位
嘉善大夫	從二品	下位
通政大夫	正三品	上位
通訓大夫	正三品	下位
典醫正	正三品	
典醫監(正)	正三品	
知中樞府事	正二品	
同知中樞府事	從二品	
僉知中樞府事	從三品	

통정대부 정 3품 이상이 당상관이다.

여기 특기할 점이 하나있다. 그것은 의인에 대한 형벌이다. 왕이나 왕족의 치료에 있어서, 만일 그 병세가 악화되거나 승하하였을 경우다. 그러한 경우는 거의 예외없이 의관에게는 책임이 추궁되었다. 처벌은 관직의 박탈이나 유적(流謫)이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그것은 단순한 형식이었고, 실제로는 거의 큰 형은 내리지 않았다. 임금이나 중전이 승하하였을 경우, 당시의 입진(入診) 의관은 흔히 유배되었지만, 대개는 곧 사면되었다. 하지만 심한 경우, 교형(絞刑)을 당한 의관도 있기는 하다. 효종(孝宗)때의 의관으로서 효종이 승하하자 관직이 삭탈되고, 이어 현종이 즉위하자 그 해 6월 대사헌(大司憲)과 대사간(大司諫)의 제청으로 교형을 당한 의관이 있다. 그는 신가귀(申可貴)로서 교형을 당한 때는 1660년이다. 또 태종 때의 내약방 의원으로서 세종 때에 전의감정(典醫監正)이 되었던 정종하(鄭從夏)는, 세종의 강명(剛明)함을 두려워 하며 그 시(侍)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의금(義禁)에서 대역죄로서 참살(斬殺)된 예도 있다. 그가 처형된 때는 1420년이다.

Ⅱ) 의인의 계급

조선시대 의인에 대한 사회적인 지위나 대우는 양반과 평민의 중간이었다. 의업은 중인(中人)과 서인(庶人) 계급 출신자들이 하였고, 양반 계급 출신자는 의관이나 의업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었다.

1. 유의(儒醫)

유의를 의인(醫人)이라고는 물론 인식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의는 의학적 지식을 지닌 사람으로서 높은 대우를 받았다. 유의는 양반 계급 출신의 유학자(儒學者)로서, 한학(漢學)에 정통하여 많은 공부를 하던 중에, 의학에 관한 풍부한 지식도 얻게 된 사람이다. 유의는 직업으로서는 의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다.

유의는 문과(文科) 과거를 거쳐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의학적 지식이 뛰어나, 흔히 의료 행정직을 겸임하는 사람이었다. 해서 왕실에 큰 병이 있을 경우는 의술을 전문으로 삼는 의관과 함께 그 진료진(診療陣)에 참가하여, 각 의관들의 의견과 치료 내용 등을 살피고 그들을 지휘 감독도 하며 그 자문에도 응하는 위치에 있었다.

광해군 때의 전유형(全有亨), 현종과 숙종 때의 김석주(金錫胄)가 그러한 경우이었고, 인조와 효종 때의 채득기(蔡得沂), 이원진(李元鎭), 장현광(張顯光), 이회(李恢), 혹은 현종 시절의 정유악(鄭維岳), 정조 때의 홍욱호(洪旭浩) 등등은 유의로서 유명하였다.

유의는 문과(文科) 출신자이기에, 품계의 제한없이 정 3품 이상의 고관으로까지도 승진이 가능했다. 하지만 유의들은 문과 과거에는 합격하였지만, 관직에는 참여하지 못하면서 지낸 사람이 그 대부분이다. 선조 때의 동의보감 편집에 참여한 정작(鄭碏)은 그러한 유의의 한 사람이다.

또 유의 중에는 과거에는 합격을 못했으나, 사족 출신으로서 한학에 조예가 있고 의학에도 관심이 깊어, 습독청(習讀廳)의 의서습독관 혹은 전의감이나 혜민서의 의학교수관으로 특별히 임용된 사람도 있었다. 유의는 중인이나 서인 계급 출신의 의인과 함께 동석하기를 철저하리만큼 싫어했다.

2. 중서 계급(中庶階級) 출신의 의관

의술을 중인이나 서인 계급 출신자로서 배우고자 할때에는 처음부터 많은 차별을 받았다. 우선 그 교육과 등과의 선발 시험부터가 그러하였다.

교육은 따로 독립된 교육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의생(醫生)들은 중앙의 경우, 전의감이나 혜민서에서 교육받았다. 전의감에서는 50명, 혜민서에서는 30명의 의생을 모아, 전자의 경우는 의학습독관 3명, 의학교수 2명 그리고 의학훈도 1명이 교육하였고, 후자의 경우는 의학교수 2명(그 중의 1명은 문관이 겸임)과 의학훈도 1명이 교육시켰다.

의생의 교육은 지방의 경우는, 태조 2년 1393년에는 의학교수 1명을 각 도에서 선정하여, 부(府)와 대도호부(大都護府)와 목(牧)에 있어서는 각 14명씩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경국대전에 따르면, 부에서는 16명씩, 도호부에서는 12명, 군에서는 10명, 현에서는 8명씩으로 제정되었다. 성종 16년인 1485년의 일이다.

의과의 선발 시험인 초시와 복시는 잡과(雜科)의 하나로서, 문과나 무과의 그것과 같이 복잡한 시험은 거치지는 않고 비교적 간단히 하였다.

초시는 전의감에서 우선 18명을 선발하고, 복시에서는 예조와 전의감의 제조가 그 중에서 9명을 선발하였다.

의과의 본시험(本試驗)인 취재(取才)는 예조가 전의감의 제조와 함께 선발하고, 제조가 없는 곳에는 예조의 당상관이 함께 그 취재에 참여하였다.

의인은 취재 시험에 합격되더라도 그가 승급하는 데에는 그 품계(品階)에 제한이 있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의학 취재 시험의 1등은 종 8품이고, 2등은 정 9품, 3등은 종 9품으로 되어 있다. 의관이 정 3품 이상의 당상관으로 승진되기는 매우 어려웠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은 흔한 예가 아니었다.

24. 조선시대 치과의학의 총괄적 특징

조선시대 치과의학의 전체적 특징을 포괄적으로 요약하면 대요 다음과 같다.

1) 조선시대 역대의 왕은 정치적으로 의서 간행에 힘썼다. 거의 모든 왕은 그것을 통한 의학 진흥과 의술의 보급을 위해 크게 힘썼다.

2) 우리나라 고유의 치과의학을, 비교적 활발히 도입하여온 중국 치과의학과 서로 동화시켜, 우리나라 풍토에 맞을 독자적 치료법을 개발 발달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드디어는 역대의 중국 의서들을 완전히 소화시켰고, 그 내용의 총정리까지 이룩하여 새로운 발달에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세종조(世宗朝)의 향약집성방과의 방류취 그리고 광해군조(光海君朝)의 동의보감 등등은 그 좋은 예이다.

3) 17세기 초반부터는 의인들의 실제적 경험에 의거한 경험방이 활발히 간행되어, 그것은 보다 독창적이며 더욱 실용 주의적(實用主義的)인 방향으로 그 발달을 보여 주었다.

4) 의설(醫說)은 주로 중국 고래의 전통적이며 자연철학적인 그것을 전승하는 한편, 또한 중국의 영향을 받아, 중국의 경우는 당대(唐代)로부터 대두하기 시작해서 황제내경소문(黃帝內經素問)에 부수되어 계승되다가 송대(宋代)에 이르러 더욱 확충되었던 오운육기설(五運六氣說·運氣說)을 신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념적인 의설도 17세기 후반부터는 서양의학의 인식 내지는 그의 인식으로써 서서히 재래의 그러한 의설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되었다. 곧 실학파(實學派)의 영향이다.

5) 조선시대의 치과의학은 외과적인 부문에 있어서 비교적 많은 발달을 보았고, 구강치료학(치과보존학) 분야에서는 그와 상대적으로 볼 때에 새로운 발달이 비교적 없다.

6) 치과보철학의 발달에 관해서는, 현재까지의 문헌조사에만 의한다면 별다른 그것이 없는 것도 같으나, 그러나 이것을 단정키는 힘들까 싶다. 왜냐하면, 기술천시의 전통적 풍조는 조선시대 전기(全期)을 통해서 매우 농후한 것이었기에, 치아 보철에 관한 것을 의서에 수록하기에는 여러 난점이 있었으리라 추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철 기술을 지녔던 사람은, 그 신분 관계로써, 그것을 기록할만한 능력을 지니지 못하였었으리라고도 추리되기 때문이다. 해서 이 분야의 발달 문제는 금후의 다각적인 연구에 기대할 수 밖에 없겠다.

결 론

저자는 조선시대 후기(後期) 약 235년 간의 치과의학 발달의 양상을 연구하여, 그 윤곽과 내용을 밝혔다.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 치과의학의 전성기(全盛期)는 15세기로부터 17세기 초까지 이다.

주요 참고 문헌

1. 金斗鍾 : 韓國醫學史(全), 探求堂, 1975
2. 李丙燾 : 新修國史大觀, 普文館, 1955
3. 국역 산림경제(Ⅰ, Ⅱ),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5
4. 韓國敎會史論文集(Ⅰ, Ⅱ), 韓國敎會史硏究所, 1984
5. 小兒藥證直訣, 癸丑文化社, 1974
6. 五洲衍文長箋散稿, 東國文化社, 1959
7. 星湖僿說(全 5冊), 文光書林, 1929
8. 增修無寃錄,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
9. 鍼灸經驗方, 同上

10. 增修無寃錄(全), 同上.
11. 增修無寃錄大全, 同上.
12. 及幼方, 同上.
13. 山林經濟(全), 韓國學基本叢書 第8輯, 景仁文化社, 1974
14. 東醫寶鑑,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
15. 李英澤 : 우리나라에서 實用되어 온 人體解剖圖, 서울大學校論文集, 自然科學 第5輯, 1957
16. 金龍德 : 昭顯世子研究, 史學研究, 第18輯, 韓國史學會, 1964
17. 李用雨 金雄奎 : 韓國의 外科學 發展史, 大韓外科學會雜誌, 13 : 5~9, 1971
18. 攷事新書,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
19. 濟衆新編, 同上.
20. 廣濟秘笈, 同上.
21. 經驗方, 同上.
22. 攷事新書 1, 同上.
23. 救急簡易方, 同上.
24. 救急方, 同上.
25. 熱河日記, 韓國名著大全集, 大洋書籍, 1978
26. 崔鎭煥 : 李朝時代의 口腔衛生學的 知識에 關한 小考, 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誌, 第2號, 1961
27. 奎章閣圖書 韓國本綜合目錄,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 1984
28. 經驗方,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 (前記한 同名의 醫書와 다름.)

—Abstract—

The dental history of the late period of Chosun Dynasty

Rhee, Han-Soo., D.D.S., Ph.D.
Seoul Korea

The author has made the study of the dental history during the late period of Chosun Dynasty(1,609~1,863A.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At that time the sovereigns thought much of medical publications.
2. Basic new dental sciences were constituted through imported Chinese medical books and original publications in Chosun dynasty.
3. Since 17th century ently dental sciences were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experimental knowledge and practical publications were brought out actively.
4. The medical theories were believed in the Chinese medical theories plainly. But the traditional dentistry was influenced by westen sciences since 17th century.
5. The knowledge of oral surgery became generally known, examples, lip cancer and tooth implantation at that time.
6. The literature of prosthodontic was not discovered.
7. The kinds of dental diseases were 64kinds and the methods of treatments were 280kinds at that time.
8. The special book of dental field was not publicated but the the knowledge of dental field was recorded in medical books.
9. The toothache was divided into 7kinds.
10. The cause of dental caries understood as insects and putrefaction of foods and caries in epidermic.
11. The dental anatony was well developed as modern style.
12. The Dong-E Bogam was a typical book related to dentistry at that time.
13. The dental science was well developed during 15~17th A.D.

표 지 의 설 명

이번 호의 표지는 예부터의 의원의字(醫)의 여러 모양을 모아 보았다. 현재는 医가 醫의 약자로서 통용되고 있으나, 구태어 따진다면 이것은 틀린 것이다. 医는 예라 부르는 글자로서 본시 활집(矢器)을 뜻하는 것이었다. 醫라는 글자의 역사는 아마도 4천년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 〈李漢水〉

표 지 의 정 정

본 학회지의 표지에 매호 기재되었던 본 학회 창립 날자의 오기(誤記)를 바로 잡습니다.

正 1960년 10월 7일

誤 1960년 10월 9일

편 집 후 기

學會誌 發刊을 爲하여 炎天의 太陽 만큼이나 뜨거운 情熱을 약속했건만 會員 여러분께 늦은 선을 뵙게 되어 죄송스런 마음 禁할 수 없다. 더군다나 全國에서 우리 學會에 늘 關心을 가지시고 齒科醫史學에 많은 資料와 助言을 提供하신 先輩 後輩 先生任들께 다시 한번 眞心의 고마움을 表現할 길 없음을 밝힌다.

李漢水 직전 會長任의 「朝鮮時代 後期 齒科醫學史」는 이제 韓國 齒科醫史學의 체계화, 정돈화가 눈앞에 展開되고 있다는 역사적 意義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때를 같이하여 金正均·李漢水 共同 論文인 「병자 한·일 수호조약 후의 의료 활동」은 우리 近世史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과 시련을 안겨준 일본과 우리 齒科文化와의 關係는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는 귀중한 硏究가 될 것이다.

李丙台 副會長의 「우리나라 치과출판에 관한 연구」와 辛在義 會員의 「치과계 단체 활동」 논문은 거의 同時代 우리 치과계 근대화 과정을 세밀히 파헤쳐 보는 귀중한 企劃物인 것이다. 더군다나 任慶彬 會員의 「조선 치의학의 서양식 변화과정에 대한 고찰」은 史學徒의 눈에 비친 한국 齒科學이 西歐化 되어가는 변천과정에 촛점을 두어 특이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늘 변함없이 本 學會를 爲하여 깊은 關心과 愛情을 아끼지 않으시는 會員 諸位의 무궁한 發展을 기원하며 계속 격려 있으시기를 바란다. <朴勝五>

임 원 명 단

종신명예회장	이 동 섭	종신명예회장	이 덕 일	직전회장	이 한 수
회 장	김 정 균	부 회 장	이 병 태	총 무	박 승 오
이 사	김관홍·신재의·허정규·배광식			감 사	김 지 호

1986년 12월 10일 인쇄
1986년 12월 15일 발행

대한칫과의사학회지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Vol.7 No.1 1986

제7권 제1호 통권 7호

발행인 : 김 정 균 (대한칫과의사학회장)
편집인 : 박 승 오 (학 회 총 무)
발행소 : 대한칫과의사협회 산하 대한칫과의사학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64의8

Publisher Kim, Jeong-Gyum
Editor in chief Park, Sung-Oh
Address Yung-Doong-Po, C.P.O. Box 41, SEOUL, KOREA

<비매품>

등록 : 1977. 4. 15. 가 제 1—540 치과세계사